보이차
www.hongdawon.com
紅茶園 02)744-3311

현대불교

신상품 LED인등
찬덕연등 031)792-6288/794-4055

붓다뉴스 동영상 제공 기사 ☎구독신청 02)2004-8211~2 buddhanews.com 불기 2550년 (서기 2006년) 8월 30일(음력 윤 7월 7일) 수요일 (주간) 제 593 호

어린이 포교 길 넓어진다

조계종 전담팀 신설, 업무 일원화 · 노하우 전수 등 현장지원체제 구축

서울 'ㅂ' 사찰은 '어린이 포교를 하고 싶다'는 주지스님의 원력에도 불구하고 법회에 참석할 어린이들이 없어 고민이다. 스님은 어린이법회를 진행하는 방법도 모르고, 여법하게 진행할 지도교사를 구하는 일도 쉽지 않자 포교 원력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원력은 있어도 방법을 못 찾아 난감해하는 스님이 있다면?

올해 하반기부터는 어린이 포교의 길이 넓어진다. 법회를 열고자 하는 사찰에 어린이포교전문가들이 파견돼 컨설팅과 함께 법회운영 노하우를 전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어린이 불자 수가 줄어드는 사찰의 문제점을 진단해주기도 한다. 통일된 어린이법회 매뉴얼을 따라 의식집전을 하고, 계절에 따라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알찬 프로그램을 소개해준다.

조계종은 이르면 내달 초부터 포교원 내에 '어린이 · 청소년팀'을 개설하고 실질적인 포교전략을 통해 어린이 포교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불교 사상 처음으로 어린이 · 청소년포교 전담부서가 탄생하는 셈이다. 이미 조계종 기획실과 포교원, 교육원과 교계 어린이 · 청소년단체 실무자들로 이루어진 실무팀이 지난 7월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머리를 맞대고 '어린이 · 청소년팀' 운영방안을 논의해 온 상태다.

'어린이 · 청소년팀'은?

조계종은 8월 16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어린이 · 청소년팀 인원구성 원칙을 확정했다. 어린이 · 청소년팀은 포교원 산하에 포교원 내 1명, 타부서 파견 전문가 1명, 어린이 · 청소년 단체 실무자 1명 등 총 3명으로 구성된다. 9월 내 어린이 · 청소년팀이 발족하면 그간 팀구성을 위해 논의해왔던 실무팀은 해체된다. 어린이 · 청소년팀은 향후 △산재했던 어린이 · 청소년 포교 업무 일원화 △어린이 · 청소년 포교 지도인력 양성 및 컨텐츠 개발 △어린이 · 청소년 포교 관련 제도개선 등을 담당하게 된다.

어떤 일 하나?

실무팀은 어린이 · 청소년팀이 발족하는 9월에 맞춰 당장 실시하게 될 '하반기 계획'과 향후 2~3년을 내다보는 '중장기 계획'까지 단계적으로 수립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무팀에 참여하고 있는 관계자는 "첫 행사로 사부대중을 모아 종책을 발표하고 어린이포교의 의지를 다질 '어린이포교전진대회'를 기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어린이포교전진대회'는 10월 중 서울 조계사에서 열리며 어린이포교에 공헌한 공로자에게 표창을 하고 어린이포교에 대한 선언과 비전을 발표하는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새싹포교의 매뉴얼이 될 <어린이 · 청소년 법회 지침서>도 발간된다. 그간 어린이법회의 총괄적인 내용을 담은 지침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으나 2001년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현 사단법인 동련)가 <어린이법회 지침서> 1천부를 발간했던 것이 유일했다.

중장기 실천과제로는 '조직과 인력개발' '어린이법회 프로그램 개발' 등이 논의되고 있다.

인프라 구축도 진행 중

조계종 포교원과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회장 송묵 · 이하 불레협)가 9월부터 운영하게 될 대한불교교사대학 서울캠퍼스가 문을 열면 이런 걱정이 사라지게 된다. 교사대학 서울캠퍼스와 기존의 영남권을 주축으로 활동하는 대한불교교사대학은 어린이법회를 담당할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워졌다.

서울캠퍼스는 조계사교육원에서 9월 13일부터 6개월 과정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들 대학이 정상화되면, 매년 약 100여명에 이르는 어린이법회 지도교사들을 양성할 수 있다.

어린이 품으로 '찾아가는 법당'

무엇보다도 눈에 띄는 것은 어린이 · 청소년팀에서 예산을 지원하게 될 '찾아가는 법당' 프로그램. 동련과 파라미타, 불레협 등이 운영하게 될 '찾아가는 법당'은 한 마디로 어린이포교긴급지원팀이다.

긴급지원팀은 어린이법회를 열고자 하는 사찰에 투입돼 법회 개설을 돕고 지도 노하우를 전수하게 된다. 또 불자 수가 줄어들어 어린이법회 운영이 어려울 경우에도 간접적인 지원을 통해 효율적인 법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동련이 운영해오던 '찾아가는 어린이법당' 프로그램에서 착안한 것으로, 동련이 실무팀에 적극 제안한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동련은 전국의 사찰을 A~E등급으로 나눠 차별화된 법회 지원 전략을 수립한 상태다.

이은비 기자 renvy@buddhapia.com



"쉬운 우리말로 예불드려요"

'한글통일법요집' 완간 … 의식의 한글화 · 통일화 전기 마련

이제부터 조계종 스님과 신도들은 각종 불교의식 때 '한글'로 '한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다. 종단 차원에서 최초로 발간한 <한글통일법요집>이 완간됐기 때문이다. 이로써 불교의식의 생활화 대중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글통일법요집>은 2005년 4월 발간된 <천도 · 다비 의식집>과 이번에 나온 <상용의식집> 두 권으로 구성돼 있다.

<상용의식집>에는 일용의식으로 도량석 · 종송 · 상단예불 · 각단예불이, 상용의식으로 삼보통청 · 미타청 · 지장청 · 관음청 · 약사청 · 미륵청 · 나한청 등이 들어있다. 부처님오신날 발원문을 비롯해 각종 행사의 발원문도 소개해 활용도를 높게 했다.

<한글통일법요집>은 동국대 국문과 정우영 교수 등이 참여해 4 · 4 · 5조의 운문적 문체를 기초로 했다. 이에 따라 의식을 집전할 때 염송을 운율에 따라 여법하고 간략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또 의식의 통일성을 기하는 것은 물론, 집전의 편리성과 용이성을 높였다. 의식을 집전하는 법사와 이에 따르는 대중의 행동요령도 적시했다.

그 동안 불교단체나 사찰들은 개별적으로 <한글법요집>을 편찬해 의식을 거행해 왔다. 그러다 보니 의식의 통일성을 갖추지 못하고 내용의 완결성을 담보하기 힘들었다.

또 지금까지 불자들은 각종 의식 때 뜻도 모르고 집전하는 스님의 목탁소리나 염불소리를 들었을 뿐이었다. 이로 인해 의식에 참여하는 불자들의 진정한 염원을 담아내기 어려웠다.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 스님은 "이제 조계종도들은 불교의식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며, 이를 바탕으로 불교의식을 통한 불자로서의 삶과 종단의 정체성을 하나로 묶는 토대를 형성하게 됐다"고 <한글통일법요집> 완간 의의를 밝혔다.

그러나 "<한글통일법요집> 완간은 의식의 한글화 · 통일화의 시작일 뿐"이라는 견해가 다수를 이루고 있다. 현재 각 불교단체 및 사찰에서 진행되고 있는 불교의식을 한글로 통일하기 위해선 일정부분 강제성을 띄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각 사찰의 역사와 전통에 따른 독특한 예불의식 등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포교국장 재현 스님은 "행자 교육 시 <한글통일법요집>을 공식 교재로 채택해 줄 것을 교육원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행자 때부터 통일된 교재로 교육을 하면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된 후 자연스럽게 한글로 된 통일 불교의식이 이뤄질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재현 스님은 또 "각종 시청각 교재를 개발해 보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솔로 솔솔~ 사천왕님 먼지털기

구례 화엄사는 8월 18일부터 24일까지 일주일간 사천왕문, 금강문에서 360년 묵은 먼지를 털어내는 소제불사를 실시했다.

문화재 전문가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성보문화재 소제불사를 맡은 조계종 김홍식 성보전문위원(불교중앙박물관)은 "성보문화재의 최대 적은 습기"라며 "먼지가 끼면 수분을 머금게 되어 훼손 우려가 있어 2~3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소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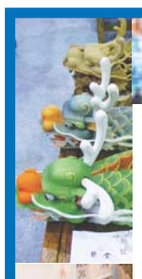
화엄사 사천왕문과 금강문은 조선중기(1632년) 벽암 스님이 화엄사를 중창하면서 건립된 전각으로 문화재 전문가에 의한 소제불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글 · 사진=이준엽 기자

큰스님 편안하십니까 24~25면
법주사 총지선원 한주 천룡 스님
시방세계 9면
갑사 아토피Zero 산사학교
종립대 차학과 안 만드나? 4면
원각사 재가논강 7면
이영숙 코모도호텔 대표 10면
앙굿따라 니까야 한글본 22면

<PR>

실물크기(3.5×5.0cm) / 금강경 24매
불경금책 소장용으로 인기리에 보급중 !!!
금강불교예술원에서 금강경, 반야심경, 천수경 등의 불경을 금책으로 제작보급하여 화제다. 99.9% 금으로 제작한 불경금책은 크기가 3.5cm×5.0, 5×7cm으로 휴대가 용이하며,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맞춤식 주문제작도 가능하다고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02)722-1850
(용도 : 복장의식, 상량식, 영가천도, 불사)


한국 최대 규모의 불교 전문 전시회
2007 한국불교박람회
본사와 (주)제이컨벤션에서는
불교관련산업과 불교문화산업 발전의 계기가 될
'2007년 한국불교박람회'를 공동 주최합니다.
이는 한국불교발전을 위한 정보와 문화의 장으로서 불교계 일반대중에게는 다양한 불교산업을 접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참가업체에는 업체성장과 관련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7년 한국불교박람회'에 불자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07. 3. 22(목) ~ 3. 25(일)
■ 장소 :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SETEC)
■ 주관 : 2007한국불교박람회사무국
■ 주최 : 현대불교신문사 ㈜제이컨벤션
■ 참가신청문의
현대불교신문사 영업부
Tel. 02)2004-8213~7 / Fax. 02)737-0696
Email. jabi1522@empal.com

제171회 중앙종회(임시회) 집회 공고

종헌 제39조 및 중앙종회법 제14조, 제15조 규정에 따라 제171회 중앙종회(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 다 음 -

▣ **집회일시** : 불기2550(2006)년 9월 4일(월) 오전 10시
▣ **집회회기** : 불기2550(2006)년 9월 4일(월) ~ 9월 8일(금)(5일간)
▣ **집회장소** :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내 2층 국제회의장
▣ **주요안건**
1. 종헌 개정 및 종법 제개정의 건
2. 기타

※ 제171회 중앙종회(임시회)는 제13대 중앙종회 임기를 마감하는 마지막 종회일 것으로 보입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제13대 중앙종회 임기를 마감하는 기념촬영이 있을 예정입니다. 의원 스님들께서는 제13대 중앙종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종회의원 스님께서는 가사장삼을 착용하시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기2550(2006)년 8월 23일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법등

가깝고도 먼 '중국불교' 확인

예쇼우원 中 종교국장 방한, 복수비자 문제 '우호적' 달라이라마 '맹비난'

중국정부의 종교정책을 총괄하는 최고 책임자 예쇼우원(葉小文) 중국 국가종교사무국장이 8월 24~27일 방한해 한 · 중불교계의 '관계설정'을 명확히 했다. 예쇼우원 국장의 이번 방한으로 '달라이라마 방한' '중국복수비자 문제' 등을 대하는 한국불교계와 중국정부의 시각차를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양국 불교교류 확대에 신중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예쇼우원 국장의 이번 방한은 동국대로부터 명예 철학박사학위를 받기 위해서다. 동국대가 지난 4월 37개국 1000여명이 참가한 '제1회 세계불교포럼'을 주관해 세계불교의 교류마당을 마련한 공적을 인정한 것.

24일 첫 일정으로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예방한 예쇼우원 국장은 "한국스님들의 중국 복수비자 문제 해결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겠다"는 통 큰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이내 동국대에서 "달라이 라마는 분열주의자"라며 맹렬히 비난하면서 달라이 라마 방한을 열망해온 한국불자들의 여망에 찬물을 끼얹는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최근 한 · 중 불교계의 인적교류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스님들의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하도록 복수비자 발급문제를 해결하는데 애써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예쇼우원 국장은 "비자문제는 외무부의 관할이고 '공민의 권리'와 관련된 사안이라 쉽게 대답하기 어렵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공민의 권리'란 표면적으로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외래종교의 확산을 막기 위해 종교를 믿지 않을 권리를 강조해온 중국 공산당의 정책논리.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은 체제안정을 위해 언론인, 정치인, 종교인 등에게는 복수 비자를 발급을 제한해왔다.



총무원장 지관 스님(왼쪽)은 예쇼우원 국장(가운데)에게 봉정사판 법화경 1질을 선물로 전달했다. 사진=조용수 기자

하지만 잠시 후 예쇼우원 국장은 중국 광주 남화사 주지스님의 친필 서한을 전달하면서 자신이 지관 스님의 중국방문을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중국 외무부와 상의해 지관 스님의 복수비자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시급하게 처리하겠다"며 입장을 바꿨다. 예쇼우원 국장의 발언은 한국스님들의 복수비자 문제를 종교국이 책임있게 풀어 나가겠다는 사실상의 확답인 셈이다. 이날 지관 스님은 "조계종은 신라 도의국사의 행적비를 공공산 보화사에 건립하고 있다"며 "2007년 말까지 기념비를 완공 할 수 있도록 종교국에서 각별히 노력해 달라"는 요구도 함께 했다.

한편, 예쇼우원 국장은 자신의 명예박사학위 수여식이 열린 동국대에서 달라이 라마 방한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달라이 라마는 해외에서 조국의 분열을 책동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난하고 "한국 정부나 국민들도 중국인민의 감정을 손상시키는 일은 하지 않을 거라 믿는다"며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다.

이후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 김명곤 문화관광부장관 등을 잇달아 만나 중국정부의 종교정책을 설명하고 환담을 나누는 등 바쁜 일정을 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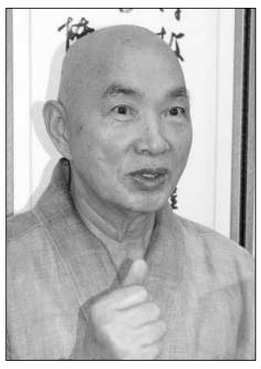
한국 불교계는 이번 방한으로 중국불교의 가깝고도 먼 '실체'를 한 번 더 실감했다는 게 대체적인 여론이다.

조용수 · 남동우 기자

"군 · 어린이 포교에 종단 전체 나서야"

포교원장 임기 마친 도영 스님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 스님이 9월 4일 오후 5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에서 열리는 퇴임식을 끝으로 임기를 마무리한다. 종단 사상 처음으로 포교원장 5년 임기를 채운 도영 스님 퇴임의 변을 8월 19일 스님이 주지로 있는 완주 송광사에서 들어봤다.



△퇴임 소감은?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포교원장으로 재임하면서 잘했다는 생각보다 부족했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기 때문이다.

△재임시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종책은?

-신도 교육체계를 갖춘 것이다. 기본교육을 받은 사람은 계를 받고, 신도증을 발급받도록 하는 등 체계화했다. 그 다음 1년 이상 불교대학의 인가제 전환을 들 수 있다. 신도 기본 · 전문교육에 부족했던 각종 교육 자료를 만드는 것에도 주력했다.

△재임시 군 포교에 상당한 애정과 노력을 기울였는데?

-어린이 · 청소년 포교의 대안을 군 포교에 뒀다. 그 결과 군종특별교구가 설립되기도 했다. 이제 군종특별교구 뿐만 아니라 개사찰에서도 군법당과 자매결연을 해 적극 나서야 한다.

△포교원 산하단체에 대한 생각은?

-산하단체의 안정적인 포교활동을 위한 기반을 만들고자 노력했다. 그 결과가 불교상담개발원의 '자비의 전화'나 중앙신도회의 '날마다 좋은 날' 법인 설립이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각 지역의 지부 활성화를 하지 못한 것이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먼저 대학생불교연합회가 활성화 되지 못한 점이다. 대불련을 활성화하기 위해 '1사찰 1대학 결연 맺기'를 추진하려고 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또 기업인들이 포교를 지원할 수 있는 기구를 설립하려 했는데 하지 못했다. 지금부터라도 종단 차원에서 불교기업인연합회를 만들어야 한다.

△포교 활성화를 위해 조언해 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포교원장을 하면서 한계를 많이 느꼈다. 총무원에서 포교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포교 관련 인사고과제를 실시해 반영한다면 어린이 · 청소년 법회부터 활성화 될 것이다. 3급 승가고시에 군 포교 경력을 인정해 준다면 많은 스님들이 군법사에 지원할 것이다.

△향후 계획은?

-포교원장을 비롯해 9년 동안 종단 소임을 맡으며 봉사해왔다. 이제 송광사에 내려와 지역불교 활동에 정진하고 싶다. 송광사를 불교적 색채가 강하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불교와 친숙해질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

완주 송광사=남동우 기자

'비구니 계율' 심포지엄 개최

전국비구니회 10월말 전문가 초빙해 '대토론'

조계종 전국비구니회(회장 명성)가 국내외 계율전공 학자들을 초청해 '비구니 계율'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규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

전국비구니회는 8월 17일 전국비구니회관에서 열린 월례회의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불평등한 비구니 계율을 대대적으로 점검하고 바로세워 나가자는데 합의하고 오는 10월말 '비구니계율'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명성 스님은 "시대가 변하고 비구니 스님들의 위상이 강화됐음에도 무조건적인 차별조항이 가득한 비구니 계율은 전면적인 검토와 개선방안을 마련해 할 시점에 왔다"며 "국내외 비구니 계율을 중점적으로 연구해 온 학자들을 초청해 비구니 계율의 근본정신은 물론, 시대의 흐름에 맞게 개선돼야 할 점은 무엇인지 등을 면밀히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개최 예정인 심포지엄에서는 봉녕사 율원장 묘엄 스님과 비구니 회장 명성 스님의 특강, 국내외 계율 전공 학자 특강, 비구니 계율의 근본정신과 의미 및 적용 과정에 대한 토론회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기획실장 혜원 스님(동국대 선학과 교수)은 "이번 심포지엄은 계율 전문가들을 초빙해 현재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비구니계율의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공식적인 첫 시도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다"며 "이 자리에서는 비구니 팔경계법의 재해석과 함께 현재 종헌종법상에 들어있는 비구니 차별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지적될 것"이라고 말해 심포지엄에 큰 기대를 걸고 있음을 내비쳤다. 또 혜원 스님은 "구체적인 일정과 프로그램은 9월 14일 회의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비구니회는 국제화시대에 발맞춰 비구니 스님들이 외국어 학습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 외국 유학승들의 장학제도 지원사업 등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일 기자

'간화선' 집에서 DVD로 배운다

조계종 포교원 동영상 보급

간화선 주요 내용이 초심자, 재가불자들을 위해 동영상(DVD)으로 제작됐다. 조계종 포교원이 제작한 간화선 DVD는 30분 분량으로 간화선의 역사, 실참수행법, 선원장 스님 인터뷰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외국인들을 위해 한글판 외에 영어 더빙본을 제작돼 간화선 해외 홍보에 많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

간화선 DVD는 2005년 12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약 7개월간 제작됐다. 충주 석종사 금봉선원을 배경으로 실제 수행스님들이 출연했으며 동화사 금당선원, 상원사 용문선원, 백담사 무금선원, 도의 국사 수행지 진전사, 해인사, 월정사, 화계사 등지에서도 촬영이 이뤄졌다.

포교원측은 "교구본사 및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등 주요사찰과 선 포교사 프로그램 이수자에게 우선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통도사서 8재계 수계실천대법회 연다

8재계 수계실천대법회가 9월 2일부터 3일까지 1박 2일간 양산 통도사 설법전에서 열린다.

조계종 포교원이 주최하고 포교사단이 주관하는 행사는 올해로 4번째로 열리며, 2000여명의 포교사 및 일반불자가 참여할 예정이다.

행사는 입재식을 시작으로 통도사 전계사 혜남 스님 강의, 예불, 8재계 수계법회, 법인정사 선원장 설우 스님 강의, 촛불행진(사경지 소각), 철야정진(천수경 · 108참회문 · 금강경), 새벽예불 및 몸풀기, 아침공양, 지역단홍보, 품수식 순으로 진행된다.

양성홍 포교사단장은 "8재계 법회는 재가불교 지도자로서의 자긍심과 자질을 고양시킬 뿐 아니라, 바람직한 포교사의 조직 · 운영 · 관리를 위한 소양을 함양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해외 스님 장학생 7명 선발

조계종, 학비지원 등 '관리'

조계종 교육원은 8월 23일 회의를 열고 2006년도 해외 장학승에 지우원영 보적 공해 법경 동호 해강 스님 등 총 7명이 선발했다.

조계종은 매년 해외 정규대학 석사과정에 재학중인 스님들에게 학비를 지원하고 있다.

남동우 기자

"FTA 체결 지원 당부"

한덕수 위원장 지관 원장 방문



대통령직속 한미 FTA체결 지원위원회 한덕수(경제부총리) 위원장이 8월 22일 오후 3시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예방해 한미FTA 체결에 대한 종교계의 지원을 부탁했다.

지관 스님은 "종교인으로 경제문제에 대해 깊은 식견은 없지만 국민들과 미국을 설득해야 하는 정부의 어려운 처지를 잘안다"며 "다만 한미 FTA를 반대하는 분들 가운데 특히 농촌 사람들은 이를 감내할 여력이 없으니, 정부가 이들이 유심히 살펴 고통받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성장과 양극화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의지를 담아 종교계 지도자에게 드리는 글'을 지관 스님에게 전달했다.

조용수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 ·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노진환
110-030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온라인광고 애드부다피아 http://ad.buddhapia.com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제6기〉 창조적 리더십의 불교지도자!
불교경영자 최고위과정
Buddhist Executive Management Course

"사원과 종단, 사업과 언론 · 정치 · 법조계 등, 각계 지도자 여러분, 창의적 정신과 도전적 리더십으로 진정한 변화와 개혁의 리더로 거듭나십시오."

모집안내

모집인원	• 40명 내외
지원자격	• 각 불교종단의 지도자급 이상 스님 • 불교신도로서(공 · 사기업체 회장 · 사장 임원, 국회의원, 정부 각 기관 고위 공무원, 각 군의 장성, 의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
전형방법	• 서류전형 후 개별통지
원서교부 및 접수	• 일시 : 2006년 8월 1일 ~ 8월 31일
강의시간	• 매주 수요일 18 : 00 ~ 22 : 00

교육일정

일 자	초청강사	강의제목	소 속
9월 6일	월운스님	반야 중관사상과 불교적 지혜	동국역경원장
9월 13일	김형효	불교의 철학적 이해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박세일	대한민국의 선진화 : 국가비전과 전략	서울대 교수
9월 20일	공병호	리더의 자기경영	공병호경영연구소장
9월 27일	김형준	신화로 본 인도사상	원광대 동양학대학원 교수
	조용길	대 · 소승비판	동국대 불교대학원장
10월 11일	혜거스님	초청법문	금강선원장
10월 18일	정우택	불화로 읽는 불교이야기	동국대 박물관장
	김병국	협상으로 이해하는 갈등	K&P Consulting Co.대표
10월 25일	조동성	지속가능경영	서울대 교수
	이원철	건강과 미병(未病)의학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장
11월 8일	선재스님	부처님 말씀에 담긴 몸에 좋은 음식이야기	선재사찰음식문화연구원장
	이종선	Leader's P.I.	이미지디자인 컨설팅사 대표
11월 15일	서두칠	경영혁신과 리더십-열린경영	동원시스템(주) 부회장
	배병길	건축,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배병길건축연구소장
11월 22일	이시형	왜 지금은 자연의학인가?	이시형 클리닉
	송희연	한국경제의 미래 : 비전과 방향	아시아개발연구원 이사장
11월 29일	각성스님	불교대의 : 화엄사상과 생명의 실상	부산 화엄사 주지
	김규칠	현대의 의지와 국가의 탄생에 관한 신학적사유에 대하여	대한불교진흥원 감사
12월 6일	차중근	유한의 경영시스템과 윤리경영	(주)유한양행 대표이사
	무진장스님	불국토 청정	前 조계종 포교원장
12월 13일	배병휴	21세기 한국경제의 진로와 과제	월간 경제풍월 대표
	김광억	현대중국사회의 이해	서울대 교수

〈제2기〉 아름다운 프로!
장례비즈니스 아카데미
FBA (Funeral Business Academy)

"장례비즈니스의 전문성이 더욱 절실한 시대, 죽음 관련학과가 세계 주요대학의 인기학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가장 유망한 분야에서 아름다운 프로의 날개를 다십시오!"

교육과정
▶ 교육기간 : 1년
▶ 수업시간 : 매주 월 · 화요일 18:30~21:20
▶ 교과과정 : 이론 및 실무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 (전문 분야의 특강과 다양한 실습, 견학, 연수 프로그램 포함)

입학안내
▶ 모집인원 : 25명 내외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전형일정 : - 원서교부접수 : 2006년 8월 31일까지 - 전 형 일 : 개별통보
▶ 입학생 특전 : 장례지도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부여, FBA 수료증 수여(동국대학교 총장 명의), 해외 관련업계 연수(자비), 장례비지니스 관련한 다양한 인적교류의 네트워크지원 및 확대기회제공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http://graduate.dongguk.edu/bs TEL.02)2260-3098 / FAX.02)2277-1274
100th Anniversary DONGGUK UNIVERSITY

“한국불교 원더풀!”

세계 영상동호인들 봉은사서 템플라이프



봉은사 ‘템플라이프’에 참여한 UNICA 회원들이 교육국장 선업 스님의 지도로 참선을 체험해 보고 있다.

8월 26일부터 열리는 대구세계영화제 참석을 위해 한국에 입국한 세계영상동호인 300여명이 봉은사를 찾았다.

23일 서울 봉은사(주지 원혜) ‘템플라이프’에 참가한 25개국 300여명의 영상동호인들은 “원더풀!”을 연발하며 한국불교의 아름다움에 빠져들었다.

이들은 봉은사 교육국장 선업 스님이 영어로 진행하는 ‘참나를 찾는 참선’을 접하며 간화선을 체험하고, 다도예법을 배우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원혜 스님은 “부처님께서 ‘우주만물은 서로 의존해 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씀하셨듯 세계 예술인과 봉은사가 만난 것도 오래 전 정해진 소중한 인연일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문화와 여러분의 문화와 예술을 잇는 공존의 다리를 놓아 달라”고 당부했다.

UNICA(세계비상업영화기구)의 막스 핸실 회장은 “짧은 시간이나마 명상과 사찰체험을 통해 한국불교를 알 수 있도록 배려해 준 봉은사에 감사한다”며 “도심 속에 전통사찰이 위치해 있어 놀라웠다”고 말했다.

개인적으로 불교에 깊이 매료돼 3년 전 불교에 관한 단편영화를 만들고, 3주간 달라이 라마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촬영하기도 했다는 막스 회장은 “한국불교는 놀랍고 판타스틱하며 불자들이 친절하다”고 밝혔다.

유네스코 산하단체인 UNICA는 아마추어와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순수 영상예술을 추구하는 비전문영화인단체로, 8월 26일~9월 2일 대구와 경주에서 ‘UNICA 총회 및 세계영화제’를 개최한다.

이은비 기자 renvy@buddhapia.com

용주사 인근 골프장 증축 논란

화성 용주사 인근에 골프연습장이 대규모로 증축되고 있어 수행환경이 침해 되고 있다.

용주사에 따르면, 국방부 소유 골프장인 남수원체력단련장을 운영하던 군인공제회는 38억원을 들여 지난해 11월 골프장내 연습장 증축 공사를 시작했다. 공사는 7개의 기존 타석을 44개로 늘리고 37m 높이의 철골 구조물도 45m로 높여 19개를 설치, 현재 9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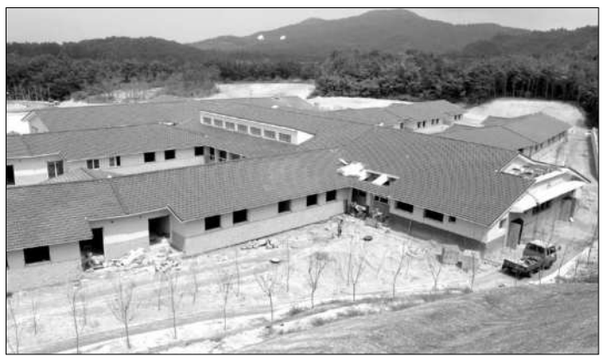
높은 철골 구조물이 들어서자 비로소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용주사는 “골프연습장이 국보인 용주사 범종과의 거리가 불과 300여m인데다 철골구조물을 40m 이상 높이는 바람에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19일 군인공제회측에 공사 중단과 시설물 원상복구를 요구했다.

이후 24일에는 용주사 스님과 신도 300여 명이 공사중단 등을 촉구하며 골프연습장 앞에서 시위을 벌인데 이어 조계종 총무원을 통해 국방부, 문화재청, 경기도청, 화성시청 등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로 했다. **박봉영 기자**

‘소쩍새’ 이천에 새 둥지 마련

승가원자비복지타운 9월 7일 준공 법회

진료실 등 최신시설에 200명 생활 가능



9월 7일 준공식을 여는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자비복지타운.

막바지 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8월 23일. 경기도 이천시의 야산 3만평에 세워진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자비복지타운(원장 묘전)은 9월에 열릴 준공법회를 앞두고 현재 시설 마무리 작업이 한창이다.

당초 계획했던 9천여 평 규모의 승가원자비복지타운은 향후 4년간 단계적으로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그 중 1단계 사업인 생활관이 현재 완공된 상태다.

정신지체장애인 150여명과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등 총 2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1200평 면적의 생활관을 완공한 승가원은 9월 말부터 원주 소쩍새마을 장애인들을 입주시킬 계획이다. 원장 묘전 스님과 전문자격증을 갖춘 생활지도원 69명도 승가원자비복지타운에 함께 상주하며 24시간 장애인을 돌보게 된다.

모든 생활관 건물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해 1층으로만 지어졌으며 문을 열면 복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야외로 통하도록 설계해 최대한의 활동성을 보장했다. 아파트형 단독주거형태를 띠고 있는 모든 방사에는 2개 이상의 방과 거실, 화장실 2개, 욕실 1개가 딸려 있으며 개별 냉난방 시설을 구비해 장애인들이 큰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원주 소쩍새마을 가족 중 4쌍의 장애인 부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부부방사 6채를 따로 마련했다. 부부방사는 2인용 방에 화장실, 욕실이 딸려 있어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생활관 사무동 안에는 사무실, 상황실, 원장실, 치과진료실, 간호사실, 상담실, 물리치료실 등이 들어선다.

장애인을 위한 세심한 배려는 곳곳에서 발견된다. 장애인들의 동선을 고려해 최대한 짧은 거리로 이동하도록 사무실과 강당, 식당을 생활관 중앙에 일직선으로 배치한 건물 구조, 휠체어가 쉽게 드나들 수 있도록 일체의 문턱이 없는 문 등.

물론 해결돼야 할 문제점들도 존재한다. 인터넷 LAN선이 들어오지 않는 곳이라 하루 빨리 설치작업을 진행해야 할 상황이다.

원장 묘전 스님은 “소쩍새마을이 미인가시설 시대를 닫고 승가원자비복지타운으로 거듭나게 된다”며 “불자들의 모연금으로 소쩍새마을 인수 10년 만에 이뤄진 숙원 사업이라 의의가 크다”고 밝혔다.

준공법회는 9월 7일 오후 3시 봉행된다. **글 · 사진/이천= 이은비 기자**

“전통 사찰음식 전문가 양성해야”

대중화 방안 세미나

“전통 사찰음식 조리 전수자를 보호 · 육성하고 일반인을 위한 교육공간을 확충해야 한다. 일반인들의 구매의사가 높은 식품을 조사해 상품화하는 방안도 연구되어야 한다.”(동국대 가정교육과 이심열 교수)

“‘사찰음식협의체’를 구성하고 종단 차원의 ‘사찰음식문화 큰잔치’ 같은 행사를 개최해 사찰음식 알리기에 적극 나서야 한다.”(조계종 문화부장 탁연 스님)

조계종(총무원장 지관)이 사찰음식의 대중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사찰음식의 우수성 및 대중화 방안’ 세미나가 8월 2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는 150여 명이 참석해 사찰음식의 우수성을 재확인하고 대중화 · 산업화 방안을 논의했다.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사찰음식에 대한 관심이 급증함에 따라 종단 차원에서 사찰음식을 정리하고 집대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앞으로 승 · 재가 교육을 통해 사찰음식의 정신과 우수성을 알리는 한편 문화관광부의 한브랜드사업과 한국불교 세계화 사업 등에 동참함으로써 사찰음식을 세계에 알리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세미나에서는 한국전통사찰음식문화연구소장 적문 스님이 ‘사찰음식의 변천과정과 정신’을, 선재사찰음식연구원장 선재 스님이 ‘사찰음식의 특성 및 우수성’을, 동국대 이심열 교수(가정교육과)가 ‘사찰음식의 대중화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세미나에서 특히 눈길을 끈 것은 동국대 가정교육과 설문조사 결과.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 응답자의 40%가 사찰음식을 건강식으로 생각하며 연령대가 높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기혼일수록 사찰음식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들은 사찰음식 중 부식류와 김치 · 장류 · 한과 등을 대중화 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여수령 기자**

현등사 사리구 소송 2 라운드

조계종 추진위 발족 … 법원항의 방문 · 서명운동

“삼성문화재단이 점유하고 있는 현등사 사리는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조계종 총무원과 현등사는 8월 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에서 ‘현등사사리 제자리 찾기 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철안 · 원담, 이하 추진위)’를 발족했다.

봉선사 주지 철안 스님은 “7월 20일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린 현등사 사리구 반환소송 1심 판결에서 ‘현등사의 동일성 부정’을 이유로 피고인 삼성문화재단의 손을 들어 준 것은 대한불교조계종의 법통을 부정한 편향된 판결”이라며 “소송을 통해 재판부의 판결은 물론 삼성문화재단의 현등사 사리 소유가 잘못됐음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추진위는 서울지방법원을 항의 방문하는 것을 시작으로 앞으로 △전국 사찰에 항의 현수막 설치 △삼성 리움미술관 사리친견 법회 개최 △천만불자 서명운동 △중앙종회 및 본사주지회의 항의성명 채택 등의 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노병철 기자**

경주 사천왕사 익랑지 발견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소장 윤근일)는 경주 사천왕사지(사적 제8호) 발굴조사 중 4월 25일 익랑지(翼廊址: 날개처럼 펼쳐진 회랑)를 발견했다고 8월 24일 밝혔다.

이번에 발견된 익랑은 금당 좌우에서 동회랑과 서회랑에 직각으로 이어지는 동서 방향으로 놓인 회랑으로 현재 사천왕사지의 서익랑지는 1칸×9칸으로 구성돼 있다. 주칸 거리는 2.6~2.7m로 모두 등간격이며, 동서 길이는 21.0~22.4m이다. 서익랑은 서회랑과 직교하여 동쪽으로 연결되고 있으며, 동쪽 끝은 금당 서측면 중앙에 닿아 있다.

이와 같은 익랑지의 구조는 1979년 발굴 · 조사됐던 경주 감은사 익랑과 거의 동일한 배치를 보이고 있어 흥미롭다. **노병철 기자**

정토회, 北 수재민 지원 활발

250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 수재민을 돕기 위해 불교수행단체인 정토회(지도법사 법륜)의 활동이 눈길을 끈다.

정토회는 8월 3일 인천항에서 밀가루, 라면, 의류, 양초 등 1억2000만원 상당의 1차 구호물품을 보낸데 이어 4일, 9일, 14 · 16일 차례로 인천과 단둥에서 구호물품을 보냈다. 24일에는 밀가루 500톤과 의약품 등 2억4000만원 상당의 5차 구호물품을 조선해외동포원호위원회를 통해 북한 수재민들에게 지원했다. 5차 구호품은 14대의 트럭, 28개의 컨테이너에 실려 가장 피해가 큰 것으로 알려진 평남 양덕군, 신양군, 성천군 등으로 보내진다.

한국JTS측은 “북한 이재민들에게 남녘동포의 자비와 온정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정성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후원 국민은행 075601-04-000298 예금주 한국JTS **박봉영 기자**

日, 北 종교인 비자발급 거부

일본 정부가 8월 26~29일 교토에서 열리는 세계종교인평화회의(WCRP) 총회에 참가하려던 북한 종교인 대표단의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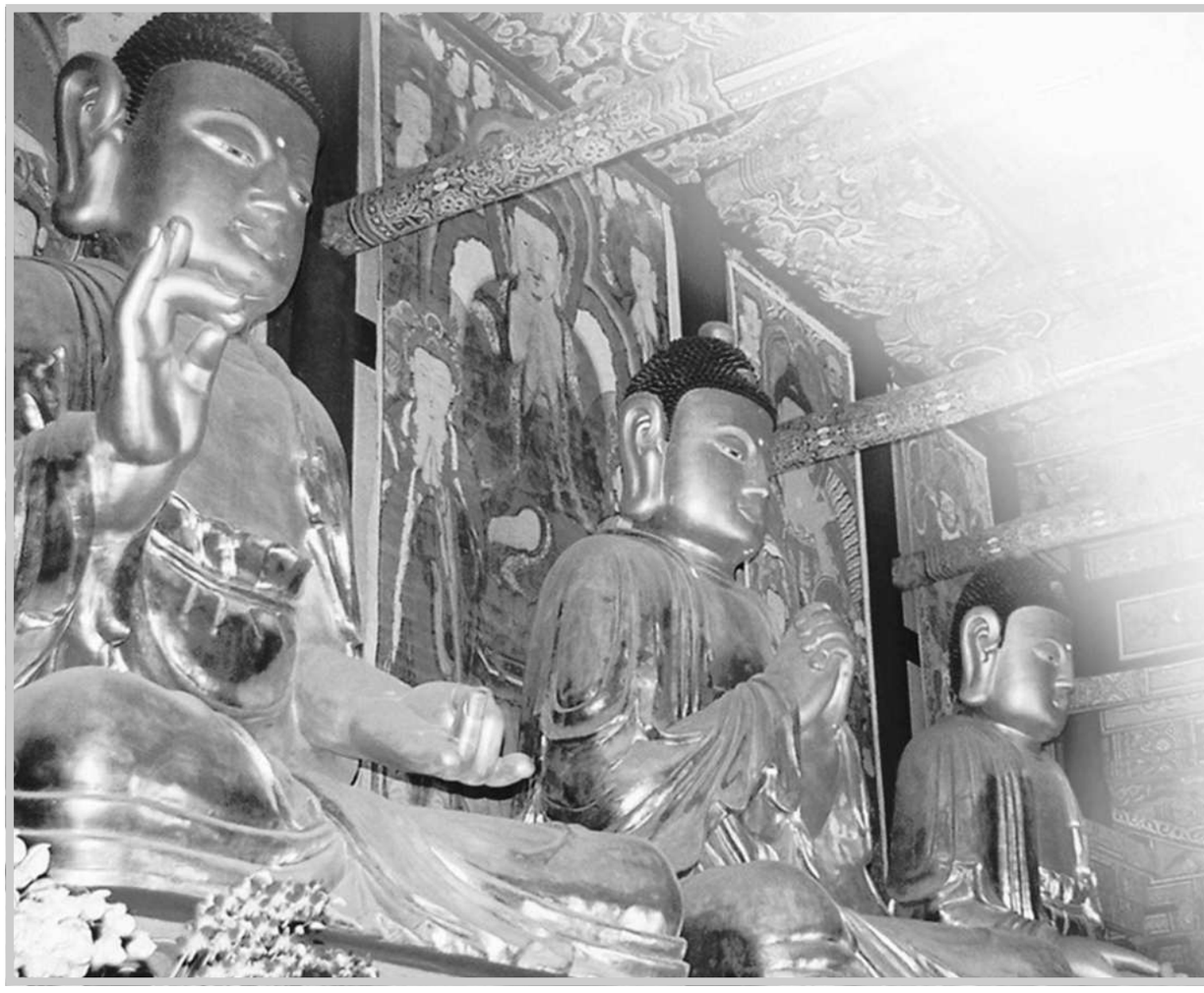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는 8월 24일 “일본 정부가 북한 종교인들의 입국을 거부한 것은 순수한 종교행사를 정치 이념적 보복수단으로 삼은 것”이라며 WCRP 대표들과 함께 일본 정부에 정확한 경위 해명과 사과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KCRP는 성명에서 “일본정부의 조치는 세계종교인들의 평화 의지마저 부끄럽게 만드는 파렴치한 행위”라며 “이번 교토 총회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위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자 했던 한국종교계의 기대를 좌절시켜 깊은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봉영 기자**

연화원 호스피스 교육

사회복지법인 연화원(이사장 해성)이 9월 22일부터 호스피스 간병 및 케어복지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수화, 사회복지개론, 케이개론 및 실습교육을 필수로 마쳐야 하며 상담심리, 호스피스 윤리, 유서작성 및 임사체험을 선택과목으로 수강할 수 있다. 필수교육 이수 후에는 수화기초반 수료증 자격증과 케어복지사 2급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02)2202-5831 **이은비 기자**



“천년의 향기를 만난다”

보물 제 915호 대웅보전 복원불사를 원만회향하고 보물 제 1360호인 국내 최대 소조불상인 대웅보전 삼존대불 복장봉안 및 개금불사를 봉행합니다.

법주사 대웅보전 삼존대불
개금 · 복장 불사 회향 대법회

- 일 시 : 불기 2550년 9월 12일 (화요일)
- 장 소 : 법주사 대웅보전

1부. 삼존불 개금 · 복장 불사 점안식 - 오전 9시 30분
(삼존불 후불탱화 · 신중탱화 · 지장탱화)
2부. 삼존불 개금 · 복장 불사 점안 대법회 -오전 10시 30분
3부. 보살계 수계식 - 오후 1시 30분
4부. 10만등 점등식 - 오후 7시

▶ 문의 • 종무소 : 043-543-3615 • 원주실 : 043-543-4755

茶 인구 500만 … 포교 · 문화 새코드 인식해야

종립대 차학과 개설 안 하나 못 하나

원불교 종립 원광대, 학부 – 석사 – 박사과정 학제 완비
기독교, 차문화협회 설립해 연구 · 선교활동 펼쳐
동국대, 정원 감축 · 수요 부족 이유로 학과 개설 미뤄



최근 기독교계 내에서도 '차문화'를 이용한 선교방안이 심도깊게 논의되고 있다. 사진은 4월 22일 서울 제일교회에서 열린 부활절 차문화 헌신예배 모습. 사진제공=세계기독교차문화협회



원불교 종립대학인 원광대는 차학과 개설과 학회 창립, 차문화 행사 개최 등 차와 관련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진은 원불교 헌다례 모습. 현대불교 자료사진

차(茶)가 우리 시대를 읽는 또 다른 키워드로 떠오른 지 오래다. 국내 차 인구는 400만~500만명을 헤아리고, 한해 차음료 시장 규모는 800억원을 넘어섰다. 과자, 아이스크림 등 녹차를 이용한 식품들이 속속 선보이고 의류, 화장품 등 일상생활 곳곳에 차가 활용되고 있다. 바야흐로 '차 전성시대'라 할 만 하다.

이처럼 차가 산업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으면서 차에 대한 학문적 연구도 주목받고 있다. 최근 각 대학에서는 학문적 미개척지인 차 관련 학과를 속속 개설하고 있다. 원광디지털대학교 차문화경영학과에는 매년 2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입학할 정도로 대중적 요구도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차와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교계는 잠잠하기만 하다. 현대인들의 차에 대한 관심을 '포교'로 연결하고 불교의 차문화를 학문적으로 정립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불교계 종립대학의 차 학과 개설 필요성과 전망을 짚어본다.

▷ 차 학과 개설한 대학은?

현재 차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은 모두 10곳. 학부 5개 과(사이버대학 1곳 포함)와 석사과정 5개 과(산학협동과정 1곳 포함), 박사과정 1개 과이다.<표 참조>

차 관련 학과 중 가장 먼저 개설된 것은 석사과정으로, 대부분 특수대학원이나 사회교육원 내에 문을 열었다. 1993년 성신여대 석사과정의 예절다도학과를 시작으로 2000년 성균관대, 2002년 한서대, 2003년 원광대가 각각 석사과정을 개설했다.

학부 과정은 최근 2~3년 사이에 부산여대는 2003년, 원광디지털대학은 2004년, 서원대는 2005년 각각 문을 열었고, 현재 수시모집 중인 동신대는 2007년 개교한다.

원광대학교는 지난해 국내 최초로 차 관련 박사과정을 개설함으로써 학부–석사–박사과정을 잇는 학제를 완비해 차계의 환영을 받기도 했다.

이 같은 차 학과 개설 붐은 차가 특정인이 즐기는 취미활동에서 벗어나 '학문'으로 정착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 차 학과, 왜 필요한가?

차 학과 개설의 필요성은 그간 불교계 내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한서대 정인오 교수(차학전공)는 "차 학과 개설은 차를 단순한 '음료문화'나 '취미활동'이 아닌 '학문'의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라며 "그간 자연과학 · 역사 ·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제각각 이뤄져 온 차 관련 연구 성과를 결집함으로써 학문적 토대를 쌓는다는 의의가 있다"고 말한다. 초의학술재단 이사장 용운 스님은 "소수 집단에 의해 전승되어 오던 문화가 대중화되고, 대중화에 따른 산업화가 맞물려 진행되면 해당 분야에 대학 학문적 정립 요구는 자연히 뒤따르게 된다"고 말한다.

최근 요가나 명상, 서예 등 개인적 취미활동에 머물던 문화와 관련된 학과들이 속속 개설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학문 정립의 필요성' 외에도 불교계 차 학과 개설 목소리가 높은 이유는 '연구' 차원을 넘어 차를 포교의 일환으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이웃 종교는 차를 활용한 포교 활동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원불교 종립대학인 원광대의 경우 든든한 자금력과 추진력으로 차 학부와 석 · 박사 과정을 모두 개설한 유일한 대학이다.

원광대는 단순히 학과 개설에만 머무르지 않고 한국국제차문화학회를 창립해 전공자들이 연구 성과를 펼쳐 보일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박람회나 차문화 행사에 참가하는 등 다양한 외부활동을 펼침으로써 학과 알리기에 앞장서고 있다.

이에 더해 원불교는 각 교구 당 1 차회 개설을 의무화하며 차를 이용한 포교에 앞장서고 있다.

원광대 차 학과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은 "차를 공부하기 위해 여러 학과를 알아보다 학제가 완비된 원광대를 선택하게 됐다"며 "원불교 헌다례 등을 배우다 보니 자연스레 원불교에 관심이 가고 호의적인 시각을 갖게 된다"고 말한다.

20여년 간 차회 활동을 해 온 정보영(54)씨 역시 "차를 배우는 사람들 중 불자들이 많은데, 불교계 종립대학에 차 학과가 없으니 다른 곳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기독교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2000년 '기독교차문화협회'가 만들어진 이후 기독교 내에서도 차 연구와 차를 활용한 선교 활동이 펼쳐지고 있다.

세계기독교차문화협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차를 불교문화로만 인식해 이단시하는 현실을 개선'하고 '차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설립목표로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연꽃이나 만(卍)자가 새겨진 다구 대신 '기독교 다구'를 개발하고, 소식지를 발간하고 있다.

그렇다면 불교계는 어떨까? 사실상 우리나라 차문화를 이끌어 왔다고 할 수 있는 불교계에서는 출가자들의 개인적인 음다 취미나 사찰에서 운영하는 다회 활동이 전부인 실정이다. 동국대 김상현 교수(사학과)는 "'차와 불교'를 연구하기 가장 적합한 곳이 불교 종립대학"이라며 "지금부터라도 학과를 개설하고 차와 불교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 불교 종립대, 필요성 인식해야

그간 지속적인 차 학과 개설 요구에도 불구하고 종립대들이 차 학과를 쉽게 개설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재정 · 인적 문제와 학생 확보의 어려움을 들 수 있다.

그간 끊임없이 차 학과 개설을 요구받아온 동국대는 '정원감축'과 '수요 부족'을 이유로 개설을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학부나 일반대학원에 차 학과를 개설한다면, 다른 학과의 정원을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동국대 이사인 영담 스님은 "정부 방침에 따라 2010년까지 전체 학생수의 10%를 감축해야 한다. 동국대는 2천명 가까이 정원을 줄여야 하므로 학과 신설은 어렵다. 차 학과를 개설할 경우 다른 과를 폐과시키거나 정원을 줄여야 하는데, 이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다"고 말한다.

지난해부터 '차문화학과' 신설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기는 했지만, 실제 등록생이 적을 경우 폐과될 위험마저 있기 때문에 신설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사회교육원이나 특수대학원 차 학과 신설 역시 신입생 확보와 재정마련 등의 이유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진각종 종립대학인 위덕대와 천태종 종립대학인 금강대 관계자들은 "차 학과 개설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된 바 없다"고 말해 차 학과 신설이 관심의 대상조차 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신입생 · 재정 마련보다 학과 신설을 방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은 불교계의 '인식 부족'을 들 수 있다. 동국대의 경우 '불교와 차'의 연관성을 볼 때 충분히 학과를 개설하고 지원할 이유가 됨에도 추진하지 못하는 것은 이사와 학교측이 필요성을 충분히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차계에 몸담고 있는 스님들이나 차계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하루 빨리 불교 종립대에 차 학과가 생겨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초의차문화연구원장 여연스님은 "처음 동국대에 차 학과 개설 필요성을 제기했던 10여년 전에는 시기상조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지만, 차 인구도 늘고 차에 대한 관심도 증가한 지금은 차 학과 개설에 적기다"며 "종단이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차 학과 개설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한다.

강지연 · 여수령 기자

■ 차 학과 개설 현황

▷ 학부
- 서원대 차학과 4년제
- 동신대 차학과 4년제
- 원광디지털대학 차문화경영학과 사이버대학
- 부산여대 차문화복지학과 2년제
- 마산대학 국제소믈리에학과 2년제

▷ 석사과정
- 성균관대 생활과학대학원 예절다도학과
- 성신여대 문화산업대학원 예절다도학과
- 원광대 동양학대학원 예문화와다도학과
- 한서대 건강증진대학원 차학전공
- 목포대 국제차문화학 협동과정

▷ 박사과정
- 원광대 일반대학원 불교학과 예다학 전공과정

봉행

국운융창 및 호국영령과
선망부모 왕생극락 수륙대법회

증명 : 靈山 一空 大宗師

- 삼 화 상 : 부종정 법신. 원로원장 송산. 승정원장 체운
- 고 문 : 법륜
- 자문위원 : 성관. 체의. 평신. 천호. 지관
- 봉행위원장 : 총무원장 대행 선진
- 봉행위원 : 대월. 선덕
- 집 전 : 심진. 운경. 혜암. 혜안
- 추진위원 : 경북종무원 불선. 부산종무원 대천. 인천종무원 보연. 충남종무원 체두. 강원종무원 대광. 경기종무원 성인
- 준비위원 : 진호. 홍제. 체법. 성해. 진허
- 찬조출연

무용 : 진여심. 사물 : 여울림예술단(단장 이영제외 5명). 대금 : 정시영. 태평소 : 임영순

◆ 일 시 : 2006년 9월 12일(음, 윤 7월 20일) 화요일 오전 11시 30분
◆ 장 소 : 충청북도 충주시 중앙탑 공원
◆ 연락처 : 전화 02)853-0531~2 / 팩스 02)853-0533

사단법인 대한불교 원융원(종)

2006학년도 불교전통의식 교육대학 후기 신(편)입생 모집

귀의삼보하옵고
1989년 설립하여 불교의 전통의례 · 의식 · 범음(범패)를 계승 · 발전 시켜온 본 대학에서는 2006년도 후기 신(편)입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배움에 어려움이 많아 맥이 끊어져 가고 있는 불교의례의식의 진행과정과 교리가 담고 있는 뜻을 좀 더 체계있게 전승발전 시키고자 범음 · 범패 · 요잡 및 작법 등 예경의식 과정을 개설하였습니다. 불교의례의식에 관심있는 스님 · 불자님 포교사님들의 많으신 문의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불교전통의식 교육대학 학장 혜산 合掌 -

1 모집학과

학 과	교 육 내 용	모집인원	비 고
기본과정	예경의식 및 조 · 석 예불, 불공시식	20명	6개월
전통의식과정	상주권공 및 불교의식론, 49재의식, 천도재,점안 및 제공의식, 전통교육	20명	1년
요잡 · 작법과정	바라춤, 나비춤, 법고 등 사물 다루는 법, 호적	10명	6개월

2 응 시 자 격 : (다음 사항중 한가지 이상의 자격을 갖춘자)
1) 수계 득도한 자 2) 오계를 수계한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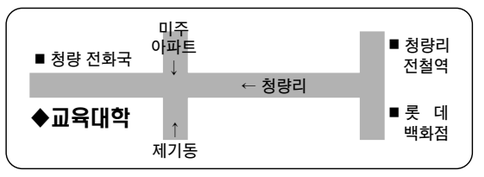
3 전 형 방 법 : 서류전형(면접)

4 합격자 발표 : 개별통지

5 제 출 서 류 : 1) 입학원서(소정양식) 1통
2) 수계증명서 사본
3) 반명함판 사진 4매

▶ 교육시간 : 주 4회(月~ 木)
▶ 접수일자 : 2006年 9月 1日 ~ 9月 19日
▶ 입 학 일 : 2006年 9月 20日

▼ 찾아오시는 길



▶원서 교부 및 접수처
불교 전통의식 교육대학 교학처
130-012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 2동 604번지
전화 02)967-7093

금강불원 불교전통의식 교육대학

‘복 짓는 공양’ 드세요

무료급식소 부산 ‘민들레밥집’ 채식단으로 바꿔 눈길



2005년 문을 연 ‘민들레밥집’은 전국 최초로 채식만으로 무료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채식이 웰빙 식단으로 떠오르는 있는 가운데 스님이 운영하는 무료급식소가 채식 식단만으로 급식을 실시하고 있어 관심을 끈다.

부산 동래와 사직동 두 곳에 문을 연 ‘민들레밥집’은 연중무휴 채식으로 무료급식을 하고 있다. 8월 21일에는 콩고기야채볶음, 야채전, 콩국, 김치, 가지나물 등 채식단으로 요리가 한창이었다.

‘민들레밥집’은 2005년 8월 사직동에 문을 열었다. 6개월 후 동래시장 내에 두 번째 ‘민들레밥집’을 연 이후 육류 요리를 포함한 식단으로 급식을 해왔다. 그러나 한 달 전 두타 스님이 결단을 내렸다. 채식이 건강에 좋을 뿐만 아니라 불살생의 정신을 실천하는 길이면서 자비의 종자를 끊지 않는 최상의 공양이라는 생각때문이었다.

그러나 막상 채식단으로 바꾸고 나니 육류요리에 익숙했던 봉사자들이 채식단을 다양하게 알지 못해 어려움을 호소했다. 게다가 육류를 대체하는 콩고기의 단가가 높아 비용 부담도 커졌다.

식재료비 부담 늘었지만 어르신들 건강 위해 전환 “불살생 정신 배우는 기회”

최상의 공양을 어르신들에게 올리기 위해 두타 스님은 서면 지하도에서 하루 5시간 이상의 탁발을 한다. 처음 부산시청 앞에서 탁발을 할 때는 극심한 더위 때문에 물병을 얼려 가슴에 품고 있기도 했고 지금도 경찰에 쫓겨 다니거나 경찰서까지 연행되기도 했다. 그러나 스님은 탁발을 멈출 수 없다. 당장 민들레밥집을 찾는 120여명이 넘는 어르신들의 공양을 굶게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처음 무료급식을 시작했을 때는 봉사자를 구하지 못해 스님이 직접 밥과 요리를 하고 지금도 봉사자가 없는 명절 때도 급식소 문을 닫지 않고 스님이 직접 요리를 한다. 이처럼 정성을 다하는 스님의 모습에 감응을 받아 하나 둘 모여든 봉사자가 100여명. 이제 밥집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지만 급식으로 인연된 어르신들의 병원비, 보일러 기름, 도배 까지 챙기느라 꾸준히 경비가 늘어나고 있어 도움의 손길이 절실하다.

두타 스님은 “민들레밥집은 단순히 밥을 먹는 공간이 아니라 복 짓는 공간”이라고 정의했다. 스님은 “복을 짓는 공간에 동참하는 자원봉사자나 후원자들이 많아져서 더불어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수행의 공간으로 자리 잡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두타 스님은 자원봉사자들 스스로 채식에 대한 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채식을 실천하면서, 어르신들을 위한 공양을 올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9월 8일 오후 2시 동래 민들레밥집에서 채식 교육을 실시한다. 생명사랑채식실천협회 이승석 회장이 채식의 가치를 알리고 채식 요리도 선보이는 강연을 열 예정이다.

“민들레 홀씨가 멀리 날아가듯 민들레밥집이 전국적으로 퍼졌으면 한다”는 두타 스님은 “채식으로 하는 급식이 채식을 수행의 일부분으로 인식하고 실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051)558-2108 후원계좌:150031-52-137521(농협 예금주 남창현)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지역불교 일구는 우바새



곽인철

마산 금강노인복지관 관장

1년 전 마산에서는 처음으로 문을 연 노인전문복지관인 금강노인복지관. 요즘 이곳은 500여명이 넘는 어르신들로 붐빈다. 이용인원 50여명에서 500명이라는 인원으로 늘어난 놀라운 변화의 중심에는 곽인철(41 · 법명 인성) 관장이 있다.

곽 관장은 금강노인복지관이 생기게 한 장본인이다. 타 지역에 비해 유난히 노인인구가 많은 마산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노인전문복지관을 선택했다. 금강노인복지관이 개관되는 과정의 모든 실무를 도맡았다. 그 과정에서 13년째 복지현장에서 뛰어오며 쌓아온 곽 관장의 실무경험과 신뢰가 한 몫을 했다. 10년 이상 복지의 필요성을 일관되게 피력해온 곽 관장의 뜻을 사회복지법인 금강 대표이사 원행 스님이 귀하게 여기며 결실을 맺었다.

있지만 곽 관장은 어린이 법회와 청소년 수련회 지도교사로 더 일찍 불교와 인연을 맺었다. 큰스님 일대기, 부처님 가르침이 너무 좋아 일주일에 한권씩 불교서적을 사곤 했던 어린시절의 곽 관장에게 불교는 물과 공기 같은 존재였다. 매주 일요일은 정인사 어린이법회를 위해 늘 비워뒀다. 일요일에 잡히는 집안 대소사, 친구들의 결혼식 참석은 엄두도 못 냈다. 원망도 많이 들었다. 술 담배도 아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준다는 생각으로 끊었다. 생활의 모든 기준이 어린이 포교로 귀결된 셈이다.

“지금도 늘 ‘처음처럼’이라는 말을 좌우명 삼아 어린이포교와 복지를 시작했던 첫 마음으로 살려고 해요. 시간이 갈수록 너 자신을 등불로 삼고 부지런히 정진하라고 하셨던 부처님 말씀이 더 지중하게 다가옵니다.”

13년 복지현장 생생한 경험 학생들에 특강 불교와 복지 접목한 교양대학 설립 구상 중

“문수보살의 지혜를 얻기 위한 수행공간이 많지만, 보현보살의 행을 실천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곽 관장은 “봉사를 할 수 있는 금강노인복지관이 불자들에게는 보살행을 실천하는 수행처가 아니겠느냐”고 자부했다.

곽 관장이 처음 복지를 시작한 것은 1994년. 마산중리종합복지관에서 총무과장으로 실무를 시작했다. 고등학교 불교학생회를 시작으로 대학생 때 이미 청소년 수련회 교사로 포교 현장에서 활동해 오다 보니 지역 정서를 잘 알고 있는 불교계 인재로 추천을 받아 시작한 일이었다.

그러나 사회복지를 전공하지 않았다는 한계에 부딪쳤다. 그래서 사비를 털어 대학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했고 상담 기본 과정부터 전문과정까지 10개가 넘는 자격증을 취득했다. 지금은 경남 지역에서 몇 손가락 안에 꼽히는 복지 현장 전문가가 됐다. 마산대학의 겸임교수로 생생한 복지 현장을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있으며 여기저기서 특강을 요청받기도 한다.

지금은 복지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만 곽 관장은 어린이 법회와 청소년 수련회 지도교사로 더 일찍 불교와 인연을 맺었다. 큰스님 일대기, 부처님 가르침이 너무 좋아 일주일에 한권씩 불교서적을 사곤 했던 어린시절의 곽 관장에게 불교는 물과 공기 같은 존재였다. 매주 일요일은 정인사 어린이법회를 위해 늘 비워뒀다. 일요일에 잡히는 집안 대소사, 친구들의 결혼식 참석은 엄두도 못 냈다. 원망도 많이 들었다. 술 담배도 아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준다는 생각으로 끊었다. 생활의 모든 기준이 어린이 포교로 귀결된 셈이다.

“지금도 늘 ‘처음처럼’이라는 말을 좌우명 삼아 어린이포교와 복지를 시작했던 첫 마음으로 살려고 해요. 시간이 갈수록 너 자신을 등불로 삼고 부지런히 정진하라고 하셨던 부처님 말씀이 더 지중하게 다가옵니다.”

이제 곽 관장은 불교와 복지를 접목한 다양한 시도를 구상 중이다. 불교와 복지를 접목한 교양대학 개설도 그 시도 중 하나다. 복지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자원봉사자를 양성하고 다양한 사회 변화, 정책변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인재를 양성하는 센터로 교양대학 설립을 구상 중이다.

또한 3년 뒤 쯤으로 생각했던 복지관 별관 증축이 급속도로 늘어나버린 이용인원 때문에 발 등의 불이 돼 버렸다.

“여기가 바로 극락이라며 저의 손을 잡고 고마워하는 어르신들을 뵐 때 보람을 느낀다”는 곽 관장은 “승가와 재가가 역할을 분담해서 불교계의 발전을 위한 큰 틀을 짜고 실천할 수 있도록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싶다”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화합 및 실무행정 정보 교류

경남 울산 25개 불교복지협 관리자 연수회 개최



경남 울산 지역 25개 불교사회복지시설 관리자 10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불교복지발전을 위한 연수회를 가졌다(사진).

경남불교사회복지협의회(회장 효천) 주최로 8월 18일 19일 이틀 동안 하동청소년수련원에서 열린 관리자 연수회는 회원간의 화합은 물론 복지현장의 실무와 행정 전반에 대한 정보 교류의 장으로 마련됐다.

효천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협의회라는 울타리안에서 함께 호흡하는 불교복지시설 관리자들이 한자리 하게 돼 뜻깊다”며 “이런 자리를 통해 업무능력을 더한층 배양해 중생의 안락과 이익을 위해 자비를 베풀었던 부처님의 보살행을 현장에서 구현하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이날 연수회에서는 경남도청 김형균 보건복지여성국장의 ‘경남의 사회복지정책 설명’, 경남사회복지협의회 최재호 회장의 ‘사회복지와 경영’, 신라대 황성철 교수의 ‘사회복지 환경변화와 시설기관의 대응방안’, 금강노인복지관 곽인철 관장의 ‘노인복지와 노인수발보험의 이해’, 경남재가노인복지협회 강외숙 회장의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관리’ 등 실무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강의가 이어졌다.

이 밖에도 화합의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불교복지시설의 연대감을 높였으며 시설 수범사례 발표, 연수 소감 발표로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기도 했다.

경남불교사회복지협의회는 2005년 창립법회를 가진 경남 지역 불교사회복지시설 협의체로 25개 시설이 가입돼 있다. 가입 시설간의 유대와 실질적인 업무 협력이나 교류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실무자협의회(회장 오기원)도 별도로 구성해 놓고 있다.

천미희 기자

부산파라미타 10주년 예술제

파라미타부산청소년협회(총재 대성)는 9월 9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KBS 공개홀에서 제10주년 예술제를 개최한다.

‘맑은 세상을 청소년에게’라는 주제로 부산시내 파라미타 청소년 및 중,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열리는 이번 예술제는 청소년지도자, 청소년회원 등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파라미타부산청소년협회가 창립 10주년을 기념하고, 그동안 각 분회에서 갈고 닦았던 기량을 마음껏 뽐내는 자리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천미희 기자

윤영석 서예展 ‘산사의 이바구’

윤영석 서예전 ‘산사의 이바구’가 9월 2일부터 15일까지 장 갤러리에서 열린다.

윤영석의 작품 세계는 서예를 넘어 현대화, 추상화 같은 느낌을 주며 회화와 조각을 서예와 접목한 시도가 돋보인다는 평이다.

대구예술대학교 서예학과 강사, 종국 섬서 진중대학교 서법과 객좌교수, 달담은 샘의 서예원 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윤영석은 대한민국미술대전 서예부분 특선 등 입상 경력도 다양하다. (051)803-6797

천미희 기자

성타 스님 ‘자연으로의 회귀’ 展



그림으로 어린이 포교를 실천해 온 효산당 성타 스님의 ‘자연으로의 회귀’ 전시회가 8월 21일부터 26일까지 부산시청 갤러리에서 열렸다.

21일 개막식(사진)에서 영주암 조실 정관 스님은 “우연히 소식을 듣고 전시회를 찾았는데 그림이 너무 아름다워 환희심이 생긴다”며 “수행자에게는 그림 또한 수행의 방편이 되니 그림 속에서 수행자의 힘을 읽는 세심함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타 스님의 ‘자연으로 회귀전’에는 국전에서 특선을 차지한 작품을 비롯해 심연, 만행, 청향 등 80여 점의 그림이 전시돼 있다.

성타스님은 서예, 한문, 사군자 무료강습 등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포교해 왔다.

이은아 기자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경남남부지국 : (011)571-5316
울산지사 : (052)272-0909

봉 행

청주 보현사 명부전 · 정토원(납골당)

낙성법회 및 산사음악회

부처님의 가피와 사부대중의 원력으로 그동안의 불사가 원만 회향되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모아 모두가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사오니 참석하시어 기쁜마음 나누시기 바랍니다.

보현사 주지 원봉 합장



◆ 일 시 : 2006년 9월21일 (음, 윤7월29일) 11시
◆ 내 용 : 1부 낙성법회 / 10시부터
2부 영산재 시연 / 오후2시 - 5시까지
3부 산사음악회 / 오후6시 - 오후8시30분까지
보현사 대웅전 앞
◆ 문의 : 보현사 043)259-4926

제4회 대성사

산사음악회 및 선남선녀 템플스테이

소중한 인연에 감사하며,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자리를 만들어 갑니다. 만남을 통해 서로의 인연을 확인하고 그 인연을 이어가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



◆ 일 시 : 2006년 9월23일 오후 6시 ~24일 오전 10 까지
◆ 일 정 : 1. 산사음악회 / 23일 18시30분-
2. 선남선녀 인연맺기 템플스테이
23일 22시00분 ~ 9월24일 10시
◆ 출 연 : · 티벳스님 전통불교 의식 (8명의 티벳 스님 뿌자 공연)
· 가수 박정식 (천년바위) · 가수 최은혜 (전국 유명 노래강사)
· 가수 고무밴드 (유명 기~타 리스트)
· 가수 이성원 (소쭉새 우는밤)
· 불교 합창단. 전국 선남선녀 회원의 장기자랑
※ 청주불교방송 제작 혜철스님 법문집 테이프.CD 전국 불교서점 판매
◆ 문 의 : 대성사 043)732-5560 혜철스님

봉 행

제3회 참된삶 실천운동

석문사 자비원 경로잔치

호국불교효예종 석문사는 청원군 관내 어르신을 모시고 아래의 내용으로 경로잔치를 봉행합니다. 오늘의 행복한 사회을 이루기위해 평생을 바치신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석문사 주지 혜전 합장



◆ 행사명 : 제3회 참된삶 실천운동 석문사 자비원 경로잔치
◆ 예상 인원 : 관내 어르신 1천여명
◆ 일 시 : 2006년 9월16일 오전 10시
◆ 장 소 : 청원군 남이면 사무소 광장
◆ 내 용 : 봉행식 / 위안잔치 - 사물놀이, 국악마당,
노래공연, 북공연, 경로노래자랑 등
◆ 문의 : 석문사 043)264-3008

'청정운동' 관오사서 순회법회 열고 활동 본격화

내가 청정하면 온 세상이 깨끗

(재)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홍승희)이 추진하고 있는 '청정운동'이 대구에서 본격적으로 펼쳐진다. 9월 3일 오전11시 관오사(주지 지도)에서 열리는 청정운동대구순회법회가 대구지역 청정운동의 출발선이다.

(사)대불청대구지구(회장 이만희)와 대구불교산악회(회장 하윤호)가 주최하고 대구청정운동추진위원회(위원장 김장근)가 주관하는 이날 법회에서는 대한불교진흥원 청정운동추진위원장 송석구(前 동국대 총장)교수가 '보현보살의 10대 행원과 현대적 실천'이라는 주제로 강연한다. 또 청정운동의 취지와 실천지침, 의미 등도 설명할 예정이다. 법회에 참석한 불자들에게는 청정운동신행수첩과 스티커를 나눠주고, 청정운동에 동참할 것을 결의하는 청정운동선언문을 낭독하게 된다.

대구 청정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최근 구성된 대구청정운동추진위원회는 매월 초하루법회를 비롯한 각종 법회 현장을 찾아가 신행수첩과 스티커를 나눠주고 청정운동의 취지와 의미를 알리며, 지속적인 동참을 유도할 예정이다. 또, 매월 1회 대구시내에서 가두캠페인도 별이며 일반사회에까지 확산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초하루 및 각종 법회 방문
신행수첩 등 배포 동참 유도

대구청정운동추진위원회 이한득 준비팀장은 "청정운동은 거창한 불교중흥과 개혁을 부르짖는 운동이 아니라 지금의 현실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실천하는가를 문제 삼는 운동"이라며, "나부터 청정해야 청정운동을 펼칠 수 있는 것이므로 지역교계 모든 실무자들부터 초심으로 돌아가 실천한다면 대구불교가 조금씩 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정운동은 지난 1995년 대한불교진흥원이 2000년대의 새로운 재가불자상을 정립하기위한발원으로 시작한 신행개혁운동이며 사회개혁운동으로 1995년부터 1998년까지 전국 137개 신행단체와 1만5300여명의 회원이 동참했으나 IMF로 중단되었다가 지난 3월 '내가 바뀌어야 세상이 바뀐다'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다시 시작됐다.

배지선 기자 jjsun@buddhapia.com

경전 읽으며 참회합니다

대구 동화사, 윤 7월 참법정진예수재 봉행

대구 팔공산 동화사(주지 허운)는 윤 7월을 맞아 참법정진예수재를 봉행한다.

참법정진예수재는 경전을 읽으면서 참회하고 노력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수행정진의식으로 9월1일(윤7월9일)부터 7일(윤7월15일)까지 매일 오전 10시 통일기원대전에서 봉행된다.

이 기간 동화사는 모든 국장스님들과 사중 스님들이 동참하는 가운데 자비수참 참법기도와 선한 공덕을 통해 업장을 소멸하는 수행을 하게 된다.

개인발원문을 작성하고 매일 본인의 기도 상황을 스스로 점검하는 기도일지를 기록해 부처님 전에 공양 올리고 마지막 날에는 천도재를 지내는 것으로 회향한다.

일일수행점검내용은 △참법정진기도수행 △한 권의 경전독송 △참회의 108배 정진 △다라니독송 △불보살의 명호를 천 번 염송하는 기도정진과 △한 사람의 착한 일을 칭찬하는 것 △한사람이 나쁜 일을 못하도록 저지하는 것 △한 사람의 배고픈 것을 구제하는 것 △남을 제도하도록 권하는 글을 나눠 주는 것 △의롭지 못한 재물을 취하지 않는 것 △육식을 하는 사람이 하루 동안 육식 않고 재계하는 것 △한 생명을 구해서 살려 주는 것 △귀에 거슬리는 말을 듣고도 화내지 않는 것 △낙태를 못하게 하는 것 등의 생활점검으로 나눠져 있다. (053) 985-4404

배지선 기자

화재보험관리사무소 개소
대구 영남불교대학 관음사



대구 영남불교대학 관음사(회주 우학)가 자동차 화재보험관리사무소를 개소했다.

영남불교대학의 보험사업은 1000개의 분원 건립 기금 마련을 위한 것이다.

개소식은 회주 우학 스님, 총무 밀허 스님, 김상길 총동문신도회장을 비롯한 사부대중이 참여한 가운데 8월 23일 대웅전 1층 종무소에서 열렸다(사진).

우학 스님은 이 자리에서 "보험 사업도 적극적인 생산불교의 한 형태"라며 "많은 불자들의 동참이 교육과 인재불사를 비롯한 각종 불사를 돕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영남불교대학이 운영하는 보험관리사무소는 자동차, 화재, 상해, 운전자 보험 등 다양한 회사의 다양한 보험 상품을 취급할 예정이며, 보험가입 이익금을 전액 분원건립에 사용할 예정이다.(053)471-8585

배지선 기자

법당이전기금마련 일일찻집
대구 대광맹인불자회

대구 대광맹인불자회(회장 박석규)가 법당이전불사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일일찻집을 9월 16일 반월당 보현사에서 개최한다. 160여 회원이 35평 남짓한 법당에서 법회를 봉행하는데 한계가 온 것이다.

또, 부처님품에서 자기창조개발을 통해 자립생활을 해 나갈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장애인직업재활교육장소 마련에 대한 필요성도 절실하기 때문이다.

일일찻집은 오전 10시부터 오후8시까지 운영되며 다과는 물론 다양한 생필품도 판매할 예정이다. 또, 시각장애인들의 지압치료도 받을 수 있다. 91년 장애인들의 등불이 되겠다며 20여명의 회원으로 창립한 대광맹인불자회는 지금까지 시각장애인불자들이 불교신행생활을 통해 장애를 극복하고 참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으며 앞으로는 모든 장애불자들의 신행공간으로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다.(053)257-7527

배지선 기자

향림사 창건 30주년 음악회

경산시 하양읍 향림사(주지 묘혜)가 창건 30주년을 맞아 산사음악회를 개최한다. 9월 5일 오후 7시 BBS 특집 공개방송으로 진행되는 음악회는 인가가수 현철, 이용, 이자연, 한영주와 도신 스님이 출연하고, 색소폰 연주가 김일수의 연주 등 다양한 공연이 펼쳐진다.(053)854-2178

배지선 기자

한국어 강사와 봉사자 모집
대구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사회복지법인 불교사회복지회(이사장 지도) 산하 대구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소장 김태화)가 결혼이민자 여성에게 한국어를 가르칠 전문 강사와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주 2회 또는 주1회 2시간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며, 국문학과 전공자, 유치원 및 초등학교 교사 경력자, 한국어 강사 양성과정 수료자 기타 한국어 강의 경험자를 우대한다.

대구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는 "결혼이민자 가족들이 한국사회에의 안정된 조기적응 및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관심 바란다"고 말했다.(053)475-2324

배지선 기자

경북 9개 장애인 시설 및 단체 한자리

9월 8일 경상북도장애인종합예술제 개최

제5회 경상북도장애인종합예술제가 한국장애인복지관 경북협회 주최, 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도륜) 주관으로 오는 9월 8일 오후 1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영주시민회관에서 개최된다.

'전통과 현대문화가 어우러진 예술의 향연'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경북 9개 장애인관련시설 및 단체에서 700여명의 장애인과 지역주민들이 참가하는 가운데 다양한 작품전시(공예, 서예, 회화, 문예 등)와 영천 팔래스 승리몰이 응원단의 응원,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의 신바람노래교실 공연, 보현어린이집의 꼭두각시무용 등 다채로운 공연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경상북도장애인종합예술제는 경북의 장애인들에게 문화 참여의 기회를 제공해 장애인들의 예술적 재능을 개발하고 자립과 재활의지를 도모하는 한편 지역사회의 관심을 재고시켜 문화경북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열리는 것"이라고 밝혔다.(054)633-6415

배지선 기자

경주복지관, 가족사진 공모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종광)은 가족사진콘테스트 '하하호호 우리가족이야기'를 공모한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구분 없이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주제는 자유다. 단 가족의 따뜻한 사랑과 화목을 나타내는 사진이면 가산점이 부여된다.

접수는 9월 11일까지며 1인당 2점 이내 작품을 응모할 수 있다. 입상작에 한해 사진 전시회도 열 예정이다.(054)776-7522

배지선 기자

지역불교현장을 찾아서

어르신들 웃음은 우리의 행복

영천 무량수봉사단

8월 22일, 영천 신녕면 부산리 신녕노인요양병원이 시끌벅적 활기가 넘친다. 영천 무량수봉사단장 혜해 스님과 단원 13명이 팀을 이뤄 병원을 찾았기 때문이다.

가운데 로비를 지나 복도 양쪽에 있는 세면장에는 목욕을 기다리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줄을 섰고, 세면장 옆 로비에는 즉석 미용실이 차려졌다.

"머리를 아주 예쁘게 잘라주셨어요. 지난번에는 할아버지처럼 잘라서 속상했는데" 노혜숙(79) 할머니는 미용사가 잘라준 머리가 마음에 들어 내내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목욕 · 이발 봉사를 펼치고 있는 무량수봉사단.

게 웃는다. 스님은 "한 번 웃는 것이 이들에겐 보약이 된다"며, 어르신들에게 한 번이라도 더 웃음을 선사하려고 애를 썼다.

무량수봉사단이 신녕노인요양병원에 출입을 시작한 것은 지난해 11월. 이원익 조장은 "처음 봉사활동을 왔을 때만해도 온수 시설이 없는 열악한 환경에 악취가 심했다"고 회고했다. 그러나 이젠 봉사단의 도움으로 순간온수기도 설치됐고, 분위기도 많이 밝아졌다.

장선희 간호과장은 "간병인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봉사단이어서 안심하고 환자를 맡길 수 있을 뿐 아니라 매주 체계적인 활동이 지속되어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무량수봉사단은 은해사교양대학을 나온 이들을 중심으로 2003년에 결성됐다. 98년부터 정신지체장애인시설에 봉사활동을 나갔던 혜해스님이 은해사교양대학을 열면서 대사회적 자비실천의 중요성을 느껴 봉사단을 창단했다.

대부분 전문 자격증 취득 … 안심하고 몸 맡겨
매주 지속 · 체계적 활동으로 큰 호응 얻어

팔순 나이에도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할머니들, 무량수 봉사단이 들어오기 전에는 간병인이 대충 머리를 잘라주는 바람에 많이 속상했던 모양이다. 할머니들은 영천과 하양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전문 미용사의 솜씨를 단박에 알아봤다.

세면장에서는 봉사자들이 땀과 물에 흠뻑 젖은 채 어르신들을 안아 옮기고 비누칠을 하고 머리를 감겨드리느라 바쁘다.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목욕봉사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 무량수봉사단원은 절반이상이 간병인교육을 받은 전문인이라 능숙하게 어르신을 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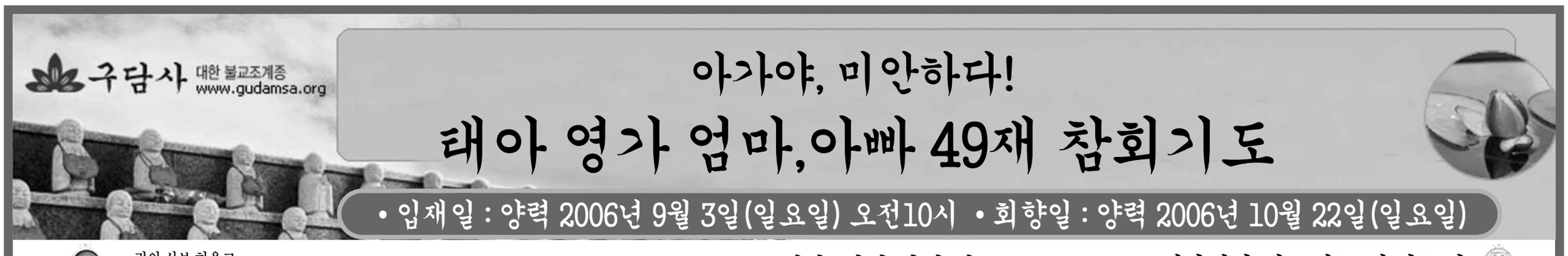
배경식(45) 봉사자는 "간병인 교육을 통해 환자 다루는 요령을 익혔기 때문에 자신감을 갖고 봉사활동에 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할머니 잘 계셨어요? 아휴, 훨씬 건강해 보이시네."

병실에서는 혜해 스님이 어르신들을 둘러보느라 여념이 없다. 스님이 손을 흔드니 어르신들도 손을 흔들며 해맑

배지선 기자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영주지국 : (054)634-3429



귀의 삼보 하옵고
저희 구담사는 매년 양력 3월, 6월, 9월(첫째주 일요일) 태아영가 49일 천도재를 올리어 기도 입재 하오니 많은 동참하여 엄마, 아빠의 참회기도 동참으로 어두운 태 속에서 쓸쓸히 사라져간 태아 영가를 위해 극락왕생 기도 발원합시다.



엄마, 아빠 참회 기도

아가야! 미안하다.
얼마나 서운했을까?
그때 널 버린다는게 죄인지도 몰랐다.
이 세상의 밝은 빛을 보지 못하게 한 나를
용서 해 줄수있겠니?

아가여! 영가여! 마음이 아프고 죄송하다.
이제 뒤늦게나마 눈물로 참회하고 기도하는 구나.

◉ **준 비 물 :** 분유(우유), 과일, 사탕, 초코파이 등(5재때는 관욕을 하오니 수건, 양말, 신발, 비누, 아기 옷 등)

◉ **구담사 버스안내**
• 강변역 테크노마트 주차장 앞 오전 8시 출발
• 도봉산역 1-7호선 오전 8시 출발 → 의정부 시외버스터미널앞(포천방향)
• 조계사 앞 오전 7시 출발

태아영가 천도재는 왜 하는지?

■부모의 잘못으로 인한 낙태. 유산 되어버린 태아령을 위해 원결을 풀어지게 하는 것이다
• 가정에 우환 없이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을 발원 기도하시는 분
• 막힘 없는 사업 번창을 발원 기도하시는 분
• 학업 원만성취를 발원 기도하시는 분

※태아령은 : 부모의 업으로 살생한 업보요 조상은 나를 낳아준 부모이기 때문에, 같이 위패를 쓰거나 천도재를 지내지 않는다.

◉ **전화번호 : 대표 (031)533-2855, 2584, 팩스 (031)532-2441**
◉ **계좌번호 : 국민은행 217801-04-021932** (예금주 구담사)
농협 225051-51-113712 (예금주 구담사)
※위패 봉안하는 관계로 미리 동참하여 접수 바랍니다.
※지방 불자님 접수 받습니다.
※구담사 대웅전 중창불사 모연 中
※그동안 동참하여주신 불자님께 감사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엄마아빠 참회기도도량 구담사 경기 포천군 이동면 연곡리 595 홈페이지 : 주소창에 "**구담사**"를 쓰세요. **http://gudamsa.org**

노스님과 중국 교포 '아름다운 인연'

사고로 팔 못쓰는 청년 초청 아산병원 무료시술 주선

시골 노스님과 중국 연변 청년의 국경을 넘은 인연이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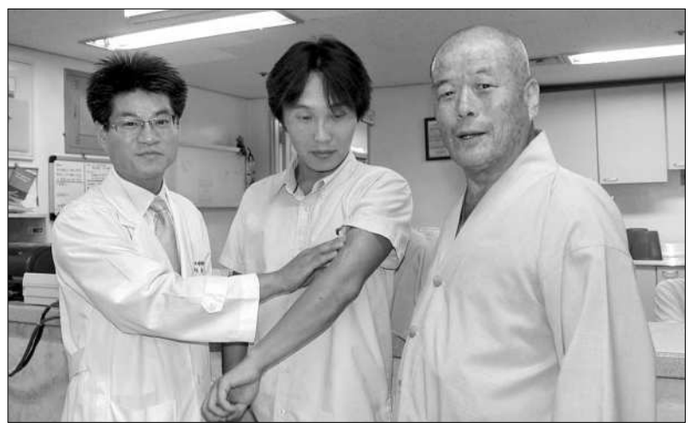
사고로 한쪽 팔을 쓰지 못하던 중국 교포 청년이 스님의 주선으로 8월 9일 국내 병원에서 무료시술을 받고 퇴원한 것.

화제의 주인공은 김제 행림사 주지 행림 스님과 중국 연길시에 사는 중국교포 최봉(32)씨. 최씨는 6년 전 중국에 진출한 한인업체에서 일하다 좌측 상완골절사고를 당해 팔 속에 금속핀을 박는 대수술을 받았다.

집까지 팔아 몇차례 수술을 했으나 수술결과가 좋지 않아 팔을 쓰지 못하고 암울한 시간을 보내야 했다. 이런 소식을 접한 행림 스님이 지난해 최씨를 국내로 초청했다, 치료해 주려는 생각에서.

그러나 호남평야의 허허벌판 위에 자리한 작은 사찰 행림사에서 최씨의 치료비를 준비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행림 스님은 "지난해 쌀 수매가가 떨어져 신도들의 보시도 넉넉지 못하고, 금년 초파일에는 좀 나아지겠거니 했는데 그것마저 시원찮아 치료가 늦어졌다"고 웃어 보였다.



한 스님의 도움으로 한쪽 팔을 쓰지 못하던 중국교포 청년이 무료시술을 받아 잔잔한 감동을 불러 일으킨다. 오른쪽부터 김제 행림사 주지 행림 스님, 최봉씨, 차만진 아산병원 가정의학과장.

최씨 치료를 위해 여기저기 발품을 팔던 행림 스님은 정읍 아산병원(병원장 정을삼)을 찾게 됐다. 아산병원은 故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 세운 병원으로, 정 회장의 유지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이들을 위한 무료시술 프로그램이 가동되고 있었다.

병원 내 불자 의료진들도 발벗고 나섰고, 마침내 지난달 최씨의 무료수술이 이뤄졌다.

성공리에 수술을 마치고 현재 행림사에서 요양중인 최씨는 "팔이 아파 일자리도 구하지 못할 때는 삶을 포기하고 싶었다"며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해준 스님과 병원측에 감사할 따름이다"고 말했다.

최씨의 무료 수술을 주선한 행림 스님은 "농촌이 희망이다"며 '양심살리기, 농어촌살리기, 희망살리기 운동본부'를 결성해 농민운동을 펼치고 있다.

글 · 사진=이준엽 기자

법주사 삼존불 개금불사 회향식

9월 12일, 수계 · 10만등 점등식

법주사(주지 도공)가 대웅보전에 모셔진 소조삼불좌상 개금 및 복장 봉안 불사를 마치고 9월 12일 '대웅보전 삼존불 개금불사 회향대법회'를 봉행한다. 국내 최대의 소조불상인 법주사 소조삼불좌상은 임진왜란 이후의 불상 조형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보물 제1360호로 지정돼 있다.

회향대법회는 오전 10시 30분 점안의식을 시작으로 법회와 오후 1시 30분 열리는 '개금 및 복장 봉안 불사 기념 보살계 수계식'의 순서로 진행된다.

수계식에서는 법주사 회주 혜정 스님을 계사로 2000여명이 계를 받을 예정이다. 한편 이날 오후 7시에는 개금불사를 축하하는 10만등 점등식도 진행된다.

도공 스님은 "4개월에 걸친 개금불사와 복장봉안불사가 무사히 끝난 것을 기념하는 뜻에서 수계법회와 10만등 점등행사를 마련하게 됐다"며 "개금불사는 단순히 금을 입히는 작업이 아닌, 부처님을 새롭게 장엄함으로써 지극한 예경을 표하고 불보살님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것"이라고 개금불사의 의의를 밝혔다.

혜철 대전 충북 지사장

빛고을 자비나눔 봉사단 22명 강원도 수해지역서 복구 활동



(사)자비신행회(이사장 현장)는 8월 18일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일대에서 수해피해 복구를 위한 구호활동을 펼쳤다.

이날 자비신행회는 증심사, 광주전남교사불자회와 함께 자비나눔 봉사단(단장 정용운)을 긴급 편성해 단원 22명을 강원도 수해현장으로 파견했다(사진).

진부면사무소를 방문한 자비나눔 봉사단은 수해지역민에게 수해성금 411만원과 수해물품을 전달했다. 수해민을 위한 성품은 이불 55채, 의류 13박스, 생필품 8박스로 증심사(주지 진화)가 마련했다. 진부면 신기리 수해현장에서 수해민들과 함께 900여평의 비닐하우스 정리작업도 벌였다.

이준엽 기자

영동소방서, 절에 소방차 기증

충북 영동의 반야사에 소방차가 생겼다. 영동소방서가 사용하던 소방차를 8월 23일 반야사에 기증한 것. 반야사 소방차는 1991년식 소방펌프차로 1350ℓ의 물을 저장하여 화재진압을 할 수 있다.

기증식에서 반야사와 영동소방서는 지역 사찰 등의 화재시 초기대응을 위해 상호 노력하자는 협약을 체결했다. 또 반야사 대중에게 소방차량 조작법 교육, 방수훈련 등 화재진압 훈련도 실시됐다.

반야사 주지 성제 스님은 "소방차가 생겨 마음이 든든하다"고 말했다.

혜철 대전 충북 지사장

현대불교 지사안내
호남지사 : (062)375-9986
대전충북지사 : (043)732-5560
충남동부지국 : (010)3069-3170

'눈높이 맞춘 부처님'

선덕사, 35cm 높이 불단 마련



중생과 눈높이를 맞춘 부처님이 봉안됐다. 8월 22일 광주 선덕사(주지 행법) 작은 법당에 봉안된 삼존불(사진)이 그러하다. 이날 점안법회에서 첫 선을 보인 부처님은 선정, 평화, 바람(해탈)이란 이름의 삼존불로 35cm 높이의 불단에 모셔져있다. 법당 이름은 '침묵의 향연'으로 명명했다.

이 불단 높이는 법당에 앉았을 때 편하게 부처님과 눈을 마주하며 바라볼 수 있어 안정감을 준다. 이준엽 기자

무안백련지서 불교문화축제



무안 회산백련지에서 불교계가 주관하는 백련불교문화축제가 열렸다(사진).

(사)백련불교문화원(원장 경훈)이 8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개최한 이번 축제는 태고종, 법륜종, 선각종 등 종단별로 행사를 맡아 운영했다. 축제기간동안 회산백련지에서는 10만연등 밝히기, 불교문화 큰잔치, 팔관제, 다도체험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졌다. 이준엽 기자

청원 석문사 9월 6일 경로잔치

청원 석문사 자비원(주지 혜전)이 지역민과 함께 하는 사찰로 거듭나기 위해 청원군 남이면 관내 어르신 1000여명을 초청해 '청원군민과 함께하는 경로잔치'를 연다.

9월 6일 오전 10시 남이면 면사무소 광장에서 열리는 경로잔치는 지난해에 두 번째 열리는 행사로, 난타 공연과 사물놀이 및 가요 공연, 어르신 노래자랑 등 출연자와 참석자들이 함께 어울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혜철 대전 충북 지사장

광주불교방송
BBS FM 89.7 MHz
www.kjbbs.co.kr

지상중계 – 원각사 재가논강

'재가불자 신행생활 어떻게 할 것인가' – ❷인욕바라밀

호남 최초로 광주 원각사(주지 도제)에서 열리는 재가논강이 회가 거듭될수록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 두 번째 논강이 8월 18일 '인욕 바라밀'을 주제로 200여 불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논주로 나선 이순규(사진) 서남대 의대 정신과 교수는 "인욕 바라밀은 억지로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실상을 있는 그대로 알고, 화내고 성나는 마음조차 참을 필요가 없어진 것으로, 인욕의 완성"이라고 규정했다.

인욕(忍辱)은 사전에서 '마음을 가라앉혀 온갖 욕됨과 번뇌를 참고 원한을 일으키지 않는 일', '괴로움을 만나도 마음을 움직이지 않고, 진리를 깨달아 인증하고, 마음을 편히 하는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순규 교수는 '인욕의 완성'을 좀더 이해하기 쉽게 '할아버지와 손자'를 비유로 들었다. 어린 손자가 할아버지 수염을 함부로 잡아당길 때 할아버지는 화나는 것을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어-허'하며 측은심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이를 대한다.



"현재 있는 그대로 보면 참을 필요조차 없어져"

그렇지만 이 교수는 "성인(聖人)도 아프고, 괴로움을 그대로 느낀다"며 "보통사람들은 어렵고 힘든 것을 피하려고 하지만 성인은 괴로우면 괴로운 대로, 즐거우면 즐거운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받아들인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행은 인위적으로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수행에서 나오는 것으로 '현재 있는 그대로(卽今當處, Here and Now)를 보고 아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자신의 현재 상태를 아는 것은 정신과에서 매우 중요하며, 임상치료에서 자주 활용하고 있다"며 사례를 들었다.

사례 외아들만 바라보며 사는 어머니가 있었다. 어려운 생활 속에 학교 입학금을 모았으나 동네 사람에게 사기를 당했다. 돈을 잃은 순간부터 '내 돈, 내 돈'하며 돈만 찾았다. 병원에 왔을 때는 이미 2개월이 지난 후였다. 돈을 찾아주는 것만이 치료인 듯했다.

첫 만남에서 "여기에 돈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소"하니 정서불안 증세를 보이던 여인은 고개를 번쩍 들었다. "남에게 돈을 빌려주려면 심사숙고 한 뒤에 줘야지 그냥 주고서 돈을 찾으면 어떻게 하오"하니 그때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다. 사기 당했다기보다 돈을 준 자신이 잘못이라는 것을 안 순간 병은 사라진 것이다.

◆질의 응답

▲현대인에게 최대의 적은 스트레스다.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가?

– 스트레스는 해롭지 않다. 적당한 자극과 스트레스는 삶에 활력을 준다. 스트레스는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스트레스에 걸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바세계의 괴로움은 집착에서 온다. 집착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지켜보면 스트레스에 걸리지 않을 수 있다.

▲열등감, 강박관념 등 콤플렉스가 생기면 스스로 화를 낸다. 콤플렉스로부터 벗어나고 싶다.

–콤플렉스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해결됐다. 이것을 인정하지 못할 때 문제가 된다. 어려서 살을 도려낸 나무는 커가면서 상처도 커지기 마련이다. 어려서 받은 상처가 없어지기를 바라지 말고 있는 그대로 수용해야한다. 그랬을 때 '남의 탓'으로 살던 삶이 '내 탓'으로 바뀐다. 콤플렉스를 친구삼아 사랑하며 아름답게 살도록 한 생각 돌려보라.

정리=이준엽 기자

다음주 재가논강- '선정'
일시: 9월 1일 오후 7시
논주: 박건수 교수 (전남대 종교문제연구소)
장소: 광주 원각사 법당
(062-223-31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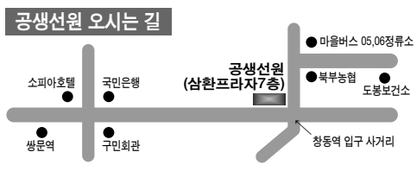
공생선원 개원 4주년 기념
혜거큰스님 초청법회 / 9월 개강 안내

● 개원 4주년 개원법회
제목 : "경(經)과 선(禪)의 둘 아닌 수행"
일시 : 2006년 9월 10일 (일) 오전 10시 30분. 공생선원 4주년 개원법회
대한불교조계종 공생선원은 불기 2550년 9월 10일에 개원 4주년을 맞아 금강선원 선원장 혜거큰스님을 모시고 특별초청법회를 열고자 합니다.

● 교육내용

강좌명 (개강일자)	요 일	강 사	강 좌 소 개 (강의 시간 : 오전 10시 30분 // 저녁 7시 30분)
경전반 (9월 5일)	화	주지스님	유마경의 불이(不二)사상을 통해 중도(中道)를 배우며 재가불자들에게 인생의 본래면목을 밝히는 가르침
입문반 (9월 6일)	수	주지스님 및 초청법사	불교 기초교리 이해를 돕고 참선을 통해 자신이 본래 부처임을 자각하여 밝고 자유롭게 살 수 있게 하는 가르침
참선반 (9월 7일)	목	주지스님	조사어록을 배우며 담선을 통해 공부를 점검하면서 스스로 참구하는 단계

대한불교조계종 공생선원에서 〈경전반〉, 〈입문반〉, 〈참선반〉 교육 강좌를 개설하였습니다. 2000년 6월부터 2002년 8월까지 조계사에서 포교국장, 재무국장, 참선반 지도법사 등을 역임했다. 조계사 신도들의 참선 수행 대중화를 이끌며 2002년 3월 사찰 내에 선방 〈수행원〉을 마련하여 참선문화를 정착시켰다.

공생선원 오시는 길


대한불교조계종 공생선원
서울시 도봉구 쌍문2동 653번지 삼환프라자 7층 T. 02)900-2448 F. 02)900-0476
http://www.gongseng.org e-mail : sunone@gongseng.org

3년과정(정규반,통신반)
불교한문학과
1. 교과목

교과목	· 초발심자경문 · 육조단경 · 한학연구입문 · 한자학원론 · 어순으로 푸는 한문해석 · 설문해자 · 중국고전① · 중국고전② · 한국고전① · 불교경전① · 불교경전②
지 도	· 심재동교수(동국대) · 심경호교수(고려대)


심재동교수

2. 개강일시 9월 7일(목) 오후7시

2년과정
불교범패반 신입생 모집
1. 교과목
* 범패 – 전통 재의식(49재, 천도재, 제반의식)
(시련, 대령, 관욕, 시식)
* 작법무 – 바라춤
* 착복무 – 나비춤
* 법고무


인각스님

2. 개강일시 9월 8일(금) 오후3시

3년과정
불교다도학과
1. 교과목

과 정	요 일	과 목	지도교수
3년과정 (포교사)	9월5일개강 매주(화) 오후 2시	중국차문화사, 한국차문화사 일본차문화사, 유럽차문화사 제다학, 심평, 육법헌공다례 차수행법, 불교학개론	박희준교수 선혜스님 박전열교수 지운스님
2년과정 (법사)	9월12일개강 매주(화) 오후 4시	다신, 다경, 다부, 대관다론	혜성스님 짱유화교수

2. 개강일시 9월 5(화) 오후2시

2년과정 장례지도사 양성
불교장례문화학과
1. 교과목

과 정	과 목
1년	· 장례학개론 · 장묘관련법규 · 상장례민속학/역사 · 장사법위주 · 종교와 불교 · 실습
2년	· 공중보건학 · 현행장묘제도의제반적고찰 · 장례식장경영론 · 불교정토학 · 생활과 풍수 · 실습
지 도	· 김미혜교수

2. 개강일시 9월 5일(화) 오후7시
※특전:2년과정 수료후 불교장례지도사 수여

불교교육 전문도량 동산불교대학 · 의식교육원
본대학 사무국 ☎ 02)732-1206~8 / 팩스 02)732-1207
(우)110-140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인터넷 홈페이지 www.dongsanbud.net

종단 홍보시스템 약하다

조계종 빼곤 홍보팀 없어 … 기관지 · 홈페이지 활용에 그쳐

홍보의 중요성이 점점 부각되고 있다. 일반 기업들은 홍보실을 강화하며 이익 창출을 위한 조직을 강화하고 있다. 민간단체나 정부 기관 등도 다양한 계층과의 포괄적인 관계 형성을 통해 이해의 폭을 넓히며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불교계 각 종단의 홍보 시스템은 조계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미약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27개 종단중 유일하게 홍보팀을 갖추고 있는 곳은 조계종 뿐이다. 조계종은 기획실 내 홍보팀에서 종단홍보를 담당하고 있다. 이 곳의 실무인력은 팀장 1명과 팀원 2명이다. 하지만 이들중 홍보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이는 없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다른 종단보다 일찍 홍보 업무에 눈떴지만 홍보팀이 조직전체의 유기적인 홍보창구 역할을 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 홍보팀의 업무도 총무원 각 부서에서 나오는 보도자료 배포, 언론사 출입기자단 관리, 홈페이지 관리, 종보 제작 등 일상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

특히 조계종 홍보팀에서 아쉬운 점은 적극적인 종단 PR이나 체계적 매뉴얼에 따른 위기관리시스템이 없다는 것이다.

한류나 웰빙, 사찰음식 등 사회적 트렌드를 불교로 이끌어 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한데도 종단차원의 홍보 전략이 없다. 또 불교나 종단에 대한 일반 언론의 폄하나 종단스님들과 관련된 사회적 비위를 들추어낼 때 단호하면서 적절한 대처 기준과 원칙을 갖고 있지 못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조계종은 지난해, 스님에 대한 비하를 담은 연재물를 게재한 모 월간지와의 분쟁에서 적절한 전략을 통한 논리적 대응보다는 힘에 의한 위력시위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낡은 모습을 보였다. 이에 오히려 국민들이나 불자들에게 불교에 대한 왜곡된 인식만 심어줬다는 지적을 받았다.

조계종 홍보팀은 국정홍보처나 일반 단체의 공보기능을 수행하는 곳들과 비교하면 열악한 것이 사실이다. 이런 가운데도 조건은 미약하지만 일단 홍보의 체계를 잡아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런 일환으로 올해초 전산팀이 관리하던 홈페이지를 홍보팀 업무로 이관해왔다. 교계지 일간지 방송 인터넷 언론 등 분야별로 관리하고 가능한 홍보거리를 찾아 전달하고 있다. 조계종 홈페이지에는 각종 종단 소식과 보도자료, 입찰공고 등이 신속하게 올라오고 있어 홍보 역할을 하는데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조계종 기획실 윤승환 홍보팀장은 "인력과 예산의 부족이 현실적인 문제다. 주어진 여건을 개선하기 어렵다면 홍보 담당자의 홍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며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홍보에도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절실하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조계종을 제외한 나머지 종단은 아예 홍보팀조차 갖추고 있지 않다.

태고종과 천태종 진각종 총지종 등 4개 종단은 종단 기관지들이 홍보 창구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 역시 한계가 있다. 종단에서 일어나는 행사 일정과 이에 따른 보도자료 정도만 알릴 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홍보 업무는 사실상 없는 상태다.

또한 총지종 일붕선교종 미륵종 법륜종 등 10개 종단도 홈페이지를 활용해 행사와 공지사항 정도만 종도들에게 알릴 뿐이다. 이런 상황이다보니 지난번 모종단 소속 승려가 무속행위와 관련해 물의를 일으켰을 때도 종단은 해당 승려의 징계에만 그쳐 일반인들에게 종단의 입장과 대응결과를 알리는데 소홀할 수 밖에 없었다.

만일 홍보창구가 있었다면 종단의 결연한 자정의지를 외부에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었다는 게 교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천태종 총무국장 월도 스님은 "종단의 교세 확장을 위해서는 언론 홍보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홍보 기능을 갖춘 홍보팀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한다"며 "종단이 올해 안에 조직 개편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때 적극적으로 홍보팀을 신설하는 방안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일 · 조용수 기자

전통문화전승관 상량식 봉행

태고종, 지하3층 지상4층 규모 11월 준공



태고종(총무원장 운산)은 8월 21일 서울 사간동 법륜사에서 '한국불교 전통문화전승관 상량식(사진)'을 봉행했다.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을 비롯해 원로회의 의장 일우 스님, 종회의장 인공 스님, 사정원장 월운 스님, 승정원장 남파 스님 등 사부대중 30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운산 스님은 "한국불교의 전통법맥을 계승하고 태고종 총무원 청사가 들어설 한국불교 전통문화전승관이 종도들의 원력으로 상량식을 봉행하게 돼 기쁘다"며 말했다.

이날 상량식을 마친 한국불교 전통문화전승관은 연건평 1600여평규모에 지하 3층, 지상 4층을 갖춰 오는 11월말에 준공될 예정이다.

관음종 생전예수재 · 영산재

관음종(총무원장 홍파)은 9월 1일 오전 10시 경부고속도로 금강휴게소 금강 둔치 야외법단에서 국태민안과 남북통일을 기원하는 생전예수재 및 영산대재 법회를 봉행한다. 이날 법회는 홍파 스님의 법문에 이어 방생, 영산재 시연 등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진각종 자성동이 축구대회

16팀 참가 … 대전 금강FC 우승

제1회 진각종 통리원장배 자성동이(초등생 신행모임) 미니 축구대회(사진)에서 대전 금강FC가 우승했다.

진각종(통리원장 회정 정사) 주최로 8월 18~19일 위덕대학교 인조잔디구장에서 개최된 이번 대회에는 총 16개 팀, 200여명의 자성동이 선수들이 참가했다.

7명이 한 팀을 이뤄 토너먼트 형식으로 진행된 이 대회의 우승은 B조 1위로 올라온 경산 코끼리를 4-0으로 누른 A조 1위 팀 금강FC가 차지했다.



"초코파이 하나에 종교 달라져요"

해군교육사령부 법당 재정열악 … 군법사 사재털어 위문품 마련

해군교육사령부 군법당은 매주 1000여명의 장교 및 사병 불자가 법회에 동참하는 등 해군 포교의 전진 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 사진은 영외 법당인 흥국사에서 8월 20일 일요법회를 봉행하는 모습.

경남 김해에 위치한 해군교육사령부는 해군으로 지원하는 일반 사병들과 부사관들이 기초 군사훈련을 받는 곳이다.

또한 장교들도 각종 군사교육을 받기 위해 이곳 사령부로 파견 온다. 한마디로 말하면 해군으로 입대하면 누구나 거쳐가는 교육기관인 셈이다.

해군교육사령부에는 보국사와 흥국사 등 두 개의 법당이 있다. 영내에 위치한 보국사는 사병 위주로 법회를 보고 있으며, 매주 일요일 정기법회 동참인원만도 적게는 500명에서 1000명에 이를 정도로 많다.

군 예산과 전폭적인 지원으로 지어져 시설면에서는 군법당 가운데 비교적 좋은 편이다. 그러나 문제는 법당을 운영할 재원이 부족하다는 것. 사병들이 찾는 도량이다보니 수입은 전혀 없고 부사관 등 간부 불자들과 군법사가 십시일반 모아 매주 법당을 찾는 1000여명의 훈련병들에게 줄 초코파이, 음료수 등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매달 한번씩 개최하는 수계법회 때는 군법사가 사재를 털어 위문품을 주고 있다.

영내에 있어 일반인들의 출입이 자유롭지 못해 부대 안에 사찰이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지역 불자들에게 알려지지 않았고 후원 단체나 사찰도 전무한 상태다.

다행히 또다른 군법당인 흥국사가 영외에 위치해 있고 부사관과 장교 및 지역 불자들을 중심으로 운영돼 약간의 보시금이 들어오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재정이 열악해 보국사를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담당 주지 군법사와 신도회 간부 등이 열의를 가지고 군포교에 나서고는 있지만 재정적으로 부족하다보니 법회 이외에 훈련장 위문 등에서는 초코파이 하나 겨우 줄 정도로 열악하다.

해군교육사령부와 같이 군에 처음 들어와 불교를 접하는 군법당은 지역 사찰이나 단체, 불자들의 후원이 더욱 절실하다. 초코파이 하나로 평생의 종교를 선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해군교육사령부 진승필 군법사는 "장병들의 포교와 교육을 위해 더 노력하고 싶지만 많은 시간을 법회에서 나누어줄 초코파이와 음료수를 확보하기 위해 시간을 허비하고 있어 이같은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라며 종단과 불자들의 후원을 요청했다.

후원계좌 821145-56-028181 농협 백근욱, 전화 017-340-5583

김두식 기자

군종교구 상임위 개최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주지 일면)는 8월 18일 총무원 총무국장 정범 스님과 부주지 계성 스님, 각군 본부 군법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부 호국 원광사내 교구 회의실에서 상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상임위원회에서는 상반기 업무성과 분석 보고, 상반기 재정결산 보고, 만인동참 추진 경과 보고,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 등의 안건이 처리됐다.

일면 주지 스님은 "그동안 조직을 정비하고 내적 역량을 강화하는데 주력했다"며 "향후 1주년을 맞아 다양한 대내외활동을 준비하는 등 군포교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누구나 동참할 수 있어요

■어떻게 진행되나

'2006 군포교 합시다' 캠페인은 '군법당-사찰-기업(학교 · 불교단체 포함)'을 하나로 연결,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군법당 후원체계를 갖춤으로써 군포교 활성화를 이끌어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군장병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등 미래불교의 씨앗을 심는 소중한 불사로 추진됩니다. 종단, 사찰, 기업, 단체, 학교, 개인 등 누구나 동참이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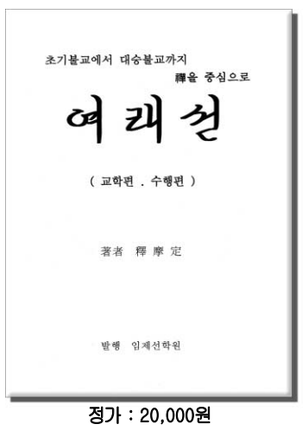
■어떻게 동참하나

▷**결연** : 사찰-군법당-기업을 연결.
▷**군법회 위문** : 소외된 군법회를 위문.
▷**군법당 건립 후원** : 낡은 군법당 재건, 신축 지원.
▷**정기적 물품 전달** : 군법당, 군불자에 후원품 전달.
▷**법사 지원** : 법사 없이 진행되는 군법회를 지원.
▷**동참 및 문의** : 조계종 군종교구 (02)797-7266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02)2004-8291
▷**후원 계좌안내** : 006-25-0023-989 (국민은행,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477401-01-092896 (국민은행, 예금주 군종특별교구)

신설 군법당 부처님 무료로 모셔드립니다
불모 허길량씨 후원 석가모니불상(재료:銅) 문의:02-2004-8291

만 인 동 참
ARS : 060-700-0108 당신의 후원이 군불교를 살립니다

여래선(如來禪)지도자 과정 입학안내



정가 : 20,000원

공부는 세세생생 하는 것이요, 부처님 교설의 본지(本旨)를 잘 알지 못하면 불지(佛智)에 들기는 요원하고 수행은 더욱 어려우며 진리의 왜곡과 헛된 망상에 끄달려 지옥문은 더욱 가까워질 것입니다. 본원의 불교 특강은 2기 개강을 앞두고 불교의 핵심 교학인 여래선의 지도자 과정과 공사상의 특강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초기불교부터 대승불교의 교학편과 수행편을 마스터하는 과정을 개설하여 도제 양성을 위한 유연 도반을 모시고자 합니다.

- 개강 : 2006년 9월 18일 오후 2시
- 대상 : 스님, 일반인
- 접수 : 9월 12일한
- 학기 : 2학기
- 특전 : 1. 한.중.대만 3개국 인정 여래선 지도자(禪師) 자격증 수여
  2. 수료후 선원개원 하실 분 행정 및 실기지원.

※ 통신과정도 가능합니다.

◀여래선 지도자(禪師)과정▶

개강일시	교과목	내 용	교 수	수강료
2006년 9월 18일	1교시 여래선	초기불교부터 대승불교까지	석마정 스님	1,2학기 전60만원
매주 월요일 오후 2시-5시 법회일엔 화요일	2교시 공사상(특강)	용수보살의 공사상을 중심으로	동국대 문의식 박사	
	유식학	우편 통신생	동국대 오형근 박사	교재포함 40만원

수강료 입금통장 : 국민은행 547201-01-139081 임제선학원

공익법인 한국불교임제선학원
서울 중랑구 망우3동 120-7 문의 02)496-3952-3

아직도 신문광고에만 매달리십니까? 불교도 인터넷 시대! 광고도 인터넷 시대!

http://ad.buddhapia.com
주소창에 "애드부다피아" 만 치세요

불교 최초 실시간 온라인 광고 사이트
애드부다피아!!

인터넷 세상, 이제 불교계도 모든 광고와 정보를 인터넷으로 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급하게 전해야 하는 사찰관련 홍보나 행사, 법회안내, 그리고 급하게 구하는 구인구직자리...등
아직도 신문이 나오는 날짜만 기다리며 광고를 하십니까?
이제 애드부다피아를 통하여 빠르고 편리하게 광고의 본질적인 효과를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애드부다피아는 주요 검색포털사이트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 모회사인 국내 최고의 불교신문인 현대불교신문사와 불교포털사이트인 부다피아와 붓다뉴스와 연계하여 전략적인 마케팅 공략을 함으로써 귀사의 소중한 광고를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홍보하여 드립니다.

지금 바로 애드부다피아로 접속하세요!!

빠른 속도로 실시간 광고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간지인 불교계의 신문에 광고를 하려면 최소 1주일에서 많게는 2주 이상이나 광고접수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홍보기간이 중요한 법회나, 행사 등과 관련한 광고의 경우에는 원하는만큼의 광고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애드부다피아는 실시간으로 바로 광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급박하거나 홍보기간이 중요한 광고에서 최대효과를 약속합니다.

광고 신청도 빠르고 편리합니다!
일일이 전화나 팩스로 광고를 신청해야 하고 또 광고문안이 나오면 다시 확인, 수정해야 하는 불편함 없이 애드부다피아는 간단하게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또 바로 온라인에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부다피아, 붓다뉴스가 함께 합니다.
국내 최대의 불교포털사이트-부다피아, 국내 최대의 불교 인터넷 뉴스 -붓다뉴스와 함께하는 부다피아는 이미 불교계에선 국내 최대의 방문수를 자랑합니다. 애드부다피아는 이러한 부다피아, 붓다뉴스와 상호연계하여 광고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최다노출을 극대화할 수 있어 가장 높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광고와 함께 풍부한 정보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한정된 공간으로 인하여 많은 정보를 보여줄 수 없었던 지면광고와는 다르게 애드부다피아에서는 표현하고 싶은 광고의 모든 컨텐츠를 담아 홍보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는 물론, 보다 역동적인 동영상 서비스로도 광고를 할 수 있으며 언제라도 수정, 보완이 가능한 편리한 광고 시스템입니다.

[광고접수문의] 전화 : 02)2004-8213~7, 02)732-1522(직) / 팩스 : 02)737-0696

대구BBS 개국 10주년 기념 공연
창작 뮤지컬 갓바위!!
9월 25일 · 26일 / 여의도 KBS홀
사랑과 효, 그리고 적대감동!!
입장권 예매 02-739-7837 www.interpark.com

BBS 춘천불교방송 FM100.1MHz
음악이 있는 오후 오후 3:05 ~ 4:00
감자바우 황금바우 오후 4:10 ~ 4:45

아토피여 이젠 안녕~

갑사 아토피 Zero 산사학교



인드라망처럼 고리지어 얽힌 생태계를 배우는 아이들. 현대의 환경질환인 아토피의 원인과 치료법을 이번 산사학교에서 배웠다.



산사학교는 4박 5일동안 유기농 식사를 제공했다.



숲에 널려 있는 나뭇가지와 나뭇잎을 붙여 만든 아이들의 작품들.

환경오염으로 인해 새롭게 등장한 현대의 '골칫거리' 아토피. 요즘 아이들 4명 중 1명이 아토피 때문에 하루하루를 힘겹게 보내고 있다.

'문명병'이라 불리는 아토피를 치료하기 위해 아토피를 친구처럼 달고 사는 초 · 중학생 20명이 계룡산 갑사(주지 장곡)를 찾았다. 생태지평과 불교환경연대, 대전시민환경연구소가 주최한 '자연이 키우는 아이들, 아토피 Zero 산사학교'에 참가한 아이들은 맑은 숲과 공기를 가진 산사에서 아토피가 왜 생겼는지,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지 배웠다.

#"집에 가서 과자 콜라 먹고 싶어요"

8월 24일, 계룡산 국립공원내에 위치한 공주 갑사에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었다. 21일부터 4박 5일간 열리는 '아토피 Zero 산사학교'에 참가한 아이들 중 일부는 시간이 지나자 처음의 호기심이 사라져 짜증을 부렸다.

서울 신정동에서 온 경환(12 · 양동초교 5년)이는 "아~ 집에 가고 싶어요. 과자도 먹고 싶고, 콜라도 먹고 싶어요." 노래를 부른다. 아이들을 숲 체험장으로 인솔하던 이승화 선생님이 경환이를 달래느라 한참을 다독인다. 이번엔 준하(9 · 서울 공덕초교 2년)의 호기심이 발동했다. 여기저기 얼쩡거리더니 대열에서 한참이나 뒤쳐진 것이다. 그러나 산사에서 아이들은 변하고 있었다.

이날 숲 체험은 자연의 소중함을 배우는 시간. 사각의 천을 준비한 지도교사는 아이들에게 동물 이름을 붙여주고 천을 중심으로 빙둘러 앉힌다. 유빈(8 · 서울 문정초교 1년)이는 장수하늘소, 경도(12 · 남양주 수동초교 5년)는 고추잠자리…. 제각각의 이름을 받은 아이들은 손으로 바닥에 놓인 사각 천을 잡았다. 지도교사가 목초액이 담긴 그릇을 천 가운데 놓고, 아이들에게 목초액이 엎질러지지 않게 아이들을 일으켜 세운다.

아이들은 두 번이나 실패하고서야 겨우 중심을 잡고 일어서는데 성공했다. 그제서야 서로의 마음이 맞은 것이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선생님은 붙여준 이름 하나하나를 부르면서 천에서 손을 떼게 했다. 유빈이와 경도가 마지막으로 남았을 때, 선생님이 고추잠자리를 호명했다. 경도가 손을 놓자 목초액이 담긴 그릇은 바닥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그때 선생님의 말이 이어졌다.

"여러분이 다함께 천을 잡고 있을 때는 괜찮았지만 동물이 하나하나 사라지자 목초액이 떨어지고 말았어요. 이처럼 여러 동물들이 함께 살아가면 자연도 존재할 수 있지만 동물들이 하나하나 사라지면 자연도 존재할 수 없어요. 자연의 일부인 인간도 마찬가지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음식조절

산사학교 입학식날 아이들을 검진했던 강인정 한의사의 2차 검진이 이어졌다. 산사생활 4일째, 예상했던대로 아이들의 상태가 많이 호전됐다.

그러나 두명의 어린이는 호전됐다가 다시 나빠졌다. 치료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빠지는 명현현상(호전반응)일수도 있고, 환경이 아이의 기운과 맞지 않아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다고 했다.

강인정 한의사가 아이들에게 묻는다. "아토피는 왜 생길까요?"

참가아이들 가운데 가장 부지런하다는 평을 받은 성준(11 · 서울 영신초교 4년)이는 물론, 아이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한다.

"환경오염 때문에요." "과자를 먹어서요." "가공식품이 해로워서요."

아이들의 답을 다 듣고 난 뒤 강한의사는 차근차근 설명한다.

"북한에는 아토피가 없어요. 왜냐하면 환경이 깨끗하고 인공색소가 든 과자나 몸에 해로운 음료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걸 너무 좋아하죠? 아토피는 그런 음식에 든 독소를 몸이 다 소화시키지 못해 생기는 질환이에요. 그 독소를 제거하면 나을 수 있겠죠?"



산사학교가 열리기 전과 4일째 되던 날 두차례 아이들을 진료한 강인정 한의사(왼쪽)는 "아이들의 상태가 호전됐다"고 진단했다.

치료법도 소상하게 일러줬다.

"아토피는 병이 아니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아토피를 치료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음식 조절이에요. 과자와 유해한 음식을 먹지 않아야 해요. 다음으로는 매일 운동을 해서 땀을 빼면 독소가 함께 빠져 나와요. 운동을 한 다음에는 반드시 미지근한 물로 목욕을 해야 해요. 물에는 녹차와 쑥을 넣으면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꼭 녹차와 쑥을 우려서 목욕물에 넣어달라고 하세요.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아토피가 낫는지 알았죠?"

"예!" 아이들의 목소리가 우렁차다.

#"녹차와 쑥 넣은 물로 목욕 하세요"

5일이나 부모와 떨어져 지내며 자연과 가까이 한 산사학교는 아토피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으로 마무리됐다. 자원봉사자로 참가한 지수(13 · 광주 신광중 1년) 엄마는 "여름에도 반팔옷을 입지 못하는 아이를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는데, 본인은 오죽할까 생각하면 눈물이 날 때가 많았다"며 "이번 산사학교에서 밝게 어울리는 딸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털어놓았다.

'아토피 Zero 산사학교'는 시민사회단체와 사찰이 현대 최고의 골칫병으로 일컬어지는 아토피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손을 맞잡은 의미 있는 '사건'이다.

가장 친자연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산사가 아토피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생태지평에서는, 아토피 문제가 개인의 질병 차원이 아니라 국가적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아토피 Zero 산사학교'는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다.

김미현 생태지평 연구원은 "첫 산사학교의 성과를 향후 아토피 문제해결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산사학교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네트워크도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숲에서 자연 소중함 느끼고
아토피 원인 · 치료법 배워

공주/글=박봉영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열침의 효능 은행석 온열복대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식약청 의료용구 개인용 온열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전자기발생기 : A85020호
전기용품 안전 인증서 : HH07236-5004A호
● 삼성화재 배상보험가입
● 특허청 실용실안출원
● 전자파 장애실험필
가격 245.000원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 하면 질병의 원인이 된다.

원적외선 "침"의 효능/신비로운 은행석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며 북한3대 특산품의 금강약돌이 주성분인 최고의 기능성 건강 치료기 은행석 온열복대는 34개의 금강약돌 볼이 70~80℃이상의 고열이 발생 화상 없이 뱃속 깊숙이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침투하여 원적외선"침"을 맞는 효능으로 쑥뜸보다 간편하며 효과적인 복대방식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복대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만 있어도 장속의 노폐물 배출. 하복부 지방분해,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변비, 생리통, 냉대하등을 자연 치유력 하며 당뇨 및 성기능개선 등에 효과가 있는 우수한 의료기기 입니다.
날씨가 더울수록 배(오장육부)는 차가워 집니다

원적외선 "침"의 효능/가격은 최저 효능은 최고
오장 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은행석 온열복대는 고열의 원적외선 "침"이 뱃속 깊숙이 침투 뜨겁게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는 신비한 제품으로 허리, 발바닥온열 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등 안전하고 편리한 다용도의 은행석 온열복대는 꾸준히 사용하시면 건강도 지키며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고 장수합니다.

식약청 의료기기 인증 은행석 온열복대의 효능
※ 오랫동안 참선기도 하시는 분 ※ 허약한 氣회복
※ 생리통 허리통증 완화 ※ 아랫배가 냉하신 분
※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 산후조리, 수술후 요양중인 분에게 적극권장
※ 의자에 앉아 장시간 업무를 보거나 공부하는 수험생의 디스크 허리교정

암을 예방하는 WBH 치료법을 응용한 온열복대
미국, 독일, 일본등에서 처음 시도되었던 FIRWBH(원적외선 전신온열)이 최근 한국 암재활 센터에서도 소개되고 있다. 환자의 전신을 42℃까지 가온시켜 1시간동안 유지하는 과정중에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여 치료하기도 하며 약물요법과 병합으로 암치료 효과를 높여주는 치료방법이다.
은행석 온열복대는 80℃의 고열이 발산 원적외선이 뱃속 깊숙히 침투하여 췌장까지 42℃의 열을 가온시는 의료기입니다.

문의전화 : 닥터금강 (02)3210-3178,9 www.dk21.net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회사는 작은 '인드라망'
신뢰가 최우선

이영숙 (주)코모도호텔 대표이사 회장

최근 사찰경영이 관심을 모을 만큼 불교와 경영, 경제를 접목하려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1980년대 등장한 불교경제학이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자리를 잡지 못한 상황에서 이같은 시도는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기업은 어떤 가치를 추구하느냐에 따라 성과나 미래는 크게 달라진다. CEO의 경영철학이 기업성공의 핵심요소가 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난호 배관성 청대문 대표이사에 이어 두번째로 호텔업계를 대표하는 여성불자 CEO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을 역임한 이영숙 코모도호텔 대표이사 회장을 서울 조계사에서 만났다.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23년간 호텔경영을 이끌어온 이영숙 코모도호텔 회장을 조계사에서 만났다.

특유의 성실함 · 결단력으로 회사 정상화 성공
중요한 결정 내릴때는 108배하며 지혜 구해
최선 다하는 직원들엔 칭찬 · 배려 아끼지 않아

▷"부처님은 나의 판단기준"

자애로운 어머니의 품성으로 23년째 코모도호텔을 이끌고 있는 이영숙(74 · 법명 근관) 대표이사 회장이 8월 23일 부산에서 서울 조계사로 먼 발걸음을 했다. 9월 4일 퇴임하는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 스님을 만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다. 도영 스님은 부산불교여성개발원장도 맡고있는 그에게 "기업을 육성하듯 미래불교를 키우는 여성불자가 되라"는 의미심장한 법담을 들려줬다.

이영숙 회장은 경영상황이 좋지 않던 1984년 코모도호텔 대표이사를 맡아 특유의 성실함으로 호텔을 정상화시키고 나아가 한단계 업그레이드시켰다. 또 부산 서라벌호텔과 경주 웰리치조선호텔 인수를 차례로 성사시키면서 여성을 대표하는 CEO로 주목받고 있다.

"인욕하고 성실하게 일하다보면 잘 해결된다는 신념으로 호텔을 경영하다보니, '이것이 불교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것도 故 이기영 박사로부터 불교를 공부하면서 비로소 알게 된 거에요."

독실한 불자였던 친어머니와 시어머니가 행동으로 불교를 많이 가르쳐주었다. 전에는 두 어머니가 절에 가끔 데려가면서도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아 불교에 대해 가르쳐주지 않았다고 여겼다. 제 식구도 먹을 것이 넉넉지 않은데도 주위 사람들에게 베풀고 사찰불사에 동참하는 두 어머니의 모습은 때로 못마땅해 보이기까지 했다. 그러나 본인이 불교를 공부해가면서, 두 어머니가 몸소 행으로 보여준 모습이 불교였음을 알게 됐다. 이는 20여년간 부산불교신년하례와 운전기사불자회의 장소 · 음식공양을 해 온 원동력이 됐다.

"지금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할 순간에는 항상 부처님께 '이럴 때는 제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묻고 108배를 올립니다."

▷최선 다하는 성실함이 중요

이영숙 회장의 경영 노하우는 사람을 다루는 테크닉에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부산 코모도호텔의 200여 직원들이 이회장을 어머니처럼 따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테크닉의 핵심은 칭찬과 배려, 직원들의 노력을 알아주는 CEO의 자세다.

"직원 한사람 한사람의 태도와 실수를 지적하는 것은 그 직원을 불성실하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더러는 그런 행동을 세심하다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경영자가 직원들을 늘 칭찬하고 배려하면 직원은 회사를 위해 자신이 가진 실력 이상을 발휘합니다."

이회장이 칭찬을 아끼지 않는 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성실히 일하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모습'이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면 원하는 바를 반드시 이룬다는 신념은 이회장의 경영철학이기도 하다.

"직원들이 주어진 업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 성심과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모습보다 값진 것은 없습니다. 최선을 다했는데도 결과가 좋지 않다면 칭찬과 격려로 다시한번 힘을 북돋워 줘야지요. 노력하는 과정은 제쳐두고 좋은 결과만 평가하는 경영은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이영숙 회장은 경영진과 직원이 서로 신뢰하고 함께 호흡하는 회사를 만들기 위한 경영이 불자CEO가 추구해야할 경영으로 제시했다. 회사도 사람과 사람, 관계와 관계, 작용과 작용이 얽혀있는 작은 인드라망이기 때문이다.

글=박봉영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이영숙 대표이사는

1933년 경북 영덕에서 태어난 이영숙 회장은 이화여대 약대를 졸업하고 부산불교신도회 부회장,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을 역임했다. 현재 코모도호텔 대표이사 회장, 부산 상공회의소 부회장, 부산 불교여성개발원장으로 일하고 있다.

붇다의 경제학 (15)

새 잣대로 세상을 보자

지난 한 세기 동안 우리 인류는 힘겨운 싸움을 했다. 현대사는 우리 인류가 더 큰 자유와 평등을 위해 싸웠다고 한다. 그런데 모두가 자유와 평등을 위해 싸웠다고 하니 우리는 누구와 싸운 것이고, 우리에게서 지고한 가치들을 앗아가려고 했던 그 악마는 과연 누구였든가.

지긋지긋한 싸움의 와중에서 우리는 싸움의 어느 한 쪽 편에 서기를 강요받았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둘로 나누어서 보지 않으면 안 되었다. 자본주의 아니면 사회주의라는 잣대로 우리는 세상을 분별하였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나라, 사회주의 경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나라로 나뉘어졌고, 소위 생각있는 사람들은 자본주의자, 사회주의자로 자기 자신을 자리 매김해야만 했다. 지난 세기 말까지만 해도 한쪽 눈금의 끝은 자본주의이고, 또 다른 한 쪽 끝은 사회주의인 잣대를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그럭저럭 제대로 볼 수 있었고, 식별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구 소련을 비롯해 동구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붕괴된 이후 그 잣대로는 더 이상 이 세상을 분별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민족과 국가들 간에 벌어지고 있는 증오와 갈등을 더 이상 설명할 수 없게 되었다. 사람들을 자본주의자와 사회주의자로 나누는 것으로는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기가 불가능해졌다.

새뮤얼 헌팅턴은 현대에 벌어지고 있는 지구촌의 수많은 충돌의 원인을 문명의 충돌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그의 설명도 미흡하다. 문명이 다르다는 것이 왜 충돌을 가져와야만 하는가. 다르면 꼭 충돌해야 하는가. 다르면 더 좋아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종교가 다르다는 것, 문화가 다르다는 것이 충돌과 갈등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될 수는 없다.

대승불교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 무엇이든가. 이타(利他)이다. 남[他]을 이롭게 함으로써 자신의 이익을 삼겠다는 마음가짐이다. 대승의 정신은 자신의 해탈만을 목표로 삼는 편협한 마음에서 벗어나 모든 중생과 함께 성불할 것을 목표로 해서 살아가겠다는 정신이다. 사람들은 타인도 사랑하는 사람과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구분되어진다. 대승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잣대로 보면 세상이 더 잘 보인다.

지난 세기에 지구촌을 휩쓸었던 전쟁의 광기도 어쩌면 자기 자신과 자신의 나라만을 사랑했던 아주 이기적인 사람들의 수준 낮은 다툼이었는지도 모른다. 자유와 평등이라는 말은 뒤에 그 전쟁에서 살아남은 개인과 나라가 자신의 행동을 미화하기 위해 만든 말인지도 모른다.

지구촌이 평화로워지고, 인류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더 많은 대승인(大乘人)이 세상에 나타나야 한다. 나와 우리만이 아니라 타인과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야 말로 정말 존경받아야 하는 존재이다. 실망스럽게도 우리 사회의 지도자들은 아직도 자본주의, 사회주의 잣대로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 사회를 나누고 있다. 틀린 잣대로 세상을 재고 그 수치로 사회를 이끌고자 할 때 좋은 결과가 나올 리 없다.

지난 세기에 우리가 싸웠던 악마는 나와 우리만을 생각하는 에고이스트였다. 진정한 자유와 평등은 우리 마음속의 에고이스트를 물리칠 때 가능하다. 우리의 지도자들이 아직도 자신을 자본주의 신봉자, 혹은 사회주의 신봉자로 자신을 자리 매김하고자 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여전히 어두울 수밖에 없다.

새로운 잣대로 세상을 보자. 21세기의 지도자는 자본주의 신봉자나 사회주의 신봉자가 아니라 대승인이어야 하고, 보다 많은 대승인을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구병진(경영학 박사)

문명이 다르다는 것은 충돌 이유 될 수 없어
자본주의 사회주의 나눠보는 시각은 잘못
21세기는 이기심 초월한 대승인의 세상돼야

클릭! 불교문화상품
불교문화상품전문몰 mahamall.co.kr
상품문의 : (02)732-1520



■연씨 · 연근 · 백련잎가루

연꽃 씨앗은 전분을 비롯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의 주요 영양소와 비타민, 철분, 칼슘 등이 고루 들어 있는 우수한 영양식품입니다.
연씨가루는 아침식사 대용으로 요구르트 · 우유 등에 타서 드시거나 일반 선식류와 함께 혼합해서 드시면 좋습니다. 연근가루와 백련잎가루도 찌개류, 육류 양념, 부침류, 떡을 만들 때 넣어드시면 맛을 돋구어줍니다.

가격 : 연씨가루 20,000원
연근 · 백련잎가루 10,000원


세로 88cm 가로 58cm

불자가정의가보로 안녕과번영의수호신

수월관음도
가정의 재난과 고통과 액운을 소멸

함에 감탄을 한다. 험한 세상 자손만대로 안녕과 번영을 지키는 불자가정의 수호신인 수월관음도는 조계종 종정상과 대통령상, 한국불화대전 대상을 수상한 불화의 명장이신 法性 金義星 화백께서 3년간 기도와 영험으로 그린 불화로 100% 천연코튼 판화지에 24K 판화와 베를린 목시를 사용해 자자손손 후손에게 물려줘도 변색되지 않게 제작 했으며 최고급 2단 접즙표구로 거실 또는 사업장에 모시면 대단히 품위가 있는 세계가 격찬한 영험의 불화다.

불자가정의 3대 가보중 첫번째인 수월관음도는 뒷면에 카필라 불광사의 보증서와 자자손손 후손에게 물려줄수있는 소장인란이 있다. 영험이 나타난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카필라 불광사에는 가보로 구입하는 분과 아들딸 자녀에게 한점씩 주기도 하고, 새집이사 선물로 구입하기도 하는 등 지난번 KBS 역사스페셜 수월관음도 방영 후 전화신청이 쇄도하고 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특급택배로 보내주고 있으며 점안불공을 마친 수월관음도를 받으면 목욕재개하고, 정한수놓고, 삼배하면서 갖가지 소원기도 한다음 거실또는 사업장에 걸면 영험이 시작된다. (가격 195,000원)

■ 문의전화 02-741-4488
농협 032-12-193445 이상하
http://club.cyworld.com/kapilla

용어해설

● 수월관음도 (水月觀音圖)
관세음보살 부처님의 모습이 그윽한 연못위에 비치는 달처럼 무명의 어둠에 있는 중생들에게 자비로운 구제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불화다.
● 소재화 (消災畵)
불교에서 소재화란 모든재난과 고통 액운등을 소멸하고 예방한다는 불화 그림을 말한다.

평생 부자지갑
존경하는분께 사업성공의 선물!
사랑하는 아내에게 평생 부자의 선물!

옴마니반메훔福지갑
음양의 조화로 놀라운 재물과 땅속의 보화까지 얻는 비방


남성용중지갑 (검정)
여성용롱나노 장지갑
(적색, 보라색)

세상을 살다보면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고 몰질로는 고통을 받고, 해결해야할 문제는 쌓이고, 부부간의 애정은 멀어지고, 안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답답한 것은 음양의 조화를 깨닫지 못해 일어나는 일들이다. **세상사는 동안 고통중의 고통이 몸질이 없어 당하는 고통으로** 부처님께서 시위국 기다림 산중에 계실 때 가난으로 헐벗고 고통속에 있는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내리신 **영험의 비방이 옴마니반메훔 육자대명왕진언으로** 항상 외우고 간직하면 모든문제가 놀랍게 해결된다고 설하셨다. 불경에 입각해 법구를 전문으로 제작하는 카필라불광사에서 점안불공과 축원불공을 마친 옴마니반메훔 복지갑은 일반지갑과는 비교될수 없게 최고급으로 제작하고 천연가죽에 은나노처리까지 했으며 지갑앞면에는 **음양의 조화로 만사가 형통되는 육자대명왕진언**을 넣고 지갑내부에는 **동서남북에서 돈을 들어오게 하는 보병과 악귀와 잡귀를 쫓고 계획한 일과, 하고 있는 일을 막힘없이 성취시키는 영험의 비방인 반장**을 순금도금하여 넣었다.

출시 100일만에 안되면 장사가 잘되고, 절망속에 있던 사업장이 희망이 넘치고, 생각지도않던 돈이 들어오고, 못팔아 걱정하던 재고가 팔리고 고민하던 부부관계가 회복되는 등 모든 문제에는 비밀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지갑이다. 옴마니반메훔 지갑을 여성이 지닐때 고민하던 문제가 해결되고 가정이 금전적으로 풍요로워지며 음양의 조화로 부부관계도 놀랍게 회복된다고한다. 고급케이스에 있어 선물로도 대단히 품격이 있으며 전화로 신청할때 사용하실 분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100일간 소원성취를 위한 새벽축원불공을 드려드리며 지갑은 우체국택배로 바로 보내준다.

여성용장지갑 95,000원
남성용중지갑 65,000원

■ 문의전화 02-741-4488
농협 032-12-193445 이상하
http://club.cyworld.com/kapilla

더 빠른! 더 좋은! 더 저렴한!

불자 생활 정보



▷ 광고문의 : TEL 02)2004-8213~6, 02) 732-1522
FAX 02)737-0696
▷ 계좌번호 : 농협 053-01-227471 현대불교신문사
▷ 광고가격 : 1Box(4.4×4.4) 4만원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소서
011-850-0176

범천명리학강의실

사일짜법주	9월 1일(금) 낮2-5시첫강의
육 효	9월 4일 (월)낮2-5시첫강의
용신특강	9월 5일(화)낮2-5시첫강의
궁통보감	9월 6일(수)낮2-5시첫강의
기문둔갑	9월 7일(목)낮2-5시첫강의

* 첫강의에 한해서 무료공개강의 합니다
* 각 과목 3개월(12주)에 확실히 책임완성지도
www.beumchun.com
02) 389-6597(연신내)

육임입문 출간기념
육임학 특강
■역학의 공식화, 쉬운 학습
■최고의 길흉적중율, 검증된 정확성
■강태공 · 제갈공명 애용 역학
고려육임학회
02)816-2115

역학개인지도
명리,성명,택일,풍수
쉽게 풀어보는 명리첩경
著者 반야선원 혜공 합장
02)421-8494
017-606-6628
(전화 상담도 함)

數(수)修理(수리) 사주팔자
● 천체의 이동에 따른 지축의 정립으로 인해 1년이 360일이 되며 양력과 음력이 일치하니 기존의 달력이 새달력으로 바뀌며 周易(주역) 다음으로 제 3역인 교易(정역)으로 쓰인다.(일부김항선생의 정역편에서 발췌)
• 동서양을 통해 변하지 않는 근본(기본적) 숫자를 통한 특유의 접술로고..
• 숫자가 사람 장소 사물에 대해 제공해줄 수 있는 숨겨진 의미를 찾아 운명해독의 비법전수
• 교재) 수수리수인작법서 무료증 (시중에 절판된 책)
수강처 : 031)633-1517

사찰의 각 행사 해드립니다
천도재, 49재, 점안식,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 회심곡, 호적
행사문의
010-4870-8359
범음범패 연수원장 덕산 합장

회심곡.천도재. 49재.바라.태평소
학인스님 행자모집
범음범패 교육도량 인간문화재 9호 이수자
마산 밤밭고개 세원암
016-428-6665
055)222-9486 천우 합장

눈 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노환으로 작은글씨 안보이시는 분 눈흐림, 눈건조, 눈부심, 침침함,눈빼빼함, 눈곱, 충혈, 시력강화, 렌즈착용 하신분 섭취하고, 반응 없을시 100% 환불
구입문의 (02)2631-2205,1305

사찰신도관리프로그램
阿彌陀佛
축원문카드관리는 기본, 신도증발행 및 바코드 마그네틱카드사용가능, 전화걸기 기능, 이메일전송, 축원문카드내에 신도사진 첨부기능과 지속적인 무료업그레이드로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031)746-1560
www.10879.com

범음범패 의식 해드립니다

점	천	수	예	바	사	각	
안	도	륙	수	라		종	
	재			나		의	
식	49 재	재	재	비 충	물	식	

학 인 행 자 모 집
대광명사(동양불교대학)
02)939-3327
011-9923-3329

기공지도자
전 문 과 정
수련생모집
행자모집
대한불교전통기공협회
051) 852-2277
016-551-9700

성인병 연근의학
발효 연근환
연근 청국장 분말
연근 인삼 발효즙
인삼 발효즙
주말회원,공동숙식입산회원
불교신앙촌
043)743-0102

천도재.49재
일인스님 25만원
이인스님 50만원
저렴한 보시금으로 해 드립니다
부산 심승스님 합장
051)627-7297

권 수행환경 이대로 둘 것인가?
불자동참연대 회원모집
cafe.daum.net/Buddha0408com

천수 바리춤,오공양작법(나비춤)
(살풀이, 극락춤, 승무, 지전춤, 연화무)
여법하신 스님들을 모시고 사찰의 모든 대소 행사를 정성으로 장엄해 드립니다
도림 불교 무용 예술원
원장 연지심 합장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 정원빌딩
051)515-7865
019-502-8868
바라춤, 나비춤 수강생 모집 中

연화석예석재 (구. 도림석재)
http://www.yhstone.net
한글도메인, 연화석예
불상, 석탑, 석등, 영탑, 석건축
공장: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동 267-3
전화 031)563-3535.567-1260
전송 031)564-2464.551-1500
e-mail:yhstone3535@hanmail.net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총무보살님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011-9778-0408

부전스님 모십니다
(비구니 스님)
▷울산지역
010-4559-8682
052)243-3881

사찰(女)사무원 (45세이하) 구합니다
041)673-3222

공양주 보살님 모 십 니 다
▷ 경기도 김포
011-688-6625

좋은 인연 기다립니다
저는 된장, 고추장 만드는 비구승입니다. 동업자나 후원자를 절실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010-4602-4916

지병이나 난치병으로 고생하시는 스님들께 네팔왕실 특산품인 히말라야 석청과 동충하초(중풍,암,당뇨,신경계질환 등)를 무료로 보시하고자 합니다 판매가 아닙니다. 연락주세요
이준규
011-277-9735

공양주 보살님 모 십 니 다
011-212-9810

사시맞이, 49재 의식 가능하신 부전스님 모십니다
043)256-2655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55~66세
054)971-7561

공양주 보살님 모 십 니 다
▷45~55세 이하
경주 남산
054)748-3530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강원도 양양
법비오는곳 동해사
033)672-2900

공양주 보살님 모 십 니 다
▷40~60세, 경기도
031)571-5424
016-307-8878

신심있는 공양주 구함
033)671-7753
010-4573-8316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구미 영명사
054)482-1390

포교당 안내
● 위치: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 평수 : 37평
3층 건물중 3층(옥상 사용)
● 특징 : 상가, 아파트 지역 (교통편리), 포교지로 최적지
● 가액 : 보증금 2,000만원/월10만원
시설비 : 380만원(집기일체)
019-656-2766

토 굴 안 내
● 위치: 충남 홍성 광천읍
● 건평: 50평
● 대지: 200평, 전: 300평
● 가액: 1억 5천만원
011-425-6054

포교당(급) 안내
서울 강남 도심지 최고의 위치 최상의 시설을 갖추고 운영중인 포교원으로서 주지스님 건강상 문제로 급 안 내 합니다
● 위치: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 시설: 법당 50평, 방 2개, 주방 1개, 화장실 2, 삼존불, 후불관세음보살 50분, 신중산신각,나한존자 16분
● 가액: 보증금 2천만원 월 100만원- 시설비 3500만
011-9269-8445

토굴별장안내
● 위치: 남덕유산 자락
● 부지: 1630평
● 가옥: 신축 황토기와집 55평,창고 10평
● 특징: 집 옆으로 개울이 흐르고 집뒤에 솔 숲. 정원이 아름다운 집
● 가액: 5억 3천
017-432-3663

포교당안내
● 위치 : 경산시 최고 중심
● 건물 : 5층 건물에 5층(EV유)
● 평수 : 80평, 법당 40평, 주지실, 종무실 후원 30평
● 가 액 : 보증금 1000만원 월70만원
● 시설비: 2000만원
010-7181-6794

포교원(급)안내
● 위치: 인천 부평역 10분거리
● 평수: 4층 건물 중 3층 35평
● 가액: 보증금 1000만원 월 25만원
● 시설비: 답사 후 가격절충
● 즉시법회가능 / 몸만 오시면 됨 꼭 하실분만 전화요망
010-8676-6921

사찰안내(부산근교)
● 경남 웅촌 별장 360평-2억 3천
● 경남 울주 별장 170평-1억
● 경남 김해 주촌 사찰 203평-2억5천
● 부산시내 황령산밑 사찰 350평-5억2천
● 부산 사하 사찰 250평- 7억 5천
● 부산 시내 사찰 400평-12억
011-855-6699(남문)

토굴안내
● 비구니 스님 적합
● 위치: 경북 성주군 백아면
● 대지: 105평
● 가액: 1천 9백만원
010-7207-3323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대구시 남구 대명동
● 대지 110평, 법당 40평
● 시설 : 주지실, 종무소 1층 -공양간, 창고. 2층- 요사채
● 특징 : 도심속의 기도와 포교도량
● 가액 : 급 양도 3억 3천만원
011-9853-3843

28숙 특별지도
● 풍수와 28숙을 정확하게 보는 방법을 1:1로 빠른시일내에 쉽게 알려드리며 승려에 한합니다
● 위치 : 지하철 1호선 신설동역 3번출구
● 지도스님 : 대주 합장
☎ 02)926-1259 / 011-741-0867

대한불교 전통조계종
- 사암 등록 환영합니다
- 종무원 개설 원하시는 사찰 환영합니다
- 스님이 되시고자 하는 분 적극 환영합니다
총무원 행정실 · 전통불교대학 삼보선원
054)464-4725, 4735/010-7302-0077

충주 청계산 청룡사 토종꿀 판매
특징: 청계산의 청정자연 환경에서 '06년도에 채 취하는 제품입니다. 뜻있는 불자님들의 연락바랍니다
※제품에 이상이 있을 시 100%환불함
◉ 가정에 어려운 문제 상담하여 드립니다(직장,사업부진문제,자녀 진로문제, 남녀 문제등)
연락처: 충북 충주시 소태면 오량리 561-1 전통사찰약사여래기도도량 청룡사 주지 합장
TEL 043)855-8856 / 043)854-0633

행자(예비스님) 모집
● 산중 분원인 감포선원(무문관)에서 수행함
☎ 문의 : 054)771-8350. 011-881-9710(주지스님)
- 대구큰절에서 생활하기를 원하면 그것도 가능함
- 화주이신 우악스님 성좌됨
- 1인 1실, 민주적 교육, 수계 후 모든 교육비 지원
대한불교 조계종 영남불교대학 · 관음사
053)474-8228,011-9852-0075(총무스님)

고(古)건물 수리전문
드잡이 전문, 건물방향바꿈, 건물멀리옮김
건물 넘어간집 바로잡음, 석가래 기둥등 썩은곳 교체
신축 및 기와등 한옥전문 (문화재 등록인 다수 보유)
(주)고도건축 대표 강충 대구광역시 동구 각산동 389-2 성지아파트 3동202호
연락처: 053)964-0858 / 휴대폰: 011-804-1748

유명표구사
불자가 운영하는 유명표구사에서는 불자님은 물론 스님의 작품을 삼보전에 공양 올리듯 정성껏 표구해 드립니다
대표장인 이종부합장 ▷전국 택배가능◁
02)374-9886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응암5거리 (지하철6호선 새절역 1번출구)
BBS 퀴즈대장경 신행상담 코너 - 달마도 표구 협찬(8년)

氣수련을 하지 않고도 바로 氣치료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 수련을 하지 않고도 바로氣치료 원격치료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길은 전세계에서 레이키(Reiki. 靈氣) 밖에는 없습니다. 지난 10년동안 많은스님 거사님 보살님들이 배웠습니다.
● 동서양식 레이키 : 개인교육 70만원, 단체교육 50만원 교육기간: 2~3일
※교육1개월 후 무료 추가 보충교육있음
● 현대생활레이키연구회/www.reiki.co.kr(한글검색어 : 레이키)
전 화: 02)720-5719, 720-5682 핸드폰: 010-8392-2557

가족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기도
태아영가천도
마음이 불안하고 뜻대로 되지 않는 분
태아영가천도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회향 : 2006년 10월 28일 토요일
대불정능엄신주 독송
능엄신주 해석 독송기도
대학입시합격기도
입시생은 열심히 공부하고 부모님은 열심히 기도하시면 소원이 성취됩니다.
자녀교육문제
자녀탈선예방을 위한 부모의 역할
사법 행정고시 각종 취업 합격기도 책임지도
가정에서 전국 포교활동 하고 싶은 분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 드리는 방법

경전독송기도특강 (3개월과정) • 기도와 회향 매주 화요일 • 보시와 불공방법
①우리말 천수경 ②문수보살예찬문 ③보현행원품 ④관세음보살보문품 ⑤지장경 ⑥금강경 ⑦아미타경 ⑧약사여래경 ⑨능엄신주 ⑩신년법어 ⑪불탄법어(성철큰스님) ⑫영가천도 ⑬기 타

● 지방분 환영 ● 전국 포교활동 하실분
★가정방문 상담과 기도해 드림 스 님 동참환영
●군부대 법당 ●경찰서 법당 ●교도소 ●병원법당 법보시 하실분 문의 및 상담
●노후에 건강하게 오래살고 회향을 잘하고 복짓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며 밝은 사회 만들기
맨발등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꿈바위불교교육원 018-789-5008
서울 부산 대구 마산 안성 지방에도 있습니다

철학 수강생 모집
수 천년 전래해 온 중국 사주의 귀신타령 혹세무민하는 엉터리 명리철학을 환골탈퇴하고 水火가 짝이며 金木이 짝으로 상생관계라는 진리의 신사주 철학을 다음과 같이 공개 강좌합니다.
1. 모집인원 00명
2. 모집기간 2006년 9월 1일 - 15일까지
3. 모집대상 남녀 불문, 초보자도 환영
4. 개강일시 2006년 9월 18일(월) 부터
5. 수강장소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1126번지 대도한의원 3층 304호
6. 수 강 료 월 30만원
7. 수강기간 3개월
문의 : 주간 02)957-2247 011-9721-9721 야간 02)2243-9721
한국 만리 철학원 원장

사주운세 10초내 맞추면 통장입금
명리학[사주첩경통달](이석영)
명리학 질문 10초 내 답변
조상의 흐름이 잘못되면 이름모를 질병, 재난, 부부갈등, 혼사지연, 학업성적부진, 가출, 부모와 자식간의 갈등, 빙의 등 명리학으로 원인을 찾아드리고 퇴마와 천도방법을 상담으로 방법을 찾아드립니다.
굿이나 부적 등 부담되는 일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www.10cho-unse.com
02)826-5067
하나은행 361-810554-63707 김진동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5cm=50.000원 ● 계좌번호 : 농협 053-01-227471 현대불교신문사
· 전화 : 02) 2004-8213~6 / 02)732-1522 (直)
· 전송 : 02) 737-0696 · e-mail : jabi1522@empal.com

사 찰 안 내
- 위치: 충북충주 / 법당: 23평 / 요사: 61평 / 부지: 2000평 / 가액: 6억
- 위치: 마산 / 법당: 17평 / 요사: 32평 / 부지: 100평 / 가액: 2억 6500
- 위치: 경남 / 법당: 20평 / 요사: 80평 / 부지: 650평 / 가액: 3억 5천

※ 전국 사찰 ,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미래공인중개소) 02)998-1994 011)713-5634

사찰안내
1.서울봉천동100평-4억5천
2.은평구포교당40평-월50
3.경기광주사찰850평-12억
4.여주사찰임대120평-2억
5.강원사찰물많음-5억5천
6.서울국유지무허가사찰多
•기도스님공양주신속연결
불교정보센터
현대불사 02)555-0575

토 굴 안 내
- 위치 : 지리산 자락 하동 악양
- 가옥 신축 황토 기와집 33평, 부지 672평
- 가액:2억2천
- 특징 : 집 위 대숲, 집안 연못과 잔디밭

016-367-2112

암 자 안 내
- 위치: 경남 밀양 얼음골 주위
- 임야 4500평 법당, 요사채, 산신각
- 가액: 4억5천만원
- 유명관광지 입구

010-4876-5535
010-4699-9387

토 굴 안 내
- 위치 : 진주시 대곡면 월아리
- 평수 : 178평
- 건물 2동
- 가액 : 1억

055)745-1083
017-587-7193

사 찰 안 내
- 위치: 천안근교 / 부지: 370평 / 법당: 20평 한옥 / 요사: 30평 한옥 / 가액: 2억 7천
- 위치: 대구근교 / 부지: 550평 / 법당: 15평 고찰 / 요사: 20평 산속 / 가액: 2억 1천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양도 운영하실 분 전화 주세요
삼소 (구, 광진불사) 02)723-4082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포 교 당 안 내
- 위치: 대구시 내당동 전철역에서 걸어서 3분 아파트 주택가
- 40평 3층
- 주지실, 상담실, 공양간, 화장실
- 전세 500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 1200만원 몸만 오시면 됨

011-437-6950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 동구
- 2층건물 . 위치 좋음
- 법당 2층 28평, 요사채 1층 45평
- 대지 105평 뒤는 야산. 용왕당有,지하수
- 실내 화장실 2, 실외 2, 심야보일러
- 가액 : 3억 (융자 4천 포함) 절충가능

011-226-2880

사 찰 (급) 안 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북안면
- 대지. 임야 5,000평
- 법당 20평 (산신각, 요사채 2동)
- 주차완비, 도로변
- 가액: 5억 5천만원

011-816-9104

사찰(급)안내
- 위치: 경북 의성군 안계면
- 평수: 대지 150평
- 건평 54평(3존불, 16나한)
- 가액: 보증금 650만원 (선세140포함)
시설비1,000만원(총1,650만원)

054)861-3014.861-3015
010-6374-0034

위치	부 지	가 액
• 부산	약 200평	5억
• 마산	약 100평	2억5천
• 서울	약 1000평	6억
• 충북	약 500평	2억
• 경기	약 1500평	6억

한 국 불 사 (한국 최고의 사찰 컨설팅)
연락처 : 02)6674-3535 / H.P 010-3154-3535
※ 전국 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상담 환영합니다.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 부지: 1500평
- 법당: 20평
- 요사: 3동 50평
- 가액: 1억 1천5백만원
- 특징: 대구에서 30분거리에 있는 조용한 산사사찰임
- 위치: 밀양시
- 부지: 1000평
- 법당: 40평
- 요사: 40평
- 기타: 산신각,석불,석등
- 가액: 3억 8천만원
- 특징: 도심 인근의 산세와 계곡이 어우러진 역사깊은 전통사찰임

좋은인연 됩니다 ※ 전국 소재 사찰양도 양수 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동진불사 대구 018-689-0455/서울 018-536-4064

암 자 안 내
- 위치 : 익산시 황등면 소재지
- 국유지 550평, 사유지 300평
- 목조인법당 25평, 조립벽돌요사 33평
- 산신각, 문화재급약사여래석불
- 시내 5분거리, 포교도량으로 적합함
- 양도가 : 1억 7천 심심풀이 전화 금합니다

011-677-8525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시 범일동 부산은행 앞
- 평수 : 총 70평 법당 35평, 요사 35평 복재 인테리어 최고의 설비와 안정된 여건 환경
- 보증금 5,000만원, 월50만(전세가능) 시설비 : 2,000만원

011-307-3473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산자락)
- 전체평수 1,400평
- 건물 85평/임법당 심야전기, 일체시설완비 즉시법회가능
- 가액: 5억 5천만원

010-3941-0113
054)975-6642

사찰터안내
- 절터, 전원주택, 펜션 민박촌, 연수원, 기타
- 경남 거창군 남하면 대하리 224, 약 2000평 151-3 , 약 3000평
- 위치: 가조 온천(지산)와 (가천) 합천호 사이

016-831-3366
055)944-663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칠곡군 소재
- 총평수: 416평 田 88坪
- 건물: 3동 60평
- 가액: 3억 5천 (절충가능)

010-3542-3203

사 찰 안 내
- 위치: 충남 당진군 면천면 (아미산 최고의 명당)
- 평수: 10,000평 중 종교부지 600평 허가득
- 가액: 16억원
- 건물: 대웅전, 산신각, 요사채 2동 국유지 600평 주차장 사용중
- 당진읍에서 10분거리 진입로 4미터 포장됨

연락 : 011-329-841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칠곡 동명
- 평수 : 385평 (대구에서 한시간)
- 기도장, 주방, 방 기타
- 산세수려, 미륵불기도도량 (아미타불부처님외 9위)
- 가액 : 7000만원 꼭 하실분만 연락 바람

010-7710-7875

사 찰 안 내
- 위치: 경기도 양평읍 5분거리
- 대지: 560평 법당 24평(목조), 산신각 5평(목조)
- 가액: 3억 1천만원 (절충가능)

031)771-5780
011-9090-1665

사 찰 안 내
철학하시는 비구니스님 수행하시기 좋은 곳
- 위치: 경남 함안 (도로옆)
- 가액: 답사 후 결정

055) 583-7710

포 교 당 안 내
- 위치: 의정부 역 앞 (상가 및 주택 밀집지역)
- 평수 60평, 법당30평 방3개, 거실, 화장실 샤워장, 옥상 사용
- 가액 : 2,000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 답사후 절충

011-529-2541

사 찰 안 내
- 위치: 서울 동작구 상도2동 장승백이역 2분거리
- 대지 66평, 건평 56평(1.2층)
- 1층 요사채, 2층 법당
- 가액: 4억 6천만원

02)815-0302
011-722-0302

사 찰 안 내
- 충남 공주시 오곡동 사찰(양옥)
- 신축 5년 법당 26평, 산신당 17평, 요사채 10평
- 아름다운 정원과 좋은 약수물 있음
- 가액 : 3억 6천

011-424-3252

토굴안내 (예경선원)
- 위치: 충북 옥천 (대전에서 20분 거리)
- 대지: 200평 중 100평 등기필
- 건평: 법당 25평 산신각 7평 요사채 2동(18평, 11평)
- 시설: 예쁘고 완벽하게 갖추었음
- 가액: 1억 1000만원

011-9405-8186
043)733-8186

토 굴 안 내
- 위치: 남원시 주생면 남원시내에서 10분거리
- 대지: 190평 90평은 텃밭으로 사용중
- 건물: 3동, 방 4개, 후원, 창고, 화장실
- 가액: 4천만원

010-6401-4939
010-5631-8439

암 자 안 내
- 위치: 팔공산 갓바위 뒷길 경북 경산시 와촌면
- 대지: 약 224평, 건평 40평
- 건물: 법당, 요사채 산신각 조경시설
- 가액: 2억 4천만원(조정가능)

011-529-7799
018-534-1777

사 찰 안 내
- 위치: 진주시 문산
- 산세수려한 곳
- 법당1, 방3개
- 전세, 매매 가능함

055)761-8998
011-870-6493

토 굴 안 내
- 위치: 충남 금산 대전에서 가까운 거리
- 목조 23평, 임법당, 황토방
- 대지 100평, 전 305평
- 가액: 1억 5천만원

041)753-8137
010-4202-3699

사 찰 안 내
- 위치: 충청북도
충주시
임법당

010-4804-1847

사 찰 안 내
- 위치: 밀양시 산외면 근방
- 대지: 약 500평
- 대웅전: 20평
- 산신각: 15평
- 요사: 50평

011-9516-5364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기장 -임법당
- 평수: 130평
- 법당 20평, 요사채, 방2, 거실, 주방
- 가액: 전세 3천5백만원(달세가능)
- 비품대 2천만원 답사후 절충 앞에는 바다, 뒤에는 산 경관 좋음

018-575-8407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부근 원주시 국선 전철역 부근, 개통 예정지 앞 의료단지 상업단지 부근
- 평수: 209평, 법당: 20평, 요사채: 20평 삼존불, 돌탑부처님 (관세음보살, 약사불, 미륵불)
- 가액: 1억9천5백만원

033)766-0057
011-471-1996

사 찰 안 내
- 위치: 강원도 춘천시 삼천동 경관수려, 시내에서 걸어서 5분거리
- 대지: 100평 건평 30평
- 보증금 1000만원 월 20만원 시설비 2천만원(시설완벽), 절충가능 몸만 오시면 즉시 법회 가능

011-333-3859
033)244-2534 진황합장

토 굴 안 내
- 위치: 진주시 대곡면 월아리
- 평수: 178평
- 건물 2동
- 가액: 1억

055)745-1083
017-587-7193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김해
- 대지: 170평, 법당: 25평
- 요사 2동, 산신각, 주차시설 약 10대
- 사용평수: 약 1천평 부전스님 모심
- 가액: 4억원

010-8529-0863

포교당(급)안내
- 위치:대구 수성구 최요지
- 법당 65평 기존 포교당 운영
- 즉시 법회가능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75만원 (시설비는 답사후 결정)

016-528-3736

사 찰 안 내
- 위치: 울산시내
- 대지: 98평
- 건물: 약 200평
- 주차공간 충분함
- 가액: 10억
- 엘리베이터 있는 4층 현대식건물임 필요하신 스님만 연락주세요

010-9550-8793

암 자 안 내
- 위치: 경남 하동
- 평수: 평지,전 합해서 500평
- 건물: 40평
- 가액: 1억 1천 5백만원

016-536-1824

암 자 안 내
- 위치 : 경남 김해시
- 부지 450평, 건물 25평
- 특징: 명당 정남향 교통편리 시설집기 일체포함
- 답사 후 가액 결정가

011-1759-3368

암 자 안 내
- 위치: 아산시 대방면 호서대 근처 천안에서 20분거리 온양에서 20분거리
- 산신각 4평, 법당 15평 요사채 50평
- 사용할 수 있는 부지 3백평
- 옷샘, 약물
- 가액: 8천 5백만원

010-2000-5809

포 교 당 안 내
- 위치: 부산시 연제구 거제동 포교당 2층
- 평수: 70평(법당,방2칸,부엌)
- 가액: 보증금 500만원 월 50만원 신규 종단 등록 가능함

042) 531-0026~7

사 찰 안 내
- 위치: 정선군 인계부근
- 대웅전 20평(목조건물) 산신각 5평(목조건물) 요사채, 행랑채
- 평수: 총 2312평 산세수려하고 소슬용궁
- 가액: 3억 5천만원(융자 4천 포함)

033)562-7053/011-9793-7052

주말농장및토굴(보림터)
- 가야산 1400M
- 형제봉 1200M(전망좋음)
- 도로, 전기, 거실 완비
- 전답 250평(평단가10만원)

010-9366-8929

포 교 당 안 내
철학 또는 작품하시는 비구, 비구니스님, 법사 수행하시기 좋은 곳
- 위치: 부산시 금강공원로 (도로 옆)
- 가액: 답사 후 결정

011-482-2091

사찰같은시골집
- 위치 : 충남 아산송악 근처
- 면적: 대지200평 건평 30평
- 가액: 전세 5000양도할수도
- 전원생활, 기도불자님적합 현재불사중, 천불전동참을 포교당불교사운영하실분

010-8808-264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진주에서 15분거리
- 대지 420평 등기필, 법당, 산신각, 요사채, 방5개
- 주차 10대 가능
- 가액: 1억 5천만원

011-737-0736

사 찰 안 내
- 위치 : 김천과 상주 국도 중간지점
- 대지 120평, 건평25평 임법당, 삼존불, 각종 탱화 방2칸, 주방1칸, 텃밭, 주차공간
- 가액: 4천5백만원

010-8675-5858

사 찰 (급) 안 내
- 위치: 인천 계양 (상가 2층)
- 총평: 40평, 법당: 20평, 요사: 20평
- 보증금 1천만원 월 60만원
- 방 2개, 입식 화장실, 보일러 10년된 포교원

011-9769-8868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고성 읍내
- 법당 30평, 요사채 30평
- 산신각 10평 ● 대지 293평
- 가액: 보증금 4천만원, 월 30만원 즉시법회 가능

010-2583-0402

포교당안내
스님 건강이 좋지 않아서 포교원을 운영하실 원력있는 스님을 찾습니다
- 위치: 서울 신림동 2층건물 중 2층
- 석가모니 관음지장 삼존불과 후불 및 신중탱화 봉안, 지장보살 원불 297분
- 법당외 방 1, 주방 1, 화장실, 약 30평
- 가액: 보증금, 시설비 5천만원 / 월 50만원
- 12년 포교하였고, 신도가 3백가구 넘으며 꼭 맡아서 포교하실 스님만 연락주세요

010-2304-2221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사하구 당리동 혜원사
- 평수 : 2층 전체 170.80평방미터
- 방 4개, 공양실, 법당, 베란다 공간 넓음
- 삼존불과 산신, 용왕, 칠성, 탱화 봉안 되어 있음
- 보증금: 4천만원 월 100만원 시설비 절충가능

051)203-7896
010-7375-7896

별 장 안 내
- 위치 : 팔공산 뒤 갓바위쪽
- 대지 200평, 건평 57평
- 웅장한 거실, 큰주방, 욕실 2개, 큰방2개, 보통방2개, 황토구들방 1개
- 좌우 산으로 둘러쌓여있고 정남향집, 못도 있음 한 마을에 4가구
- 가액: 1억 6천만원(조정가능)

053)853-2464
017-808-2543

포교원(급)안내
- 위치: 대구시내
- 단독주택 각 35평, 1층 2층
- 1층법당, 방 2개, 2층 방 4개 1,2층 전체 사용
- 삼존불, 각단 탱화, 대형 범종 집기일체
- 가액: 집세 1년 무상 1년 후 보증금 없이 월 30만원 시설권리금 1500만원

053)982-9573
010-4732-6748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양산시 하북면
- 평수: 2층 60평
- 주지실, 상담실, 공양실, 욕실, 삼존불과 후불 산신.신중.관음.지장탱화 소불 520불 집기일체
- 가액: 전세 1천만원 월 160만원 시설비 상담후 결정

055)383-5030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부천 오정동
- 상가건물 3층 50평
- 법당 시설비 집기류 일체완비 즉시법회 가능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60만원 (전세가능) 시설비:답사 후 결정

010-6244-9111

사찰안내
- 위치 :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부근 원주시 국선 전철역 부근, 개통 예정지 앞 의료단지 상업단지 부근
- 평수: 209평, 법당: 20평, 요사채: 20평 삼존불, 돌탑부처님 (관세음보살, 약사불, 미륵불)
- 가액: 1억9천5백만원

033)766-0057
011-471-1996

12평 법당 해체보수에 4년이 짧아?

안성 석남사 영산전 '늑장행정'으로 천막속 방치 … 예산승인 · 현상변경 절차가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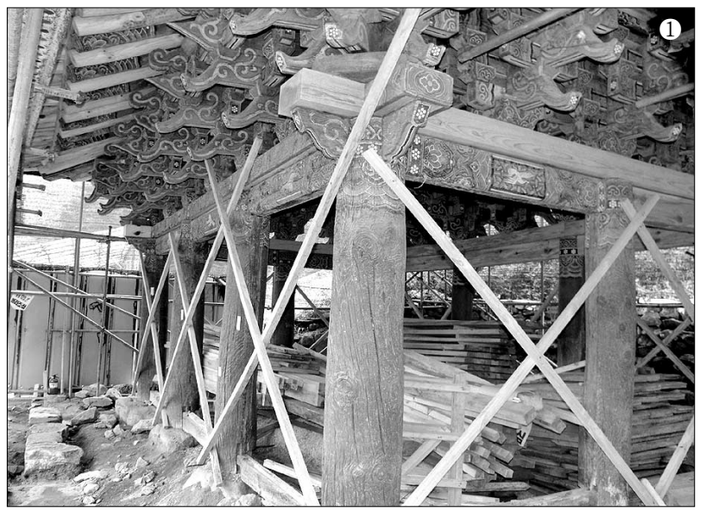
해체보수 공사를 위해 가설한 덧집이 흉물스럽게 안성 석남사 영산전(보물 제823호, 12평)을 덮고 있다. 석남사 신도들은 참배할 공간은 물론 예전의 영산전 모습을 잃어버린 지 이미 오래다. 영산전 주변에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 자재며 산더미처럼 쌓인 깨진 벽화와 기왓장들이 그동안의 공사현황을 묵묵히 말해주고 있을 뿐이다.

2003년 3월 안성시청에서 해체보수를 위해 법당을 해체한 후, 지금까지 거의 방치돼 있는 영산전의 모습이다. 석남사 측은 영산전 해체보수 공사로 인해 사찰 수행환경 저해는 물론 부처님오신날 행사를 네 번이나 못 치른 데 따른 피해상황을 문화재청과 안성시에 수차례 항의했다. 하지만 이들 관할청들은 예산집행과 현상변경 절차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며 여전히 '늑장행정'의 전형을 보이고 있다.

석남사 장일 사무장은 영산전 공사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문화재 보수에 앞서 충분한 조사가 미흡했고 이후 신속한 행정 대응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당초 공사는 영산전 기와를 교체하기 위해 2003년 3월 시작됐다. 문화재청은 막상 기와를 걷어보니 건축물 내부가 심하게 부식 · 훼손돼 있어 전체 해체보수 공사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2003년 10월부터 영산전 해체보수공사가 진행됐다. 그 후 안성시는 2년이 지나고 나서야 추경예산을 통해 문화재청으로부터 2억원의 긴급보수 지원예산을 지급받았다. 서둘러 진행됐어야 할 공사가 두 해가 지나도록, 우천에 대비한 보호 장비 하나 없이 방치된 것은 관할관청의 늑장대응의 결과라고 밖에는 볼 수 없는 상황이다.







① '80%이상 공사가 완료됐다' 고 말하는 안성시 관계자의 말이 무색할 정도로 공사자재로 가득 채워진 안성 석남사 영산전 내부 ② 석남사 한 귀퉁이에 쌓여있는 영산전 벽면조각과 깨진 기와조각 ③가설 덧집으로 덮인 영산전의 모습.

문화재청과 안성시 관계자는 "현행 문화재 보수에 대한 예산 승인과 현상변경 절차가 너무 까다롭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부분이라 공사가 길어진 것은 어쩔 수 없었다"며 "석남사 영산전 해체보수 공사의 경우도 처음부터 확실한 예산집행과 현상 변경 승인 절차를 밟았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테지만 지금의 문화재 보수 시스템상 불가피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안성시청 관계자는 또 "현재 석남사 영산전은 지붕과 벽면 공사를 포함해 80% 이상 완료된 상태며 단청 공사를 위해 문화재청에 현상변경허가 및 설계심사 승인 신청을 올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장일 사무장은 "현재 공사가 중단된 지 한달이 넘었고 공사완료 기간인 올 9월까지 우천에 대비한 안전장치 하나 없이 공사가 무사히 마무리될지 의심스럽다"고 우려했다.

장 사무장은 또 "올 9월에 공사가 끝나더라도 전년도 추경예산 항목에서 누락된 단청비 1억원은 2007년도 예산으로 반영돼 있어 예산승인이 결정되고 단청공사를 마치려면 앞으로 2년은 더 걸릴 것 같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석남사 회주 정무 스님도 "하루 빨리 영산전이 제 모습을 되찾아 신도는 물론 사찰을 찾는 관람객들의 옷곧은 수행과 신행공간으로 거듭나길 바란다"며 안타까워했다.

글 · 사진=노병철 기자

"고려율의 바탕은 불교 평등사상" 연정열 교수 주장



"고려시대의 입법인 고려율은 불교의 평등사상을 바탕으로 성립된 법규정이다."

한성대 연정열 명예교수(사진)는 '고려율과 불교의 평등사상'이라는 논문을 통해 개정되는 호주제는 불교의 평등사상과 그 맥을 같이하고 있다고 주장해 불교계와 법학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논문에 따르면 "고려시대 고려율은 당나라 율법에 영향을 받았지만 불교의 평등사상을 바탕으로 성립된 입법규정으로 당율과 구분되는 고려율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여성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점이다"고 밝히고 있다. 논문에 나타난 고려율 전문 71조 내용 중 △남 · 여 균분상속 △과부의 재혼 허용 등의 조항이 그 예다.

이에 대해 연 교수는 고려의 통치 이념인 훈요십조 중 '고려의 입법과 대업은 반드시 불교의 힘을 입지 않으면 안된다'는 내용을 예로 들며 고려율이 불교사상에 근거했다는 입법배경을 제시했다.

노병철 기자

'열반'의 의미 변천사 탐구 황순일 교수 '불교에서…' 펴내



불교 교리 상에서 '열반'은 어떤 의미로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짚어준 <Metaphor and literalism in Buddhism-The doctrinal history of nirvana(불교에서 비유와 직역주의-열반의 교리발전사)>가 나왔다.

저자 황순일 교수(동국대 인도철학과 · 사진)는 책에서 교리가 발전함에 따라 살아서 얻는 유여열반과 죽음과 함께 얻는 무여열반의 구분은 존재론적으로는 무여열반이 부처님의 소멸이라는 이미지에 대한 브라만적 해석이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면서 열반이 실체화되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영국 및 유럽에서 8월에 출간된 이 책은 영국의 인문사회과학 전문출판사인 루트리지 출판사와 옥스퍼드 불교학센터가 함께 발간하는 루트리지 불교비평 시리즈 중 하나다. 한국학자로는 황 교수가 처음 동참했다. 미국 및 아시아에서는 11월 출간 예정이다.

40여권이 출판된 루트리지 불교비평 시리즈는 폴 윌리엄스, 대미안 키온, 수헤밀턴, 리처드 곰브리치 등의 저명한 불교학자들이 저술해왔다. 강지연 기자

박영준 교수의
과학 기술과 불교 <61>

분석과 종합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제일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인텔사의 창업자 중 한 사람인 그로브 박사. 그가 저술한 <오직 편집증환자만이 살아남는다>라는 책은 10년 전 서점에서 불티나게 팔렸다. 이 책은 자기의 전공 분야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편집증에 걸렸다고 할 정도로 그 분야에 집중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냉혹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반도체 업체의 경향이 설계로부터, 생산에 걸친 모든 분야를 한 회사가 종합하던 패라다임(IDM: Integrated Device Manufacturer)에서 한 분야에 집중하는 조그만 회사가 더 경쟁력을 가지는 패라다임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실제로 과거 10년은 설계만 하는 회사, 반도체 칩을 제조하는 회사, 소프트웨어를 개발 하는 회사, 칩을 잘 조립하는 회사로 분리돼 서로 협력하는 비즈니스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 다시 전 분야를 다 종합하는 회사(IDM: 인텔,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가 이에 해당)가 더 경쟁력을 갖게 되었다. 핸드폰 등과 같이 새로운 모델이 빠르게 변화하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 회사 내에서 모든 업무를 신속하게 수행하는 것이 빠르게 반도체 칩을 만드는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과학기술을 개발하거나 비즈니스를 하는 방법 또한 시대에 따라서 변화한다.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분야별로 나누어서 연구개발을 잘 하는 것이 더 유리할 때도 있고, 한 사람이 전체를 잘 종합하는 것이 더 중요한 때도 있다. 그리고 개인별로 보면 나누어서 분석을 잘 하는 사람과 전체를 종합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다. 흔히 한국 학생들은 종합보다는 분석을 잘 한다고 한다. 오래된 역사적인 요인이 있을 수도 있고 교육에서 요인을 찾을 수 도 있다. 실제로 미국의 초등학교 수학시간을 참관해 보면, 덧셈을 가르칠 때 2+3의 답을 요구하는 것과 동시에 무엇과 무엇을 더하면 5가 될 것인지를 묻는다. 이러한 학습이 학생들에게 종합적 사고능력을 키워 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수억개의 트랜지스터를 사용해서 핸드폰이나 컴퓨터 핵심 반도체 칩을 설계할 때, 처음에는 추상적인 설계 단계를 거친다. 이 때에는 한 가지 해답이 없기 때문에 추상적이면서 종합적인 능력이 요구된다. 일단 추상적인 단계를 거쳐서 구상화되면 동작을 위한 회로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복잡한 회로를 배치시키는 기하학적인 단계와 분석 단계를 거친다.

목적에 따라 분업과 통합작업 선택해야
불교는 추상적 개념을 구체적 행동으로 제시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면,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화하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우주의 존재를 '공(空)'이라는 사상으로 표현하는 것이 한 예다. 아마 이러한 표현방법은 현재 인도 과학자들의 추상화 능력에 큰 도움을 줬을지 모른다. 불경에서는 인연법이나, 4성제, 팔정도 등의 개념에 대해 꼼꼼하게 분석하고 있다. 불법을 배우면서 인간의 진정한 삶의 방향과 우주의 실상에 대해서 종합하는 능력과 해석능력을 같이 배울 수 있을지 모른다. ■서울대 전기공학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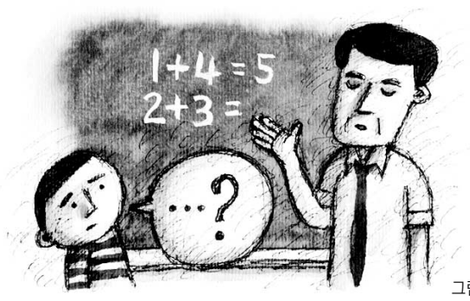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역학(사주명리, 사주추명)의 시청각 교재 DVD 출시 - 궁중비법-
- 비매품 책자, 요점자료 동봉 -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1차분 완매로 인하여 2차분 한정제작. 인하된 가격으로 선착순 공급하게 되어 기쁩니다.」

어렵다는 역학을 누구나 쉽고 빠르게 한달 공부하면 완성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하면서 보고 듣고 이해하며 필기하고 보충자료와 책자를 숙지하면 됩니다.
15만원 정도의 DVD 재생 기계를 구입하여 TV에 연결하여 보시면 됩니다.
역학(사주, 신수, 궁합, 택일, 애정, 재운, 관재, 자녀운, 기타 모든것)은 실제로 어려운 것이 아닌데 스승이나 책을 잘못 만나면 중도에 암흑의 망망 대해에 빠져서 평생 완성되지 않습니다.
순간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이 DVD에는 필자가 20여년간 국내외 수백명의 제자를 역학에 도통하도록 철저하게 개인지도 해온 그대로를 총 26부(26시간)에 가감없이 실전 사주풀이 다수와 함께 담았습니다. 그동안 배움의 뜻은 있었으나 국내외 원거리사정, 수강순서 늦어짐, 고액의 수강료, 기존 업을 하는 관계로 알려짐이 부끄러움 등으로 기회를 기다리던 분들에겐 최고의 기회와 광명이 될 것입니다. 현재 본 DVD교재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전국에 산재한 스님, 보살님, 현재 철학원을 운영 하시고 있지만 적중률이 낮아서 성업안되는 분, 퇴직후 장래직업으로 역학을 하실분, 초심자, 순수연구자, 학생 등 다양한 부류인데 전부가 하나같이 찬사와 감사의 메시지나 전화를 해 주시고 정말 제대로 된 배움의 길을 선택한데 대해 천만다행으로 생각하며 안도하고 행복해 합니다.
본 저자도 이 DVD교재로 인해서 수많은 분들이 진정한 역학적 개안이 그렇게 신속히 열려가는데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큰 기쁨과 보람을 느낍니다. 한글만 아시면 되며 학력과 관계없습니다. 쓰이는 한자는 22자이니 저절로 배워집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선택하세요. 아주쉽게 단기간에 완성하며 평생의 훌륭한 길잡이가 됩니다.
불교 교리로 부터 시작되는 이론의 장엄한 전개는 당신을 견성에 이르는 기쁨을 맛보게하고 스스로와 친지들의 사주를 감정하면서 그 적중됨에 탄성을 발하게 됩니다.

사주통달책임개인지도
■ 교육기간 : 누구나 한달완성 (국내외 제자 300명 왕성히 활동중)
■ 완전초보자도, 해도 해도 안되는분 사주 작명 궁합 택일 신수
■ 한달만에 모든 것 완전 통달됨 교육이수후 월 250만원 보장
■ 전화감정 대환영 자격증, 회원증 수여함 (회원은 특혜있음) 전국 최대 회원양성 교육기관임

- 남몰래 한달 공부하여 혜성과 같이 나타나십시오 -

◆ 구입금액 : 추명사 건립 보시금 90만원 (분납방법: 인도금 40만원, 한달후 30만원, 두달후 20만원) ※일시불은 80만원에 공급함
◆ 계좌번호 농협 704-02-341067(예금주 : 김금란), 대구은행 018-08-388350-001(예금주 : 이하림)

사단법인 대한불교 사주명리 연구학회 총재 : 백운 성수, 부회장 도영(성수철학원장)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동 721-16 전화 053)255-4784, 256-4784 / 휴대폰 018-531-2237, 011-9583-6161

일 주 문



외국인수행자 한국불교체험
공주 마곡사 주지 진각 스님은 9월 15일부터 24일까지 외국인수행자를 대상으로 간화선 수행, 육조단경, 예식의궤 습의 등을 실시한다. (041)841-6221



노인일자리 사무실 개소
대전 서구노인종합복지회관 관장 장곡 스님은 8월 18일 가기산 서구청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인일자리 사업 사무실 개소식을 열었다.



대진 스님 초청 '서장' 대강좌
서울 보문사 주지 지범 스님은 9월 19일부터 매주 화, 수, 목요일 오후 2시 대진 스님 초청 <서장> 대강좌를 봉행한다. (02)823-7443



혜거 스님 초청 법회
서울 공생선원 주지 무각 스님은 9월 10일 오전 10시 30분 혜거 스님을 초청해 '경(經)과 선(禪)의 둘 아닌 수행'을 주제로 법회를 연다. (02)900-2448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새 사무국장
제천 한산사 주지 동범 스님은 8월 22일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새 사무국장에 임명됐다. 스님은 78년 법주사서 사미계, 85년 범어사서 비구계를 수지했다.



백련암 삼존불 점안법회
미륵종 중앙종회의장 지은 스님은 8월 20일 김해 동상동에 백련암을 신축하고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처님 삼존불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심향사 불교기본교육 개강
나주 심향사 주지 원광 스님은 9월 6일부터 12월까지 매주 수요일 불교 초심자를 위한 제4기 불교기본교육을 개설한다. (061)334-2880



3차 무료의료검진 실시
사단법인 날마다 좋은날 김의정 이사장은 9월 9일 오전 10시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100여명을 대상으로 3차 무료의료검진을 실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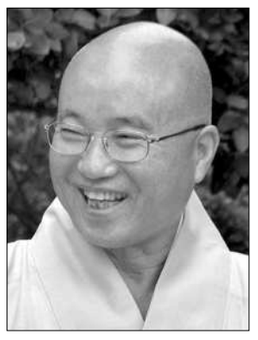
신임 한국상담심리학회장 취임
불교상담개발원 이규미 자문위원은 제30대 한국상담심리학회 회장으로 선출돼 9월 16일 오후 2시 숙명여대 젬마홀에서 취임식을 갖는다.



제5대 부산시 교육위원에
부산불교신도회 김정선 재정분과위원장은 7월 31일 부산시 교육위원 선거결과 제5대 부산광역시 교육위원에 당선됐다.

"살아있는 禪 강단에서 펼칠 터"

연구년에 하안거 … 禪會복원 주력 법산 스님



올 여름 벽송선원의 기억을 그대로 간직한 동국대 선학과 교수 법산 스님(사진)의 얼굴은 구릿빛으로 그을려 있었다. 8월 23일 동국대 정각원에서 만난 스님은 1976년 통도사 극락암 동안거 이후 30년만의 하안거를 회상하면서 어린 아이처럼 해맑은 미소를 보였다.

연구년을 맞은 스님은 올 여름 지리산 벽송사 대중선방에서 하안거를 났다. 법산 스님은 경봉 스님이 주신 '이뭣고' 화두에 목숨을 걸고 일대사를 해결하려 용맹정진했던 기억을 되살렸다. 그래서인지 "엄격한 선원의 청규에 따라 스스로를 점검 받는 동안 새롭게 수행의 참맛을 느꼈다"며 감격스러워했다. 무엇보다 가을학기부터 이번 대중선방에서의 실참 경험을 살려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선학을 지도할 수 있게된 점도 또하나의 소득으로 꼽았다.

법산 스님은 안거동안, 깨달음을 얻는데 모두가 평등하다는 생각에 예불이나 울력에 빠지지 않았고 그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숨소리까지 조심하면서 산란한 마음을 조복 받기 위해 노력했다고 한다.

스님은 "70년대 선방의 모습에 비해 정진 열의가 치열하지 못한 점은 다소 염려스러웠다"고 밝혔다. 경봉 스님같은 명안종사의 지도를 받을 수 있었던 과거와는 달리 공부를 점검 해주는 조실스님이 없어 공부에 대한 믿음이 약한 탓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9월 8일부터 벽송사 선주 월암 스님과 선회(禪會)를 복원하는 일이다. 법산 스님은 "수행의 준비단계를 모르고는 그 길을 갈 수 없다"며 "자기점검의 기회가 부족한 요즘 같은 때일수록 교학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선(禪)과 교(敎)의 조화를 강조했다.

조용수 기자

설정 스님 화계사 회주 추대 … 인재불사기금 쾌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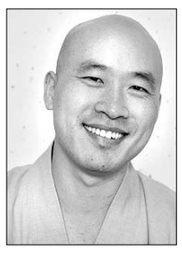
서울 화계사(주지 수경) 회주에 설정 스님(사진 오른쪽)이 추대됐다. 8월 24일 열린 추대법회에서 설정 스님은 축하화환을 사절하는 대신 들어온 화주를 모은 인재불사기금 3000만원을 불교인재개발원에 전달했다.

추대법회에서 문도대표 정만 스님과 국제선원 대표 무심 스님은 "화계사를 국제불교의 중심사찰로 이끌어 달라"고 간청했고 설정 스님은 "숭산 대선사의 덕화가 싹 틔우도록 세계일화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로 회주 추대를 수락했다.

이날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법어를, 전국선원수좌회 공동대표 혜국 스님 등은 축사를 통해 설정스님의 회주 추대를 축하했다. 조용수 기자

식민시대 한국불교 연구에 매진

박사학위논문 준비차 일시귀국한 일미 스님



"왜 하버드였냐구요? 글쎄요. 무의식중에 나는 하버드에 가서 공부해야지 하고 생각했는데 10년 뒤 진짜 하버드에 와 있더라구요. 자기최면이 무서운 거예요."

한국인으로서는 유일하게 하버드대에서 불교학을 전공하고 있는 일미 스님(사진)이 한국을 찾았다.

'식민시대 한국불교관계사'라는 박사학위논문을 위해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일제시대 일본불교가 한국불교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에 관한 자료를 모으기 위해서다. 스님은 8월 19일 도반 하림 스님이 마련한 부산 미타선원 첫 참선안심법회에서 법문을 하기도 했다.

"한국을 떠나 불교를 공부하다보니 한국불교를 제대로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국불교에 남아 있는 일본불교의 잔재를 조명해보고, 일본불교를 답습하는 한국불교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스님이 논문 주제를 식민시대 한국불교로 정한 이유다.

"나라를 떠나면 애국자가 되고, 한국불교를 떠나 있으니 한국불교의 아름다운 점을 세계에 알리고 싶어졌다"는 스님은 한국불교를 미국사회 주류 속에 알려나갈 한국불교센터 건립을 발원하고 있다.

부산=이은아 기자

연꽃마을-동대 일산병원 지정의료기관 협약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이사장 각현)은 동국대 일산불교병원과 8월 18일 '지정의료기관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연꽃마을 관계자들은 일산불교병원의 양·한방 의료서비스와 진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각현 스님은 "지속적으로 인연을 맺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자랜드, 동국대에 발전기금 1억원 기탁

전자랜드(회장 홍봉철)가 동국대에 발전기금 1억원을 기탁했다. 홍봉철 전자랜드 회장은 8월 18일 동국대를 방문해 홍기삼 총장에게 1억원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前 동국대 농구부 최희암 감독도 참석했다. 홍기삼 총장은 "사회와 체육계에 기여하는 우수한 인재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대불교연구원 개원 기념 강좌



현대불교연구원(원장 김용환)는 8월 23일 '초기불교의 사상을 중심으로 믿음에 대하여'를 주제로 개원기념 특별 불교강좌를 개최했다. 이번 특별강좌는 매주 수요일마다 열리며 11월 15일까지 계속된다. 김용환 교수는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실천 수행하는 것이 불교의 요체"라고 강조했다.

천태종 병술년 하안거 해제식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를 비롯 전국 각 말사에서 실시한 병술년 하안거 한달수도 정진이 8월 24일 해제식을 갖고 회향됐다. 구인사 설법보전에서 봉행된 하안거 해제식에서 도용 종정 스님은 법어를 통해 "비록 공식적인 안거 기간은 끝났지만 10선계를 잘 지키며 계속 정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불교TV염불공양모임 수해성금 전달



불교TV염불공양모임(회장 하정선)은 8월 18일 강원도 수해지역을 방문, 성금 및 물품을 전달했다. 회원들은 피해 현황 설명을 듣고 남편이 실종된 황순주씨를 방문, 격려금 300만원을 전달했다. 또한 강원도 인제군 덕산 2리 집집마다 방문해 10만원씩의 성금과 옷, 이불, 수건 등 물품을 전달했다.



경주 도심속 자연경관이 수려한 「비구니선원」분양안내

경주시 충효동 선도산에 위치한 금선사 여래선원은 소나무 숲이 어우러져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비구니 스님의 수행처를 성황리에 분양합니다.

경주시내, 동국대병원, 경부고속철도, 고속버스 5분거리, 교통의 요지이자 편안한 지리적 여건으로 생활의 편리함은 물론 개별 단독(난방) 축열식 심야온돌 · 온수 등 불편함이 없는 최적의 수행처를 제공합니다.

성황리 분양중

제3차 여래선원 보현동 분양내역

(1차 금선선원 30세대, 2차 여래선원 문수동 24세대 완전분양 완료되었음)

- 28평형 - 2세대
- 22.2평형 - 6세대
- 18평형 - 6세대
- 14평형 - 8세대

총 22세대 평당분양가 (390만원)

(8월 30일까지 완납시에는 360만원으로 할인 분양함)

※ 먼저 분양금 내신 스님 방부터 모델하우스를 꾸밀 계획이오니 뜻이 있으신 비구니 스님께서는 연락하여 주십시오.

찾아오시는 길



경북 경주시 충효동 450번지 • 문의전화 : 054)772-7171 / 011-538-3879

대한불교 조계종 선도산 금선사 여래선원 주지 휴정 합장



불자 세상보기

권 경 희
불교상담개발원 사무총장

도박 권하는 세상

10년 전쯤 미국에 갔을 때 교포신문에서 '레이크 타호로 가는 사람들'이란 제목의 칼럼을 읽은 적이 있다. 레이크 타호는 미국 북서부에 있는 아름다운 호수로 그 주변에 라스베가스 버금가는 규모의 카지노 도시가 형성돼 있다. 그러므로 레이크 타호로 간다는 것은 도박을 하러 간다는 말이다.

이 칼럼에서는 우리 교포들의 도박 중독을 걱정하고 있었다. 이민 가서 청소업, 세탁업 등 이른바 3D 업종에 종사하면서 힘들게 모은 재산을 카지노에서 탕진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데 대한 우려의 글이었다.

남의 나라에서만 일어나는 이야기로 알았던 현상이 요즘 우리나라에서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몇 시간씩 운전해서 일부러 '레이크 타호'를 찾아갈 필요도 없다.

우리 동네에, 바로 이웃에 이른바 성인 오락실이라는 도박장이 삽시간에 쫙 깔렸으니까. 요즘 불어난 추세를 보면 다방만큼, 미장원만큼 많아졌다. 정부 관계자와 경제 브로커 등의 '합작품'에 서민들이 현혹당한 결과다.

무엇이 이렇게 사람들을 환심장(換心腸)하게 만들까? 그 첫 번째가 한탕주의다. 노력 않고 큰 돈 만지겠다는 불순한 심리가 있는 사람은 언제든 '정상적인 상태에서 벗어나게 마음이 바뀌어 아주 달라지는 상태' 즉 환심장, 줄여서 환장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유인 요인은 도박 기계의 구성 원리다. 이는 심리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행동주의 심리학에서는 어떤 행동을 강화시키기 위해 '보상'을 활용한다.

보상에는 ①고정 간격, 고정 금액 ②고정 간격, 변동 금액 ③변동 간격, 고정 금액 ④변동 간격, 변동 금액으로 하는 방법 등 네 가지가 있다. 단, 이때 보상 방법만 다를 뿐 어느 일정 기간 동안의 총액은 같은 것을 전제로 한다.

이 가운데 가장 보상 효과가 높은 것이 ④번, 즉 변동 비율을 적용했을 때다. 슬럿 머신이 바로 이런 원리를 따르고 있다. 어느 일정한 간격으로 이른바 대박이 터진다면 사람들은 대박이 터질 거라고 예상되는 때 외에는 게임을 하지 않을 것이다.

간격은 다르더라도 매번 같은 금액이 나온다면 또한 곧 심드렁해질 것이다. 언제 잭팟이 터질지, 터져도 얼마만큼 나올지 모르는 바로 이것이 바로 사람을 환장하게 만드는 것이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렇게 도박이란 사람 마음을 휘어잡게끔 되어 있다. 그러므로 웬만한 사람이라면 단순한 오락에서 도박으로 넘어가는 유혹에서 초연해지기 힘들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정부에서 그동안 도박장 개설과 운영 등에 많은 규제를 가해 왔던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갑자기 여러 규제를 완화시켰고 그 결과 전국이 '바닷물'에 빠져버렸다. 이것이 힘들게 사는 서민들의 오락을 위한 조치라면 고맙게 받아들이겠다. 가끔은 요행도 바라는 것이 인간 심리니까. 그리고 앞서 말한 보상이 충족되면 사는 재미 또한 얻을 수 있을 테니까.

누구는 횟집 이름인줄 알았다는 '바다이야기'가 온국민을 허탈하게 만들었지만 대통령은 심각한 정책의 실수였을 뿐 비리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몇몇 상부 권력 측근의 주머니를 불리기 위해서, 또는 서민들의 약한 심리를 파고들어 한 쾌 크게 챙기기 위한 행위였다는 게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게다가 승률 조작 등으로 변동 비율 보상의 가장 큰 전제인 총금액의 일정성 마저 지키지 않고 있다. 그리고 사행성 조장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마련했다는 상품권 제도로는 엉뚱하게 자격미달의 상품권 회사들만 배불리고 있다.

뻔히 속는 줄 알면서 속는 도박에 빠진 서민들이나, 위해주는 척하면서 등을 치는 정부나 둘 다 환심장한 것은 분명한 것 같다.

불자의 눈 논설위원 기명사설

"신심은 장엄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다. '절집'에서 쓰는 말로, 승가의 위의(威儀)나 불상(佛像)의 장엄이 신심을 오로지하는 데 없어서 안 될 요소라는 뜻이겠다. 말의 모양새만으로 따지고 들면, 모든 존재의 실상을 '공(空)'으로 보는 불교의 가르침과 상충된다.

금강경에서도 "형상이나 음성으로 (부처를) 찾으려 하는 것은 사도(邪道)일 뿐 여래를 보지 못하리라"고 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왜 불교에서는 불상을 장엄하는 데 온갖 정성을 쏟고, '공(空)'을 설파하는 경전조차도 정교한 수사(修辭)를 동원하는가?

불교의 모든 경전과 의식, 심지어는 사찰의 전각들도 모든 중생들을 '저 언덕'으로 건너가게 하는 '뗏목'과 같은 것이다.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지 왜 손가락을 보느냐"는 선사들의 다그침도 일종의 '뗏목'이다.

그래서 불교를 비롯한 모든 종교에서는 의식을 장엄하고 정교히 하는 데 공력을 쏟는다.

'한글법요집' 완간을 환영하며

종교는 개인 차원의 신앙이 아니다. 교주, 교리 체계, 신도 그리고 고유의 경배 방식이나 의례를 갖출 때 비로소 종교가 되는 것이다. 한국불교도 1,600여년의 세월을 거치면서 고유한 의식 체계를 다듬어 왔다. 대표적인 예로 '도량석'은 한국불교에만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 경전이나 의식문이 한문으로 되어 있어서, 많은 재가불자나 초심자들에게는 '알 듯 말 듯'한 그 무엇이었다. 무턱대고 따라 외는 것도 하나의 수행 방편이긴 하지만, 수승하다고는 할 수 없다.

조계종 포교원에서 '한글통일법요집'을 완간했다. 실로 수희찬탄할 일이다. 법요식과 상용의식에 쓰이는 의식문과 경전을 한글화했다. 한문과 달리 한글은 '조사'와 '어미'가 문장의 성분과 문법 자질을 결정하기 때문에 음조와 운율을 살리기 어렵다. 이 점은 앞으로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다듬어질 것으로 본다. 기우이겠지만, 이런 보완점을 빌미로 현장에서 한글 의식문을 상용하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의식'도 수행이다. 형식과 내용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다. 이점을 인식하여야만 불교의 현대화 · 대중화 · 생활화의 의미를 살려낼 수 있다. 이번에 발간된 '한글통일법요집'이 획기적인 계기가 되리라 본다. ■윤제학(동화작가)

이렇게 들었다 사이버 휴가

과거를 따라가지 말고 미래를 기대하지 말라. 한번 지나가버린 것은 버려진 것, 또한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이러저러한 현재의 일을 이모저모로 자세히 살펴 흔들리거나 움직임 없이 그것을 잘 알고 익히라. 〈대가전연일야현자경〉

'이제 집중해서 일을 해볼까' 할 때마다 울리는 휴대전화. 업무의 효율을 위해 만들어진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이제는 업무를 방해하고 피로를 주는 골치덩어리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 정보기술연구소 바섹스가 최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휴대전화와 이메일, 메신저 등 커뮤니케이션 기술로 인한 '업무 방해' 시간이 하루 2.1시간에 달했다. 여기에 업무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전화로 인한 방해를 고려한다면 그 피해는 심각하다.

영국 런던대 글렌 윌슨 정신의학과 교수의 실험에서도 커뮤니케이션 기기 사용으로 인한 집중력 분산은 지능지수 저하(10점)로 연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리화나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나온 지능지수 5점 저하보다 나쁜 결과다.

이 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끊임없는 방해 패턴에 중독된다는 점이다. 짧은 업무를 제때 처리했다는 만족감에 젖어 자신도 모르게 메신저나 전화를 기다리는 집착현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문제의 해법으로 '사이버 휴가' 기간을 제시한다. 특정한 시간을 정해 사이버상의 접촉을 끊고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누거나 친필 편지를 쓰라는 것이다. 늘 정보통신의 폐해에 지친 몸과 마음을 위해 집착과 불안을 놓아버리는 것은 어떨까. 조사스님들의 방하착(放下着)하라는 말씀이 가슴에서 울라온다.

■박봉영(취재부 기자)

독자의 소리-이렇게 생각한다

●독자여러분의 의견을 e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2)2004-8243
(담당: 조용수 기자, pressphoto@buddhapia.com)

현등사 사리구 제자리 찾아야

조계종이 '현등사사리제자리찾기위원회'를 발족시켰다고 한다. 현등사 사리구 찾기에 종단이 직접 나설 모양이다. 현등사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고, 도난당했다는 정황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현등사가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한 재판결과에 대해 종단이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려는 것으로 보여 반가운 마음이다.

재판부가 삼성문화재단의 손을 들어주는 과정에서 세웠던 논리는 지극히 반불교적이다. 지금의 현등사가 사리구를 탑에 넣었던 현등사와 동일하지 않다는 재판부의 논리는, 불교에서의 법맥이라는 개념을 깡그리 무시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논리대로라면 사찰에 소장된 어떤 성보도 사찰의 것이라고 주장할 근거가 사라진다. 즉 부석사 무량수전도 부석사 것이 아니고, 해인사 팔만대장경도 해인사 것은 아니다. 지금의 부석사가 옛 부석사가 아니고, 해인사 또한 옛 해인사와 같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불가에서는 스승과 제자 사이의 법맥을 통해 연속성이 이어진다. 사찰의 연속성이 그렇고 종단의 연속성이 그렇다. 법맥은 사회에서의 혈연과도 같은 것이다.

문제의 심각성은 사리구 찾기의 범위를 넘어서버렸다. 재판부의 논리가 사찰과 종단의 연속성을 부정한 것이니 만큼, 불교계의 모든 것이 걸린 싸움이 돼버렸다. 부디 현등사사리가 제자리를 찾고, 불교가 제자리를 찾을 수 있기를 염원한다.

박경주(서울 성북구 수유동)

북한 수해지원에 적극 나서자

지난달 뜻하지 않게 남북한이 동시에 당한 수해는 너무도 많은 상처를 남겼다. 수많은 실종자와 사망자, 부서진 가옥과 도로를 황망하게 쳐다보는 수재민들의 모습은 남의 일 같지 않았다. 우리 불자들도 자원봉사단을 꾸려 이들을 위로하고 잃어버린 삶의 터전을 복구하기 위해 땀 흘리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렇게라도 남한은 수해를 복구할 여력이라도 있지만 북한의 처지가 그렇지 못한 듯하다. 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와 JTS같은 불교계 단체들이 당장 필요한 쌀과 밀가루, 생필품을 보내는 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럽다.

우선 미사일로 국제관계를 냉각시키는 북한 정권의 무모함을 탓해야겠지만 이를 이용해 긴장을 고조시키고 군사적 이득을 취하려는 미국과 일본의 행태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 큰물 피해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돕는 일에 정치적 이해나 갈등이 장애가 될 수 없다.

부처님께서도 굶주리거나 아파하는 중생을 외면하지 않았다. 정치적 고려가 항상 따라야 하는 남북정부당국 간에는 물자지원이 껄끄러울 수 있다. 그럴수록 정치적 부담 없는 종교계가 인도적 차원에서 이들을 돕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철웅(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먹고 마시는 휴가, 이제는 그만

꽉 막힌 도로에 찜통더위로 짜증이 나는 휴가를 피해 지난주 강원도로 휴가를 다녀왔다. 매년 가족들과 함께 휴가를 다녀오지만 이젠 휴가 문화도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언론을 통해 휴가를 수해 피해 복구에 사용하는 소시민의 이야기를 듣고 '바로 저거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가족들과 휴가지에서 휴가를 즐기는 것도 좋겠지만 남을 위해 뭔가 내가 할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이 가족들에게는 더 큰 추억이 될 것 같다. 아이들에게는 더불어 사는 모습이 아름답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산 교육이 될 것이다.

아니면 산사의 템플스테이 등에 참가해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을 갖는 것은 어떨까? 바쁜 업무로 나 자신을 잃어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산사 체험은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역할을 할 것이 분명하다.

산이나 강, 바다에서 먹고 마시고 놀기보다 남을 돕거나 나 자신을 돌아보는 휴가 문화가 정착되었으면 좋겠다.

방주현 (경기도 고양시 탄현동)



전통따주기지도사 강좌(2박3일) 안내

1. 전통따주기란
우리 민족 조상으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민간 따주기로써 예를 들면, 급체 시 엄지손톱 뿌리 밑을 바늘로 따주기 하면 신기하게도 금방 내려갑니다.
온 몸을 이렇게 따주기로 낫게 하는 민족 고유의 슬기로운 자신 건강관리 비법입니다.

2. 따주기의 특징
- 신경을 자극하고, 탁한 피를 맑게 합니다.
- 부족한 피를 생성 시키고, 나쁜 피는 사혈합니다.
- 월 1회 따주기로 사전 건강관리
- 따주기를 접한 날부터 몸이 낫기 시작 합니다.
- 평생 잊지 않는 위치 암기에 10분이면 충분 합니다.
- 간단하고, 부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3. 따주기 활용
- 자신 및 가족 건강관리
- 학생지도(고교생, 대학생)
- 신도 포교
- 따주기 사회봉사
- 전통따주기지도사로 활동

4. 따주기로 건강관리 범위
- 뼈 및 수술한 부위를 제외한 모든 분야
- 마음과 육신

5. 강좌 인원
- 선착순 20명(한국전통따주기연구원장 직접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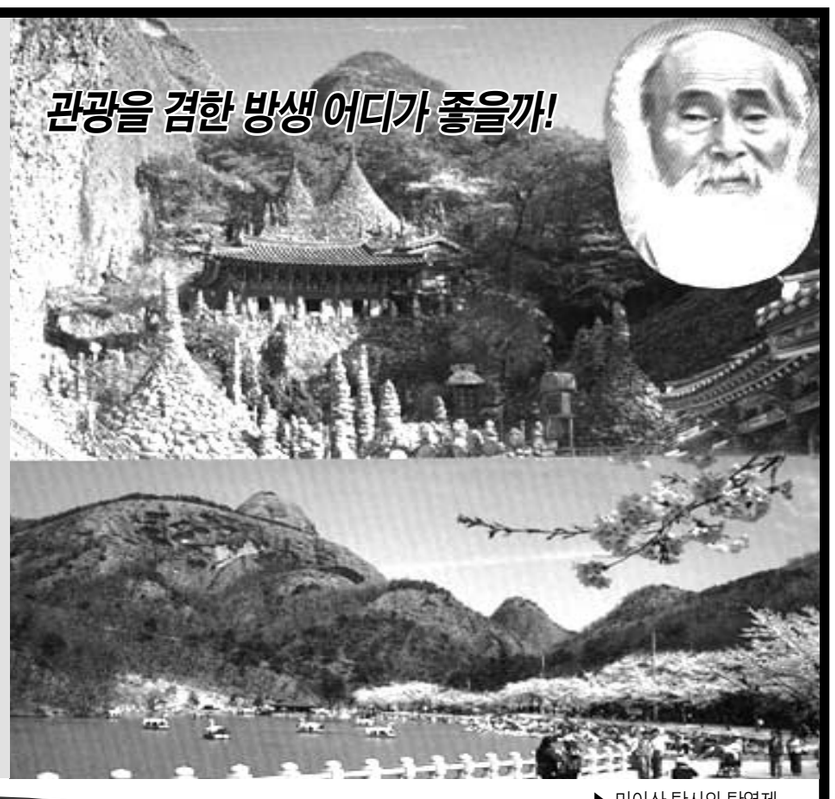
6. 9월 강좌일
- 2006. 9.8(금) ~ 10(일)

7. 특전
- 18시간 교육이수 후 수료증 수여
- 교재 · 사혈기 및 필수 부항 · 펌프 보시

8. 강좌문의 054)637-3477
(장소: 경북 영주시 단산면 구구리 구구초등학교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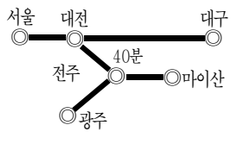
한 국 전 통 따 주 기 연 구 원

신비의 마이산 탑사 탑영제 방생



▶ 마이산 탑사와 탑영제

관광과 방생을 한곳에서!
기묘한 산이 있어 좋고, 불가사의한 탑이 있어 신비스러운 곳, 이태조가 백일기도를 드린 영험있는 기도도량. 섬진강 맑은 물의 탑영제 방생기도



진안 마이산 탑사
063)433-2900,0303
432-0652,0072

현대불교신문 윤년 특별 기획

장락수 長樂壽

장락(長樂)과 장수(長壽)의 기원과 정성을 담았습니다.

불자님과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현대불교신문에서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는 소중한 효심을 담아 한 땀 한 땀 정성을 들여 불자수의 '장락수(長樂壽)'를 지었습니다.

예로부터 윤년에 지은 '윤달수의'는 탈이 없고, 손이 없어 부모님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최상의 효행 선물이었습니다. 불자님들이 윤년 윤달에 장락(長樂)과 장수(長壽)의 기쁨을 드릴 불자수의 장락수(長樂壽)는 부모님께 깊은 만족과 감동을 드릴 것입니다.

탐 · 진 · 치, 삼독(三毒)으로 물들었던 과거를 돌아보고 여생을 겸허하게 생사일여(生死一如)의 경지로 맞이하실 계기가 될 불자수의 장락수(長樂壽)를 불자님들께 올립니다.

자손의 정성으로 부모님이 건강하게 편안히 사시고 후손이 번창을 염원하는 일이야말로 불자님들이 가장 으뜸으로 행하여야할 도리라 사려 됩니다.

불자님의 가정에 부처님의 법향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현대불교신문사



장락수의 특징

- 원사직물시험연구원의 원사심사와 품질보증 Q마크를 획득한 믿을 수 있는 제품
- 30년 경력의 전문가가 면사실로 직접 제작
- 옷함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는 특별 주문 · 제작한 수의함

품 명	재 질	특 징	판매가
珍品	대마 100%	최고급 원단 안동포로 제작한 한정된 물량의 최고급 불자수의	4,500,000
名品	대마 100%	최상의 중국산 흑대마, 안동포 전통가공법으로 제작 품격 유지	1,800,000
特品	대마 100%	중국산 사천대마, 남해포 전통가공법으로 제작 실용적 가격	1,450,000
上品	저마 100%	중국 현지에서 엄선된 고급 수직저마를 원단으로 제작한 수의	600,000

※ 멧베 추가 주문시 판매가의 10%가 추가됩니다.

제품구성

- 남성용(18종) : 도포 도포끈 두루마기 저고리 속저고리 겉바지 속바지 천금 지금 베개 면모 버선 오낭 허리띠 대님 장매 악수 고깔
- 여성용(17종) : 원삼 원삼끈 두루마기 저고리 속저고리 겉치마 겉바지 속바지 천금 지금 베개 면모 버선 오낭 장매 악수 고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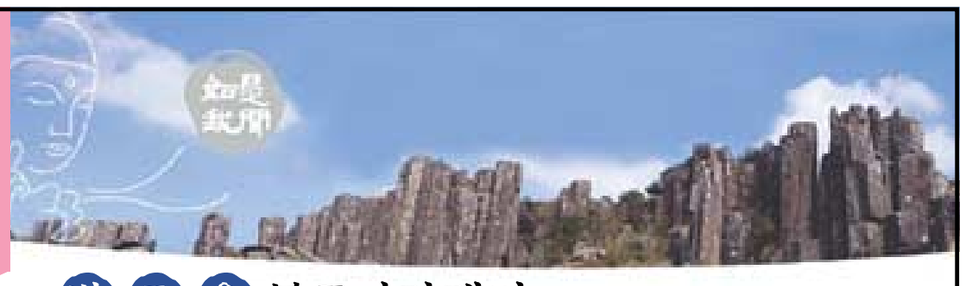
현대불교신문사 기획사업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전화 02)737-0695(직), 2004-8219 / 팩스 02)737-0696
홈페이지 http://biz.buddhapia.com e-mail : onlymaum@buddhapia.com

梵魚寺 간화선 대중화를 위한 10대 선사 초청

범어사 설선대법회 법문세트

문 없는 문을 열다

체계적인 불교공부를 원하는 분들께 최고의 법보시
(도반선물로 최상의 선택)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10대 선사의 간화선 수행에 대한 상세한 법문을 만나보세요.



■ 30,000원 (무료배송)

범어사와 현대불교신문사가 공동주최한 '범어사 설선대법회'의 열분의 법주스님들의 법문

■ 카세트테이프 10개 1세트

※ 설선대법회 CD, Video도 있습니다. (각10,000원)

빛고을 불교아카데미

부처님 10대 제자와 행복한 삶에 대한 이야기

법문세트



이 법문 세트는 광주 동구불교협의회와 현대불교신문사가 공동주최한 '빛고을 불교아카데미' – '부처님 10대 제자와 행복한 삶에 대한 이야기'의 열분의 법주(미산 정무 현봉 혜거 자광 지운 재연 호진 도법 철우) 스님들이 2005년 10월 5일부터 12월 7일까지 광주광역시동구KT정보센터대강당에서 설법한 것입니다.

■ 카세트테이프 10개 1세트 30,000원 (무료배송) 낱개 3천원

■ 판매처 : 여시아문 www.yosiamun.com 02)737-0695, 02)2004-8219, 8220 [입금계좌 : 국민은행 023-25-0007-617 / 농 협 053-01-265785 (예금주:현대불교신문사)]

현대불교 buddhanews.com
서기 2006년 8월 30일 수요일 (주간) 제 593 호



토요나눔마당 자원봉사자들이 노인들을 위해 노래를 부르고 있다.

달성공원 '토요나눔마당' 주방장 이만희 거사



앞치마 두르고 국자들고…간 맞추기 10년 노하우 '일품'

나누면 내가 즐겁습니다



후원자 없이 시작… 50여 봉사자와 '호흡'
지도 스님에게 배운 봉사 정신 철저히
"매주 진솔한 사람들과 만나 행복"

8월 19일 토요일, 제10호 태풍 우쿵의 북상소식에도 아랑곳없이 대구 달성공원이 시끌벅적하다. 사회복지법인 불교사회복지회(이사장 지도)가 주관하는 야외경로급식소 토요나눔마당이 열린 것.

비가 오는데도 나무주걱이며 국자, 소쿠리 등 주방기구를 가득 실은 토요나눔마당 전용 밥차가 달성공원 원숭이 우리 옆 수돗가에 자리 잡았고, 비를 피하기 위한 가로세로 10m 규모의 대형천막이 세워졌다. 대형 버너 위엔 300인 분량의 국을 한번에 끓일 수 있는 대형 솥이 다섯 개나 걸렸다.

대구 전역에서 동참한 5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은 무리를 지어 파와 콩나물을 다듬고 무를 썰는가 하면 펄펄 끓는 물에 수저를 삶고 식기를 소독하느라 야단이다. 또, 부모님을 따라 온 학생 봉사자들도 천막주위에 물길을 내고, 천막위에 고인 물을 나무주걱으로 떨쳐내며 각자 소임을 다하느라 분주하다.

1996년 무더운 여름날 시작한 토요나눔마당은 이렇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10년을 이어왔다.

처음에는 10여명의 봉사자들이 200여명의 어르신들을 상대로 삶은 감자와 미숫가루 등의 간식거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시작했는데, 요즘에는 1200여명의 어르신들이 한끼 식사를 해결하고 자원봉사자와 함께 노래하며 여가를 보내는 새로운 음식문화공간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렇게 토요나눔마당이 10년의 세월을 이어오는 동안 한번도 빠지지 않고 함께 한 자원봉사자가 있다. 바로 토요나눔마당 주방장 이만희(43, 대한불교청년회 대구지구장) 거사다.

이만희 거사는 이날도 앞치마를 두르고 한 손에는 국자를 든 채 대형 솥 앞에서 구슬땀을 흘렸다. 오늘 메뉴는 쇠고기국밥. 원래는 비빔밥이었는데 비가 오는 바람에 따끈한 국밥으로 바꿨다.

고기를 넣은 솥이 끓자 이만희 거사가 능숙한 솜씨로 불 조절을 하고 잘 다듬어진 콩나물과 무, 파 등 재료와 양념을 넣은 뒤 소금으로 간을 맞췄다. 이만희 거사의 경로급식경력 10년의 노하우가 모두 드러나는 순간, 한번에 간을 맞추는 솜씨가 일품이다.

"이 모든 것을 지도 스님에게서 주걱으로 맞아가면서 배웠습니다."

80년대 후반 대불청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지도 스님과의 인연으로 토요나눔마당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됐다는 이만희 거사. 처음 4년간 매사에 철저하고 엄했던 지도 스님에게 봉사자의 자세와 마음가짐은 물론 사소한 관리 요령 하나 하나를 배울 수 있었다.

이 거사는 지금도 봉사활동을 하면서 지켜야할 철칙을 나름대로 정해놓고 활동한다. 이중 가장 중요한 것이 봉사자로서 몸가짐 마음가짐을 단정히 하는 것이다. 따라서 봉사자들에게도 일체 장신구는 착용하지 말고, 봉사하기 편한 복장을 갖추도록 조언한다. 물론 음식을 하다가 재료를 집어먹어서도, 음식 앞에서 말을 해서도 안 된다.

하나의 철칙은 봉사활동과 사적인 일을 결부시키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이 거사는 개인명함을 주고받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처음 토요나눔마당을 시작할 당시, 이만희 거사는 30대 초반의 총각이었는데 어느덧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됐다. 97년 결혼 때까지 토요나눔마당은 이만희 거사에게 또 하나의 훌륭한 데이트장소이기도 했다. 그만큼 토요나눔마당은 이 거사의 삶에 중요한 한부분이 됐다.

"봉사활동은 자기 복 자기가 짓는 것이지 누구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이만희 거사가 10년을 넘게 봉사활동을 하는 이유다. 어릴 때부터 운동을 했던 이 거사는 "봉사활동을 하면서 직선적이고 다혈질적인 성질이 많이 부드러워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토요나눔마당 봉사활동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다. 처음에는 10여명의봉사자들이 후원자도 없이 스스로의 주머니를 털어가며 한 주 한 주를 이어가야만 했다. 공원 측의 협조도 구하지 못한 채 200명 분의 공양재료를 일일이 져다 날르고 물을 길어 공양을 준비했다. 게다가 지금처럼 주방용기구를 실어나르는 전용 탑차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

당시 밀양 관음사 종무원이었던 이만희 거사는 매주 토요일 새벽 5시에 밀양에서 벤을 몰고 대구로 올라와 남부정류장 근처의 어느 신도님 댁 주차장에 맞겨 뒀던 주방기구를 싣고 달성공원에 들어와야 했다. 추운 겨울날 설상가상으로 눈까지 펑펑 내리면 고생과 감격 속에 눈물콧물을 흘리며 토요나눔마당을 준비했다.

어르신들을 위해 고등어추어탕을 준비하던날, 고등어 가시를 발라내느라 봉사자들의 손이 상처투성이가 되기도 했고, 처음 감자수제비를 하던 날, 수제비가 솥에 눌러 붙어 혼이 난 적도 있다. 그리고 오뎅국 소동은 또 하나의 웃지 못할 추억으로 남아있다. 찜통에 물을 가득 붓고 오뎅을 꾸역꾸역 집어넣고 끓였는데 찜통 뚜껑을 열자마자 불은 오뎅이 분수처럼 하늘로 솟구쳤던 것.

"주위에선 키득키득 웃지요. 오뎅은 풀어헤친 머리처럼 자꾸 튀어 나오지요. 정말 난감했습니다"

이만희 거사의 10년 봉사세월에는 눈물도 있고 웃음도 있고, 따뜻한 사람의 냄새가 가득하다.

이젠 공원측의 협조를 얻어 수돗가에서 토요나눔마당을 진행하게 돼 물을 긷지 않아도 되고 한 평 남짓한 창고 공간도 나눠쓸 수 있게 됐지만 어르신들이 좀더 편한 시설에서 한끼공양을 하고 갈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은 변함이 없다.

대구/글=배지선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전선(케이블) - 찬덕연등에서 시공한 사찰
(대한불교천태종 광수사 법당)



자동 승강 장치(등표 조정 작업)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윤달 예수재

신상품

예수재는 생전에 사후를 위하여 스스로 기도하고
공덕을 쌓아서 지옥의 고통을 받지 않고 극락왕생 하도록
법의 공덕을 쌓는 불교의식 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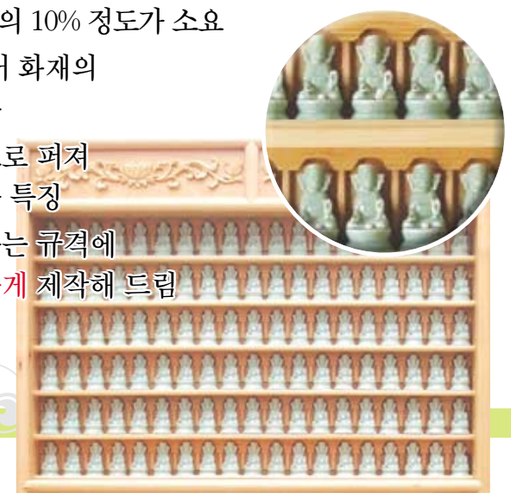


종 등 팔각봉축접등 공단등 주름등(만월봉축등)

예수재 · 천도법회등

찬덕연등이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LED 인등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저렴하게 제작해 드림



공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찬덕연등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180-1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한글홈페이지 : 찬덕연등



할로 죽이고 방으로 살리고

〈76〉 한퇴지

강릉 선교장은 전통양반가옥의 백미이다. 설악성지나 낙산사를 갔다가 여유가 허락되면 저절로 들르게 된다. 절집의 화려함과 분주함과는 달리 선비집의 단아함과 고요함이 묻어나기 때문이다.

이 집의 사랑채인 열화당(悅話堂)은 도연명의 '귀거래사'에서 "열친척지정화(悅親戚之情話:가까운 이들의 정다운 이야기를 즐겨 듣는다)에서 나온 당호이다. 이 집안 출신 후손이 출판사를 차려 '열화당'이란 상호를 사용하여 좋은 책을 많이 낸 까닭에 지식인들 사이에서 더 유명해지게 되었다.

입구의 활래정(活來亭)은 연지를 바라보고 있는 누각이다. 칠월칠석을 전후해 연꽃이 만개한다. 정자로 들어가는 대문 양쪽 기둥에는 낯익은 한 문주련이 달려있다.



조숙지변수(鳥宿池邊樹)
승고월하문(僧敲月下門)
새는 연못가의 숲으로 자러오고

후사정을 이야기했다. 퇴(推)자보다는 고(敲)자가 낫겠다고 하여 그 의심을 해결해 준다. 그가 바로 한퇴지(韓退之 768~824)이다. 이후 글을 고치는 것을 '퇴고(推敲)'라고 부르게 되었다.

819년 헌종황제가 부처님의 사리를 궁중으로 가져와 사흘동안 모셨는데, 퇴지 한유(韓愈)는 "오랑캐의 사람인 불(佛)의 메마른 뼈를 궁중에 들임은 부당하며, 이를 수화(水火)로 소멸시켜 단절하소서"라는 내용의 〈불골표(佛骨表)〉를 올렸다. 이에 임금의 노여움을 사서 조주(潮州)로 좌천되었는데 그곳에서 태전보통(太顚寶通) 선사를 만나게 된다. 그곳에서도 기생 홍련을 선사에게 보내 꼬시도록 했으나 실패한 뒤 한퇴지는 이미 기싸움에 밀려있는 상태였다.

선사는 만나자마자 '불교의 어떤 경전을 보았느냐'고 쏘았다. '별로 뚜렷하게 본 경전은 없다'는 대답이 돌아오자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佛사리 모신 황제에 반대 상소 올려 좌천
태전선사 "경전 한번 제대로 봤느냐" 일침

스님네는 달빛아래 문을 두드린다.

해질 무렵을 묘사한 이 시는 당나라 가도(賈島 779~843)의 솜씨이다. 그러나 정작 이 글이 유명해진 것은 '작품성'이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이다. 그는 한 때 무본(無本)이라는 법명으로 출가생활을 했다. 어느 날 석양 무렵 시를 한편 완성해놓고 윗구절에서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게 된다. '승고월하문'에서 '두드릴 고(敲)'자를 '밀칠 퇴(推)'로 바꿀까 말까를 고민했다. '문을 두드린다'가 좋을까 '문을 밀친다'가 좋을까 하며 나름대로 꿰맞추고 있던 중 경윤(京尹 지금의 서울시장격)의 행차와 맞닥뜨리게 된다. 그러나 그것도 모르고 삼매 속에서 오로지 "퇴?…고?…퇴?…고?…퇴?…"를 송화두(頌話頭) 마냥 읊조리다가 행차 가운데 끼이고 말았다.

이 뜻하지 않는 돌출적인 사건 앞에 수행원들이 난리가 나고 웅성거리는 소리에 마침내 경윤이 그 이유를 물었다. 그래서 전

"그렇다면 그대가 불법을 비방함은 도대체 무엇 때문인가?"

그러자 한퇴지는 어물어물 하였다.

"만약 시킴을 받아서 했다면 주인이 시켜 따라하는 개(犬)와 다를 바 없고, 자신이 스스로 했다면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서 비방한 것이니 이는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다."

이 한 마디에 그의 뒤틀림이 스스르 풀렸다. 이제 조사(祖師)의 도리를 전할 시절이 왔다.

어느 날 한유가 선사를 찾아왔다.

"산구경을 왔는가? 나를 보려 왔는가?"

"산구경을 왔습니다."

"그럼 지팡이를 가지고 왔는가?"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태전선사가 말했다.

"지팡이를 가지고 오지 않았다면 말짱 헛일이다."

"??? (이게 뭔 소리여?)"

ㅋㅋ, 아마 평생화두가 되었을 것이다.

■ 원철 스님(조계종 포교원 신도국장)

팔정도 닦아야 진정한 불자의 삶

각묵 스님 특강 '초기경전으로 본 수행과 깨달음'

"깨달음은 무엇입니까?"

아무도 답하는 이가 없다.

"깨달음은 어떻게 실현할 수 있습니까?"

물음은 더 깊이 들어갔다. 역시 답하는 이가 없다.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불교적 답은 무엇입니까?"

가느다란 목소리의 대답이 나왔지만 각묵 스님이 원하는 답은 아니었다.

각묵 스님이 원하는 답은 초기경전에 근거한 것이다.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 널리 통용됐던 인도 언어인 빠알리어로 기록된 부처님 가르침을 담은 초기경전. 이들 질문에 대한 초기경전의 가르침은 무엇일까.

조계종 중앙신도회 불교인재개발원 주최로 8월 18일 조계사 극락전에서 열린 각묵 스님(초기불전연구원 지도법사) 초청 '초기경전으로 본 수행과 깨달음' 특강 법회 내용을 요약한다.



▷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해서 깨달을 것인가. 이것이 불교의 핵심이다. 초기경전에서는 깨달음을 사성제, 팔정도, 연기, 오온 네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것이 사성제이다. 사성제(四聖諦)란 고(苦)·집(集)·멸(滅)·도(道)의 네 가지 진리를 말한다.

초기경전을 보면, 부처님은 사성제를 깨달았기 때문에 부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숫타니파타> 558번째 게송에 "나는 알아야 할 바를 알았고, 닦아야 할 것을 닦았고, 버려야 할 것을 버렸다"는 부처님 말씀이 있다.

알아야 할 것을 알았다는 것은 고성제(苦聖諦)고, 닦아야할 것을 닦았다는 것은 도성제(道聖諦)를 말한다. 버려야 할 것을 버렸다는 것은 집성제(集聖諦)다. 부처님께서는 사성제를 꿰뚫어 알았기 때문에 자신을 부처라고 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성제를 꿰뚫어 아는 것이 바로 깨달음인 것이다.

▷ 깨달음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나?

부처님의 최초 설법을 담은 <초전법륜경> 등에 보면 부처님은 중도(中道)를 깨달았다고 나온다. 그리고 중도와 함께 어김없이 언급된 것이 팔정도다. 중도를 한 마디로 말하면 팔정도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설법하신 것도 팔정도다.

팔정도(八正道)란 정견(正見·바른 견해), 정사유(正思惟·바른 생각), 정어(正語·바른 언어), 정업(正業·바른 행동), 정명(正命·바른 생활), 정정진(正精進·바른 노력), 정념(正念·바른 의식), 정정(正定·바른 정신)을 말한다.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기 전 한 제자가 "어떤 것이 진정한 사문집단인가"라고 질문했을 때 "불교 승가가 진정한 사문집단이다. 왜냐하면 팔정도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셨다.

깨달음이란 사성제를 꿰뚫어 안다는 것이고, 사성제를 꿰뚫는다는 것은 도성제를 안다는 것이다. 도성제는 열반에 이르는 방법, 곧 실천 수단이며, 여덟 가지가 있다. 이것이 바로 팔정도다. 다시 말하면 깨달음을 실현하는 방법이 팔정도라는 것이다.

팔정도는 수행의 핵심이다. 화두를 들고 있다고 해서 수행이 아니다. 사성제나 팔정도에 대한 근원적인 이해 없이 하는 수행은 '수행 테크닉'만 키울 뿐이다.

▷ '나는 누구인가'

초기경전을 근거로 한다면 이 물음에 대한 답은 오온(五蘊)이다. 오온이란 색(色)·수(受)·상(想)·행(行)·식(識)의 다섯 가지로, 현상세계 전체의 구성요소를 의미한다. 따라서 오온으로 해체해서 보면 모두가 무아(無我)다. 오온으로 나 자신을 해체해서 보면 무상(無常)이 보이고 고(苦)가 보이고 무아(無我)가 보인다는 것이다. 즉, 너도 오온이고 나도 오온이다. 불교공부 30년 해서 오온이라는 답이 안 나온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 사성제 꿰뚫어 아는 것이 깨달음
> 팔정도, 중도이자 수행의 키포인트
> 불교핵심 모르고 화두 들면 안돼

법회 때마다 외는 <반야심경>의 핵심도 바로 오온이다. 모든 것은 매순간 생멸을 거듭한다. 이렇게 분석해보면 무상이 드러난다. 무상한 것은 괴로움이다. 그리고 이 세상 존재하는 모든 것은 찰나적인 것이어서 내 것이 없다. 이것이 바로 존재의 실상을 나타낸 삼법인(三法印)이다.

무상을 통해 해탈하면 무상해탈, 고를 꿰뚫어봐서 실현되는 해탈을 (바라는 것이 없다는)무원(無願)해탈, 무아라고 꿰뚫어 안 것을 공해탈이라고 한다. 무상 고 무아는 무상해탈, 무원해탈, 공해탈과 연결된다.

▷ 수행은 어떻게 해야 하나

불교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알고 해야 한다. 불교는 부처되는 가르침이다. 모든 불자들이 항상 의문을 품고 있는 것이 깨달음이란 무엇인가다.



이날 법회에서 각묵 스님은 불교의 핵심을 이해한 뒤 수행을 해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런데 불교 핵심에 대한 이해없이 깨달음을 마치 로또복권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 복권 하나 사놓고 인생역전이라는 희망 속에 일주일을 기다린다. 마찬가지로 화두 하나 받아놓고 복권 보관해놓듯 장롱 속에 밀어 넣고 '나에게도 화두가 있다'고 뿌듯해한다. 그리고 언젠가는 로또처럼 탁 터져서 화두를 타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이건 수행이 아니다. 불교의 핵심에 대한 이해없이 한 방에 화두 깨치면 된다는 식의 수행은 수행이 아니다.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불교의 근본적인 가르침에 대한 고민과 문제의식 없는 그 어떤 수행도 의미가 없다. 이렇게 하면 평생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

수행의 핵심은 팔정도다. 계율을 지키는 것은 팔정도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것은 도(道)를 닦는 것이다. 도란 다름 아닌 팔정도다. 팔정도를 닦는 삶이 진정한 불자의 삶이자 사성제를 완성시키는 삶이요, 중도와 연기를 실현하고 오온의 무상과 고와 무아를 실현하는 길이다.

정리=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아바타 마스터 김희균
●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154-1 전화 010-6230-2113 · ☎ 02)396-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이름 대사전"
아직도 이름을 짓고 계십니까?
작명을 하는 데는 우선,
• 수리가 좋은 획수로 구성되어야 하고,
• 상생의 원리를 따르고,
• 수리구성에 의한 수리오행과 삼원오행 및 원(元), 형(亨), 이(利), 정(貞)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 작명에 쓰지 않는 글자들은 사용하지 않아야 하고,
• 한 글자가 두가지 음으로 소리나는 글자는 쓰지 않고,
• 장남과 차남을 구분해야 하며,
• 오행이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상기와 같은 기본을 완벽하게 적용하여 우리나라 약 320여개의 성씨 별로 약 2000여개의 최고의 이름들을 선택해서 이름풀이까지 완벽하게 갖추고 있으며, 언제 어디서나 사람이름, 법명, 상호, 기타 이름이 필요한 모든 분야에서 완벽하게 활용할 수 있으니, 작명에 대하여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도 이 책만 있으면 최고의 작명가가 될 수 있습니다.
효타암 주지 원공 합장
부산 금정구 금사동 34-4 효타암 전화 051)524-9406
• 정가 : 50,000원 • 농협 121076-56-092613 (예금주:손선미)
※ 지금 주문하시면 5일후에 도착합니다

正宇 천연무공해 황토방
스님들의 수행공간이나 요사채를
천연 순100% 황토방으로
장엄하게 불사에 매진하고자 합니다.
정우 천연황토는 화학물질, 석회석, 시멘트, 본드 등 일체의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을 첨가하지 않은 순100% 천연황토만을 사용하며, 묻어 나거나 갈라짐, 깨어짐, 들뜸 현상이 없어 벽지나 장판을 사용하지 않아도 실생활에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순 100% 황토가 아니면 시공비 전액을 받지 않겠습니다.
고건축.일반건축.동기와.황토방.인테리어시공 전문
正宇文化財建築
정우천연황토산업
대표 정우철 합장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 96번지
전 화 062)226-4445
팩 스 062)234-1286
핸드폰 011-607-9828
이메일 bestceo12@naver.com

여러분 아직도
레이키(Reiki·靈氣)를 모르십니까?
레이키(Reiki · 靈氣)를 배워야만 바로 지체없이 氣치료 능력자, 氣주입 능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독자들께서 오래 수련을 하지 않고도 그렇게 된다는데 의문을 표하며 믿으려 하지 않아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이에 대한 최선의 답은 실제로 교육을 받아 보시라는 답이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생활레이키연구회」에서는 더욱 많은 분들이 적은 비용으로 레이키를 배워 보실 수 있도록 교육비를 9월 1일부터 55만원으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1997년(150만원) → 1999년(120만원) → 2000년(100만원) → 2002년(70만원) → 2006년 9월부터(55만원)이라는 교육비 인하의 경과를 거쳐온 것입니다.
레이키요법은 수험생의 스트레스 관리, 수천가지 급만성 질환의 관리에 대체요법, 보완요법으로서의 효과를 두루 발휘하는 氣주입법이며 약손요법이고 면역력 향상법입니다.
◆ 교 육 비 : 55만원 ◆ 교육기간 : 2~3일
◆ 현대생활레이키연구회
www.Reiki.co.kr
전 화 02)720-5719, 720-5682
핸드폰 010-8392-2557
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 5번출구에서
경향신문사 쪽으로 10분 피어선 빌딩 809호실

interview

서울지하철 법우회 새회장

최병운씨

"다양한 이벤트로 즐거운 신행 유도"



"전임 회장님들이 닦아 놓은 기반을 바탕으로 법우회 신행을 활성화하는데 주력할 것입니다"

8월 22일 지하철 2호선 종합운동장역내 서울지하철법우회 법당에서 300여 명의 내외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가진 서울지하철법우회 최병운 회장은 무엇보다도 법우회 회원들의 신행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법우회 회원은 300여 명. 하지만 법회 참석인원은 50~60명 정도. 3교대 근무를 하는회원들이 많다보니 법회에 참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자체법당을 마련하는 등 외적인 하드웨어는 어느 정도 갖춰졌다고 봅니다. 이제는 내적으로 실천가능한 프로그램을 법우회와 접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최 회장은 회원들을 대상으로 템플스테이를 실시하는 한편, 여러 가지 이벤트를 통해 관심을 유도하고 신행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최 회장은 또 "기존의 법회는 그대로 유지하되,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다 역동적인 법우회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며 가까운 시일 내에 임원회의를 열고 법우회 운영방향과 일정 등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지하철법우회는 1991년 창립돼 현재 300여 명의 회원들이 매월 두 차례 정기법회를 여는 등 활발한 신행활동을 해왔다.

한명우 기자

명상하면 집중력 좋아져요

일산 우곡선원 '가족과 함께하는 청소년 명상교실' 열어

여름방학의 끝자락. 학생들은 물론 학부모들도 아쉬움과 막막함에 젖어드는 때이다. 방학을 하며 나름대로 짰던 계획표대로 생활하려고 노력도 했겠지만, 이맘때면 밀린 숙제하랴 새 학기 준비하랴 마음만 어수선해지기 때문이다.

"새 학기에는…." 하는 다짐을 명상(참선)프로그램을 통해 새기는 자리가 열렸다.

8월 19일 오전 10시. 경기도 일산 중산마을의 우곡선원 우곡심성개발교육원(원장 장명화)에 초중고등학생과 학부모 40여명이 모였다.

서울 서초동에 있던 우곡선원이 이곳으로 옮겨 와 처음 마련한 '가족과 함께 하는 청소년 명상(참선) 교실'. 먼저 김혜경(부산 주례여중 교장) 선생님이 마이크를 잡았다.

"안녕하세요? 이제 개학이 며칠 남지 않아서 서운하지요? 오늘 준비된 프로그램은 명상의 바른 자세와 호흡, 그리고 선기공 체조와 각종 놀이를 통한 집중력 훈련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어려운 것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지요? 걱정할 것 없어요. 함께 해 보면 아주 재미있으니까요."

좌복 위에 앉는 방법을 배우는 것부터 시작된 명상교실은 매우 간결하면서도 속도감 있게 진행됐다. 참가자 대부분이 명상이나 선체조 등을 처음 접하기 때문에 '맛보기'만 하도록 한 것.

"좌복의 뒤끝을 접어 올리고 꼬리뼈를 살짝 걸치듯 앉아보세요. 그리고 몸을 좌우로 흔들어 반듯하게 하고 허리를 쭉 펴세요. 안정감이 들지요?"

김선화(부산 사하초등학교 교사) 선생님의 지도로 앉음새가 마무리되자 곧바로 삼지법과 호흡법을 설명한다. 의외로 참가자들은 잘 적응했다. 곧고 편안하게 앉아 팔을 편안하게 양 무릎위에 올리고 엄지와 검지 장지 손가락 끝을 한데 모아 손가락 끝으로 전해지는 맥박 뛰는 감각을 느끼는 삼지법과 길게 천천히 아래로 숨을 고르게 뿜어내는 날숨호흡이 익숙해 지는데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선기공 체조도 재미있게 익혔다. 참가자들은 몇 가지 동작을 따라하며 "이런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하는 눈치다. 그러나 이렇게 쉬운 동작도 생활 하는 가운데 수시로 해야 움직임이 된다"는 윤성삼(창원초등학교 교사) 선생님의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인다.



가족과 함께하는 청소년 명상교실에 참가한 학생들이 선기공체조를 배우고 있다.

만다라명상 · 선기공체조 등 배우며 '수행 맛보기'

학부모 · 학생 40명 동참 … 가을부터 정기프로그램 가동

이날 프로그램의 하이라이트는 '만다라 명상'이었다. 앞쪽에 준비된 스크린에서 태극문양과 만다라 문양이 합쳐진 만다라가 천천히 회전 하고 참가자들은 그 큰 그림 속에서 하나의 문양을 선택해 자신의 눈을 고정시켰다. 그리고 앞에서 배운 자세와 호흡법을 유지하며 그 문양을 집중해 관찰하는 것이다.

"저는 연두색 문양을 주목했어요. 마치 빨려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라는 황주아(호곡중 2) 양은 "이렇게 집중력을 기르는 훈련을 하면 학교 성적도 쑥 올라갈 것 같다"고 말해 법당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한 시간이 흐르고 조금씩 몸이 뒤틀릴 때 쯤, 프로그램은 단어조합 퍼즐과 애국심 고취를 위한 시조 노래 부르기 등으로 흥을 돋우었고 어느새 두 시간이 흘렀다.

"평상시 부모님께 자세 나쁘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오늘 배운 것으로 나의 자세를 고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을 얻었다."는 황인태(고양외고 1)군의 이야기에 친구 신형수 군은 "호흡과 명상의 중요성을 알게 된 것이 이번 방학기간에 한 일중 가장 기억에 남을 것"이라 말했다. 아이들과 함께 참여한 김광연 씨는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마음의 재산을 늘리는 것 같아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자주 주어지길 바랐다.

우곡심성개발교육원은 10월 두 번째 주 토요일(14일)에 한 차례 더 청소년 명상교실을 열계획이다. 그리고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위한 정기적인 프로그램도 가동할 계획이다. www.wookok.org

글 · 사진=임연태 기자

월악산서 산행대회

대경불교산악회 9월 10일

대경불교산악회가 9월 10일 충북 제천 월악산 산행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산행에서는 덕주골 덕주사와 미륵리 절터에 남아 있는 오층석탑 등 불교유적을 둘러보게 되며, 망국의 한을 품고 월악산에서 은거한 신라의 마지막 태자 김일과 그의 누이 덕주공주를 기리는 시비도 볼 수 있다.

오전 7시 대구 두류공원 내 문화예술회관 앞에서 출발하며, 일반인들도 참가할 수 있다. 회비는 2만원. 011-811-1762(산행팀장 장천석)

한명우 기자

일터가 도량입니다

노인취업 위해 '즐거운 발품'

대전 중구 시니어클럽 김경범 관장

대전 중구 시니어클럽 김경범(55) 관장은 매일 아침 8시50분 직원들과 함께 하는 아침예불을 시작으로 하루를 연다. 직원들 종교가 모두 불교는 아니지만 아침예불을 마다하는 직원은 없다. 서로가 얼굴을 맞대는 유일한 시간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차분하게 하루를 열 수 있어서 좋다.

시니어클럽은 노인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관으로, 대전 서구와 중구 유성구 3곳에 시니어클럽이 있다. 이 세 곳은 모두 백제불교회관 복지재단이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대전시니어클럽에 소속.

라면 어디에서든 환영받을 정도가 됐지만 아직도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그럴 때마다 어르신들의 불국토를 건설하겠다고 다짐하며 용기를 얻곤 합니다."

김 관장은 직원들에게도 항상 이 점을 강조한다. "어르신들을 대할 때 항상 애인처럼 하라"는 말을 입에 달고 있을 정도다.

그렇다고 직원들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법은 없다. 20대에서 30대 초반이 대부분인 각 사업팀 팀장들 및 사무실 직원들과 50대인 김 관장과의 세대차이는 불가피한 일. 하지



김경범 관장이 떡방에서 일하는 '어르신'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김 관장이 중구 시니어클럽 관장으로 근무하기 시작한 것은 올해 1월부터다. 김 관장은 불과 8개월 만에 많은 성과를 이뤘다. 떡방과 간병인사업만 운영해 오던 중구 시니어클럽은 김 관장이 오면서 베이비 사업단, 가사도우미, 영농도우미, 금빛은행 등 4개 사업을 더 늘렸다. 지금은 만 55세 이상 노인 240명이 연간 2억5천만원의 매출을 올리는 규모로 성장했다. 이것은 다양한 사업으로 보다 많은 노인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김 관장의 의지와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려움도 적지 않았다.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기업체들의 도움이 필수. 하지만 생산효율이 떨어지는 노인인력을 쓰겠다고 나서는 기업은 없다. 하루종일 발품을 팔아가며 기업체를 찾아다녔고 노인들을 써달라고 애원했다.

"지금은 '중구 시니어클럽' 인력이

만 김 관장은 항상 직원들 입장에서 생각하고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려고 노력한다. 그래서인지 별다른 갈등은 없다.

"어르신들을 잘 살피고 젊은 직원들과 호흡을 맞춘다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는 않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재미있게 생활하려고 노력합니다."

김 관장은 얼마 전부터 우송대학교 식품학과 대학원 입학해 공부하고 있다. 노인일자리 창출에 요식업이 좋은 아이템이 될 수 있다는 판단아래 직접 공부하면서 요식업 관계자들과도 친분을 쌓기 위해서다.

"많은 아이템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겠지만 부처님 일인데 잘 되지 않겠습니까?"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김 관장. 그에게 중구시니어클럽은 오히려 좁다는 느낌이 든다.

글 · 사진=한명우 기자

六壬 · 命理
專門家課程 募集

진리는 단순합니다.
이치에 맞지 않으면 학문이 아닙니다.
실전감정을 통한 천고비전을 전수하고자 합니다.

입 학 안 내

◆ 제출서류 : 입학원서(소정양식)
반명함판 사진 4매
◆ 모집인원 : 00명
◆ 수 강 료 : 육임 · 명리과정 총 30만원
제일은행 한성디지털대학교 평생교육원
111-10-013775
◆ 교육기간 : 12주(3개월)
◆ 교육시간 : 매주 화요일 六壬 오전 10시 ~ 12시
命理 오후 2시 ~ 4시
◆ 개 강 일 : 2006년 9월 5일
◆ 접수문의 : 한성디지털대학교 평생교육원
교 학 과 02)766-1321~2
담당교수 011-524-1080 / 011-1763-3567
◆ 특 전
- 전 과정 수료 시 한성디지털대학교
평생교육원장 명의 수료증 수여
- 한성디지털대학교 평생교육원 총동문회 회원
- 미국 캘리포니아 유인대학교 교육과정 인증서 발급
- 본 교육 수료 후 관련 자격증 취득
(단, 자격증 취득 시 소정의 비용은 본인 부담)
서울시 종로구 숭인1동 55-6 수석빌딩 3층

한성디지털대학교 평생교육원
www.hsde.ac.kr

직 원 모 집

아동복지시설 진여원에서 아래와 같이 직원을 모집합니다.

◆ 모집분야 : 생활보육사 0명
◆ 지원자격 : • 불교인(필수)
• 고졸이상 졸업자
• 197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상근 및 출퇴근 가능자
• 1종 운전면허 소지자
◆ 제출서류 : • 이력서
• 최종졸업증명서
• 주민등본
• 사회복지사 및
보육사 자격증 사본(해당자)

◆ 모집분야 : 조리사 0명
◆ 지원자격 : • 불교인(필수)
• 고졸이상 졸업자
• 195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상근 가능자
◆ 제출서류 : • 이력서
• 최종학력증명서
• 주민등본

문의 : 043)851-6013
380-811 충북 충주시 동량면 화암리 540
사회복지법인 성불 복지회 진여원

참수행법 5기 기초수행자,
지도자과정 모집
(명상(참선), 호흡)

끝없이 이어지는 나의 삶(영겁)의 윤회를 벗어나는 참수행법

참호흡법과 정신수행법은 고도의 참수행 1,2,3권을 정진하여 내 마음속의 불행, 고통으로 흐를 수 있는 온갖 잡념과 번뇌 망상을 수행 향상에 따라 조금씩 조금씩 소멸시키는 공부입니다. 또한 나의 끝이 없는 윤회인 틀(구속)에서 벗어나고, 수행 중 참행복을 수행자 자신이 실제 체험으로 느껴나가는 수행법입니다.

◆ 일시 : 매월
◆ 기간 : 평일반 - 1개월 (매주2회)
주말반 - 2개월 (매주1회)
◆ 주부반 : 오후 2:00 ~ 3:30 (주2회)
일반부 2:00 ~ 3:30 (주2회)
◆ 일반인반 : 저녁 7:00 ~ 8:30 (주2회)
◆ 주말반 : 토요일 오후 1:00 ~ 3:30 (주1회)
◆ 수강료 : 월 5만원
(고도의 참수행 1, 2, 3권 교재지급)
◆ 접수 : 전화, 방문 신청

다음 카페 참사모(참수행을 사랑하는 모임)
한글 인터넷주소 "참사모"

대각선원 (수행전문도량)
전화 02)2269-0813, 011-785-8813 덕정스님
지하철1회선 - 종로5가역 6번출구 유성약국 옆건물(501호)
(수행 안내 자료를 우편 발송하여 드립니다)

계룡산 대자암
보살계 수계산림 법회

대승보살계(大承普薩戒) 십중대계(十重大戒)와 사십팔경구계(四十八輕拘戒)는 출가비구와 재가신도를 막론하고 다 같이 수지하여야 할 계법입니다. 계(戒)는 하늘을 오르는 사다리와 같고 바다를 건너는 배와 같으며 어둠을 밝히는 등불과 같고 계를 지키면 어두운 곳에서 불빛을 만남과 같고 가난한 이가 보배를 얻음 같고 병난 이가 쾌차함과 같고 갇혔던 죄수가 풀려남과 같고 멀리 집나간 이가 돌아옴과 같나이다 (범왕경)라고 하셨습니다. 금번 대자암에서는 아래와 같이 전계사 송광사 총림 방장 보성대화상을 모시고 보살계 수계산림 법회를 봉행하오니 무루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 법회안내
▷ 보살계 수계법회 : 윤달 음, 7월 25일
(양 9월 17일)
▷ 접수마감 : 윤달 음, 7월 15일 (양 9월 17일)

계룡산 갑사 대자암
공주시 계룡면 중장리 52번지
전화 041)857-5880 / 팩스 041)857-5215



禪 수행의 길잡이 선가귀감

<36> 열반 얻을 중생은 없다

중생을 위해 살아가는 보살은 중생이 모두 성불할 때까지 결코 성불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마음은 지극한 자비심이 드러난 것으로써 보살이 깨달음을 추구하는 것은 모든 중생을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보살의 깨달음이 완성되었다면 이 세상 중생이 모두 제도된 것이다. 그러나 그 실상은 공성(空性)이니, 텅 빈 성품 속에 따로 제도할 수 있는 중생이 있을 수 있겠는가? <선가귀감> 36장에서는 말한다.

菩薩이 度衆生入滅度나, 又實無衆生得滅度니라.

보살이 중생을 제도하여 멸도에 들게 하나 실로 멸도할 수 있는 중생은 없느니라.

보살은 보리살타의 줄인 말이다. 보리(菩提)는 '깨달음'이나 '지혜' '도(道)'라는 뜻을 갖고 있고, 살타(薩埵)는 '중생' 또는 '유정(有情)'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따라서 보살을 각유정(覺有情) 대각유정(大覺有情) 도심중생(道心衆生)이라고 번역하기도 한다. 위로는 밝은 지혜로 부처님의 세상을 추구하고, 아래로는 따뜻한 자비로 모든 중생을 보살피며, 온갖 보살행을 완성함으로써 깨달음을 성취하려는 수행자를 말한다. 밝은 지혜로 부처님의 세상을 추구한다는 것은 스스로를 이롭게 하는 수행이고, 따뜻한 자비로 모든 중생을 보살핀다는 것은 다른 이를 이롭게 하는 보살행이며, 보살이 깨달음을 성취했다는 것은 자신의 수행과 보살행이 완성된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살의 삶은 자신의 수행에만 치중하여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성문(聲聞)이나 연각(緣覺)의 삶보다 더 뛰어나다고 본다. 보살 가운데 아주 공부를 잘하는 큰 보살한테는 '마하살(摩訶薩)'이라는 명칭으로 부르거나 '마하살타' '보살마하살' '보리살타마하살'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참고로 '마하'의 뜻은 '크다'이다.

"보살이 실로 멸도 할 수 있는 중생은 없다"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멸도(滅度)란 열반의 또 다른 이름이다. 활활 타오르던 번뇌가 다 연소되어 사그라진 상태이니, 부처님 마음이 드러나 더 이상 없앨 번뇌가 없다. 더 이상 없앨 번뇌가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은 다른 말로 제도할 중생이 다 사라진 것이다. 깨달음이 완성되어 깨달음을

번뇌가 다 사라지니 추구할 깨달음이나 제도할 중생 없는 것

추구하는 '나'와 없앨 '번뇌'가 사라진 이 자리에서는 추구할 깨달음이나 제도할 중생조차 없는 것이다.

육조 스님도 <육조단경>에서 '네 가지 큰 서원'인 사홍서원(四弘誓願)을 설명하면서 중생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중생들을 스스로가 제도하는 것임을 강조한다. 즉 보살이 "모든 중생을 남김없이 다 제도하겠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이렇게 말한 중생들은 모두 스스로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중생을 제도한다는 것이지 다른 보살이나 부처가 제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중생이란 마음속에 있는 중생으로서 어리석고 삿된 마음, 허망하고 황당한 마음, 착하지 않은 마음, 질투하는 마음, 독하고 악한 마음, 이런 마음 모두를 함께 말한 것이다.

저마다 자신의 성품에서 스스로 이 마음들을 제도해야 '참으로 중생들을 제도한다'고 하니, 무엇이 "자신의 성품에서 스스로 이 마음들을 제도한다"는 것인가? 이는 자기 마음 가운데에 있는 삿된 소견과 번뇌, 어리석은 중생들을 바른 견해로 제도하는 것을 말한다.

이미 바른 견해가 있다면 반야지혜로써 어리석은 중생들을 깨우쳐야 한다. 저마다 스스로 제도하되 삿된 것이 오면 바른 것으로 제도하고 미혹한 경계가 오면 깨우침으로 제도하며, 어리석은 경계가 오면 슬기로움으로 제도하고 악한 것이 오면 착한 것으로 제도하는 것을 '참으로 중생을 제도한다'고 말한다. 이것은 서산 스님이 하신 말씀과도 그 뜻이 통한다.

菩薩 只以念念 爲衆生也 了念體空者 度衆生也. 念旣空寂者 實無衆生得滅度也.

보살은 오직 자신의 생각 하나하나를 중생으로 삼을 뿐이다. 그러므로 생각의 바탕 그 자체가 텅 비어 있음을 아는 것이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는 것이다. 생각이 텅 비어 고요한 마음이라면 실로 멸도할 수 있는 중생이 없기 때문이다.

<선가귀감 언해본> 주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성품에 있는 중생을 밝힌 것이다. 마음은 본디 적멸(寂滅)이므로 마음에서 일어나는 중생과 부처 또한 그 모습이 적멸이다. 마음의 작용에 이르러서는 마음에 그릇됨이 없는 것이 계(戒)이며, 마음에 혼란이 없는 것이 정(定)이며, 마음에 어리석음이 없는 것이 지혜이다. 마음에 딴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지(止)이고 앎이 어둡지 않은 것이 관(觀)이며, 편한 마음으로 이치를 잘 아는 것이 인욕이고 마음에 이런 모습이 끊어짐이 없는 것이 정진이다"라고 풀이하였다.

그러므로 깨달은 사람은 부처요 어리석은 사람은 중생이며 자비로운 보살은 중생들을 제도하며 깨달음으로 가는 것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란 모든 법을 깨달아 통달하는 것이며 원력은 보살행을 쉼없이 부지런히 실천하는 것이니, 이것은 모두 자신의 마음자리에서 해나가야 할 일이다.

■원순 스님(송광사 인월암)

행복동 사람들

극락가는 법

배종훈 (bjh4372@hanmail.net)



※이번호로 '행복동 사람들'을 마칩니다. 그동안 좋은 그림과 글을 주신 배종훈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호부터는 용정운씨의 'I Love Buddha'가 연재됩니다.

한입에 쏘옥~ 불교 상식

선사, 종사, 화상

스님에 대한 존칭은 많습니다. 존칭은 대체로 그 스님이 주로 어떤 공부를 했느냐에 따라 붙여집니다. 참선을 주로 한 스님에게는 '선사(禪師)', 계율은 '율사(律師)', 경전은 '강사(講師), 강백(講伯)'이란 존칭을 씁니다.

물론 전공과 관계없는 존칭도 있습니다. 조사(祖師), 종사(宗師) 대사(大師), 화상(和尙) 등입니다. 조사는 한 종파를 창시한 스님, 종조(宗祖)나 중흥조의 경우에 씁니다. 종사는 한 종파의 업적을 계승 · 발전시켰거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후세에 널리 잘 전한 스님의 경우에 사용됩니다.

대사는 덕이 높은 스님, 화상도 스승이란 뜻으로 역시 덕이 높은 스님에 대한 존칭입니다. 여기에 '대(大)자'를 붙여 대종사, 대화상이라고도 쓰는데, 최고의 존칭입니다.

이런 존칭은 고려시대에 형성된 '승계(僧階:지금은 법계)제도'와 크게 관련돼 있습니다. 당시 승과시험에 합격한 스님만이 선사 등의 칭호를 쓰게 됐고, 그 칭호만 봐도 위계질서를 확연히 알 수 있었거든요. 절집에서도 세간과 마찬가지로 위계가 분명합니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 강의 (111)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뜻한



2부 57강 혜능의 대승 사과(四果), 혹은 돈교 사과

아무것도 오고 가지 않는다

한문은, 특히 경전 계통의 한자는 과장하자면 한 글자도 허투루 박힌 적이 없다. 그 시절엔 이름자 한 글자 잘못 불렀다고 살인을 부르고, 책 한권 찍는데 집 한 채 값은 족히 들었다. 내가 보는 <금강경오가해> 목판본만 해도, 상권과 하권 각각의 뒤편에, 기부와 소임을 맡은 스님, 거사, 여인들의 이름이 수십명이 박혀 있다.

혜능 <구결>에 잘못된 글자가

지난 시간에 읽은 다음 육조의 원문에서 혹 이상한 점을 발견했는지 모르겠다.

– 六祖: 斯陀含者梵語, 唐言一往來, 捨三界結縛. 三界結盡, 故名斯陀含. 斯陀含名一往來, 行從天上 卻到人間生, 從人間死 卻生天上, 竟出生死, 三界業盡, 名斯陀含果. 大乘斯陀含者, 目睹諸境, 心有一生一滅, 無第二生滅, 故名一往來. 前念起妄, 後念卽止, 前念有著, 後念卽離, 實無往來, 故曰斯陀含也.

그곳은 "斯陀含名一往來, 行從天上 卻到人間生, 從人間死 卻 生天上, 竟出生死," 안의 행(行)자이다. 종(從)에서 도(到)는 현대중국어도 마찬가지로, "–에서 –에로"라는 뜻이고 생(生)이 거기 동사를 감당하고 있다. 그런데 행(行)자는 도무지 어색한 자리에 끼어있다 싶었지만, 전체 문장의 의미에 크게 구애되지 않는다 해서 대충 지나갔었다.

며칠 전 정책 보고서 쓰다가 흐릿해진(?) 머리로 목판본 <금강경오가해>를 우연히 들추다가 문득 마주친 곳이 있다. 책 끝에 편찬자 함허득통(涵虛得通 1376~1433) 화상이 몇 군데 고증한 노트부분이었는데, 그는 여기 행(行)자가 자(者)자의 잘못표기인 듯하다고 적어놓았다.

나는 즉각 무릎을 쳤다. "어째 그걸 못 보았을꼬. 아직 멀었네…." 틀림없이 본래 원문은 "斯陀含名一往來者, 從天上卻到人間生, 從人間死 卻生天上, 竟出生死"였다. 여기 자(者)는 "–라는 것"이라는 의미로, 개념이나 문장을 한 단위로 뭉뚱그리는 역할을 한다. "사다함을 일왕래라고 이름하는 것은" 이란 뜻이다. 영어로 말하자면, 절을 이끄는 that의 위상에 해당한다. that도 '그것'을 가리키고, 자(者)도 '것', '놈'이니 같은 사유의 패턴을 갖고 있어 흥미롭다.

처음 접하면 한문은 뜯어 읽기 바쁘다. 조금 익숙해지면, 틀린 글자라고 우기게 되며, 조금 더 익숙해지면, 한 글자에 여러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고 뒷통수를 긁는다. 지금 말이지만 한자 옥편에 의지해서는 한문을 읽고 번역할 수 없다! 다양한 용례에, 때로 상상도 못한 의미가 숨어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린다. 그 지점을 한 발 지나면, "정말 좀 이상한데"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좀 더 지나면 틀린 곳이 선명하게 떠오른다. 실제 필사의 과정에서 혹은 목판을 새기고 전승되는 과정에서 확실히 빠지거나 비슷한 글자로 바뀌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것을 본격 다루는 것이 판본학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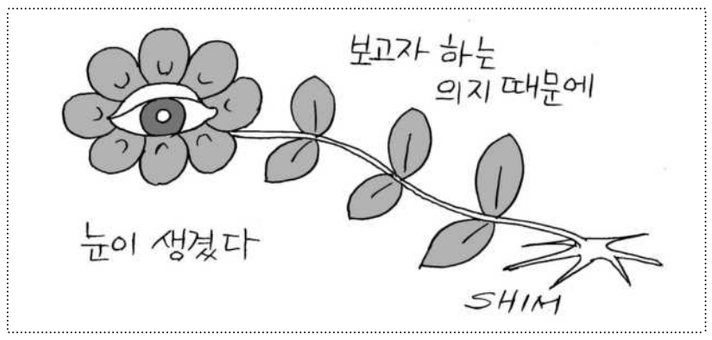
함허는 이와 함께, 혜능의 사다함 해설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혜능은 지금 보듯 사다함이 '천상에서, 인간으로…. 그리고 다시 인간에서 천상으로' 간다고 썼는데, 함허는 규봉 등의 예를 참고하여 '인간에서 천상으로…. 그리고 천상에서 인간으로'가 옳다고 적었다. 해탈 성불이 인간에서만 홀쩍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하면, 함허의 지적이 옳다. 인도 문맥은 살펴보지 않았는데, 혹시 천상이 인간보다 완전하고 행복하니 거기서 해탈성불의 계단을 밟고 가는 것이 가능하다면, 혜능의 설이 그럴 듯하다.

보려는 의지가 눈을 만들었다

위에 인용한 글에서 혜능은 사다함을 독특하게 해석해 둔 바 있다. 번역 전문을 다시 싣는다.

– "사다함은 중국어로 일왕래(一往來)로 번역하는데, 삼계의 결박을 벗어던진 자를 가리킨다. 그는 '한 번 더 왔다 간다.' 그는 천상에서 인간으로 태어났다가, 인간세를 다하면 다시 천상에 태어나는 과정을 거쳐, 마침내 생사를 졸업하는 사람이다. 사다함의 경지에서 삼계의 업은 그만 다 소멸된다. (이것은 소승이 말하는 사다함이고,) 대승의 사다함은 또 좀 다르다. 눈이 사물을 볼 때, 마음은 동했다가 사라진다. 한번 동했다 사라지되, 더 이상 2차적 동함은 없는 것, 그것을 일러 대승의 '한번 오고 감'이라 부른다. 여기서는 상념 하나가 망령되어 일어나더라도 다음 생각이 문득 그치고, 정념 하나가 집착에 빠지더라도 다음 생각이 그 열기를 문득 떠난다. 여기 더 이상 오간 것이 없다. 이것이 사다함이다."

<금강경오가해>의 부록에는 탁월한 글



몇 편이 실려 있다. 거기 혜능이 <구결>의 총론, 혹은 원론도 함께 있는데, 그 첫머리에, 혜능은 삶의 윤회에 대해, 그 추동의 메카니즘에 대해 자세히 적고 있다.

핵심은 의지이다. 그 의지로 하여 인간이 다음 생의 몸을 받는다는 것인데, 이 설은 우리가 익히 듣던 바이지만, 상식 합리적으로는 좀 낯설다. 한데 쇼펜하우어도 꼭같은 생각을 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신체 기관이 의지(will)의 결과라고 주장한다. "눈이 있어서 사물을 보는 것이 아니다. 사물을 보고자 하는 욕망이, 그 의지가 눈이라는 기관을 만들어 낸 것이다." 쇼펜하우어의 이 주장은 불교에서 배워갔는지도 모르겠다.

내 의식의 사다함

소승은 의지가 윤회를 부른다는 것을 강조한다. '삶의 관성을 거슬러오르는(逆流)' 훈련과 함께 윤회에의 전변도 줄어든다. '성스런 흐름에 들어서면(豫流, 入流)'는 욕망과 의지의 장애물과 찌꺼기가 떨어져 나간다. 그와 더불어 그는 꼭 한번만 여기 왔다가, 더 이상은 오지 않았다가, 마침내 더 이상은 윤회하지 않는 대 해탈의 경지를 얻는다. 혜능은 이 윤회의 수레바퀴를 심리적 과정으로 번안했다. 그것이 대승의 사과(四果)이다. 수다원은 사물에 추동되어 욕망을 내고 분별의 바다에 허우적거리는 인생에 대한 반성이다. "나는 주인공이다. 바깥에 끌려 다닐 한심한 인생이 아닌 것이다." 사물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자기망각 상태에서의 분출하는 반응이 줄어들면, 그의 의식은 점차 고요를 찾기 시작한다.

그래도 불쑥 불쑥 참을 수 없거나, 혹은 이전의 관성들이 힘을 발휘하기도 한다. 한번 추동된 것은 그러나 "아차, 이게 아니지" 하는 자각과 함께 더 이상의 증폭과 반복을 멈춘다. 혜능은 지금 이것을 사다함이라 부르고 있다. "눈이 사물을 볼 때, 마음은 동했다가 사라진다. 한번 동했다 사라지되, 더 이상 2차적 동함은 없는 것, 그것을 일러 대승의 '한번 오고 감'이라 부른다. 여기서는 상념 하나가 망령되어 일어나더라도 다음 생각이 문득 그치고, 정념 하나가 집착에 빠지더라도 다음 생각이 그 열기를 문득 떠난다. 여기 더 이상 오간 것이 없다."

아나함은 그 훈련이 익숙해지고 심화되면서, 타자적 의식과 정념의 물거품이 더 이상 일지 않게 된 경지이다. 혜능은 이를, "욕망과 습기(習氣)가 영원히 제거된, 그리하여 다시는 이 욕계의 삶을 받지 않게 된 사람"이라고 썼다.

그 끝에서 그는 사물과도 자신과 더 이상 다투지 않는 완정한 부동(不動)의 지위를 얻는다. 혜능의 표현을 빌리면, "더 이상 끊어야할 번뇌도 없고(無煩惱可斷), 떠나고 버려야할 탐욕과 분노도 없고(無貪嗔可離), 사물에 대해 좋고 싫은 것도 없고(情無違順), 자극과 반응이 함께 탈각한(心境俱空). 그리하여 안과 밖이 두루 고요 평안한(內外常寂) 사람"이 아라한이다. 여기 유의할 것이 하나 있다. 그가 만일 스스로 아라한의 과실을 성취했다는 자부와 자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정의(定義) 상, 아라한의 지위에서 범부로 곧바로 굴러 떨어지고 만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예술과 풍류 사랑한 조선인

조선 500년 풍미한 사람 · 땅 · 문화 이야기



조선의 문화공간(1~4권)
이종묵 지음
휴머니스트 | 8만8000원

조선시대, 수많은 문화인들은 강가에 정자를 지어 시화를 즐겼다. 귀거래(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한 사람들은 강호로 물러나 사는 맛, 안분하는 삶을 글로 표현했다. 하지만 모두 편안함을 얘기한 것이 아니다. 때로는 시대적 격랑을 만나 유배지에서의 고단함을 글로 지어 황량한 지역의 땅들을 빛나게 만들었다. 어떤사람들은 아예 벼슬길에 나가지 않고, 산과 물을 배경으로 시와 노래를 지어 부르고 그림을 그렸다.

이 책 <조선의 문화 공간>은 문학, 사상, 예술, 풍류를 아우른 조선의 사람과 땅, 그 시대 문화에 대한 이야기이다. 따라서 이 책에는 조선 500년을 풍미한 87인의 전기적 초상이 아름다운 문화 공간을 무대로 하여 펼쳐진다. 그들과 교우하고 살다간 1872명도 함께 소개돼 조선시대 문화를 이끌었던 사람들은 거의 거론됐다고 봐도 무방하다.

15세기를 살았던 정여창, 김굉필, 조광조, 김안국등의 젊은 선비들은 강학과 절조의 상징이다. 조선의 대표 선비로 꼽히는 조식, 이황, 이이, 서경덕은 16세기 같은 시기를 살았다. 모두 평생 학문을 업으로 삼았다.

그래서 그들의 보금자리였던 지리산, 청량산, 고산, 화담은 조선 학문을 상징하는 성지였다.

18세기의 주인공은 실학자들이다. 홍대용, 박지원, 정약용, 서유구는 각자의 처지에서 세상을 구하고자 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불우했지만 살아서 명예를 누린 자들보다 죽은 후에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얻었다.

<조선의 문화공간>은 옛사람들이 처한 환경과 시대에 따라 사랑한 땅과 그곳에서 살다간 삶의 방식이 다른 만큼 조선초기에서 부터 후기까지 총 4책으로 구성했다.

1책 '조선초기 -태평성세와 그 균열' 에서는 조선 개국 후 태평을 구가하던 시절에서부터 사화로 인하여 사림이 유배를 떠나는 시기까지를 다룬다.

조선 개국초기 100년간 한명회의 압구정, 월산대군의 망원정, 박은 이행의 한강 잠두봉이 이름난 시회의 공간이 됐다. 16세기로 접어들어 연산군의 광기로 태평성세를 이어보겠다던 유방선 조위 이주 등이 도성의 집을 떠나 유배지에서 고단한 삶을 살아야 했다. 특히 강학과 유방선은 원주 법천사를 중심으로 후학들과 시를 지으며 살았다.

2책 '조선중기 -귀거래와 안분' 은 선조대에서 광해군대까지 조선 문화사에서 중요한 인물과 관련한 공간이 다뤄진다. 사림정치가 본격화되는 시기로 자의와 타의에 의한 귀거래, 그리고 그곳에서 수양에 힘쓰거나 풍류를 즐기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중심을 이룬다.

이현보의 분천, 송순의 면앙정, 양사언의 감호, 박순의 창옥병, 그리고 임훈과 노진이 물러나 살던 안의삼동(安義三洞)이 그러한 곳이다. 또 청량산은 온유한 이황의 덕을 닮은 산이다. 한강 동호 건너에 있는 봉은사(奉銀寺)는 조선을 대표하는 시인 최경창, 백광훈, 이달 등 세칭 삼당시인(三唐詩人)의 낭만적인 시가 제작된 공간이었다.

3책 '조선중기 -나아감과 물러남' 은 광해군과 인조대에 영욕의 세월을 산 문인과 이후 17세기 사상계와 문화계를 호령한 명인들이 살던 땅을 다룬다. 광해군 시절 서인의 핵심적인 인물들은 암흑의 세월을 보내야 했다. 이항복은 북청으로 유배가서 죽었고, 김상용은 지방관으로 떠돌았다. 정경세는 고향땅 상주로 내려가 바보처럼 살고자 하였고, 신흠은 김포로 방축되어 가현산 아래 집을 짓고 살면서 맑은 운치를 즐겼다. 김상헌은 양주의 미호로 물러나 석실을 강학의 공간으로 삼아 학문에 힘을 쏟았고, 이식은 지평으로 가서 숨어사는 집 택풍당을 짓고 살았다. 장유는 안산의 고향집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세월을 보내었다.

명분을 중시하는 학자들은 어수선한 세상을 등지고 심신을 수양하고 강학에 몰두함으로써 절개를 지키고자 하였다. 채득기는 자천대에서, 송준길은 회덕의 송촌에서 은거하였다. 조선후기 사상계를 호령한 송시열은 화양동에 머물면서 이념을 실천하고자 하였고 제자 권상하는 황강에 한수재를 짓고 살면서 스승의 유업을 받들었다.

4책 '조선후기 -내가 좋아 사는 삶' 은 조선후기에 해당하는 18~19세기 문학과 학문, 예술을 빛낸 문인들의 이야기다. 당대 문벌 김창흡 등은 금강산과 철원, 양평 등 산수가 아름다운 곳을 떠돌면서 살았다. 특히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양수리 수종사는 조선시대 문인 재사들이 즐겨 찾는 곳이었다(사진).

하지만 조선후기 실학자들은 세상을 구하고자 한다. 홍대용은 목천에 자신의 과학정신을 담은 농수각(籠水閣)을 세우고 새로운 학문을 열고자 하였다. 박지원은 현감으로 나간 안의에서 관아를 보수하면서 중국 여행에서 깨달은 실학 정신을 구현하려 하였다.

이 책은 이종묵 서울대 국문학과 교수가 아름다운 우리 땅에 대한 기억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 10여년 간 작업한 결실이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 com



네티즌 강추

근사 체험한 그들,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죽음, 또 하나의 세계 (근사체험을 통해 다시 생각하는 죽음)
최준식 지음, 동아시아

죽음에 대한 생물학적 논쟁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대한 논쟁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최준식의 <죽음, 또 하나의 세계>는 일상에서 우리가 고민하는 죽음에 대한 고민의 단초를 제공한다. 부제에서 알 수 있듯이 주된 관심은 '근사체험' 에 두고 있다.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의학계와 종교계의 견해는 여전히 부정적이다. 중요한 것은 사후 세계를 인정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근사 체험을 한 사람들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으며, 근사체험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차분히 고민해 볼 일이다. 이 책의 저자가 죽음을 이야기하는 방식에 내가 동의하게 된 이유도 죽음이 지금 현재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다.

우리는 언젠가 모두 죽게 된다는 사실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그래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한번쯤 죽음에 깊이 생각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권해볼만한 책이다. 어떻게 살 것인가는 죽음에게 물어보라. 잘 살기 위해서는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 고민해보자.

(cognize, lifelog.blog.naver.com/cognize/r01_cognize_31811)

세계의 명화, 손가락 짚어가며 조목 조목 읽다



그림 보여주는 손가락 김치샐러드 지음, 학고재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고흐나 고갱의 그림처럼 널리 알려진 그림이 아닌 약간 뒤켠에 위치한 명화들을, 교과서의 풀이가 아닌 저자인 김치샐러드가 느끼는대로 이야기하는 것이다.

화가의 의도야 어찌 되었든 손가락이 느끼는대로 아귀에게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스토리가 진행된다. 그러다보니 가끔 작가의 억지가 보이기도 한다.

이 책은 이 작가의 그림을 읽는 방향을 엿보여주면서 보는 이로 하여금 그림을 읽는 방향을 제시해 준다.

그림 속에 있는 화가의 의도를 배제하고 그림을 이야기 해주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 보고 있다보니 그림과 교감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을 것 같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게다가 작가가 그림을 보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나오는 고민들은 내 고민들과 엄청나게 맞아 떨어졌다. 왜 살아야 하는지의 끝없는 고민과, 내가 하고싶은 일과 해야할 일의 갈림길에 다다른 후의 막막함. 그래서 이 책의 마지막 손가락과 아귀가 암흑속으로 잠기지만 그 불은 다시 밝혀질 것이라 믿는다.

(Moonlight, yes24.com/Goods/FTGoodsView)

책속의 밑줄긋기



○… '흙은 넓고 넓은 가슴입니다. 흙은 깊고 깊은 배려입니다. 흙은 높고 높은 은혜입니다. 흙은 낮고 낮은 겸손입니다. 흙은 한이 없는 인내입니다. 흙은 온갖 허물을 덮어주는 가이없는 용서입니다.'

흙집짓기를 위해서는 첫째, 가족이 먼저 한뜻이 되도록 한다. 둘째, 관련 자료나 서적을 두루 탐독하고 흙집 학교를 수강한다. 셋째, 가족과 함께 흙 건축 기행을 한다. 넷째, 가능한 풍수지리를 고려해 좋은 터를 고른다. 다섯째 터와 친해진다. 여섯째, 기존의 터를 변형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토목 공사를 한다. 일곱째, 자재와 공구를 보관하는 창고를 짓는다. 여덟째, 중고 소형 굴삭기와 4륜구동 트럭을 구입한다. 아홉째, 약 200만원 내외의 비용을 들여 공구를 구입한다. 열째, 설계를 한다. 열한번째, 모형집을 만들어 본다. 열두번째, 자재를 뽑는다. 열세번째, 자재를 준비한다. 열네번째, 물을 해결한다. 열다섯번째, 전기를 설치한다. 열여섯번째, 화장실을 짓는다. -<일주일 만에 흙집짓기-원형흙집짓기> 본문 14쪽에서, 고제순 지음, 도솔오두막

불서구입은 www.yosiamun.com

바로보인의 책을
대원 문재현 선사님 역저 / 33종
전강 대선사님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억겁의 무명을 일깨우는 통쾌한 선서(禪書)!
바로보인 전등록 전5권
바로보인 무문관
바로보인 벽암록
바로보인 첩부경
바로보인 금강경
바로보인 신심명
바로보인 환단고기 전5권
바로보인 증도가
바로보인 반야심경
바로보인 선가귀감
영원한현실
선을 묻는 그대에게 (10권 중 2권까지)
바로보인 선문염송 (30권 중 8권까지)
세월을 북채로 세상을 북삼아
앞뜰에 국화꽃 곱고 묵산에 칫눈 희다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선(禪) 법문 안내>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진면목을 엿볼 수 있는 선가귀감
서울 법회가 9월 3일 일요일 오전 11시에 열립니다.
대월 첫째주 일요일 정기법회입니다. ☎02-522-0122
• 광주선원 ☎062-944-4088
선문염송 / 9월17일(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후 2시
• 부산선원 ☎051-545-2460
금강경 / 9월24일(매월 넷째주 일요일) 오후 3시
선가귀감 등 모든 법문 테잎 구입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하세요
☎02-387-2460 www.zenparadise.com
바로보인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 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창고, 공장, 가정집 (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전국무료전화 080-011-8504 (바로공사)
서울 · 경기도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7638-1117
전라도 : 010-2311-0157
현대칼라지붕공사

수제화로 제작
상표등록 : 614981호
滿 가득할 만 行 행 靴 화
■ 소재특징 : 방수 극세사 원단. 논스립 미끄럼 방지. 특수 우레탄 소재
사계절 단화
지압식 깔창
• 가격 : 8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흑
(키높이 특수제작)
망사 단화
콜크 中창
• 가격 : 6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흑
(키높이 특수제작)
건강 슬리퍼
지압(항균 실리콘 돔)
잠수복원단
개인별표시
극세사 (방수원단)
미끄럼방지 (논스립우레탄)
• 가격 : 60,000원
• 규격 : 225-285mm
• 색상 : 회색, 흑색
좋은 점
만행 포행시 단정함 유지, 색상에 따라 사부대중의 선택, 발 건강을 위한 3cm 굽 높이로 만들어져 발로 인한 몸 건강에 도움을 주며 특히 지압식 '발바바' 깔창은 특수 항균 실리콘 고무로 만들어져 불교의 예절에 절을 많이 하시는 사부대중님의 발관절에 도움주는 특수 지압식 인솔입니다. 어떠한 신발에도 지압 인솔을 착화하시고 걷는 것만으로도 발바닥을 지압하여 운동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 문의 및 주문전화 : 02)927-5715
011-9000-5715
■ 입금계좌 : 농협 063-12-250427(구자민) ※ 보시 하실 분 상담 환원
전국매장
•부산 : 원광사 051)636-7019 •대구 : 연꽃세상 053)426-7300
•광주 : 불교서원 062)226-3056 / 화신승복 062)228-2870
•대전 : 불교백화점 042)274-3727 •서울 : 부산승복 02)738-8407
•제주 : 김윤경승복 064)724-7999

소중한 인연을 위한 정성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
몸에 좋은 조청으로 심신을 새롭게 한다
전통 비법으로 산사에서 스님께서 직접 만드신... 山寺 조청
♣ 山寺조청 은 공해시대, 무엇을 먹어야 안심할까 고민하는 당신에게 참 좋은 인연입니다.
♣ 山寺조청 은 산천 초목의 뿌리 잎, 줄기, 열매의 영양소를 고스란히 뽑아내어 우리전통의 조청으로 고아 낸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 입니다.
♣ 山寺조청 은 비구니 스님들의 청정심과 지극한 정성으로 만들어 집니다.
옻이 오르지 않는 山寺 참옻 조청 1.2kg
어혈, 냉증, 위장장애, 피로 독소, 적체의 해소, 신경조율, 항암, 원기회복등에 기여
山寺 약도라지조청 1.2kg
기관지, 천식, 기침, 거담, 배농작용, 폐기능, 호흡기질환, 피로회복등에 기여
국민건강을 생각하며 100% 천연으로 만들었습니다
山寺조청 웰빙 자연당
● 각종 요리, 무침, 조림 등 반찬 만드실 때
● 떡, 빵, 과일 드실 때 ● 고추장, 김치 담그실 때
1100g×2병 = 18,000원
옛날 방법 그대로 만든 순수한 맛,
이제는 물엿 대신 산사조청 웰빙 자연당을 쓰십시오.
● 주문 및 문의 : 대한불교조계종 금융사
054)372-3166
● 입 금 처 : 농협 727077-52-056761(현순희)
맑은 마음 깊은 정성 山寺 조청원

열반 이르는 부처님 육성 '생생'

대림 스님 '앙굿따라 니까야' 한글 완역본 1·2권 출간



초기불전연구원 원장 대림 스님(사진)은 올해초 <디가 니까야>를 발간한 각묵 스님과 함께 초기불전의 경장과 율장까지 한글로 완역하겠다는 발원을 한 스님이다.

2년전 <청정도론(위숫디막가, 초기경전 주석서)>를 완역출간한 스님이 최근 부처님 말씀을 담은 빠알리어 초기경전 중 숫자별로 말씀을 모은 <앙굿따라 니까야>(초기불전연구원 刊, 각 3만원) 1~2권을 한글로 완역 출간했다.

2년만에 발간하다보니 시간이 없어 하루 8~15시간씩 번역을 했다고 한다. 그래선지 스님은 눈이 너무 안좋다. 그래도 스님은 초기경전 번역에 하루도 쉬지 않는다. 꼭 해야만 하는 과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스님은 3~4년안에 각묵 스님과 빠알리 삼장 가운데 기본이 되는 4부 니까야(디가 니까야, 맛지마 니까야, 상윳따 니까야, 앙굿따라 니까야)를 모두 번역 한 뒤 본격적인 학술활동과 수행법회를 계획하고 있다.

스님이 왜 초기경들의 번역에 주력하게 됐을까.

대림 스님은 1983년 세등선원 수인(修印)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뒤 봉녕사 승가대학을 졸업했다. 하지만 경전을 보면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이 탐진치를 해결해주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경전의 내용이 웬지 멀게만 느껴졌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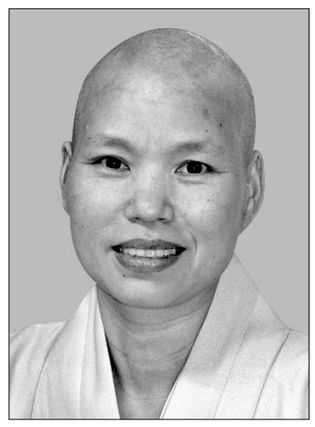
이후 선지식과의 만남을 발원하며 하루 1000배 정진을 1년동안 했다. 하지만 선지식 인연은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수행을 위해 티베트 다람살라로 떠났다. 하지만 그곳은 오히려 한국보다 부처님법이 더 멀게만 느껴졌다. 그래서 돌아오려는 찰나 한 스님으로부터 그곳까지 갔으니 인도에 들러 성지순례를 하고, 인도남부에서 공부하고 있는 각묵 스님을 만나보라는 소리를 들었다. 36시간에 걸쳐 기차를 타고 뿌나대학에 도착하니 여러 한국 스님들이 공부하고 있었다. 스님들은 초기경전을 기록한 빠알리어 공부를 권했다. 석사학위에 이어 박사학위까지 총 13년이나 공부했다. 그렇게 시작한 것이 부처님의 직설을 만나는 계기가 됐다.

스님은, 한국불교가 1700년전 중국에서 한문으로 번역된 내용을 다시 한글로 해석해서 보니 오차가 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부처님 말씀을 우리의 언어로 안목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초기경을 번역하는 큰 이유라고 설명했다.

스님이 이번에 번역한 <앙굿따라 니까야>(增支部)는 부처님 가르침을 주제의 숫자(法數)별로 모은 단순한 전기가 아니라 부처님의 말씀으로 해탈, 열반을 실현하는 체계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 특히 인간에 대한 분류가 많다. 탐진치에 관한 내용 등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 가운데서 그 주제의 법수가 분명한 말씀을 숫자별로 모아 결집한 것이다. 즉 주제의 숫자가 1인 것부터 시작해서 주제의 숫자가 11인 것까지 차례대로 모았다. 앙굿따라는 주제의 구성요소를 뜻하는 '앙가'와 뒤로 갈수록 숫자가 증가하는 것을 말하는 '웃따라'의 합성어.

<앙굿따라 니까야> 1권에는 하나, 둘, 셋의 주제를 담고 있는 세 가지 모음이 수록되어 있는 경들을 모은 각각 575개, 283개, 163개의 경들을 포함하고 있다.

또 제 2권에는 '넷의 모음'이 수록되



어 있으며 모두 271개의 경이 포함되어 있다.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각 권에 600여개에 달하는 방대한 주해를 달았다. 주해도 대부분 <앙굿따라 니까야 주석서>를 참조하여 상좌부의 전통견해를 계승하고 있다.

또한 이해를 돕기 위해 25쪽에 가까운 역자 서문을 넣었고 각각 30쪽에 달하는 각권의 해제를 달았고 술어를 한글화했다.

<앙굿따라 니까야>는 전 6권으로 출간 예정인데 3권과 4권은 올해 연말에, 5권과 6권은 내년 상반기에 출간할 예정이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새로나온 책



■ **우리곁에 오신 미륵**(원통법사 지음, 해조음)= 대승불교 경전에 서술된 여래가 석가모니 부처님이 아니라 미륵 부처님을 지칭한다는 새로운 사실을 밝히고 있다. 또 금강경에 담긴 메시지도 말법시대를 위한 경이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이 경을 공부하면 사찰들이 천대와 멸시를 할 수 없으며, 공덕이 너무 많아서 얘기할 수 없다고 한다. 또 수명에 대한 상을 가진 사람은 경을 이해못하며 법신과 세계와 중생은 본래 하나로 합한 모습이라고 설명한다.

이 책은 제1장 석가 세존의 예언, 제2장 열반에 대한 두 가지 견해, 제3장 대승불교 철학, 제4장 불교의 정토 세계, 제5장 불교의 말세관, 제6장 미륵 부처님의 수행법으로 구성돼 있다. 저자인 원통 법사는 1975년 봄 탄허 스님에게 '개벽과 화엄사상' 강의를 듣고 평생 대승불교의 사상을 연구하고 있다.



■ **무구정광대다라니 범서(실담자) 사경**(덕산 편저, 도서출판 보경)= 무구정광대다라니의 복덕과 선근은 오역죄가 소멸되어 지옥문이 닫히게 되고 간탐하고 질투한 죄는 면하게 되는 많은 상서로운 일이 저절로 생기는 것이라고 한다.

<무구정광대다라니 범서 사경>은 무구정광대다라니의 위신력, 사경의 공덕, 사경의식 절차, 사경하는 방법, 사경수행에 대하여, 무구정광대다라니 사경, 무구정광대다라니 기도방법등으로 수록돼 있다. 부록으로는 복장용 무구정광대다라니, 영가천도대다라니, 대여래불정능엄주를 함께 실었다.



■ **이름대사전**(원공 지음, 신화문화사)= '좋은 이름을 쉽게 혼자서 짓고 싶습니까?' 부산 효타암 주지 원공 스님이 작명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도 이름을 지을 수 있는 책을 발간했다.

스님의 작명은 수리가 좋은 획수로 구성하고, 상생의 원리를 따르고, 작명에 쓰지 않는 글자들은 사용하지 않아야 하고, 한 글자가 두 가지 음으로 소리나는 글자는 쓰지 않고, 장남과 차남을 구분해야 하며, 오행의 균형을 잡는 방법이 그것. 우리나라 약 320여개의 성씨 별로 약 2000여개의 최고의 이름들을 선택해서 이름 풀이까지 완벽하게 갖추고 있으며, 언제 어디서나 사람이름, 법명, 상호, 기타 이름이 필요한 모든 분야에서 완벽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08 사찰의 아름다움을 시어로

'마음으로 찾아가는 108산사' 펴낸 혜자 스님



"한국불교의 과거를 보고, 현재의 불교와 도량의 청정함을 느끼며, 미래를 알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 108곳 사찰을 탐방하고 느낀 감정과 사실을 담았습니다."

고즈넉한 산사의 장엄하면서도 예술혼이 깃든 전각·석조물·불구·불화·자연환경과 역사적 숨결이 살아 숨 쉬는 전설·설화·스님들의 일화·불보살님의 가피를 압축된 언어로 서사시집을 펴낸 도선사 주지 혜자 스님(사진).

스님은 "<마음으로 찾아가는 108산사>가 불교와 산사를 이해하고 불교문화의 진수를 이해하는데 좋은 길잡이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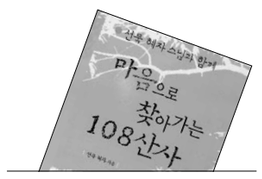
스님은 이를위해 2년전부터 줄가후 방문했던 사찰의 자료를 모으고, 그 중에서 의미있었던 사찰 108곳을 뽑아 사찰 소개 및 감정을 이입한 서사시를 썼다.

<마음으로 찾아가는 108산사>는 단순한 사찰 안내나 관광명소의 소개가 아닌 사찰현장의 모습을 시적 언어로 담고, 역사적인 소개와 자연의 모습을 형상화했다. 또한 장구한 세월 동안 있었던 불·보살님의 가피와 스님들의 일화 등을 소개한다. 또 조계종 통합 종단이후 도량의 정비와 포교를 위해 지력한 역대 주지스님, 사찰 소개 및 안내, 사찰의 특성을 담은 사진 등도 함께 담았다.

스님은 "108사찰 서사시집 발간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포교방법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것은 바로 1080명으로 이루어진 108산사 순례 기도회를 구성하는 것. 현재 400여명이 신청한 생태라고.

월 1회 산사를 방문하여 총 5년이 소요되는 108산사 순례 기도회는 108산사를 찾아 기도, 108참회, 신묘장구대다라니독송, 동참불자에 낙관, 해당사찰 이름이 새겨진 염주 알 보시 등을 할 예정이다. 108산사 순례 기도회 발대식은 9월 7일 오후 5시 서울 하림각에서 열린다.

김원우 기자



마음으로 찾아가는 108산사
혜자 지음 | 화남 | 2만원



화엄경이 알려준 지혜로운 삶

산하대지가 내 몸이다 도업 지음 | 부다가야 | 1만원

'욕망은 그것을 채움으로써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버림으로써 채워진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욕망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면서도 끝없는 신기루를 꿈꾼다. 욕망은 대중속의 고독과 풍요 속의 빈곤을 오늘날 우리들의 표상으로 세워놓았다.

평생 도제양성의 외길을 걸어온 도업 스님(동국대 불교문화대학장, 화엄법계사 주지)이 그동안 신문, 잡지 등에 기고한 글을 모아 엮은 <산하대지가 내 몸이다>를 펴냈다.

스님은 이책에서 진정한 삶을 바꾸는 방법을 화엄경 사상으로 일깨운다. 스님은 우리의 뿌리가 무엇이고, 우리의 진정한 삶은 어떻게 가꾸어야 하며 우리는 누구인가를 알게해 욕망으로부터의 탈출을 돕고있다.



무비 스님이 뽑은 법구 100가지

소를 타고 소를 찾는구나 무비 지음 | 불광 | 9000원

팔만사천 법문에 달하는 불법의 요체를 바쁜 현대인이 온전히 이해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가슴을 울리는 간단한 명구 한 구절을 통해서 불교에 입문하는 사람도, 지혜의 눈을 뜨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한국불교 전등강맥을 잇고 있는 前 조계종 교육원장 무비 스님이 불교의 명구 100선을 가려뽑아, 읽는 이로 하여금 가슴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명쾌한 해설을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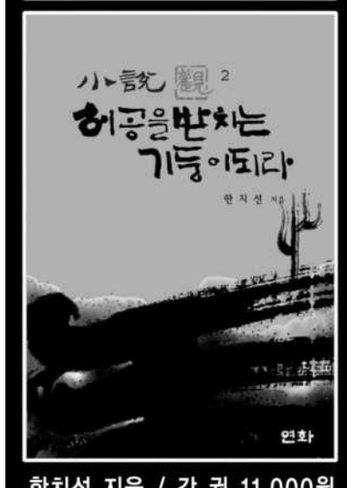
무비 스님은 "일상 생활 틈틈이 불교 명구를 거울 삼아 혼탁한 마음을 비춰본다면, 어느새 지혜와 해탈, 대 자유, 대 평화, 완전한 행복에 이르는 길을 걷고 있음을 자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yosiamun.com 추천도서

· 바다를 삼킨 물방울	불지사, 주훤법장, 9000원
· 시왕경	성문, 김두재, 1만원
· 산빛 물든 사람들	여시아문, 정과스님, 1만원
· 그리운 스승 한암스님	민족사, 김광식, 1만2000원
· 인연산책	미래북, 서문성, 9,000원

도서주문 (02)2004-8219





한치선 지음 / 각 권 11,000원

천상의 수련법을 공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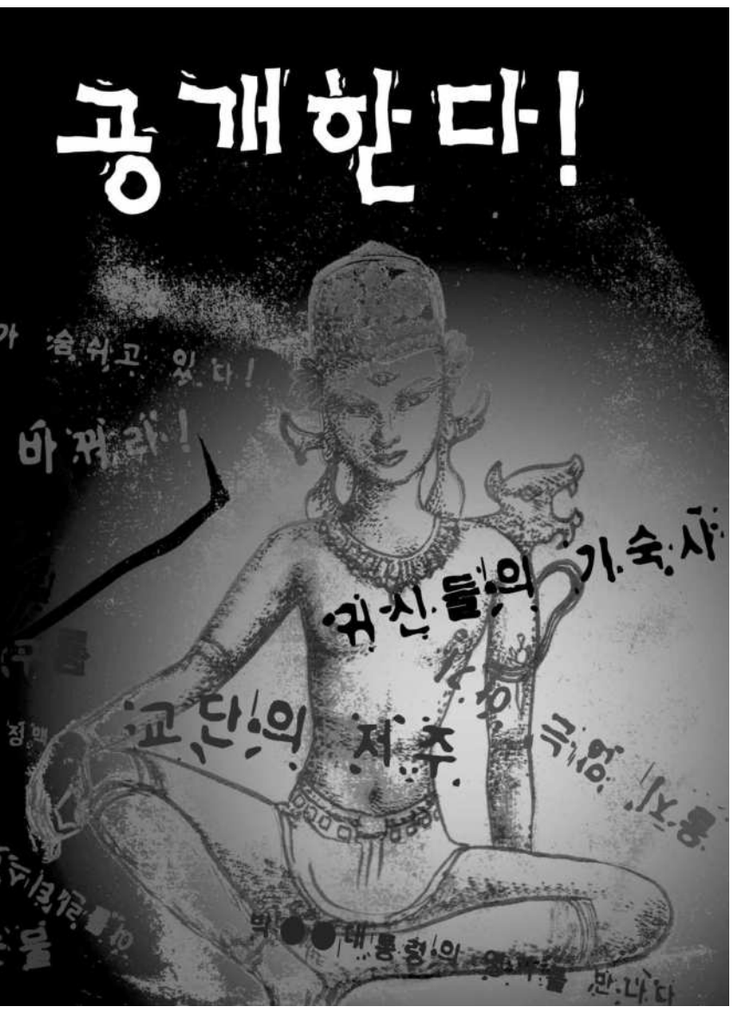
스물세가지 기이한 이야기.
그 스물세명의 주인공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어져 있다.
인드라의 그물처럼……
그들은 내 옆에, 그리고 당신 옆에서
나름대로 생명의 공간을 밝히고 있다…
허공을 받치는 기둥이 되어……

판타지라기엔 너무나 사실적이고 현실이라기엔 너무나 충격적인 스토리…
이것이 리얼리즘 판타지의 진수! / 한겨레 21

심오하고 방대한 불법의 수행체계를 이렇게 흥미진진하게 표현해낸 작가의 역량이 독보적이다. 본격구도소설의 깃발을 세웠다. / 불교신문

믿겨지지 않는다. 그러나 믿을 수 밖에 없는 이야기들. 책을 놓을 수 없게 만드는 강한 흡인력. 오랫동안 가슴 속에 상처가 남을 수도… / 안양신문

인간의 세계와 영혼의 세계, 그리고 전생과 내생을 넘나드는 상상불가의 논픽션 기록들…
달콤한 재미로 포장한 진리의 쓴 약을 맛보는 듯 하다. / 인천일보 안병선 기자




백제의 은제허리띠를 현대적으로 디자인한 오원배 作 '은허리띠 장식'.


연꽃무늬를 크리스탈에 음각 · 양각 등으로 작업한 권영걸 作 '연화문진'.



종이로 만든 종이모형왕국의 '다보탑'.


종이모형으로 완성된 장현순 作 '금동미륵반가사유상'.

연꽃무늬 벽돌에 새겨진 문양을 단순도안화해 퀼트기법으로 만든 노현경 作 쿠션과 파우치.

문화재 응용상품 한번 써 볼까?

상품화 초기단계… 사무 · 생활용품 주류
연꽃·보살·달마 등 일부 이미지 주로 사용
불국사 종이모형 등 놀이용품 눈길 끌어


연꽃무늬 와당 문양을 모티브로 한 이효선 作 '합'.

문화상품 어떤 것 있나

국립부여박물관(관장 이내옥)이 7월 11일~8월 27일 개최한 기획특별전 '국립부여박물관 문화상품'으로 그 어느때보다 문화재를 기반으로 한 문화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금까지 문화재를 응용한 문화상품들은 미니어처 등 복제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국립부여박물관이 지난해 11월 공모한 문화상품 수상작들은 이러한 한계에서 벗어나려는 시도에서 나온 수작들로 문화산업계에 신선한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전시를 통해 공개된 문화상품들을 살펴보고 요즘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불교 문화상품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본다.

국립부여박물관에서 공모한 상품들을 자세히 살펴보자.

우선 2005년에 실시한 일반공모전의 입상작들은 일상 생활용품들이 주류를 이뤘다. 금동광배 문양, 연꽃무늬 와당에서 추출한 연꽃무늬, 은제관꾸미개 문양 등과 백제금동대향로에 새겨진 오악사는 토기상품으로 변신했다.

대상을 비롯한 작품 대다수가 문화재나 전통문양을 디자인에 활용했다. 대상을 수상한 보광퓨터의 펜꽂이 펜 메모꽂이 세트는 금동광배 문양을 차용해 제작했다. 귀면와는 메모꽂이와 클립통으로 만들어졌다. 동상 수상작인 노현경씨의 쿠션과 파우치는 연꽃 문양을 단순 도안해 작업한 연꽃무늬가 돋보인다.

연꽃무늬 와당의 문양을 모티브로 제작된 합은 보석함이나 인주합 등 다양한 용도가 가능하다. 칠지도와 연꽃무늬 와당의 무늬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형상화한 목걸이 귀걸이도 눈에 띈다. 이외에도 산수무늬 벽돌을 모티브로 한 사무용품, 문양벽돌의 문양을 활용한 스카프 등이 독특함을 자랑한다.


금동광배를 형상화한 김소영 作 '목걸이와 귀걸이 세트'.

이번 일반 공모작들은 연꽃무늬 와당의 문양을 사용한 것들이 많았다. 금동광배, 금동향로 등도 주요 이미지 소재로 활용됐다. 이처럼 문화재에서 디자인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문양류가 가장 손쉽다.

이번 공모작들에 사용된 이미지들은 국립부여박물관 소장품, 백제 사비시기 유물, 국립부여박물관 심벌 및 로고 등에 국한됐다는 한계도 있어 다양화의 흔적은 찾기 힘들다. 다만 이러한 한계를 주지 않고 상품 개발의 기회가 있다면 개발될 수 있는 이미지와 응용 상품들은 무궁무진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국립부여박물관의 노희숙 학예연구사는 "특별전에 출품됐던 상품들에 대한 구매작업을 하고 있다"며 "작품 소유에 대한 확인 절차가 끝나는대로 곧 상설전시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혀 관람객들의 인기를 실감케 했다.

이같은 국립부여박물관의 노력 외에도 문화유산에 대한 상품화 작업은 꾸준히 있어왔다. 2003년 종이모형 디자이너 장형순씨가 개발한 금동미륵반가사유상 등은 그 섬세함에 혀를 내두르게 한다. 종이모형왕국에서 상품화한 불국사 등의 종이모형들도 눈길을 끈다. 천우비젼의 단청문양 퍼즐은 직접 채색 후 퍼즐로 사용하도록 만들어 두 가지 즐거움을 선사한다.

종이모형류가 문화재들을 있는 그대로 접어 만들어 낼 수 있는 문화상품이라면 최근 문화상품들은 일상 생활용품으로 개발되는 경향이 짙다. 불교문화상품으로 판매되는 것들은 도자기 연꽃등, 크리스탈 관세음보살, 미니 차걸이, 메모 캘린더, 향꽂이, 휴대폰걸이, 열쇠고리, 차걸이, 목걸이, 지갑, 모자 등이다. 불교계 쇼핑몰이나 관련 상품점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사용처는 지극히 한정적이다. 이 상품들은 연꽃,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달마도 등으로 이미지 원형이 한정되는 경향을 드러낸다.


금동광배와 귀면와의 이미지를 본뜬 보광퓨터의 사무용품들.


연꽃무늬 와당 문양을 이용한 정민정 作 '화분'.

불교계에서 디자인 이미지 공모, 문화상품 개발 등에도 관심을 갖고 좀더 많은 문화상품 개발에 앞장서야 한다.

국립부여박물관에 문화상품개발 초대작가로 선정돼 은제 허리띠를 출품했던 오원배 교수(동국대)는 "불교문화재에서 디자인화 시킬 수 있는 문양을 비롯한 이미지들은 무궁무진하다"며 "불교계에서 동자승 등 캐릭터 개발 뿐 아니라 좀더 다양한 문양 개발에 힘써야 한다"라고 말했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대구로 간 북녘문화유산
10월 26일까지 국립대구박물관 전시


'관음사 관음보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6월 13일~8월 16일 전시돼 호응을 얻었던 '북녘의 문화유산-평양에서 온 국보들'이 8월 29일~10월 26일 국립대구박물관에서 고아한 자태를 드러낸다.

대구 전시 역시 서울 전시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대표적인 중요 문화재 90점이 출품됐다. 관음사 관음보살, 공양탑 등 불교관련 유물들이 눈길을 끈다.

'선사문화의 복원' '고조선의 재발견' '고구려 발해의 웅비' '고려 조선의 아름다움' 등 네 개의 큰 주제로 이루어진 전시에서 불교유물이 많이 포함된 코너는 '고려 조선의 아름다움'. '신계사 향완'을 비롯해, '대자사 범종' '관음사 관음보살' '내강리 금동아미타삼존불' '청자연꽃무늬정병' 등이다.

국립대구박물관은 전시기간동안 관람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매주 화~금요일 오전 11시~오후 4시까지 4차례에 걸쳐 전시설명회를 개최한다.

9월 7일 오후 2시에는 이호관 前 전주박물관장이 '북한문화재의 현황'을 주제로 특별강연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053)768-6051 강지연 기자

제21회 불미전 수상작 전시
8월30일~9월 5일 인사아트센터

제21회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 수상작들이 8월 30~9월 5일 서울 인사아트센터에서 선보인다.

30일 오후 2시 인사아트센터 2층에서 시상식을 시작으로 진행될 이번 전시회에는 대상작 남진세씨의 '석가모니불', 최우수상 김송자씨의 '신묘장구대다라니가 쓰여진 12각 찻상' 등을 비롯해, 장려상 노정용씨의 '연지에 핀 불심', 윤미성의 '한지 단청문 불화액자' 등 수상작 54점이 전시된다. (02)736-1020 강지연 기자

국립중앙박물관 도자 염색 교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김홍남)이 2006년도 전통문화체험교실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번에 개설되는 전통염색교실과 도자교실은 1개월 과정으로 총 8번의 교육이 마련됐다. 9월 5일부터 시작되는 도자교실은 화 · 수요일, 7일부터 열리는 전통염색교실은 목 · 금요일 오후 1시30분에 강의한다. 수강료는 무료. 강의 중 사용되는 재료비만 부담하면 된다.

전통염색교실은 치자 괴화 등 식물염료를 이용한 명주염색을 배운다. 도자교실은 전통 도자기 제작기법을 체험할 수 있다. 신청은 홈페이지(www.museum.go.kr) 교육마당에서 하면 된다.

윤년 윤달의 효도 선물 대광[금물]수의로 하세요

(상표출원번호 0039174)

불자님들을 위한 특별한 기회! 놓치지 마세요



02)747-1760

전화 주시면 희망 상품 삼베 견본을 보내드립니다. 미리 확인하세요!

견본과 상품이 다를 경우 100% 교환 환불 해드립니다.

- 상품은 온라인 입금 후 원하시는 일자에 배송시켜 드립니다
- 홈쇼핑이나 인터넷으로 판매되는 어떠한 상품과도 비교할 수 없을정도로 우수한 품질의 삼배로 한땀한땀 정성드려 만들었습니다.
- 상품을 보증할 수 있도록 한국의류시험연구원(국가기관)에서 발급한 원단 성분분석표를 첨부해드립니다.
- 모든 상품은 오동나무상자에 포장해드립니다.

수의 가격표

상품호칭	제작방법	재질(성분)	원단가공손질	원사생산	판매가격(25%할인가)
안동포	수제직	대마(삼베) 100%	천연가공 경북 안동	경북안동	3,800,000
1호	수제직	대마(삼베) 100%	천연가공 경북 안동	중국(산동)	1,250,000
2호	수제직	대마(삼베) 100%	경남 남해	중국(사천)	835,000
3호	수제직	대마(삼베) 100%	중국	중국	475,000



수의제품 품질보증업체
2002년 한국의류 시험 연구원
Q마크 획득





세시풍속〈歲時風俗〉

윤달(閏月)은 재액없이 무난하게 여기고 모든일을 거리낌없이 하는 풍속이 내려오고 있다. 특히 일년중에 한달이 덤으로 있는 윤달에는 손재 등이 없는 기간으로 모든일에 부정을 타거나 액이 끼이지 않는 달로 인식되어 왔고, 그래서 평소에 꺼려하던 이장(조상의 묘를 옮기는 일), 집을 헐고 새로 짓는 일 등을 윤달에 하는 것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예이다.
그래서 이 기간에는 집안어른의 수의를 마련해두면 집안어른이 무병장수하고 자손도 번창한다는 세시풍습이 있다.
그 뜻을 미루어 짐작컨데, 수의를 마련함으로 자손들은 여생이 얼마남지 않으신 집안어른을 더욱 공경하고 효심으로 받드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되며 집안어른은 죽음을 다스리고 대비하면서 여생에 대한 진한 삶을 살고자 했던 조상들의 지혜라 여겨집니다.

대광 금물 수의 서울시 종로구 예지동 296-19 광장시장(1층) TEL : 02)2279-7450, 02)2275-8075, 02)747-1761 / FAX : 02)2272-6715

“환경에 맞춰 살면 즐거워”

큰스님 편안하십니까

천룡 스님 (법주사 총지선원 한주)



천룡 스님 주석처에 빽빽하게 들어찬 책들. 공부에 임하는 스님의 자세를 보여준다.

작열하는 태양은 모든 것을 녹여버릴 태세다. 아스팔트에서 올라오는 열기는 숨쉬기조차 힘들게 한다. 사람들은 더위를 피해 에어컨 속으로 숨는다. 그것도 모자라 강으로 바다로 떠난다. 강과 바다 또한 사람들이 뿜어내는 열기로 후끈 달아올랐다.

천룡(天龍) 스님을 찾은 날도 그랬다. 피서를 떠나는, 피서지에서 돌아오는 인파를 헤집고 속리산 법주사 총지선원을 찾았다. 하안거가 끝난 총지선원은 적도에 있는 이름 모를 조그마한 ‘섬’이었다.

천룡 스님 주석처에 들자 먼저 양쪽 벽에 가득 들어찬 책이 우리를 맞았다. 좁은 공간에 빽빽하게 들어차 마치 책의 동굴에 들어선 느낌이었다. 스님께 삼배를 하고 힐끗 쳐다보니 각종 불서는 물론이고 인문 · 사회과학서 등 종류도 다양했다. 책 얘기로 말을 꺼냈다.

“스님, 책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기는. 다른 스님들에 비해 많아 보이는 거겠지. 우리 불가에는 큰 병통이 있어. 불립문자(不立文字)는 방편일 뿐이야. 문자에 얽매여도 안 되지만 초석이 없으면 뛰어넘을 수 없어. 안목을 키우려면 책이 반드시 있어야 해요.”

스님의 독서열은 유명하다. 동국대 선학과 교수 현각 스님은 천룡 스님을 ‘책 보는 기계’라고 칭할 정도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아침 일찍 기침해 몸을 정제하고 정진과 간경을 게을리 하지 않기 때문이다.

스님은 법정대를 졸업했다. 방송국 등에서 근무하다 늦깎이 출가를 했다. 늦은 만큼 대분심(大憤心)이 일어나 공부에만 열중해서일까. 출가 당시 이야기를 해 달라고 청하자 “아무짝에도 도움 안 되는 일”이라며 손사래를 칠뿐이었다.

스님은 선시집(禪詩集) <이것이 마음이다>와 <간화선의 고향>을 펴내기도 했다. 책들은 서문(序文)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닷가에서 빛이 된 조약돌을 줍듯 심산(深山)에서 약이 된 풀을 뜯듯 산사(山寺) 생활 중에 문득 문득 떠오른 생각을 기록해 모은 것”이다.

이 책에 대해 경상대 정치외교학과 서양중 교수는 “스님의 메시지는 간단하다. 밥 꼭꼭 씹어 먹고, 부지런히 일하고, 피곤하면 푹 자라. 그러면 정신과 육체는 저절로 건강해 진다는 것이다. 스님의 제문(祭文)은 간단명료하다. 직지인심(直指人心)이기 때문이다”라고 서평을 썼다.

스님의 일과는 여느 스님과 특별히 다를 바 없다. 오전 3시에 일어나서 오후 9시면 잠자리에 든다. 그 사이 시간은 자유롭다. 책도 보고 시상을 정리하기도 하지만 꽉 짜인 틀은 없다.

하지만 스님이 매일 거르지 않고 하는 것이 있다. 바로 산행이다. 하루 한 시간 정도 ‘혼자’ 걷는다.

“사람들이 혼자 산에 가면 심심하지 않느냐고 질문해. 천만의 이야기지. 나는 나무하고도 이야기하고 돌멩이하고도 이야기해. 현대인들은 고독에 대해 많이 이야기 하지. 고독도 극한에 가면 대 자비 대 사랑이 돼.”

> “안목 키우려면 책 많이 읽어야”
> 하루 한 시간 산행하며 자연과 대화
> “당연한 것 당연히 받아들이면 행복”

사람이 고도에 혼자 떨어지면 처음에는 외로움에 발버둥을 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개미나 뱀, 돌과 나무하고 이야기한다. 고독의 극한에는 공(空)이 있기 때문이다. 고독은 자아가 발동할 때 생겨난다. 그러나 고독도 극한으로 가면 자아가 없어진다.

산행 외 스님의 건강비결은 무엇일까.

“주어진 환경에 맞춰 즐겁게 사는 것뿐이야. 여기서 즐거움이란 나와 연결된 모든 환경을 잘 소화했을 때 느끼는 즐거움이야. 세상에 나 혼자란 없어.”

소식(小食) 또한 스님의 건강비결이다.

스님은 아침과 저녁 공양은 미숫가루 조금과 빵 한 조각으로 해결한다. 점심만 밥을 먹는다. 스님은 젊은 시절 정진 도중 너무 무리를 해 몸에 이상이 생겼다. 치료를 위해 단식을 50여 차례 했다. 단식을 풀면서 미숫가루를 복용했는데 그것이 습이 된 것이다.

다음날 아침, 다시 천룡 스님을 뵈러 총지선원을 올랐다. 간밤에 내린 비 때문인지 서늘한 바람이 피부를 스쳐 지나갔다. 천룡 스님께서 한 말이 떠올랐다.

“더위? 자연 현상일 뿐이야. 그것에 끌려 다닐 필요는 없어요. 즐기면서 넘겨야 해.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즐겁습니다. 당연한 것을 거부하거나 도피하려고 하니까 짜증이 나는 거야.”

글=남동우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동화사 각화사 등서 참선에 매진

천룡 스님은 1935년 전북 순창에서 출생한 천룡 스님은 63년 금오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스님은 초심 납자 때 오대산에서 종두 소임을 맡은 적이 있다. 종을 치는데 장삼에서 묵직한 기운이 느껴져 털어보니 뱀이 나왔다. 그 후 5년이 지나서 지리산 벽송사에서 정진할 때였다. 방안에서 혼자 장군죽비를 들고 있는데 1미터 정도 되는 뱀이 들어왔다. 놀라서 장군죽비를 내던졌다. 또 그로부터 5년이 지났다. 이번엔 태백산 각화사였는데 또 뱀이 나타난 것이다. 이번에는 질 수 없다는 생각에 눈을 감고 삼매에 들었다. 한 시간 정도 지났을까. 눈을 떠보니 뱀이 칼날같이 납작하게 방바닥에 엎드려 있는 것이었다. 잠시 후 뱀은 다시 둥글게 모습을 변화시키고 조용히 방에서 나갔다. 스님은 이것을 자신의 근기를 점검해 본 것이라고 여겼다. 동화사 금당, 비슬산 도성암에서 ‘선 체험’을 한 스님은 향곡 경봉 서옹 월산 선사를 도와 대중을 지도하기도 했다. 다음은 스님이 선 체험을 했을 때 읊었던 게송이다.

“고요고요 / 마음 길 다한 곳에는 / 너도, 나도, 산하(山河)도, 세계(世界)도 없다 / 다만 노을 빛 가득 메운 공허(空虛) / 어디선가 아련히 소리가 들린다 / 문득 눈 들어 바라보니 / 이랴 이랴 / 농부가 축대 밑에서 발을 갈고 있다”

www.webtbm.com
www.금강.net

할인에 서비스까지!! 지금이 기회 051)505-2434

[TBM 병술년 추석맞이 할인행사]

사찰신도관리 이제 손으로 작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전국 2000여 사찰에서 사용하시고 계시는 금강장사를 사용해 보십시요.
가족중 한분의 이름만 알아도 빠른 검색이 가능하며 연말기부금증명서 출력은 물론 위패, 봉투, 등표, 인등표등 각종 양식이 인쇄가 되며 사찰에서 사용하는 각종회계장부를 적용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제공하는 기능은 축원관리, 인등관리, 불사관리, 행사관리, 재무관리, 생일관리, 49제기타 설법자료보관, 일정관리, 명함관리, 신수보기(토정비결). 우편물관리, 자체신도증발급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이용하세요.

놓치지 마세요

종무행정의 최고봉 **금강장사 할인 최고 30% !!**

- 행사기간 : 2006. 8. 15 ~ 2006. 9. 30
  ※ 이번 행사는 TBM 3주년 행사입니다.
  행사기획처인 TBM에서만 적용되는 가격임을 알려드립니다.
  ※ 금강장사 사용자에 한해 행사 기간중 사주대전 풀버전을 10% 할인 합니다.
- **행사내용**(서비스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1. 30% 할인 (서비스없음)
  ※ 우편 판매 가능함 : 요청에 의해 1회 방문 가능
  2. 10% 할인시 제공서비스
  ① 축원자료입력
  ② 년관리 계약무료(1년추가) ③ 용지 3종세트
- **정상 구입시 제공서비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1. KM1000 구입시
  ① 사주대전패키지 제공(주역 등) ② 축원자료입력
  ③ 년관리 계약무료(1년추가) ④ 용지 3종세트
  2. KM9000 구입시
  ① 사주대전패키지 제공(명리 등) ② 축원자료입력
  ③ 년관리 계약무료(1년추가) ④ 용지 3종세트





TBM 금강장사 051)505-2434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3동 효승 오피스텔 303호

법회 참석 대중의 일체감과 효율성을 높이는 필수 교보재

법요집 · 기초교리집 괘도 특별한정 보급!!

정기법회, 수련대회, 불교대학, 불교학교 등
법당에 걸어 비치만하셔도 법회의 원활한 진행은
물론 신도님들의 불교기초공부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법요집
- 삼귀의
- 찬양합니다
- 반야심경
- 입정
- 청법가
- 법문
- 정근
- 발원 및 축원
- 사홍서원
- 산회가
- 기타찬불가

● 기초교리
1. 불교란?
2. 부처란?
3. 대승과 소승의 차이
4. 사찰에서 쓰는 도구
5. 사찰경내 예법
6. 합장과 반배
7. 고두례
8. 예불문
9. 삼보
10. 삼귀의
11. 삼법인
12. 삼업
13. 삼학
14. 신도오계
15. 사성제
16. 사섭법
17. 십이인연
18. 육바라밀
19. 팔정도
20. 보왕삼매론

법회의 일반적인 순서와 불자라면 꼭 알아야 할 기초교리가 암도 큰스님의 감수로 알차게 꾸며져 있습니다.

· 특별보급가 : 140,000원 (한정수량판매)
40쪽, 아이보리색 레자크지
· 구성 : 괘도(법요집, 기초교리, 양면인쇄) 1개
걸이대, 지시봉

인터넷 불교 종합 서점
여시아문 02)737-0695 02)2004-8219,8220
국내·해외불교서적, 교양도서 http://www.yosiamun.com

인생 자체가 절실한 수행이어야

천룡 스님의 가르침

현재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선 양측에서 종교에서 벗어나든지 모두 죽든지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민족신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슬람은 알라라는 민족신을 믿고 유대인들은 여호와라는 민족신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신에 대한 복종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이 어려운 것입니다.

사람은 너와 나의 관계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인드라망의 그물 속에서 연기적인 관계성을 맺고 살고 있습니다. 연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회에서 이분법적인 사고로 산다면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더구나 우리 인간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의 노예가 돼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고정된 것은 없습니다. 인연따라 생겨났다 사라질 뿐인데 잘못된 종교관이 고정된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사람들은 대화와 협상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대화나 협상 이전에 해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인간이 순수한 마음을 잃고 삼독(三毒)으로 자아를 구축했기 때문에 그것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대화나 협상을 하다 잘못 삐끗하면 바로 무효가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문제를 표피적으로 받아들이고 해결하려 하면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허상이라는 것을 알고 더 한 차원 높은 상황에서 받아들이는 것 밖에 없습니다. 내가 손해 본다는 입장에서 상대방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 입장만 고집한다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메아리는 소리로 그치게 할 수 없습니다. 메아리가 오는데 소리로 그치려 하면 메아리는 자꾸 커질 뿐입니다. 성색(聲色)의 본질은 공(空)입니다. 연기적 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상대의 입장에서 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양보하면 지금은 조금 손해 볼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큰 이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 마음은 인간의 마음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도 공(空)하고 자연도 공(空)해, 이 공(空)을 찾는 것이 불교의 마음입니다. 중생사회에서 마음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마음인데 그것은 망심(妄心)일 뿐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잃고 삽니다. 그래서 매우 바쁩니다.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달리지만 달릴수록 더 바빠질 뿐입니다. 우리는 주마간산(走馬看山)처럼 허상을 보고 달리는 것뿐입니다. 허상을 보기 때문에 세계가 요동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으로 진화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인간중심의 논리로 환경을 훼손하고 자연을 파괴합니다. 그러고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문화와 과학을 구실로 핑계만 댑니다. 자연은 우리를 낳아주고 길러준 어머니 같은 존재입니다. 인간 중심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위험합니다.

인재(人災)가 축적되면 천재(天災)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무지가 극한까지 치달았습니다. 그래서 지구 온난화라는 엄청난 재난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불교는 연기의 철학입니다. 우주 또한 인드라망입니다. 너는 너로 인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 있는 것이고, 나 또한 나로 인해 있는 것이 아니라 너로 인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개개의 사물, 즉 나무나 돌 등을 무정물로 봐서는 안 됩니다. 나와 똑같은 존재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일체중생 개유불성(一切衆生 皆有佛性)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우주에는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요. 모두가 하늘이요 부처요 보살입니다. 자연을 파괴한다든가 오염시키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해치는 일입니다. 인간은 사유의 동물이기 때문에 고통이 지속되면 언젠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입니다.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 불교인들이 더 노력해야 합니다.

마음은 물과 같습니다. 물은 낮은 데로 흐릅니다. 미혹(迷惑)도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참고 견디기 때문에 수행이고 고행이라고 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 자체가 수행입니다.

모든 것에는 길이 있습니다. 길을 걸을 때는 모든 것을 긍정해야 하고 한걸음 한걸음 내디딜 때마다 절실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긍정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절실해야 한다는 것은 내가 두 발을 딛고 사는 이 땅에 대한 절실성을 말합니다.

집은 초석(礎石)위에 지어야 사람이 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격은 진실 위에 세워야 합니다. 진실을 잃어버리면 공부고 뭐고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생은 점점 진실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종교는 진실을 잃어 버렸습니다. 그때그때 방편을 이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물론 방편은 지혜와 맞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편이 지나치면 근본을 잃어버립니다. 마치 나뭇가지는 많지만 뿌리가 적으면 넘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세계 곳곳에서 대립과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유행을 많이 따릅니다. 유행을 따르는 것 자체가 나쁘지는 않지만, 유행 이전에 껍데기로나 자신을 보일 것이 아니라 인격으로 보일 힘이 있어야 합니다.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오는 것이 필연이지만 무명(無明)에는 기약이 없습니다.

정리=남동우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이스라엘과 레바논과의 전쟁을 예로 든 천룡 스님은 "메아리는 소리로 그치게 할 수 없다"며 "상대방의 입장에서 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행복을 찾아주는 부처님 말씀 <80>



부처님이 들려주는 처세술(2)

젊은이여, 사람은 자기 이름 석 자로만 불리기보다는 누구의 자식, 누구의 부모, 어떤 회사의 직원, 누구의 선배 혹은 후배…라는 관계 속에서 존재하게 마련이오.

부모가 없다면 그대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터이니 세상의 인간관계 속에서 부모자식보다 더 소중한 관계가 있을까 모르겠소. 그대가 누군가의 자식이라면 명심해야 할 것이오. 그대는 부모를 받들어 모셔서 부족한 것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야 하오.

어디를 가거나 무슨 일을 하기에 앞서 항상 부모에게 알려야 할 것이요, 부모가 하는 일을 거스르지 말고 따라주어야 하오. 그리고 부모의 바른 명령을 어기지 말 것이요, 부모가 하던 바른 가업을 끊어지지 않게 해야 하오.

만약 그대가 누군가의 부모라면 자식이 악한 일을 할 때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고, 가르치고 타이르되 모범이 되어야 하며, 자식 사랑이 뼛속까지 사무쳐야 하며, 자식에게 좋은 짝을 구해 주어야 하고, 자식에게 필요한 것을 적절한 때에 대어주어야 하오.

사람은 '다양한 관계' 속에 존재
나누고 베풀며 진실되게 살면
어려울때 도움주는 이 나타나

또한 젊은이여, 만일 그대는 한 여자의 남편이라면 예의를 갖추어서 아내를 대해야 하오. 그리고 위엄을 지킬 것이요, 아내에게 궁핍한 기색이 보이지 않도록 집안경제를 책임져야 하고, 아내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도록 옷과 장신구를 사주어야 하며, 의심하지 말고 아내에게 전적으로 집안일을 맡겨야 할 것이오.

만약 그대가 한 남자의 아내라면 다섯 가지 일을 명심해야 하오. 남편보다 먼저 일어나고 남편보다 나중에 앉으며, 부드러운 말을 건네고 남편의 뜻을 따라주고 남편의 기색을 잘 살펴서 먼저 그 속마음을 알아주어야 할 것이오.

친척들이 화목하게 어울리고 고루 잘 살면 천군만마를 얻은 것보다 더 힘을 낼 수 있소. 친척을 대할 때 다음의 일들을 기억해야 하오. 친척에게는 무조건 베풀어주고, 상냥한 말을 건네며, 이익이 생기면 함께 나누고 속이지 말아야 하오. 그리고 친척이 게을러 재산을 잃지 말도록 보호해주고, 두려운 일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지켜주고, 친척의 단점을 일러줄 때도 남몰래 해야 하며, 절대로 친척을 비난하지 말고 칭찬해주어야 하오.

젊은이여, 그대에게는 학교 은사이거나 집안의 어른이거나 하는 웃어른이 계실 것이오. 그럴 때 그대가 모시는 윗사람이 필요한 것을 대주어야 하고, 공손한 마음으로 모셔야 하며, 존중하고 우러러 받들어야 하며, 윗사람의 가르침을 어기지 말고 따라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가르침을 잘 기억해야만 하오.

만약 그대가 누군가의 윗사람이라면 법대로 아랫사람을 잘 길들여야 하고, 아랫사람이 듣지 못한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하고, 아랫사람이 의문을 품으면 시원스레 해답을 주어야 하고, 좋은 벗을 소개해주어야 하고, 조금도 아까워하지 말고 그대가 알고 있는 모든 기술과 지식을 다 가르쳐주어야 하오.

젊은이여, 그대는 분명 직장을 다니거나 뭔가 일을 하고 있을 게요. 그렇다면 그대에게는 분명 고용주나 직장상사가 있을 터이고 그대는 또 누군가의 상사이거나 선배일 것이오. 만약 그대가 누군가의 고용주거나 직장선배라면 다섯 가지 일을 기억하길 바라오. 아랫사람의 능력을 잘 살펴서 그에 알맞게 일을 주어야 하고, 양질의 식사를 제때에 맞추어 제공해야 하며, 보수를 늦추거나 거르지 말고 제때에 줄 것이요, 고용인이나 직장 후배가 병이 나면 제대로 된 검진을 받게 하고 건강을 회복하게 해야 하며, 몸과 마음의 재충전을 할 수 있도록 휴가를 주어야만 할 것이오.

그리고 그대가 만일 누군가의 고용인이거나 직장 후배라면 그대는 출근시간을 비롯한 모든 약속된 시간을 어겨서는 안 되며, 빈틈없이 일을 처리해야 하고, 그대 노동의 대가가 아니면 다른 몫을 바라지 말아야 하고, 일을 하되 조리있고 순서에 맞추어 진행할 것이요, 그대의 고용주나 직장선배의 명예를 위해주어야만 하오.

관계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을 다 실천하기 어렵다면 네 가지만은 기억해두기 바라오. 풋풋한 인심으로 항상 상대에게 무언가를 주고, 절대로 사나운 말을 건네지 말고 부드럽고 조리에 맞는 말을 건네며, 언제나 자기보다 상대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함께 일하고 함께 이익을 나누시오. 이 네 가지만 기억한다면 그대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요, 설혹 어려움에 처했더라도 그대의 편이 되어주는 이들이 반드시 나타날 것이오.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술에 귀 기울여 준 그대에게 한없는 행복이 있기를 바라오.〈장아함 선생경〉

■ 이미령(동국역경원 역경위원)

알기쉬운 佛教 儀式
新刊 通用佛教儀範 案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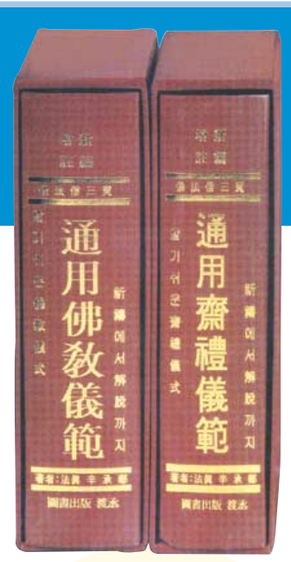


귀의삼보하옵고
불교란 어떤종교인가? 깨달음의 종교이다.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업과에 의한 윤회를 믿고 보살행을 실천하여 성불하기를 염원하는 종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봉하는 불제자로서 의식법전의 순서의 어려움이 많아 수행하는데 우왕좌왕 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는 것을 실감하고 모든 불교의식집을 참고로 하여 의식을 간편하게 편집하여습니다.
의식이란 보는 이에 따라 甲論乙駁이 있겠으나 수행 초심자가 어디서 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막막할 때 이 의식집을 펴면 딴 페이지를 찾지 아니하고 모든 의식을 집전할 수 있도록 편집되어 있습니다.

▶총 1099페이지 법보가 ₩45,000

▣ 통용불교의범 특징
불보살 모든 불공의식은 불공의식 대로 편집되었으며 제목만 찾으면 모든 불공을 모실 수 있는 것이 이 책의 특징인 것입니다.

제1장 송 주 편 | 제2장 예 경 편 | 제3장 전각예경편 | 제4장 불 공 편
제5장 모든법회 | 제6장 방 생 | 제7장 제불보살복장단의식 | 제불보살 파불의식
제8장 점 안 편 | 제9장 이 운 편 | 제10장 수 계 편 | 제11장 고 사 편




編 · 著者
法眞 辛承都

대한민국 불교 교단에 계시는 모든 스님들께 소승 법진이 합장하고 고개 숙여 인사를 올립니다. 소승이 2년동안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2권의 불교의식집을 출간하여 모시오니 사용해 보시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나무 마하반야 바라밀

알기쉬운 齋禮 儀範
新刊 通用齋禮儀範 案內



천지지간 만물지중에 유인이 최귀하고 유 만물지 중에 유인이 最上最貴하니 사람이 있으면 예(禮)가 있고 예(禮)가 있으면 의식(儀式)이 필요한 것입니다.
불교의 1700년 역사속에 祖師님께 집필하신 의식집이야 말로 참으로 고귀하고 완벽한 의식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한문으로 된 의식집을 가지고는 어느 것을 먼저하고 어느 것을 뒤에 하는지 순서를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때가 비일비재(非一非再)합니다.
또한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빠르게 변해가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제례의식을 현실에 맞도록 모든 불교의식집을 토대로하여 초보자라 하더라도 집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총 1180페이지 법보가 ₩45,000

제1장 시 식 편 | 제2장 장 의 편 | 제3장 다 비 편 | 매 장 埋 葬
제4장 四十九齋 입재(入齋) 삼우재(三虞齋) 초재(初齋) 이재(二齋) 삼재(三齋) 사재(四齋) 오재(五齋) 육재(六齋) 칠재(七齋)
제5장 재 공 편 상주권공 삼정례 천수다라니 지장청 영산대재 괘불이운 건회소 영산작법 영산각배 운수상단 운수중단 배송(拜送) 예수십왕생칠재(預修十王生七齋)
제6장 기 제 사 | 제7장 靈魂結婚壇

■ 주문처 : 호국불교효예종 총무원 출판부 ■ 발행처 : 도서출판 도 승 ■ 편 · 저자 : 법왕불교대학장 신 법진 합장
☎ 02) 963-0607, H.P:017-361-1131 ☎ 043) 264-3008, H.P:011-9607-2199 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2동 421-3번지 ■ 국민은행 : 027701 - 04 - 060958 ■ 우체국 : 013409-01-001220 예금주 : 호국불교효예종 총무원

차와 다식 궁합 따로 있네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한다. 이맘때면 따뜻한 차 한 잔이 절로 생각나게 마련. 차를 마실 때는 차 맛을 돋우고 허전한 속도 채울 수 있는 다과를 빼놓을 수 없다. 요즘 시중에는 다양한 다식들이 판매되고 있지만, 집에서 직접 만든 다식을 곁들인다면 찻자리가 훨씬 풍요로워질 것이다.





백차와 푸딩

산뜻한 맛을 내는 백차에는 맛과 향이 강하지 않은 푸딩이 어울린다. 달걀과 우유, 과일 등을 이용해 만드는 푸딩은 달지 않고 부드럽게 만드는 것이 관건. 백차에는 특히 복숭아나 포도, 오렌지 등을 이용한 과일푸딩이 어울린다. 과일 통조림이나 시판 과일주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만들 수 있다.

[재료] 젤라틴 10g, 복숭아 3개, 설탕

① 복숭아는 깨끗이 씻어 물기를 제거한 후 씨를 제거하고 즙을 낸다. ② 젤라틴은 30분 정도 찬물에 불린 후 물에서 건져 중탕으로 녹인다. ③ ②에 젤라틴과 설탕을 넣고 중탕으로 조금 데워 골고루 섞는다. ④ ③을 용기에 부어준 후 냉장고에서 4~5시간 정도 굳힌다.

녹차와 다식

녹차를 마시는 찻자리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송홧가루나 검은깨 가루 등을 꿀에 섞어 만든 다식이다. 최근에는 건강식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청국장을 이용해 만든 다식도 인기를 끌고 있다. 청국장 가루 대신 흑임자가루나 콩가루 등을 넣어도 좋다.

[재료] 청국장 가루 1컵, 꿀 5큰술, 소금

① 청국장은 햇볕에 바짝 말려 믹서기에 곱게 간다. 시판하는 청국장 가루를 이용해도 좋다. ② ①에 꿀과 소금을 넣어 잘 섞는다. ③ 다식판에 참기름을 바른 후 반죽을 조금씩 떼어 넣고 찍어낸다.

청차와 양갱

양갱은 일본과자의 대표적인 것으로, 달콤한 맛이 청차의 산뜻한 향과 어울린다. 우리나라에서는 한천과 설탕, 팥소 등을 조려 굳힌 연양갱을 주로 많이 먹는다. 양갱을 만들 때 차 우린 물을 넣어 '차 양갱'을 만들거나 밤 등의 견과류를 넣어 주어도 좋다.

[재료] 통조림팥 200g, 우유 200ml, 물 200ml, 한천가루 4g, 설탕 60g

① 냄비에 물과 우유, 가루한천을 넣고 약한 불에서 2~3분정도 잘 저어 끓인다. ② 한천이 녹으면 불을 끄고 설탕을 넣고 녹인다. ③ 통조림 팥을 넣고 잘 섞는다. ④ ③을 준비한 용기에 나눠 담은 후 조금 식으면 냉장고에 넣어 굳힌다.

홍차와 만주

차 중에서 가장 다식이 발달한 것이 바로 홍차다. 티타임에 곁들이는 과자나 케이크, 빵 등을 '티푸드(teafood)'라 부르는데, 주로 달콤한 맛을 내는 음식이 많다. 티푸드를 먹을 때는 홍차에 설탕을 넣지 않는 것이 좋다.

[재료] 박력분 260g, 달걀 1개, 설탕, 버터 20g, 연유 100g, 베이킹 소다 3g, 물, 팥앙금 500g, 깨, 달걀물 조금

① 계란에 설탕, 뜨거운 물을 넣어 섞은 후 녹인 버터와 연유를 넣어 잘 섞는다. ② 밀가루와 베이킹 소다는 체에 내려 ①과 함께 반죽한다. 냉장고에 30분 정도 넣어둔다. ③ 반죽을 밀어 앙금을 채운 후 30분간 냉동실에 넣어 둔다. ④ 반죽을 꺼내 적당한 크기로 자르고 깨를 올린 후 170도로 예열된 오븐에서 15분간 구워낸다.

흑차와 떡

맛이 강한 보이차나 흑차를 마실 때는 담백한 맛을 내는 떡이 적당하다. 특히 소화작용을 돕는 보이차와 속을 든든히 채워주는 떡은 그야말로 '찰떡궁합'. 단호박이나 건포도 등을 섞은 설기는 집에서 만들기도 간편하다.

<재료> 쌀가루 4컵, 찐 단호박 150g, 소금 2/3작은술, 설탕 4큰술

① 찐 단호박을 면보에 싸서 꼭 짜 물기를 제거한다. ② 쌀가루에 소금을 넣고 섞은 후 체에 내린 후 물기를 제거한 단호박을 넣어 섞는다. ③ 가루를 다시 체에 한 번 내려 설탕을 섞는다. ④ 찜통에 보자기를 깔고 ③을 넣은 후 15분간 찐다.

글=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사진제공 · 도움말=명과품 다식

2006 부산국제차 · 공예박람회, 10월 19~22일

지난 6월 '부산국제차문화대전'이 열린데 이어 오는 10월 19일부터 22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2006 부산국제차 · 공예박람회(http://teafair.co.kr)'가 열린다.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이 행사는 부산차인연합회와 컨벤션센터 벡스코, 전시전문업체 메세코리아가 공동주최한다.

부산국제차 · 공예박람회 조직위원회(위원장 허충순 · 부산차인연합회장)는 "차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때에 차 산업발전을 위한 비즈니스 및 문화교류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박람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대기업뿐 아니라 지역 특화기업과 중소기업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차 생산업체와 가공제품업체, 차 도구 및 공예품 제조업체, 포장기기업체, 음료체인점 등의 프랜차이즈업체 등 국내외 차 관련 120개 업체와 45개 차회가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대행사로는 학술심포지엄과 차문화 강좌, 다도구 전시와 다석화전 등의 특별전 등도 마련된다.

한편 참가업체에게는 야후코리아에서 제공하는 '브랜드테마검색'과 '홍보스페셜 프로그램'이 무료로 제공된다. (051)740-7705



瑞榮普洱
진년보이 · 진년오룡 · 철관음 · 오룡차
대흥포 · 화차 · 인삼오룡 外 40여가지의 茶
보이차 전문점
조계사 건너편 TEL 02)722-0855
H.P 017-411-0882



6. 신비의 음료

⑤ 커피 플랜테이션

이슬람에서는 '커피를 마신 자는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커피는 중요한 종교적 함의를 가지고 있었다. 때문에 국외로 수출하는 모든 커피는 커피 열매를 익히거나 말려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이것은 원천적으로 커피나무가 국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프랑스의 루이 14세는 선물로 받은 커피나무를 궁정에 심었다. 한편 탐험가들은 신세계에서 발견한 식물을 가져와 옮겨 심는 것도 탐험의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였다.

커피에 있어서 전설적인 인물 프랑스인 가브리엘 드클리외는 왕의 주치의와 여인의 도움으로 세 그루의 커피나무를 몰래 가져와 앤틸리스제도에 심어 재배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커피나무를 운송하던 배가 폭풍을 만나자 자기가 먹을 식수를 커피나무에 주면서 천신만고 끝에 마르티니크에 커피나무를 심게 되었다. 몇 년 후 커피콩을 수확하면서부터 많은 양의 커피를 수출했다.

파리의 지식인들이 마시는 품질 좋은 커피를 다량 생산하게 된 것은 1740년 이후였다. 이 커피나무 묘목은 멕시코와 산토도밍고의 농원으로 이식되어 주변으로 퍼져나갔으며 프랑스는 세계 제일의 커피 생산지가 되었다.

18세기 중엽 프랑스 왕은 필요한 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수단으로 허가증을 남발하여 파리의 카페는 600여 곳에 이른다. 커피는 파리 사람들을 카페라는 공공의 장소로 모여들게 했으며, 자유로움을 토로하고 자신의 생각을 토론하는 대화의 장을 열게 했다.

루소, 볼테르, 디드로와 같은 계몽주의자들과 선각자들은 카페에서 매일 커피를 마시며 열띤 토론을 벌였다. 그들의 대화는 카페 밖의 사람들에게까지 관심을 끌었으며 사회를 계몽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처럼 카페는 다양한 정보와 관심거리가 사람들의 입에서 오르내리며, 지금의 인터넷과 미디어의 역할처럼 유행이나 정보의 진원지가 되었다.

정부는 카페를 감시하여 선동자들을 체포하기도 했지만 카페를 폐쇄하지는 않았다. 이는 재정상태가 나빠진 정부로서는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과 해결보다는 재정 확충에만 신경을 쓴 탓이다.

결국 카페 드 포이에서 젊은 법률가인 카미유 데뮬랭은 왕정에 대한 불만이 가득한 성난 군중으로 하여금 무기를 들도록 선동하게 된다. 이것이 프랑스 혁명의 시발점이 되었다. 반란군은 커피 농원에 불을 질러 섬의 통치권을 장악하기 시작했고, 프랑스는 세계 최고의 커피 생산국 자리를 내놓아야 했다. 부의 원천인 커피의 생산지 산토도밍고에서 철수를 해야 했고 이는 가장 큰 손실이었다. 유럽의 커피는 앤틸리스제도에서 자바로 넘어갔다.

한편 많은 상선을 보유하고 있었던 네덜란드는 영토 확장이나 종교적인 정복보다는 상업적 이익에 많은 관심이 있었다. 그들은 자바에서 커피 플랜테이션을 시작으로 원주민들의 노동력을 이용하여 커피농사를 지어 농장에서 정치적, 경제적 권력을 행사했다.

네덜란드인들은 커피의 가격을 마음대로 조절하기위해 수확한 커피를 버리거나 창고에 쌓아 두었다. 또한 네덜란드령 동인도제도가 커피 소비국의 2/3정도를 공급하게 되면서 실제적인 커피가격을 주도하는 등 타고난 상술을 발휘하기도 했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시작된 자유에 대한 외침, 즉 프랑스혁명은 결과적으로 커피를 즐기던 사람들에게 값비싼 커피를 마셔야하는 원인을 제공하게 됐다.

■ 이창숙(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 연구원)

프랑스 혁명으로 유럽의 생산지 자바로 이동
네덜란드 원주민 이용 커피 플랜테이션 시작



커피 플랜테이션(F.M.페이놀즈, 19세기 동판화)

茶道 월간 다도 과월호를 판매합니다
좋은 책, 향기로운 삶
문의전화 | 02)722-7777
과월호의 권당 가격은 5,000원



(재)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홍승희)이 불교의 대중화 · 현대화 · 생활화를 위해 펴내는 문화잡지
『불교와 문화』 2006년 8월호 발간!

월간 불교와 문화
불교 속의 문학, 문학 속의 불교와 만나는
2006년 08 월호

현암사 형난옥 주간의 내 기억 속의 절밥 | 일지암의 절밥
현장르포 | 칭짱철도 개통 현장을 가다
티베트로 달려가는 칭짱철도와 티베트불교의 미래
문화포커스 | 스포츠와 불교 특성화된 불교스포츠 상품을 개발하자
연속기획 | 다시 생로병사(生老病死)를 생각한다 1 – 생(生)
생(生)이란 무엇인가
불교는 이 생(生)의 한가운데에 있다, 버리며 살기 – 생(生)에 대한 일반의 시선,
수행자라면 태교를 어떻게 해야 하나, 우리 아이들의 불교태교,
우리가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 네 아이와 살아가는 이유, 인권(人權)출산이란 무엇인가
종범 스님의 재가불자가 알아야 할 불교교리 10 | 한국불교의 3대 신앙 (2)
응응불교 | 심리치료로서의 불교 4
억불시대 수행열전 | 붓다의 제자 반복을 낳은 묘신(妙信)의 수행
2006 청정운동 "내가 바뀌어야 세상이 바뀐다" | 불교를 통해 나와 세상을 행복하게 하자
집중인터뷰 2 | 국악계의 프리마 돈나 안숙선 명창
한호흡 쉬고 떠나는 여행 | 경남 남해군 지족리마을 죽방렴 하는 부부 이야기
Buddhism & Music | 마음으로 듣는 명상음악 「Nada Yoga」
작은 박물관을 찾아서 | 질풀생활사박물관
오래된 향기 | 생활 속의 불교설화(우란의 고통과 효의 길)
시로 지은 절 | 복효근 作 「쌍계사에서」
현장 속으로 | 제3회 청소년을 위한 명상캠프 – 또로록, 똑! "마음이 뽕 뚫려요"
2006 테마기획 | 지리산 대안 스님에게 배우는 현대인의 건강 밥상
즐겁게 만들고 행복하게 먹는 여름 사찰 별식 3선
건강 에세이 | 호흡과 명상은 피부건강의 지름길
독자들 세상 | 1 칭찬합니다 2 독자의 시(詩)
(별지) 하루에 돌아보는 테마여행 5 | 서울의 옛집

광고 및 구독문의 : 02-706-1570(「불교와 문화」 문화사업단) www.buddhistculture.co.kr

바람 선선하니 뭔가 배우고 싶어라

불교계 복지관 취미 · 운동 · 취업 프로그램

어느 덧 가을의 문턱에 접어들었다. 이제 무더위도 한풀 꺾이고 개학한 아이들은 학교로, 휴가를 끝낸 직장인들은 회사로 돌아간다.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야 말로 주부들에게는 지친 몸과 마음을 추스르기에 적합한 시기.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거나 건강을 위해 운동을 시작해 볼 생각이라면 가까운 불교계 복지관으로 눈을 돌려보자. 저렴하면서도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기다리고 있다.

▷ **취미활동 즐겨볼까**

집 안에 있는 피아노는 더 이상 자녀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복지관이 운영하는 피아노 교실에 매달 2~3만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어린 시절 못 이룬 피아니스트의 꿈을 펼쳐보자.

색색의 구슬을 꿰어 팔찌나 목걸이 같은 액세서리를 만드는 비즈공예와 리본을 묶어 머리핀 등을 만들어 보는 리본공예도 인기 강좌다. 닥종이 인형 만들기와 천연비누 만들기도 시도해볼만 하다.

서울 삼전종합사회복지관은 수족침과 사자고사성어, 사물놀이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자녀에게 '컴맹'이라고 타박 받는 주부라면 컴퓨터 교실의 문을 두드려보자. 기본적인 컴퓨터 작동법과 문서 작성법, 현대인에게 없어선 안 될 인터넷도 배울 수 있다.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찾아보는 것은 물론 자녀에게 따뜻한 사랑이 담긴 이메일을 보내는 것도 인터넷을 배우는 재미다.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싶지만 어린 자녀를 맡길 곳이 없는 주부라면 부산 공창사회복지관의 놀이방을 활용해보자. 공창사회복지관은 오전 주부프로그램 수강생을 위해 매주 월~금요일 놀이방을 운영하고 있다. 이용료는 1시간에 500원.

▷ **건강을 위해 운동을**

뭐니 뭐니 해도 현대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건강. 수영이나 헬스, 에어로빅 같은 운동 강좌도 복지관이 자랑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서울 신길종합사회복지관의 웰빙 헬스장에서는 2명의 전문트레이너가 제공하는 맞춤 운동프로그램 및 운동지도를 한 달에 4만원이라는 저렴한 비용으로 받을 수 있다.

요가 강좌와 수영 강좌를 운영하는 복지관도 많다. 신길복지관의 아쿠아로빅과 아쿠아테라피, 테라피 요가 등이 눈에 띄는 프로그램. 최근에는 스포츠댄스, 스트레칭 재즈, 밸리댄스 등 전문 스포츠센터 못지않은 다양한 프로그램도 인기를 끌고 있다.



불교계 복지관들이 가을을 맞아 다양한 문화 · 체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복지관 문화강좌는 값이 저렴할 뿐 아니라 최근에는 강좌내용도 다채로워지고 있다. 사진은 삼전종합사회복지관 풍물패의 공연모습.

취미 즐길까? 운동 시작할까? 취업교실도 있네
피아노 · 비즈공예 · 요가 · 플로리스트 강좌 인기

▷ **취직을 위해서라면**

단순한 취미활동을 넘어 부업이나 취직을 꿈꾸는 주부라면 취업교실이 적합하다.

부산 용호종합사회복지관은 직업프로그램으로 한식 일식 중식 조리사, 복어조리사, 폐백이바지반 등을 운영하고 있다. 신길복지관의 피부관리사 메이크업 과정과 서울 옥수종합사회복지관의 미용 기초 심화과정, 물운대복지관의 조리사과정, 성남 한솔종합사회복지관의 플로리스트 과정 등도 눈길을 끈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 **불교계 복지관 교육 프로그램**

지역	시설명	프로그램	전화번호
서울	구로종합사회복지관	사찰요리/리본공예/선물포장/네일아트/풍선아트 피아노/요가/플라워아트/노래교실/컴퓨터교실 미용 · 신부화장 자격증반/한식조리사 자격증반	(02)852-0525
	궁동종합사회복지관	수영/헬스/에어로빅/재즈댄스/요가/아쿠아로빅/컴퓨터	(02)2613-9367
	길음종합사회복지관	요가/에어로빅/스포츠댄스/피아노	(02)985-0161
	능인종합사회복지관	어르신대상 웃음치료교실	(02)571-2988
	도봉서원종합사회복지관	재즈댄스/컴퓨터/피아노/에어로빅/심리검사 어르신대상 한글대학/노래교실/정보화교실	(02)3494-4755
	삼전종합사회복지관	피아노/컴퓨터/수족침/사자고사성어/사물놀이	(02)421-6077
	수유종합사회복지관	바이올린/스포츠댄스	(02)903-4060
	신길종합사회복지관	웰빙헬스/수영/아쿠아로빅/요가/밸리댄스 천연비누만들기/영어/피아노/닥종이 피부관리사/메이크업/정보화교실	(02)831-2755
	옥수종합사회복지관	에어로빅/요리/리본공예/미용기초 · 심화반/피부관리사반/컴퓨터/피아노/가요	(02)2282-1100
	자양사회복지관	피아노/생활요가/어르신 한글 · 영어교실	(02)458-1664
부산	개금사회복지관	웰빙요가	(051)893-5034
	공창종합사회복지관	컴퓨터/인터넷/피아노/중국어	(051)363-2063
	두송종합사회복지관	은빛컴퓨터교실	(051)265-9471
	물운대종합사회복지관	에어로빅/요가/피아노/컴퓨터/한식양식조리사과정	(051)264-9033
	용호종합사회복지관	에어로빅/다이어트요가/한국무용/댄스스포츠 한식 · 양식 · 중식 조리사자격증/폐백 · 이바지 요리/어르신 대상 노래/스포츠/서예/한글교실	(051)628-6737
광주	송광종합사회복지관	건강체조/컴퓨터/미용교실/어르신 컴퓨터 기체조/동화구연	(062)941-8248
경기	과천종합사회복지관	스트레칭재즈 교실, 웰빙요가, 유리드믹스	(02)507-6319
	군포매화종합사회복지관	다이어트 요가/컴퓨터/피아노/영어 · 중국어 회화	(031)393-3677
	성남한솔종합사회복지관	요가/에어로빅/컴퓨터/피아노/미술/서예 종이공예/플로리스트 전문반	(031)716-4215
충북	청주북부종합사회복지관	차밍댄스/게이트볼/그라운드골프/물리치료	(043)216-4004
강원	강릉종합사회복지관	노인대학/컴퓨터교실	(033)653-6375
	속초종합사회복지관	피아노교실/다이어트요가	(033)631-8761
경북	문경시종합사회복지관	사물놀이/한글교실/수화교실	(054)555-0108
	포항학산종합사회복지관	요리/컴퓨터/요가/스포츠댄스	(054)248-6165
경남	마산중리종합사회복지관	취미강좌/외국어교실/서예 어르신 한글/종이접기/한국화/스포츠댄스/바둑	(055)231-8017

5000원으로 만드는 사찰음식 〈31〉

감자 장떡과 감자 조림



전 여름만 되면 옛 추억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어릴 적엔 왜 그렇게 비가 많이 내렸을까요? 장마도 무척 길고 비도 많이 내렸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어머니는 장마가 찾아오기 전부터 장마동안 먹을 식재료를 사서 곳간에 쌓아 두었습니다. 양파도 자루로 사고, 감자도 박스째 사놓으셨지요. 오이로 장아찌도 담그고 무로 단무지도 담갔습니다.



지금 기억으론 장마철엔 김치를 먹어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옛날엔 장마철이면 지금과 달리 정말 배추값이 금값보다도 비싸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장마철에 친척집에 가거나 사찰에서 공양을 하게 될 때도 거의 반찬이 오이지와 감자볶음뿐이었지요.

한정된 부식으로 매번 어떻게 색다른 요리를 만들어 식탁에 올릴지 고민하는 것이 주부들의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옛 추억이 떠올라 이번 장마엔 저도 감자를 한 박스 구입해 두고 먹었습니다. 감자밥도 해먹고, 수제비도 끓여 먹고, 전도 부쳐 먹고 그냥 쪄 먹기도 했습니다. 감자를 보고 있으니 옛 추억이 떠올라 입가에 빙그레 웃음이 일어납니다.

덧붙여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전 시장에서 야채를 살 때는 절대 값을 깎지 않습니다. 물론 부처님께 올리는 음식을 준비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사찰음식을 공부한 뒤로 농사짓는 분들의 고마움을 알게 되었다고나 할까요? 올 여름처럼 비가 많이 와서 농사를 망쳐버린 그분들의 쓰라린 마음을 십분의 일도 헤아릴 순 없겠지만, 그렇게라도 해야 제 마음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도 이렇게 맛있는 감자나 야채를 먹을 수 있는 것도 다 그분들이 힘들게 농사 지어 보내주신 덕분이지요. 프라이팬에 곱게 지져낸 감자부침을 먹으며 그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 **만드는 법**



〈감자 장떡〉 재료: 감자 2개, 양파 1/2개, 청고추 5개, 고추장 1/2 큰술, 우리밀가루 적당량, 참기름, 식용유

① 감자는 곱게 채 썰어 물에 담가 전분을 빼준다. ② 양파는 아주 곱게 채 썬다. ③ 청고추는 반을 잘라 씨를 제거한 후 곱게 채 썬다. ④ 볼에 감자, 양파, 청고추를 넣어 적당한 양의 물과 밀가루를 넣어 반죽한 후 고추장을 넣어 마저 반죽한다. ⑤ 참기름과 식용유를 반반씩 섞어 기름을 만들어 반죽을 한입 크기로 지져준다.



〈감자 조림〉 재료: 감자 2개, 청고추 2개, 식용유 1작은술, 통깨 약간, 산초가루 약간, 양념장(간장 3큰 술, 황설탕 1큰술, 표고버섯가루 1작은술, 물 1컵)

① 감자는 껍질을 벗겨 반을 자른 후 어슷하게 썰어 물에 담가둔다. ② 청고추는 반을 잘라 씨를 제거하고 어슷하게 썬다. ③ 분량의 재료로 양념장을 만든다. ④ 잘라 놓은 감자를 식용유에 볶아주다 양념장을 넣어 졸여준다. ⑤ 감자조림이 완성되면 청고추를 넣어 젓가락으로 뒤적거려준다. ⑥ 통깨와 산초가루를 뿌려 완성한다.

▶다음 주에는 두부 장아찌와 두부 조림을 만들어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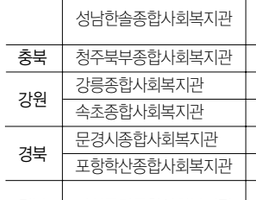
■ 박상혜(사찰음식연구가)

간(肝)이 간염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 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 055) 963-9583 · 상담문의 : 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퇴행성관절염 · 류마티스

신경통 · 오십견 · 디스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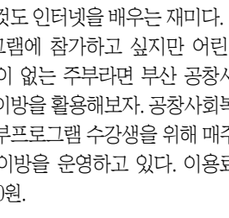
한방요법으로 치료한다-관신환

상기 관절염 등 증상을 중단, 완화, 치료할 수 있는

관 신 환(丸)

통상 관절염이란 관절에 염증성 변화가 생기는 모든 종류의 질환을 지칭하며 궁극적으로는 연골과 뼈를 손상시키며 심해지면 뼈와 뼈가 직접 부딪치거나 뼈가 기형화되기도 하면서 극심한 통증을 일으킵니다.

윤량한의원의 윤량원장은 수십년동안 퇴행성관절염 · 류마티스 · 신경통 · 오십견 · 디스크 등의 환자와 전쟁하면서 연구개발한 관신환(丸)을 처방하여 환자에게 임상 결과 80~90% 이상 호전반응이 나오며 관신환(丸)을 5~7일만 복용해도 부드러운 느낌을 받으며 그동안 어떤 관절염 약을 복용해도 못 느끼는 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상담 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을 하시고 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한약은 한의사와 상담 후 처방됩니다.

관신환을 드실 분

·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에 무리가 오시는 분
· 기타 퇴행성관절염 증상이 심하신 분
· 류마티스관절염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 위궤양때문에 관절염 약을 못드시는 분
· 수술후 후유증이나 회복이 잘 안되시는 분
· 교통사고 이후에 통증이 심하신 분
· 신경통, 류마티스, 오십견, 디스크 등이 아프신 분

윤량한의원 상담문의 080-598-9832

2006 학년도 불교범패작법전수원

제1기 수강생 모집

새벽종성,조석예불,사시불공,각단불공,천도재,49재,사물(태징,북, 목탁,요령)다루는법,구명시식,점안의식등 상주권공〈범음범패의식〉을 기초과정부터 전문과정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교육합니다. 불교의식을 전혀 모르시는 초심자도 여법하게 의식을 진행할수 있도록 책임지도 합니다. 스님,포교사,재가불자,장차 출가를 계획하고 계신분 등 불교의식에 관심이 있으신분은 좋은인연 되시길 기원합니다.

◆ 개강 : 2006년 9월 6일 수요일 오전 10시

학 과	수 업 일		기 간
기초의식반	매주 수요일 오전10시-12시		1년
상주권공반	작법반	매주 수요일 오후1시-오후3시	2년
	범패반	매주 수요일 오후4시-오후6시	

교 육 내 용

◎기초의식반(평염불,목탁불공) : 새벽종성. 조석예불. 사시불공. 각단청. 각단불공. 천도재. 49재. 구명시식. 점안의식
◎상주권공반(작법반) :〈바라춤〉요잡바라. 관욕바라. 화의재바라. 사다라니바라. 천수바라. 명바라. 내림게바라.
〈나비춤〉사방요신. 도량게. 다게. 운심게. 오공양. 모란찬. 삼귀의. 괴경이. 향화게
◎상주권공반(범패반) : 초할향. 등게. 정례. 합장게. 고향게. 개게. 쇄수게. 복청게. 사방찬. 향수나열. 욕건이.가지게. 사물다루는법. 천도재(범음범패). 49재. 구명시식. 점안의식

▶ 구비서류 : 이력서 1통. 수강신청서(소정양식) 1부. 사진 2매
● 기초반강사 : 원각스님 ● 작법반강사 : 자인스님
● 범패반강사 : 도담스님

※ 사찰에서 각종의식(49재,천도재,점안의식, 구명시식,예수재,영산재) 봉행해드립니다.

불교범패작법전수원

강원도 원주시 일산동 189-28(시청옆) ☎033)731-7759
E-mail : bumpae@yahoo.co.kr

최첨단 "원적외선 복사열 필름난방"

아직도 심야전기보일러를 생각하시고 (난방비 50% 절감)
전기온돌판넬을 생각하시고 (난방비 70% 절감)
기름보일러를 생각하시고계셨다면 (난방비 80% 절감)

최첨단 원적외선 복사열필름난방으로 생각을 바꿔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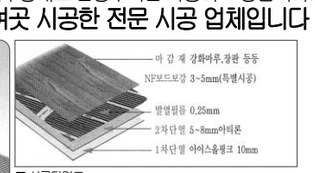
◆ 월간난방비 비교표 ◆ *실난방 평수 10평기준 *하루 10시간 사용 * 2005 12월 기준

구 분	필름난방	심야전력	도시가스	전기판넬	L.P.G	보일러 등유
소비자 가격	66.8원/kw	36.8원/kw	640원/㎥	66.8원/kw	1250원/㎥	1000원/ℓ
열효율(%)	100	95	90	100	90	85
연료소비량(월)	588kw	1650kw	124㎥	1569/kw	124㎥	182 ℓ
월간난방비	39,200원	60,700원	79,360원	104,800원	155,000원	182,000원
단가지수	100	155	202	267	3950	464

※ 사찰에는 이런점이 유리합니다.

● 쓰지않던 방을 사용할때 하루전에 미리 보일러를 켜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본 난방은 5~6분이면 충분합니다.
● 한번 시공으로 건물수명대로 반영구적인 사용이 보장됩니다.
● 전국 사찰 200여곳 시공한 전문 시공 업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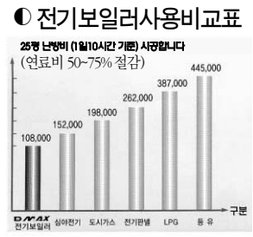




■ 시공단면도

◐ 전기보일러사용비교표

유사품에 주의하십시오



■ 제품 : 정품(미국칼로리추사 제품)만을 취급합니다.

설치하면 좋은 곳

법당, 요사채, 선방, 어린이집, 식당 등

대체에너지(주)

천안 · 아산총판

041)545-5593, 010-8120-3592



2002년 재공연했던 비구스님판 '그것은 목탁구멍 속의 작은 어둠이었습니다'의 한장면.

구도와 예술 그 처절한 길…



8월 23일 서울 영화사에서 여배우들이 삭발식을 가졌다. 사진은 주연 배우 연운경씨의 삭발 모습.

'그것은 목탁구멍…' 비구니 버전 공연 / 서울 세실극장 9월15일 첫선



왼쪽부터 연출가 강영걸, 극작가 이만희, 배우 연운경 이영란 윤순옥씨.

극작가 이만희 · 연출가 강영걸 콤비
연극계 달군 전작 명성 다시 한번
스님 역 여배우들 영화사서 삭발식

"이 세상에 미(美) · 추(醜)는 따로 존재하지 않으며 스스로가 그저 아름답거나 추하다고 볼 뿐이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 번뇌에 사로잡혀 미 · 추 구분을 제대로 하지 못하던 눈이 미 · 추를 해탈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것은 목탁구멍 속의 작은 어둠이었습니다'.

1990년 연극계를 뜨겁게 달궜던 '그것은 목탁구멍 속의 작은 어둠이었습니다(이하 목탁구멍)'가 2006년 비구니 버전으로 변신해 관객들을 찾아간다.

1990년 초연 당시, 삼성문예상, 서울연극제 희곡상, 남자연기상, 특별상, 백상예술대상 연출상, 희곡상, 인기배우상 등을 석권한 '목탁구멍'은 국내 최초로 해외공연 지원금을 받았고, 2002년 재공연 되는 등 대중적 인기와 높은 명성을 자랑했다. 이 명성을 이어갈 올해 비구니버전 '목탁구멍'은 전작에서 호흡을 맞췄던 극작가 이만희와 연출가 강영걸 콤비가 다시 손을 잡아 만드는 불교극이다.

초연한지 16년만에 변신을 꾀한 '목탁구멍'은 주인공인 비구니 도법 스님의 구도 과정을 고뇌의 밑바닥에서부터 그려낸다.

우리말의 재미와 아름다움을 가장 잘 살려내는 극작가라는 평을 받는 이만희 교수(동국대 문창과)는 "이 작품을 통해 작게는 한 인간의 세속적 갈등과 구원의 세계를, 크게는 종교 예술 삶의 합일로서의 도(道)를 표현하고자 했다"며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 사상을 바탕으로 한 비구니스님의 구도 과정을 처절하게 담아냈다"고 작품 의도를 밝혔다. 또 "예술의 본질은 아름다움이며, 애정을 가지고 보면 고통스런 삶의 현장에도 본질적인 아름다움이 깔려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을 서정적으로 끌어내는 것에 주력했다"고 덧붙였다.

목탁 구멍속의 어둠, 그 미망 속을 헤매는 현대인들에게 진리의 길을 불 밝혀주는 비구니 스님들의 진솔한 감동 휴먼 드라마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주인공 도법 스님 역은 탤런트 연운경 · 이영란 교수(경희대 · 극단 목토 대표)가 맡았다.

주인공 도법 스님은 전직 미대 교수이자 유명한 여성 조각가. 그녀는 남편과 딸이 지켜보는 가운데 동네 깡패 7명에게 윤간당한 후 괴로움을 이기지 못해 입산한다. 예술을 멀리한채 선방과 토굴을 전전하며 수행만 해오던 도법 스님에게 큰스님은 봉국사 불상을 조각하라는 엄명을 내린다. 3년 시한으로 불상을 작업하던 도법 스님은 망령의 방해로 작업을 하지 못하고 자신의 두 눈을 찌르게 되는데….

연운경, 이영란, 이인희, 윤순옥, 손성림 등 스님 역을 맡은 5명은 8월 23일 서울 영화사에서 월주 스님의 주도로 삭발식을 하는 등 투혼을 불사르며 한창 맹연습중이다.

9월 15일 첫선을 보일 '그것은 목탁구멍 속의 작은 어둠이었습니다'는 서울 제일화재 세실극장에서 11월 12일까지 공연한다. (02)3443-1010

글=강지연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관세음보살님 나투신 듯"

중국장애인예술단 9월 3~5일 장충체육관서 공연

청각장애인 23명 천수관음 펼쳐



솥아지는 조명 아래 관세음보살로 분한 23명의 무용수가 무대에서 환상적인 천수관음을 만들어낸다. 여느 공연 모습과 다를바 없어 보인다. 하지만 23명의 무용수는 모두 청각장애인. 지난 1987년 결성된 중국의 '중국장애인예술단'의 이야기다.

지난 20년간 전 세계 30여개국을 돌며 공연을 해온 중국장애인예술단이 9월 3~5일 장충체육관에서 'My Dream' 공연을 한다. 청각장애인의 천수관음 공연 외에도 정신지체장애인의 교향악단 지휘, 신체장애인의 얼후(중국 현악기의 일종) 독주 등 다양한 무대가 준비된다.

2004년 한국에서 첫 공연을 가졌던 중국장애인예술단의 두 번째 한국 공연은 네 손가락의 피아니스트 이희아, 휠체어 스포츠 댄서 김용우, 영혼의 소리 홀트 합창단 등 한국 장애인 예술인들과 함께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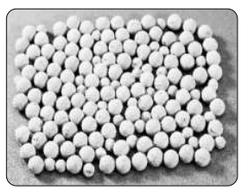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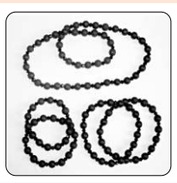
중국장애인예술단은 34명의 장애인 단원과 비장애 단원 등 총 60명으로 구성됐다. 덩샤오핑 중국 前 국가주석의 장남 덩푸팡이 단장을 맡고 있다. 중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외국 방문시 동행해 외국 정상들에게 중국의 장애인 복지와 문화 수준을 선보여 극찬을 받은 바 있다.

민간 외교관 역할도 함께 수행해온 중국장애인예술단은 공연을 위해 공연자 한 사람당 두 명의 특수무용가가 장애 조건에 맞게 연습을 시켰다. 청각 장애인에게는 세세한 동작을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시각장애인에게는 청각 신호를 보내 박자를 익히게 했다. 이런 노력 덕에 중국장애인예술단의 일정은 내년까지 빡빡하다.

"불행히도 내가 청력을 잃었지만 나는 행복하다"는 중국장애인예술단의 주전 무용수 태려화는 "중국장애인예술단은 어디에 가서든지 따뜻하게 환영받고 좋은 평가를 얻었다"고 중국장애인예술단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장애를 넘어 그들이 가진 장점을 예술로 승화시킨 중국장애인예술단의 공연은 장충체육관 공연 외에도 9월 2일 오후 7시 서울 청계천과 6일 오후 용인 에버랜드에서 두 차례 더 펼쳐진다. (02)724-2288

강지연 기자

베개속에 넣고 평생 사용 늘~건강하고 편안한 잠자리
상쾌한숙면 건강한하루 신비의은행석

"부모님께 최고의 효도선물"
베개속에 은행석을 넣고 주무시면 평생 뇌졸중, 중풍, 치매, 고혈압 천식등이 치유됩니다. 그리고 기억력이 살아나고 혈압이 떨어지며 기미가 줄고 하얀 얼굴로 미백효과도 뛰어나요. 하루에 5시간만 주무셔도 8시간 잔것과 같은 효과가 있어 머리가 맑고 상쾌하며 아침에 가볍게 일어납니다.
죽어가는 것도 살리는 은행석
북한에서온 은행석은 죽어가는 것도 살린다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야에다 수돗물을 받아 붕어를 넣으면 붕어는 배를 뒤집고 헐떡이며 죽어갑니다. 이때 은행석을 넣으면 붕어는 씽씽하게 살아납니다. 고급난, 분재 등 죽어가는 것도 살릴 수 있어요.
생명의 빛! 생명의 기!
북한 일부 고위층만 사용하며 저를 믿고 주무시며 건강하게 장수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의심이 많아요. 심하게 코를 골거나 기침을 하시는 분에게 적극 권장합니다. 손발이 자주 붓거나 저린 분은 은행석 목걸이, 팔찌와 같이 사용하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음이온을 첨가하여 어깨 통증완화 및 각세포의 기능 향상
건강도 지켜주고 젊음을 유지하는
은행석 안심목걸이, 팔찌

◆목걸이,팔찌 : 머리를 맑게 함, 손발저림, 어깨결림해소, 혈압조절, 혈압상승억제, 전신에 氣를 고루 전달 기력회복, 심장박동이 원활하여 마음을 안정 시킴,신진대사촉진, 피가 맑게 하며, 다이어트에도 효과
은행석 108염주, 손목압장주도 제조 판매합니다
금강닥터 문의전화 (02)723-9184 www.dk21.net
◆ 입금계좌:농협 1143-12-049474 송명화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생명체에 이로운 물질만 농축되어 있는
함초
함초란? 바닷가 개펄이나 염전등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풀이다. 함초는 개펄에 스며드는 바닷물을 한껏 빨아들인 다음 광합성 작용으로 물기를 증발시키고 각종 미네랄 성분을 고스란히 저장하는 생리를 가지고 있어 사람에게 아주좋은 효능을 고루 얻게 한다.
놀라운 함초의 효능
▶숙변을 분해하여 몸무게를 줄이고 변비에 효과
▶혈액순환에 좋아 고혈압, 저혈압에 효과
▶심장을 튼튼하게 하고 혈액속의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질 제거
▶축농증 신장염, 관절염 등 각종염증에 효과
▶위장기능에 좋아 변비, 탈장, 치질에 효과
▶당뇨병의 혈당치를 낮춘다
▶갖가지 암, 근종에 효과, 암세포 성장억제
▶갑상선기능 저하증이나 항진증에 효과
※ 먹기좋게 환을 만들었습니다 약값은 불사에 쓰여집니다
※ 비구니스님이 죽음의 고통에서 함초를 복용 후 완치된 사례가 있음
함초구입 문의
054)638-4796
010)4591-4796 백련정사백련스님
입금계좌 : 농협 751025-51-024864 백련정사

사암침술과 맥을 알면 불치병은 없다
국내 어느곳에서도 배울수 없는 내용과 비법을 3개월만 배우면 초보자도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때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속성비결!! 책임지도!!
사암침술 강좌
▶ 과정 : ● 기초과정 ● 전문가과정 ❶ 맥진반 ❷ 사암침술반 ❸ 즉효요법반
▶ 내용 : 12경락과 경근, 사암도인침술법, 장부의 허실증 판단, 황제내경맥진법, 맥조절방법, 오행처방법, 침술즉효요법(一鍼法), 뼈교정법, 실습 위주 강좌
▶ 개강 : 2006. 9. 6 (수 · 목요일 주간반) 토 · 일요일 : 사암도인 맥진법 강좌 (1개월 완성)
※ 침술사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매화역수 강좌
간단한 수리학(1~9)만으로 운명을 판단하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쉽고 간단하고 재미나며, 명리수준을 최고위 과정까지 높여 드리는 국내유일의 강좌로 년운과 월운은 물론 일운까지 정확하게 적중시키는 최고의 학문입니다.
▶ 개강 : 매주 수시접수
명리전문가과정 맥진전문가과정
사 암 침 술 학 회
● 서 울 : 종로 3가 국민은행 4층(지하철1호선 1번 출구)
문의 : 02)747-9136. 011-307-2975

삼사순례 및 소원성취
기도도량 동해사
매년 10월 12일부터 11월 20일까지 밤, 낮없이 사리탑위에 법비가 내려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충만해있어 중생들의 어떤 소원도 이루어 지는 곳 기도영험도량인 동해사에 오시어 기도의 참 맛을 느껴 보세요

법비오는곳 사리보탑
※ 대형주차장, 방생기도처 5분 소요
낙산사 10분소요
후휴암 15분소요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학포리
법비오는 곳 동 해 사
033)672-2900


대행스님

말과 이론이 아니라 뜻과 실천이 중요해!

지난번에도 울산 여러분과 같이 한자리를 한 바가 있었는데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의 신심이 돈독해서 여기에 지원이 마련됐습니다. 내 집도 아니고 여러분과 똑같은 한마음 여래의 집입니다. 여러분이 공부하는 장소죠.

부처님을 한 분만 모셔 놓은 것은 그 부처님이 여러분과 몸이 둘이 아닌 것이요, 여러분과 마음이 둘이 아닌 것이요, 여러분과 생명이 둘이 아닌 것을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옛날부터 "내 고깃덩어리를 보지 말라. 내 골수를 알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모두가, 미래의 정신계가 지금 물질계의 참나와 더불어 같이 돌아가는 줄 모르고 항상 기복으로 허덕이고 있습니다. 내가 '기복으로 해라, 말아라' 할 권리는 없습니다만 앞으로는 점점 미래의 정신세계와 더불어 같이 내 마음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살기가 힘들어진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스님이든 아니든, 다른 종교인이라 할지라도 불교 아닌 바가 없으니 이 공부를 꼭 해야만 합니다. 불(佛)은 영원한 근본 즉 생명, 움죽거리지 않는 근본이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교(敎)이기 때문에 불교라고 한 것입니다. 단어 그대로 불교라는 것은 영원한, 즉 말하자면 끝간 데 없는 진리를 말한 것입니다.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물 불 바람 흙, 이런 것도 불교 아닌 게 없습니다.

우리는 지수화풍으로 뭉쳐졌습니다. 지수화풍이 한데 합쳐졌기 때문에 생명이 생겨났고 생명이 생겨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수억겁을 거쳐서 진화돼서 인간까지 올라왔다고 봅니다. 이 말을 하려면 말도 길고 그렇지만 말한 사이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말 한마디 하면 그냥 과거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도 돌아가고 있고, 어디가 머리고 어디가 발인지도 모르게끔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납득 못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입니다. 불교는 그렇게 끝간 데 없이, 지금 프로펠러가 돌아가듯 돌아가는데 부처님께서는 '불바퀴가 돌아간다'고 하셨고 '우주 전체의 불바퀴'라고 하셨고 '우리 불성을 먼저 알라'고 하셨습니다. 외국에서는 블랙홀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만 블랙홀이라는 그 생산처는 바로 내 가슴에 직결돼 있다는 말을 하고 싶군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 울산 지역에 살면서 담을 뚱그렇게 쳐 놓고 담 바깥에서는 천야만야한 데로 떨어지는 줄도 모르고 그 안에서만 아주 안이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한번 바깥도 내다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바로 땅속이나 물속이나 저 허공이나 다른 혹성이나 별성이나 어디고 아니 다니는 데 없이 다닐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수화풍이 존재하는 한 여러분은 그게 바탕이 돼서 오신통이라는 문제도 굴릴 수 있는 겁니다. 바로 법바퀴를 말입니다.

그 법바퀴를 굴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지수화풍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서 광력 전력 자력 통신력이 충만하게 갖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과학적으로도 쓰고 있고 의학적으로도 쓰고 있고 모두 쓰고 있지 않습니까?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우리 앞에 광력이나 전력이나 자력이나 통신력이라는 재료가 충만히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바로 50%의 저 언덕을 몰라서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과거 50%를 생각지도 않고 현재 50%만 가지고 생각을 하고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모를 뿐입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재차 말하지만 지수화풍으로 바탕이 돼서 생명이 생겨나서 미생물의 시대도 있었고 곤충의 시대도 있었고 짐승들의 시대도 있었고 공룡의 시대도 있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난폭한 짐승들의 시대도 있었고, 또 인간이 될 수 있는 진화력을 가지고 실험하는 시대도 있었고, 인간이 되는 시대도 있었고 인간이 증발해 버리는 시대도 있었는데, 지금 현재에도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법당에 가서 절이나 하고 음식이나 놓고 돈이나 놓고 잘되게 해 달라고 빌면 불자가 되는 줄 알지 마십시오. 어느 종교인을 막론해 놓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다 불자입니다. 불자는 불자대로 불자 노릇을 해야 불자가 아니겠습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면 자기의 근본을 알고, 우주의 근본이 자기의 근본 속에 있고 이 세상 돌아가는 것 모두가 자기 마음속의 근본에 가설이 돼서 같이 한마음으로 돌아간다는 그 뜻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허공을 믿을 것도 아니고 이름을 믿을 것도 아니고 우리 스님네들 고깃덩어리를 믿을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름도 믿을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평상시에 살고 돌아가고 하는 그 자체 속에 바로 부처가 있고 법신이 있고 화신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움죽거리지 않는 근본이 있기 때문에 바로 마음을 낼 수가 있고 마음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몸이 움죽거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누가 끌고 갑니까. 저 허공에 부처가 있어서 여러분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 몸을 끌고 다닙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과거에 살 때 한 것만큼, 인연을 맺은 것만큼, 악으로 맺었으면 악이요 선으로 맺었으면 선이요, 악업 선업이 다, 인연으로 인해서 만난 그 모임들이 바로 여러분의 몸속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의심해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 몸속에서 시키는 대로, 파워가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벌어지는 것은 바로 도청 입력이 돼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적으로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잘돼 보겠다고 어디를 가더라도 '이 집을 떠나서 다른 데로 가면 잘되겠지. 이 직장을 벗어나서 딴 데로 가면 잘되겠지.' 이래도 업식들은 여러분의 합쳐진 그 도청 입력기에 입력이 돼서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기 때문에 그걸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살면서 생각했던 것이나 지금 살아가면서 생각하는 것들이 자꾸 입력이 되는 것은 도청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주간 법계에서 다 통하고 있고 이 세상에서 다 통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어떻게 하는지를 자기가 알기 때문에 바로 자기 마음속에 입력이 됩니다. 도청이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자동적으로 입력이 되며,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게 그림자처럼 쫓아다니는 게 바로 도청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죽였는지 남에게 해를 끼치는 생각을 했는지 누가 압니까? 그러나 본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모르겠습니까? 남한테 좋은 일을 했으면 즐거운 마음을 가졌을 테고 남을 언짢게, 이익하지 못하게 생각했다면 바로 자기가 아는 거죠. 자기한테 모두 있기 때문에 그걸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한 찰나에 연락이 다 되며 한 찰나에 들고 나며 한 찰나에 오고 감이 없이 오고 가는 그 자체가 바로 지금 현실의 여러분이 살고 있는 생활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이 어떻게 부정하겠습니까? 내가 아니다, 그렇다 하고 어떻게 변명을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행하고 있는 그 사실을,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걸 어떻게 변명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자기 손가락이 자기 손가락을 꺾지 못하고 자기 손가락이 자기 손가락을 죽이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 고통 속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한테 항상 말씀해 드립니다. 컴퓨터가 바로 여러분한테 있고 팩시밀리가 여러분한테 있고, 탐지기가 바로 여러분한테 있고 무전통신기가 여러분한테 있고, 천체망원경이 여러분한테 있는데 그것을 불교에서는 오신통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한테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름을 바꿔서 얘기했습니다. 불가에서 말하는 건 천이통 타심통 신족통 천안통 숙명통, 이 다섯 가지이고 바깥으로 벗어나서 그걸 굴릴 수 있는 지배인을 바로 누진통이라고 그럽니다. 누진, 즉 레이더망도 두뇌에 돼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뜻을 잘 생각해서 이 세상을 똑바로 보고 똑바로 행하고, 똑바로 말하고 똑바로 승상하고 나가야 됩니다. 불자가 도대체 어떠한 것인가? 바로 불자도 나요 법신도 나요 움죽거리는 화신도 나입니다, 각자!

나는 여러분이 딱할 때가 많습니다. 나를 찾아와서 "병이 이렇고 이런데, 암이라는데, 또 백혈구가 이렇게 돼서 백혈병이라는데 이걸 어떡합니까. 인제 꼼짝없이 죽었습니다." 이럽니다. 여러분, 생각을 잘 해 보십시오. 그건 이름입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혈관이 막혀서 뭉쳐 있는 것을 암이라고 이름을 지어 놨다면 암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암이라고 하는 데 속지 마시고 그 이름에 질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능력은 여러분이 키우는 것이고, 할 수 있는 그 능력, 재료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광력 전력 자력 통신력이 충만히 여러분한테 재료로 있다는 것은 바로 지수화풍이 바탕으로 돼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이 아니었더라면 어떻게 발전소가 돌아갑니까? 물이 아니라면 어떻게 농사를 지으며 물이 아니라면 여러분이 어떻게 날마다 삽니까? 여러분은 지수화풍으로 뭉쳐져 있고 지수화풍을 먹고 삽니다. 감사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부 각자 지수화풍으로 뭉쳐진 혹성입니다.

그 혹성 속에는 뭣이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바로 생명체가 별성처럼 돌아가고 있습니다. 모습은 그럴지언정 지금 그게 운행을 안 해 준다면 내가 못 사니까 바로 나인 것입니다. 나의 별성인 것입니다. 혹성을 몸체라고 한다면 별성은 살고 있는 그 생명들입니다. 그게 여러분이 미생물에서부터 진화돼서 이날까지 왔다는 증명서입니다, 증명서! 여러분의 몸속에 있는 그 자체를 한번 들여다보시고 한번 바깥을 보십시오. 바깥에 있는 건 전부, 보면 더럽고 무섭고 징그럽고 그렇지만, 그 징그럽고 더럽고 무서운 것들이 전부 나를 운행해 주고 나를 이렇게 움죽거리게 해 주고 건강하게 해 주고 또는 파워를 일으켜서 나를 못 살게 만들기도 하고 죽게 하기도 하고 이럽니다.

내가 이렇게 두서없게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도 두서없이 들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 말마따나 '바담 풍' 하더라도 '바람 풍' 하라고 제자들더러 가르쳤듯이 말입니다. 두서없이 말을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두서없이 들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바로 생활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한테 가장 가깝고, 바로 여러분이기 때문이고 여러분이 지금 행하면서 살림을 하고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구가 우리 몸뚱이라면 이 몸뚱이 속에 사는 생명체들처럼 우리도 그 지구 속에 지구를 집을 삼아서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 지금 어떻게 붙어서 살고 있을까요? 작든 크든 모두 생긴 것도 다르지만 차원들도 달라서 이 세상에는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고…, 그 자기 그릇대로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릇들을 보십시오. 종지가 있는가 하면 접시도 사발도 있어서 그렇게 여러 층으로 돼 있듯이, 사람들의 차원도 그렇죠. 도랑물이 있으면 바다가 있고 연못이 있어서, 그걸 썩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조성돼야만이 썩히지 않고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도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항상 불법을 가르치면서 바깥으로 찾지

☞30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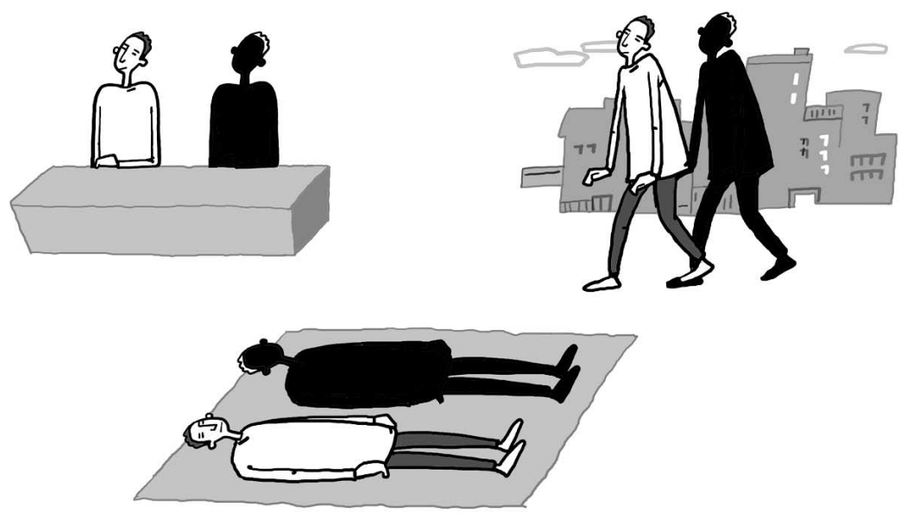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여러분의 능력은 여러분이 키우는 것이고 행할 수 있는 그 능력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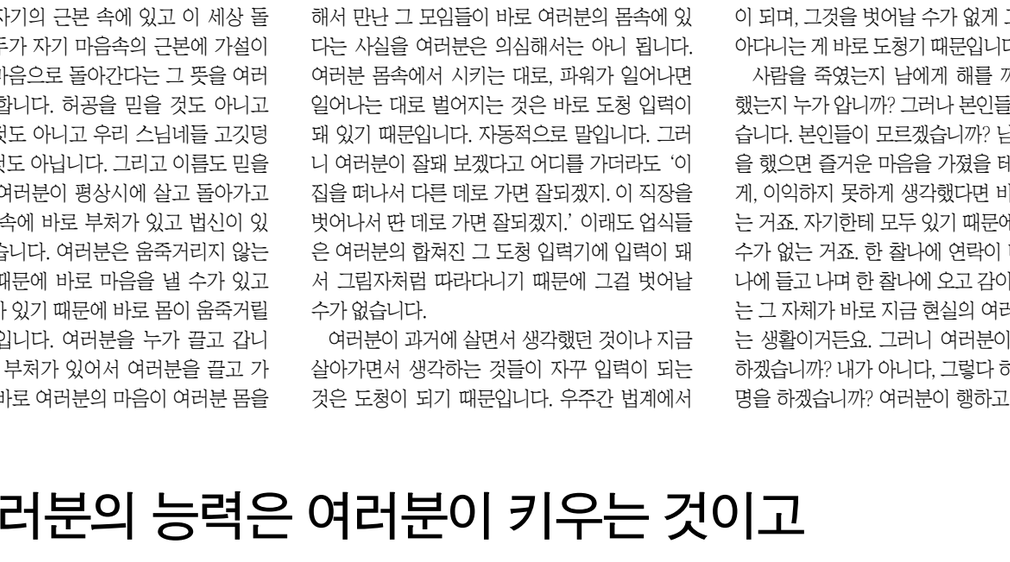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자기가 조금 밑지더라도 둘로 보지 말고 행해야

☞29면에서 계속

말라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도 역대 조사들도 "만약에 너희가 바깥으로 만날 칠성 독성 산신을 찾고 돌아간다면 그것은 마구니의 소굴이요, 바로 마구니가 말하는 것이니 마귀에 빠지느니라." 그랬습니다. "둘로 보는 말을 한다면 그것은 법이 아니라 말로 한데 떨어져서 마구니로 이끌어 가는 길이니라. 너희가 아무리 정성이 지극하고 아무리 이론으로다가 무불통지해서 설법을 잘한다 하더라도 둘로 본다면 그것은 마구니의 소굴이다. 그리고 공덕이 없다." 하셨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아무리 사량으로 말을 해도 실천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더불어 같이 말을 할 때는 입력이 돼서 에너지가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면서 서로 주고받는 그런 이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나무와 우리가 서로서로 주고받으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밤에 주는 게 있고 낮에 받는 게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산화탄소나 산소를 자발적으로 만들어서 서로 주고받고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고거 한 마디만 해도 모든 것을 증명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내 마음속에 주인을 두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 에너지와 혼은 다 뺏기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몸속에 큰 자석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다면 바깥에 있는 쇳덩어리라고 하는 쇳덩어리는 다 여러분 자석에 붙어 들어오지마는 여러분의 자석이 작다면 그 조그마한 내 자석 하나 있는 것마저도 다 딴 데로 가서 붙어 버려요. 원리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내 주인이 없기 때문에 자꾸 에너지와 모든 혼을 뺏기니 빈집에서 무슨 되는 노릇이 있겠습니까?

유전성 영계성 세균성 업보성, 이 모든 것이 아귀들같이 다가오는 겁니다. 와도 주인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커버를 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실천을 하고 실천하는 데서 체험을 하고, 체험을 하는 데서 실험을 하고, 실험하는 데서 자유스럽게 살 수 있는 그런 체험을 하면서 생활을 해 나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남한테 기대는 마음, 남을 믿어서 보증이나 서 주는 마음, 남을 믿어서 속기나 하고 망하고 구덩이에 빠지고 또 속고 속이고 이러는 마음들을 가지고서 항상 살아나가니 여러분이 어떻게 제대로 살아나갈 수 있겠습니까? 집이 비었으니 말입니다.

또 내가 새삼스럽게 이런 말 하는 건 아닙니다만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미생물의 모든 의식들은 좋고 나쁘고를 모릅니다. 여러분 마음이 '내가 저거 죽여야겠다' 고 마음을 먹어도 그대로 따라 주고,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는 선한 마음을 먹어도 그대로 따라 주기만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해가 안 가십니까?

▲대중 가운데서: 이해 갑니다.

▲스님: 네. 지금 속에 있는 것뿐만 아닙니다. 저런 벌레들도 좋고 나쁜 것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 막 잡아먹고 잡아먹히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몸을 잡아먹고 잡아먹히지는 않아도 정신을 잡아먹히고 잡아먹고 뺏기고 그럽니다. 잘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생각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지배인의 자격을 가졌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라는 거죠. 인간은 좋고 나쁘고 하는 걸 잘 알고 있으니까요. 좋고 나쁘고를 알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이 생각을 해서, 모르는 모든 중생들을 일깨워 주는 것이 바로 하화중생입니다. '상구보리 하화중생' 이라는 이 자체를 먼저 알아야죠. 마음 씀씀이에 의해서 여러분의 몸뚱이 속의 생명들을 이끌어 가지고 갈 수 있는 여러분의 다스리는 마음이, 좋고 나쁜 거를 아는 마음이, 나라는 아집과 착, 이런 거를 다 놓고 그것을 다스려 나가는 그 마음이 바로 중생을 전부 천백억화신으로 만드는 겁니다.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모든 것을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그 한마음이 바로 부처!

그 힘이 길러지면 어떻게 되느냐? 삼십이응신으로서 모든 중생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악이 와서 '날 좀 살려 주시오' 하면 둘이 아니게 한마음을 내서 바로 건져 주고 내가 돼 주는 겁니다.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모든 것을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그 한마음이 바로 부처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는, 이 세상에 모두가 나 아닌 게 없고 내 도량 아닌 게 없고 내 자리 아닌 게 없고 내 마음 아닌 게 없습니다. 바로 끝간 데 없는 진리입니다. 기어 다니는 조그마한 벌레가 땅을 딛고 있는 그 발도 내 발이기에 바로 평발이니라 하셨습니다. 부처님의 발이 뭉뚝하게 잘라져서 평발이 아니라, 벌레 발 하나도 내 발 아닌 게 없기 때문에 바로 평발이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은 그 뜻을 잘 아셔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꽃 한 송이를 들자 가섭이 웃고 한 마음이 돼 버렸습니다. 꽃 한 송이 들 때와 가섭이 웃을 때는 둘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두가 둘이 아닌 한마음이라고 가르쳐 주셨고 나아가서는 그 꽃을 들고선 대중 속으로 들어가셨으니 모두가 한자리요, 한몸이라는 뜻을 일러 주셨습니다. 말없이 일러 줬다고 해서 무시하면 아니 되죠. 그 뜻이 중요하고 실천이 중요한 거지 말이 중요하고 이론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불교를 믿을 때 올바로 알고 믿으셔야 합니다. 이 세상이 다 없어진다 하더라도, 저 풀 한 포기만 남아도, 아니 흙만 있어도 불교는 있는 겁니다. 우린 그 네 가지로 빚어진 몸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 보셨어요? 물에 가면 물이 참 좋고 산천초목을 보면 그렇게도 좋습니다. 여러분, 싫어하시지 않죠? 그렇게 신선하고 좋죠! 여러분의 고향이니까 그렇습니다. 억만 년을, 수억겁을 거쳐 왔다 하더라도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산천초목에서 뛰어놀았기 때문입니다. 우린 지금 들에서 뛰어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너지의 정신, 혼, 이런 걸 뺏기고 뺏으면서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뺏기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몸뚱이 속에 식구들을, 악업 선업의 인연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것들을 다 보살로 화하게 만들 수 있는 건 여러분의 다스리는 마음, 한마음입니다. 아집이라는 마음, 착이라는 마음 그걸 다 다스리면서 겸손하고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운 말, 부드러운 행동, 남을 이익하게 하는 마음으로써, 자기가 조금 밑지더라도 둘로 보지 말고 그렇게 행해야 합니다. 아무리 나쁜 사람이다 할지라도 고정되게 나쁜 사람으로만 있는 게 아니고, 좋은 사람도 고정되게 좋은 사람으로만 있는 게 아니니까 말입니다. 그러니 모두가 모를 때의 내 모습으로 생각하세요. 어린 사람은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내 형제로 생각하고, 그렇게 내 자식 내 부모로 생각하십시오.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해골 무더기에다 큰절을 했죠. 그러니까 "사생자부인 어버이신데 어찌 하찮은 해골에다가 큰절을 하십니까?" 하고 제자들이 물으니까 "얘야! 수억겁을 거쳐 오면서 우리는 차원에 따라서 끼리끼리 만났다가 헤어지고, 헤어지면 또 저기 가서 구름처럼 모였다가 또 헤어지고, 또 헤어지고 또 만나고,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수억겁을 거쳐 나왔어. 그러니 저 해골이 우리 할머니일 수도 있고 아버지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절을 안 하겠느냐." 하니 "미처 거기까지 몰랐습니다." 하고 통곡을 하며 울었답니다.

우리가 지금 네 부모 내 부모가 없고, 네 자식 내 자식이 없고, 네 형제 내 형제가 없는 까닭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은 짚단 모이듯 한 식구가 인연 따라서 그룻대로 모였다가 또 사대로 흩어지면 원점으로 돌아가고, 또 차원대로 끼리끼리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 부모만 내 부모겠습니까? 만약에 저리로 돌아가서 또 내 부모가 됐다면 어떡하렵니까? 그렇게 수없이 거듭거듭 돌아가면서 거쳐 나왔으니 내 부모 아닌 게 어디 있고 내 자식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라! 준다고 해서 남을 주는 게 아니니라. 바로 너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부모이기 때문에, 내 형제이기 때문에 없으면 서로 나누어 쓰는 것이니라. 그래서 나누어 쓰는, 공산주의라는 그 자체가 바로 절에서 나온 거죠. 그런데 오히려 말만 공산주의지 행동은 독재요, 사회주의요, 마음을 평등하게 쓰면서 그냥 사는 사람보다도 더 기가 막힌 일들이 많죠.

(다음 호에 이어서)

※위 법문은 1991년 8월 11일 국내지원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나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림 · 최주현

시멘트 법당

스님! 내년에 지으실 법당 건축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합니다.

본 건축자재는 법당 평수에 따라 수공 제작됨으로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성형제작과정



■포작성형양생과정



■부연성형양생과장



■포작설치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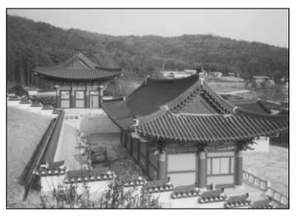
■서가래양생과정



설계에서 시공까지

스님의 평수 주문에 따라
서가래에서 포작까지
일체 제작판매

시공된사찰









특징 저렴합니다/간편합니다/섬세합니다/우아합니다

사업안내 · 콘트리트 법당 · 목조사찰건축 · 요사채 · 콘크리트 성형조각판매

한국불교건축공예 (고건축사업부)

■본사 및 전시장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486-4대웅빌딩 2층
서울대표전화 : 02-494-4890~1
상 담 직 통 : 011-9228-6814
영남(대구) : 053-983-0357
상 담 전 화 : 011-9582-4689

화상(火傷)에서 얻은 지혜 (상)

조대근 (부산 수영구 광안4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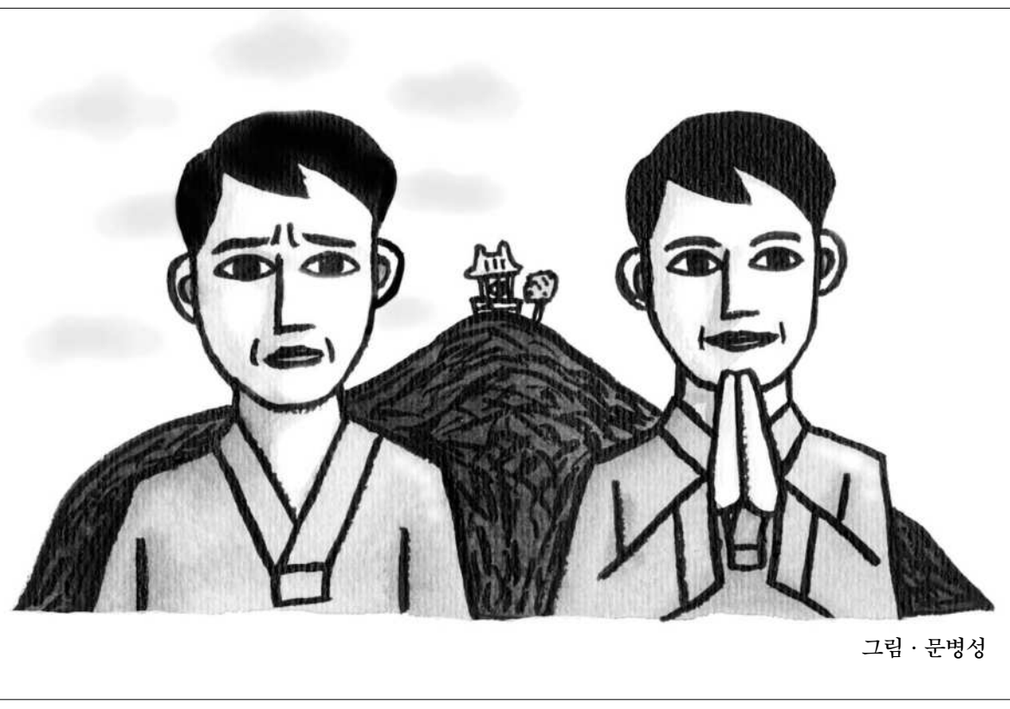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것을 배운다. 이웃집 아이의 울음소리에서, 조용히 내리는 이슬비를 보면서, 등돌린 친구의 매정함에서….

듣고 보는 것 모두가 공부다. 느끼고 생각하면 모두가 스승이다. 공부라고 생각하면 공부 아닌 것이 없다. 하지만 우리는 늘 쉽게 지나친다. 이것을 깨달은 것은 40대 중반이 돼서였다. 긴 시간을 돌아왔는지도 모르겠지만 지금이라도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은 정말 다행이다.

2005년 7월 21일. 한의원을 개원한 지 10년이 되는 날이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으니, 개인적으로도 의미가 작지 않은 일이었다. 10년 간 한의사로서 환자들을 어떻게 돌봐왔는지, 그런 가운데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해왔다고 생각하는 수행은 또 어땠는지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했다.

지금 다니고 있는 부산 새말귀선원에서 열흘 뒤 열리는 3박4일 용맹정진에 참가할 계획도 세웠다.

그날 오전 10시경 나는 탕전실에 가서 가스 불 위에서 끓고있는 한약 옹기들을 살펴보고 있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연구와 여러 번의 시행착오 끝에 한약을 달이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황토 옹기에 약을 삼베에 넣지 않고 그대로 달이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결론을 내리고 한약을 달이고 있었다.

그런데 옹기 하나가 가스레인지의 삼발이 위에서 한쪽으로 조금 치우쳐 놓여 있어 옹기를 살짝 들어서 정확한 위치로 옮겨 놓으려고 힘을 주는 찰나, "퍽!" 하고 옹기가 깨지면서 끓고 있던 한약 액이 무릎 위쪽에서 발까지 흘러내렸다.

"아악!" 저절로 비명이 나왔다. 한의원에서는 항상 한복을 입고 있었는데 바로 한복 바지를 벗고 화장실로 가서 수돗물을 틀고 "김 선생!" 하고 다급하게 직원을 불렀다. 양동이를 가져오게 하고 호스를 수도에 연결시켜서 물을 화상부위에 뿌렸다. 그래도 열기가 내리지 않아 양동이에 물을 받은 다음 다리 전체를 담가보았다.

그리고 침을 가져오게 해서 가장 붉은 부위에 침을 놓기도 하였다. 다급한 순간이었지만 스스로 생각해도 침착했다. 오히려 한의원 직원이 긴장을 해서 어쩔 줄을 몰라 했다.

화상 부위의 열기는 식을 줄을 모르고 계속 화끈거리면서 더 심하게 번져 올라왔다. 참아보려고 했지만 참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

한약 달이던 옹기 깨지며 다리에 화상
큰 부상에도 수행의 힘으로 침착히 대처
입원 치료 동안 용맹정진 생각만 간절

"김 선생, 119 불러요! 안되겠어. 응급실로 가야 되겠다." 119 구급차가 오면 가기 쉽게 대기실 소파로 가서 앉아 있기로 했다. 다행히 슬리퍼를 신고 있어서 발바닥에는 끓는 한약 액이 스며들지 않았다.

천천히 걸어서 대기실로 가서는 다시 침을 화상부위의 가장 심한 곳에 자침했다. 그 동안 여러 가지 매스컴과 논문 그리고 지인을 통해서 화상에 침을 놓으면 흉터 없이 잘 낫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렇지만 한 번도 화상치료를 해본 적은 없었다.

119 구급차가 와서 119 대원들이 가져온 소독 액으로 소독도 하고 화상거즈를 바르는 등 응급처치를 받고서 들것에 실려 구급차에 올랐다. 가는 도중에 통증이 시작됐다. 참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통증이 심해지고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아아!" 하는 신음소리가 절로 나왔다.

가장 가까운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니 침대에 누워서 거즈로 생리식염수를 묻혀서 열기를 식히고 수액주사를 맞았다.

그 사이에 몸이 덜덜 떨리고 한기가 엄습하기 시작하였다. 응급실 담당 의사는 하반신 '무릎 약간 위부터 발까지 전신의 10%, 2도 화상' 이라고 진단했다.

가족들에게 연락해 오기를 기다리는 사이, 약 기운이 들어가서인지 조금 있다가 오한은 진정되기 시작했고 화상부위의 화끈거리는 통증도 진정되기 시작하였다.

화상전문 병원으로 옮길 것인지 그냥 처음 온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을 것인지, 아니면 내 스스로 치료할 것인지 판단을 해야 하는데, 화상부위가 너무 넓어서 일단은 하루 입원해보기로 하였다.

입원을 결정하고 그날 하루는 약에 의존해서 편안하게 쉬었다. 병상에 누워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동안 꾸준히 해왔던 화두참구를 하거나 수식관을 하였다. 숨을 코로 들이마신 다음 화상부위로 호흡을 내쉰다는 생각으로 집중해서 호흡을 하였다. 그 순간 화상을 입었을 당시 그렇게 침착할 수 있었던 힘이 바로 그동안의 수행에서 나왔음을 깨닫게 됐다. 그러면서 환희심이 느껴졌다.

한의원 개원 2년 전부터 새말귀선원을 다녔으니 벌써 선원에 다닌 지도 12년이나 됐다. 그 동안 금요설법, 토요철야정진, 매년 여름겨울 3박4일 철야용맹정진 등을 통해서 수행이랍시고 했던 것들이 많은 도움이 된 것이다. 따로 호흡 수련을 한 것은 아니지만 화두참구를 하면서 호흡은 저절로 따라왔던 것 같다.

수행의 최종목적이 생사문제의 해결이라고 하신 새말귀선원 선원장 춘당 이황우 선생님 말씀이 떠올랐다.

어떻게 보면 화상 같은 일을 당해서는 그럭저럭 판단을 해서 해결을 나름대로 할 수 있지만 생사가 걸린 그러한 일을 당할 때도 담담하게 대처하면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지금 기분이라면 못할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마음이 편안했다.

어쨌든 오랜만에 쉬면서 마냥 누워 환자 노릇 하자니 휴식을 취하는 듯 호텔에 와 있는 듯하였다. 앞으로 스스로 고통과 직면해야 하는 폭풍전야 같은 날이었다고나 할까? 연락이 닿았는지 선생님께서도 와주셨고 도반들과 동료 한의사들도 문병을 와 주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치료에 들어가는데 과연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을 내주었다. 그런 상황에서도 나는 열흘밖에 남지 않은 용맹정진에 참석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다.

사실 용맹정진(勇猛精進)은 나에게는 '마약' 과도 같은 행사다. 예전에는 마음이 불편하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심리의 기복이 들쭉날쭉 했었는데, 금요설법과 토요철야정진을 하고 나니 월요일까지는 편안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화요일부터는 마음이 다시 산란해지고 괴로움이나 즐거움에 파묻히기 시작해 수요일까지 이틀간은 정진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간다. 그러다가 목요일쯤 되면 '내일 금요설법 가야지' 하는 생각에 조금씩 평정을 되찾고 금요일과 토요일 다시 설법을 듣고 철야정진을 하고 나서는 월요일까지 다시 평온한 상태를 유지한다. 이런 흐름이 몇 년이 지나면서 이제는 화요일과 수요일의 산란한 마음은 잦아들어 거의 평상심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계속)

신행수기 일년내내 받습니다

일상의 생활에서 또는 신행의 현장에서 자신의 가슴에 차곡차곡 담아두었던 체험을 수기로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십시오. 귀중한 신행체험 수기는 많은 불자들의 신행생활에 좋은 지표가 될 것입니다.

- 주제: 일상속의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삶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장 안팎(A4용지 4장)
- 접수처: (110-030)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2004-8241
- 인터넷 접수: bypark@buddhapia.com

김문기 박사의

통증킬러 수정기공요법

의학의 본고장 독일인들을 경악시킨 차세대 치료법. 진통제, 물리치료, 주사, 침, 한약, 비방, 교정법이 모두 필요가 없는 환상적인 기공요법 (S.T.T)

수정기공요법을 알면 귀하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특징
1. 기공수련도 없고, 배움이 어렵지 않습니다.
2. 힘이 들지 않습니다.
3.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4. 경비가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5. 즉석에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6. 기구나 재료가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7. 사술이 아닌 서양의학과 동양기공의 만남으로 환상적인 자연 그대로를 연출하는 요법.

시술대상
두통, 경항통, 구안와사, 안검하수, 목 디스크, 오십견(부위별), 테니스엘보, 늑간신경통, 복통, 요통(부위별), 꼬리뼈교정, 요두증, 사경증, 치아교정, 유방교정, 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 생리통, 퇴행성관절염, 족관절염, 족저통, 발가락변형, 중풍, 뇌성마비후유증, 전신장애 등등 수술을 제외한 전신의 모든 통증과 신경장애에 탁월한 효과 입증.

비엔나 종합병원에서 임상결과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는 인증서 획득

- 교재주문 : 수정기공크리닉 (일금 30,000원)
- 온라인 번호 : 농협 162-02-025918 (예금주 : 김문기)
- 속성강의 접수 : 1개월 과정 (매월 첫째 주 시작 단 4일에 모든 과정을 필함, 선착순 8명)
- 참 고 : 홈페이지 SOOJUNG99.PE.KR 또는 수정기공크리닉.COM
- 장 소 : 수원 성대전철역 앞 전화 031)293-0806. 296-7806

탈종공고

- 승적번호 : 5947
- 법 명 : 해월(최기섭)
- 주 소 : 전남 목포시 유달동 산 1번지

상기인은 귀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을 공고합니다.

2006년 7월 28일

대한불교법화종 총무원장 법하

탈종공고

- 사찰명 : 보성정사
- 법 명 : 도천(이병근)
- 주 소 : 경주시 강동면 오금 1리 491

본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을 공고하는 바입니다.

대한불교법화종 총무원장 법하

고품격의 3000배를 기쁨으로 시작합니다

부산 3000배 용맹정진

- 500만 배 성만하며 체득한 절수행 비법 노하우 모두를 완전 공개 하며 청견스님과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죽비소리에 맞춰 일사 분란하게 절 진행
- 매 타임 마다 누구나 꼭 알아야하는 절수행에 관한 환희심나는 소참법문이 이어집니다
- 삼천배 수행전에 호흡에 맞춰 절하는 법 교육을 통해 누구나 완벽한 호흡처리를 하게 됩니다
- 허리 무릎 아픔이 저절로 없어지고 머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진 최상의 컨디션으로 갈수록 생생해짐을 누구나 100% 체험하게 됩니다

♣ 일시 : 2006년 9월 9일 (매월 둘째주 토요일 10/14, 11/11, 12/9)
♣ 시간 : 저녁 7시 ~ 9시 절하는법 교육
저녁 9시 ~ 일요일 아침 7시까지
♣ 준비물 : 기도포(큰수건), 수건2매, 두꺼운 면양말 2컬레, 면티 2장 이상, 법복바지 2벌등

법왕정사 부산 금정법당

문의전화 051)583-7886
청견스님 011-9088-9449
오시는길: 지하철 1호선 두실역 7번출구 나오는방향 150m 남산자동차정비뒤 경우빌딩 4층

우주 에너지로 건강을 지킨다! www.chgg.co.kr

氣주입법

이재복 지음 2권 값 16,000원

우주에너지에 파동을 맞추면 누구나 氣를 방사할 수 있다. 생명에너지의 레벨을 높이면 몸이 더워지고 손에서는 전류처럼 자장이 흐르고 오라(Aura)가 증폭된다.

척추디스크 자연치유법

가정에서 골반보정운동으로 골반, 척추 바로 잡는다.

고혈압, 동맥경화, 심장질환, 혈전등 혈관계통질환 치료율 98.8% (호주,북한보고서)

MBC-TV (통일전망대 방영) 2005년 11월 22일



북한의 조선중앙 TV는 2005년 11월 14일자로 「반지와 팔찌만 차면 기적처럼 혈액이 정화되는 휴대용 혈액정화기」를 과학영화로 소개했다.
혈관계통 질병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와 햇빛을 쪼여주면 사향보다도 효과가 더 좋다는 내용이다.

책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책 받으실때 택배비 3,000원 부담하시면 책2권(정가 16,000원)을 보내드립니다.

도서출판 건강한세상 ☎1544-2181

깨달음의 빛에 물들고 싶어

산으로 간 사람들의 봄·여름·가을·겨울

비워야 한다. 버려야 한다. 이제껏 살아오면서 나를 지탱해온 것이라 여겨지던 모든 생각과 기준과 신념. 그러한 것들이 나를 먹여 살렸다는 이제까지의 믿음과는 달리, 그러한 것들이 참나를 가리고 있었다. 비우고 버리면 더 충만해지는데 그걸 못 버리다니. 아니, 버릴 것도 없다. 얻고자 할 것도 없다. 이대로가 그토록 찾던 나임을 알면 될 것 같다. 이 자각이 좀더 깊어지면 무언가 만나게 될까. 본래의 나에 눈뜨고 싶다. 최초의 나를 만나고 싶다. — 본문 중에서

정과 스님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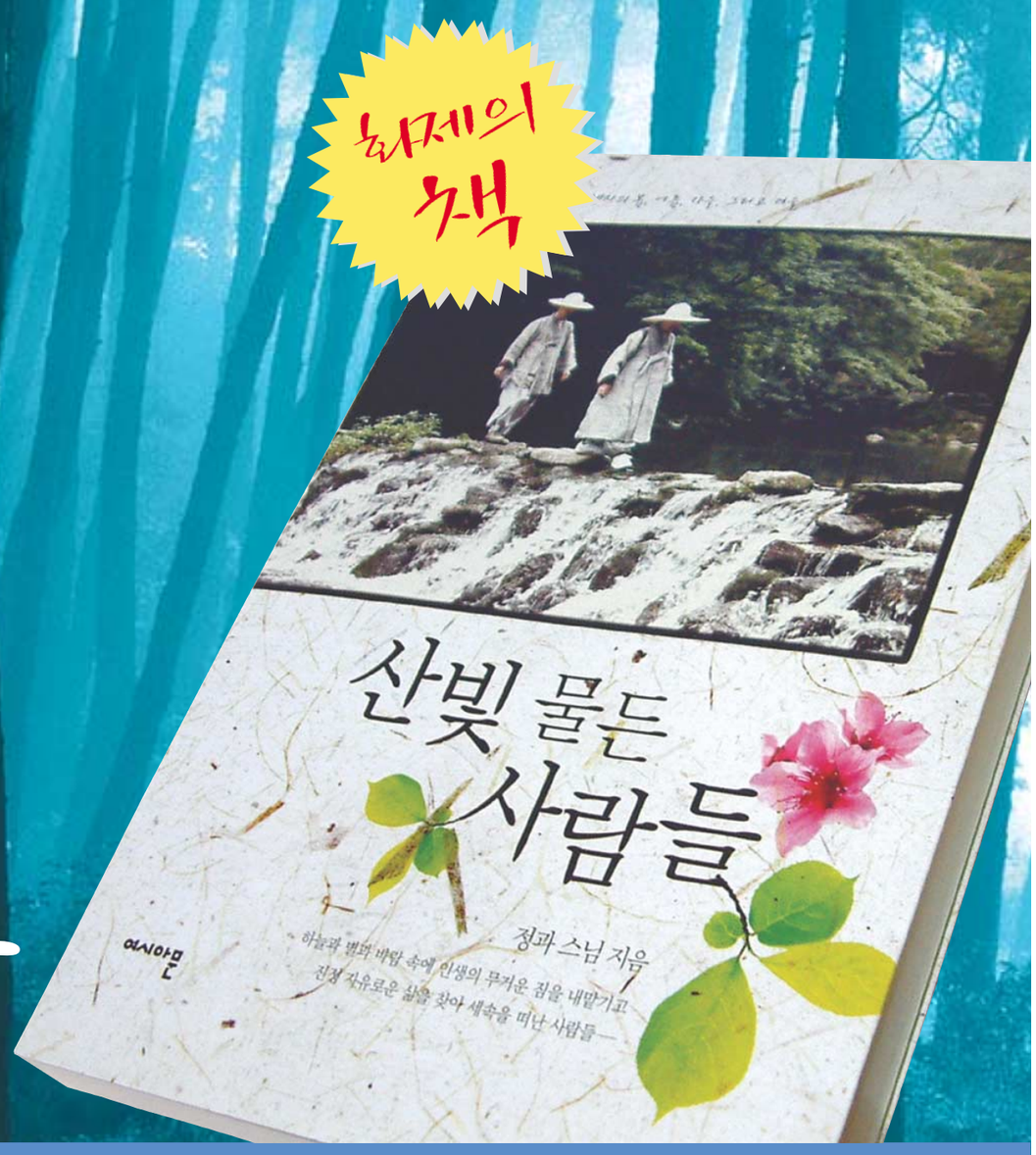
산빛 물든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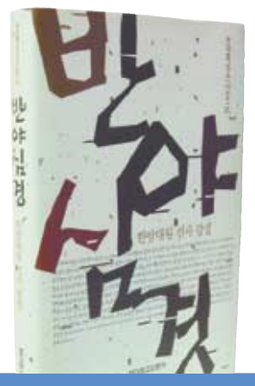
▶ 신국판 / 302쪽 / 값 10,000원
전국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책방 여시아문 :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연수원) 연수동 101호
Tel: 02)737-0695(영업부), 02)2004-8225(출판부), Fax: 02)737-0696

여시아문

화제의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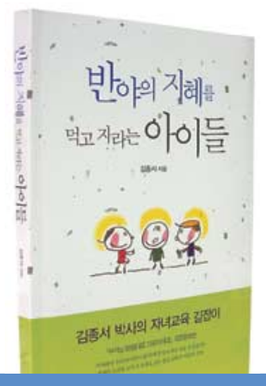


학림사 오등선원 대원스님의 명강설

반야심경

팔만사천 법문의 골수이자 핵인 반야심경, 참선의 생활화 대중화를 위해 감로의 문을 활짝 열어 온 한암대원 선사의 활달자재한 강설이, 어느 페이지를 펼치더라도 곧바로 진리의 법 한가운데로 뛰쳐들도록 촉구한다.

한암대원 선사 강설 / 현대불교신문사 엮음 / 신국판 / 440쪽 / 값 15,000원



● ● ● 김종서 박사의 자녀교육 길잡이 ● ● ●

반야의 지혜를 먹고 자라는 아이들

어찌해야 우리 아이들의 삶 속에 불성의 꽃을 피울 수 있을까?
불교계의 원로 교육학자가 제시하는 불자의 길, 부모의 길, 스승의 길—

김종서 지음 / 신국판 / 232쪽 / 값 9,000원



서울대 출신 지허 스님의 선방 이야기

선방일기

『선방일기』는 1973년 봄 『신동아』의 논픽션 공모에 당선된 작품으로 '지허知虛' 라는 서울대 출신 스님의 선방에서의 일과가 솔직담백하게 담겨 있다.

지허 스님 지음 / 46판 / 136쪽 / 값 5,000원



힘들 때마다 당신의 삶을 받쳐 줄

작대기

동서고금의 성현들이나 이름 없이 살다간 많은 사람들이 작대기처럼 짚다가 남겨놓고 간 인생의 '깊은 맛'을 속삭이는 이야기들, 68편이 담아져 있다.

글 · 장용철 / 그림 · 고암 정병례 / 46판 / 164쪽 / 값 9,000원



★ ★ 당신을 위한 대행 큰스님의 법문집 ★ ★

삶은 苦가 아니다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에게 부여된 능력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인지, 어떻게 불법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지 등을 쉽고 명쾌하게 보여준다.

대행 스님 법어 / 혜원 스님 엮음 / 신국판 / 396쪽 / 값 9,000원



중국 불교를 일으켜 세운 허운화상의 스테디셀러

참선요지 參禪要旨

참선 수행 과정에서 보편적으로 부딪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초심자들도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한 참선수행의 바른 길라잡이.

허운 화상 법어 / 대성 스님 엮음 / 280쪽 / 값 5,500원